

변신 (GM): dma

음

로그가 클린해졌으니

세션시작전 트레일러 개시!



쿠사카 마리: 아아

변시널 트레일러 타임-

GX-00시의 인근 해상, 메탈블러드의 개업 15주년 간부및 지인을 초청하는 파티가 열렸다.

파티장소는 여객선 다이달로스, 마셔라 먹어라. 그동안 고생했다며 서로 지인과 편하게 웃고 떠들자는 그때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

배안에 정체불명의 존재가 숨어들어온다.

그의 정체는, 그리고 그가 불러올 파란은...

모든 것은 한남자의 과거의 인연이 불러온 역풍. 과연 파티는 무사할것인가. 그에게는 무슨 위기가 오는 것인가.

그리고 놈의 목적은.....

제 4세션 - [다이달로스 랑데뷰]

이것은 잊어버린 인연이 암습을 히어로들이 대처하는 이야기다.



변신 (GM): 짬, 트레일러 종료



타케루 타츠야: 노페이스를
죽일것이다



타미스케 진: ㅎ



키도 리히토: 전투 들어가면 더월드 배빵맞은 카쿄인이 되는데
전투 외가 쿠소라는 노페이스 씨가 아닌가



타케루 타츠야: 먹어라 노 페이스!!! 반경 2m의 칼질을!!!



변신 (GM): ㅋㅋㅋㅋ



타미스케 진: 힘내라 스마페



키도 리히토: 힘내라 스마페
내가 할 말은 아닌데



타미스케 진: ㅎ



변신 (GM): 뭐, 핸드아웃은 모두 알리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있다면 슬슬 시작해요



키도 리히토: (날뛰는 고글의 포즈

타케루 타츠야: 역시 여객선인가



나도 동행하지(카쿄인 포즈)



키도 리히토: 여객선...
호화여객선의 기적...
음 머리가



타케루 타츠야: 다곤님 대신 귀여운 이빌잔바의 칼맛을 드리겠습니다
끼요윳



변신 (GM): 다른 둘의 영압이 안느껴진다



타미스케 진: 난 있다
언제나 말이지



타케루 타츠야: 후
설마 오후 1시 접속조차
따라잡지 못한다고는



타미스케 진: 왜냐면
저번에 오전으로 당해서
난 오전에 접속했기 때문이다
@10시 접속



쿠사카 마리: 이 못ㅇㄴ



변신 (GM): 그러고보니
먹어라 경험점 플랏슈!



타미스케 진: 아아!



변신 (GM): @1점 투척



타미스케 진: @받아감



키도 리히토: 존시나 무섭다



변신 (GM): 일단 GM은 무서운 거시예요 하와와
여튼 다 있는것 같고
리버티님은 PC의 쟁취전쟁인지 심부름인지 모르겠으니
그냥 시작한다!

-- 제 4세션 [다이달로스 랑데뷰] 개시!! --



변신 (GM): 그럼 일단
오프닝 겸 전일담의 시간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요컨데—
오프닝이다



타미스케 진: 아아

쿠사카 마리: 와아

	변신 (GM): 아, 그러고보니 너클 데이터 다음주에 줘요 @짱긋 @무마하려는 몸짓
	키도 리히토: 와ㅏ아
	변신 (GM): 미안하니 미리 컨셉이라도 공개한다. @리버티님은 티켓을 사용했고
	쿠사카 마리: 효
	변신 (GM): 일단 밸런스를 위해서 상세 수치는 조절해야하는데
	쿠사카 마리: 너클이 아니라 킥이었을텐데
	키도 리히토: 티켓은 세션 끝나고 호이호잉ㄹ것이다
	변신 (GM): 명칭은 그렇다!
	키도 리히토: (잊어먹음
	변신 (GM): @킥이 맞다
	타미스케 진: 하하
	변신 (GM): 여튼 옵션은 HP를 깎고 크리치-1(상한 10)에 딜 소량 상승을 해줍니다. 무기 속성은 <염>입니다 @두두둠칩
	타케루 타츠야: 자신을 태우는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불꽃이군 그래서 전일담 뭐할지 정한사람은 있어 ?
	키도 리히토: (버-엉)
	쿠사카 마리: 마리에게 크리치 감소는
	타미스케 진: ㅋ
	쿠사카 마리: 그다지 매력적인건 아닌데
	변신 (GM): 그럼 빼고 딜만 올려드릴까요?
	쿠사카 마리: 난 생각했다!
	변신 (GM): @두두둠칩
	쿠사카 마리: 딜만 오르는걸로!



타미스케 진: 뭐, 크리치 감소는 대부분 우선적으로 특기로
줘어오니



쿠사카 마리: 하한 10 이면
이미 찍었어



타미스케 진: 매력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쿠사카 마리: (....)



변신 (GM): 오케이, 그럼 딜로 옮깁니다
음, 강한게 나오겠군
@심란
밸런스는 결국
변쿠리가 맞추는 것이다
@스스로를 곱홍주는 GM



변신 (GM): 여튼 전일담 할사람은
말을 부탁해요



쿠사카 마리: 2번째!



키도 리히토: 후, 할 수 없다
첫빠따를 신청하자



변신 (GM): 오케이
그럼 리히토가 1등



타케루 타츠야: 후
아무것도 생각 못했으니
막타받는다



타미스케 진: 그럼 3번째로
PC3이니 마침 잘 됐네.



키도 리히토: PC순서와 전일담순서가 서로 뒤바뀐 기분이 든다
네이놈 노페이스



변신 (GM): 그럼
리히토 전일담 만나고 싶은 대상을 지정 플리즈



키도 리히토: 무난하게 캐롤자네?
무난(무난하다곤 안 했다)



변신 (GM): 그럼 캐롤
원하는 장면은 없지요?



키도 리히토: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가 으아악 강제동원 무엇이라든가
딱히 생각나는 건 없다
결정 어떡하지+오젠 밀밥만 생각한 거라



변신 (GM): 그럼 GM에게 말기는것인가 아닌가



키도 리히토: 말긴데이



변신 (GM): 그럼 쳐들어갑니다.
@상위연구동으로



키도 리히토: 쳐들어감 무엇www

---전일담: 리히토 보기 좋은날~연금술사 보다~---



키도 리히토: 불운이 잘못했다에 예비 본체 건다



변신 (GM): 그럼 리히토
당신은 이전에 레드씨가 아무런지 않게 던져준
주홍색의 보석같은 물건을 들고
상위연구동, 연금술 부분의 문앞에 도달해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된것인가
그것은 생각해보면 전날 지옥훈련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였습니다.



변신 (GM): 레드씨가 그래도 선물이라고 넘긴 이 결정을 어떻게할지 고민하던중에



[표류자] 벨트씨: -그런 물건은 대장장이, 연금술사에게 가야한다. 그것도 실력이 좋은.
그후 홀린듯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고
다른 지인 히어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오퍼레이터D씨와 우연히 만나서 이단문명 기술부라는
뒤송송한 연구소에 도착한뒤



[표류자] 벨트씨: 결정을 보이니 현재입니다.



변신 (GM): 문만 두들기면 될것 같군요



키도 리히토: "....."
막상 앞에 오니 허미 서벌 대체 어쩌다 이리 된 거지 하는 기분이지만
온 이상 그냥 돌아가기도 어떨까 싶기도 하니
우선 심호흡한 다음
똑똑 노크하자구!
@또한 심호흡에서 노크까지 걸린 시간 30초



변신 (GM): 그럼 똑똑 소리가 울려퍼지고
지잉, 자동문이 열리자



[오토 스코러] 게리 투만: "예예, 오늘도 잡상인은 사절! 이상한 놈도 사절! 뜨거운 놈도 사절! 암튼 사절이니까
빨랑빨랑 돌아..영? 그때 남자잖아?"



키도 리히토: " "
@무엇
잡상인과 이상한 놈은 그렇다 쳐도 뜨거운 놈은 뭐야 대체



[오토 스코러] 게리 투만: 그럼 푸른 소녀

이전 콘서트 수호를 위해서 괴인을 상대할때 지원 온 일로 안면이 있던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를 소녀, 게리씨와 만납니다.

"뭐야? 난 무슨 일? 참고로 나는 오늘 문지기 담당이라 초 지루하고 귀찮아. 특히 알지 못하는 놈이랑 이야기
하는거."

"넌 그마나 그 꼬마의 귀에 들어가면 귀찮으니 던져서 내쫓지는 않고있는데 무슨 일이야?"



키도 리히토: 이럴 땐 용건만 빨리 말하는 게 좋다 배웠다

"어...안녕하세요"

"연금술사...씨? 찾아왔는데요"



[오토 스코러] 게리 투만: 여전히 예의라곤 보이지 않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네요.



쿠사카 마리: (뜨거운놈? 오즈



키도 리히토: 결정을 꺼냅니다

잡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오토 스코러] 게리 투만: "흐음....음."



키도 리히토: 살려주세요!!@중요하니 두 번



[오토 스코러] 게리 투만: 그녀는 그럼 결정을 한번 보더니

"잠만 들고있어봐."



키도 리히토: 호엑

뭐가 날아올지 알 수 없으니 일단 들고 있습니다



[오토 스코러] 게리 투만: 그녀는 손가락을 하나 피더니 물로 된 구슬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결정에 가져다댑니다.

치이이익-딱봐도 가볍게 물이 증발합니다.



키도 리히토: " "

@무엇



쿠사카 마리: (뜨겁네?



[오토 스코러] 게리 투만: "흥, 싸구려는 아닌모양이네. 좋아, 특별히 들여보네주지. 게리씨에게 감사하라구."

그럼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에서 비겨줍니다



키도 리히토: "...감사합니다?"

뭔가 의문형이지만 일단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뭐야 여기 무서워...



[표류자] 벨트씨: 그럼 그런 리히토에게 벨트씨가 코멘트

-방금 물의 마력을 조각에 들이댔다. 워낙 담긴 속성이 강해서 튕겨나간 모양이다만.

-고품질의 소재란걸 확인을 과격하게 하는군...잘못하면 돌덩어리가 될텐데.

물론, 돌덩이가 되는건 조각의 이야기겠쥬



키도 리히토: "....뭐에 탄죽걸면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한 걸 만든 아저씨가 문제인가 확인이 과격한 게리씨가 문제인가
일단 황망한 얼굴로 조심조심 들어가요



변신 (GM): 그럼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마법진이나
여러 기계 같지만 기계가 아닌 도구들이 즐비하게 보입니다.
책상에는 난잡하게 그려진 마법진 같아보이는 무늬들과
종이들, 그리고 용도를 모르겠는 실린더들이나 가루들도 보입니다



키도 리히토: "....."
@가웃
음 좋아, 잘 모르겠지만 건들면 었된다는 거지?



변신 (GM): 그걸 지나면 넓은 공간에



[굉음괴인] 메탈엠프러: 부관참시된 익숙한 무언가가 공중에 떠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 "
본 순간 식겁해서 비명지를 뻐했지만 잘 보니 그냥 시체였다
아니 그냥 시체도 이상하지만 일단 심호흡합니다
허미;;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리고 그 옆의 의자가 돌더니
금발의 소녀가 당신을 고까운 눈으로 다리를 꼬고 쳐다봅니다.
"뭐야, 게리가 그냥 보냈을리는 없고 빨랑 소개랑 용건이다."



키도 리히토: "키도 리히토라고 합니다"
"용건은...이거 관련해서입니다"
프레셔에 흠칫했다가 다시 결정을 꺼내들고 용건만 간단히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줘봐."



키도 리히토: 이럴 땐 용건만(생략
줍니다 호이호이.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서
올리라는듯한 태도군요



키도 리히토: 불합리는 회사로 겪었습니다
솔직히 거기보단 아직 안전한 범위...일 리가 없지만 올리자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받고 그녀가 손짓하자 근처의 기계가 움직여
그녀의 얼굴앞에서 멈춘뒤
차라라락, 펼쳐져 여러가지 렌즈를 뿜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몇가지 골라서 껴친 뒤에 보면서 말합니다.
"흐음, 화속성을 우겨넣은 결정석이군. 상당히 좋은 마법사나 연금술사가 재련해도 비싼 물건일텐데."
그녀는 찬찬히 봤다가 다시 기계를 치운다음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리히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바치려고 온건가?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는거냐?"



키도 리히토: (어디다 쓸지 지금도 솔직히 흐름...)



쿠사카 마리: (갑옷에 박아라



키도 리히토: (무엇)

"...으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방어구라든가, 그쪽에 사용할 방법...정도입니다만"

요전에 마츠리빌런한테 원턴 쳐맞은 경력을 생각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좋아, 그럼 갑옷을 내놔봐."



키도 리히토: (.....어떻게 내놓지)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보고 결정해주지. 쓰레기라면 거절한다. 소재가 아까우니까."

그녀는 다리를 꼬운채로 리히토를 봅니다

(변신이라도 하면?)



키도 리히토: (데스요네

"에...잠시"

그러면 그나마 뭔가 정체불명인 연구물이라든가 마법진 달한 데로 물러나서

이미지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y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답답, 귀찮음의 눈빛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분리가 안 되는 슬픈 표정으로 보내드립니다

@빨간색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음...."

그럼 그걸본 캐롤은 잠깐 고민하는듯하다가 번뜩합니다.

"아, 그건가. 정신체가 기생한 일반인. 히어로부서에 하급으로 들어왔단 이야기는 들었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틀린 건 아닌데 표현이 기묘하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한마디로 구상과 에너지관련의 물건인건가 만일 건든다면 이쪽..."

그녀는 일어나서 태연히 리히토의 벨트를 움켜잡니다.



[표류자] 벨트씨: 그리고 스파크-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

@?!



[표류자] 벨트씨: 파지지직-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리히토는 식겁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파앙!

그럼 그 스파크를 튕겨내며 캐롤이 손을 툐니다

"흥, 반항하기는...만일 한다면 벨트자체를 건드는게 맞겠군."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엥?"

@엥?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네녀석. 설마 자기가 사용하는 힘의 매커니즘도 모르고 사용중인거냐?"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알고 있던가)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매우 한심, 답답, 요즘 왜 이런 놈들만...같은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리히토를 봅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빙의 비슷한 거고 목숨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떼면 안 된다는 건 압니다만" (머릿속에서 메타와 작중지식이 서로 정리가 안 된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거가 *네 힘의 핵*인거다."
스파크가 작게 띄는 벨트씨의 말이 나오는 부분을 가르키며 말합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스파크에 조마조마합니다만 그런가 하고 납득
뭉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을 뿐...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여튼 방어력을 어떻게든하려면 벨트 자체에 세공을 해야한다."
"출력을 높이거나 속성을 더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비웃으며 스파크 튀는 벨트를 툭툭 건들면서 캐롤이 말합니다.
"뭐, 이런 상태면 나도 건들 이유가 없다만."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앗하이"
@무리데시타-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어쩔꺼지?"



타미스케 진: (스도라이크 벤토라도 만들어달라고 해!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나도 한가하게 놀자고 너랑 대화를 하는게 아닌데."



타미스케 진: (스도라이크 벤토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폴 불가피)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녀는 결정을 장난감처럼 갖고놀며 말합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에, 그럼... 방어구가 아닌 무기의 경우는?"
안 되면 암전히 돌아가자
리히토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총, 검, 창, 말해라."
"아니면 멋대로 만들어줄까?"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검으로 부탁드립니다"
멋대료가 되면 대참사가 된다



타미스케 진: (소드벤트인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백병담당인 거시다...)



[표류자] 벨트씨: 그럼 벨트씨가 반짝



타미스케 진: (참고로 스트라이크 벤트는 드래곤 클로로
(백병무기입니다@진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소-나노카-)



[표류자] 벨트씨: -... 검을 만든다면 추천하고 싶은 형태가 있다만.



타미스케 진: (맨날 불뽀해서 몰랐겠지만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

고글이 반응해 고글등절



[표류자] 벨트씨: 여튼 벨트씨는

뭔가 생각이 있는것 같기는한데 어찌겠습니까?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추천하고 싶은 형태...?"

벨트씨가 눈을 빛내고 있다

이쿠제 밍나!

들어보자



[표류자] 벨트씨: -내가 전에 쓰던 검의 양식이다.



쿠사카 마리: (벨트씨가 캣테니!



[표류자] 벨트씨: - 내가 쓰던게 네게 알려주기도 좋겠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의 표정



[표류자] 벨트씨: 그럼 어찌나요 리히토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으음"

"무기 쪽은 아무래도 아는 게 없기도 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표류자] 벨트씨: 그럼 벨트씨 보이스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모르는 걸 세부사항까지 들면서 휘말리기 시작하면 휴대전화 강제교체당하는 그런 게 된다



[표류자] 벨트씨: 벨트가 떨리며 나옵니다.

- 그쪽의 속이 검은 연금술사. 양식이라면 있다. 못본 이세계의 것이라도 재현이 가능하겠나?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 "



[표류자] 벨트씨: 하고 붕붕거리면서 말합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아니 잠깐 호칭"

@식겁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호오, 재미있는게 안에 들어있잖나. 지금이라면 개조도 흥쾌히 할수있을 것 같지만...어떤 양식거지?"

그럼 썩소를 지으며 캐롤이 대응합니다



[표류자] 벨트씨: 그럼 리히토 변신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 변신 풀리며 움직인 에너지가 벨트에 모이고 빔프로텍터처럼 검, 마법양식이 허공에 떠오르네요.



키도 리히토: @파앗

@고글등절



[표류자] 벨트씨: 벨트씨의 눈에서 비이이임하고 나오고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이때 리히토는 깨달았다
안된당게, 시동 걸렸어 이거



[표류자] 벨트씨: - *대충이렇다. 이해가 안가면 도움정도는 주지.*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하, 이딴 심플한 검정도는 재현하는데 문제도 없다."
"뭐, 그렇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술식이 몇개있군. 거기 너."
리히토를 고개돌려 봅니다.
"너, 내가 부르면 계속 내쪽에 와라."



키도 리히토: "옴"
"...아, 예"



타미스케 진: (캐롤의 마음에 드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만드는데 필요한 일이니까 거부는 없다."



키도 리히토: " "
@Oh...
(으아악 아니야 콘



변신 (GM): 그럼
리히토는 이렇게 물건의를 하려다가
어쩌다보니 금발 연금술사의 부탁하다가
명령을 따라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일찍 끝내야지 귀찮은게 없으니까."
"협조는 빨리게, 방해없이 하는게 좋을거다."



키도 리히토: "앗하이"
히에에엑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곧 귀찮은 놈이 올테고, 너도 휘말리기는 싫겠지."
그녀는 응이나 yes로 말하라는듯
한 태도로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아, 네"
"...귀찮은?"
귀찮은 놈이라는 키워드에 반응해 고글동절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귀찮은, 살아있는 불운을 조종하는 껍다리."
"거기에 이상하게 특이하면 관심을 끌겠지. 네놈처럼 말이야."
근처의 지팡이 잡아서 리히토를 꺾꺾
"한동안은 본 설계도대로 몸체를 만들테니 방해말고 가라."



키도 리히토: @끄아앙
"실례했습니, 아앗"
그러면 지팡이에 밀려서 올 때와 같이 뭐 안 건드리고 호다닥 퇴장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호다닥 나갑니다



변신 (GM): 일단 부탁은 제대로 한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이야기나 여러가지 신경쓰이는 일이 많군요
....뭐, 솔직히 신경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건



키도 리히토: @굵적



변신 (GM): 리히토의 인생이 증거니



키도 리히토: 나레이션 팩트가 아프다



변신 (GM): 이제 돌아가서 쉬면될까 할때쯤
빠리리릭
하고 연락이 옵니다.



키도 리히토: "...?"
뭔가 굉장히 썩한데, 하면서도 일단 연구동은 나오는 중이고 전화받습니다.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전화기가
울리고



키도 리히토: "여보ㅅ"
" "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전화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누군기 리히토는 본능적으로 체감할겁니다.
"아, 리히토.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다."
그리고 목소리도 확정타네요



키도 리히토: @오 F-word 주여
".....이번엔 뭘 부탁인가요"
"도게자 안건은 확정인데"
@죽은눈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아, 그게 최근 메탈블러드에서 귀빈초대장이 풀렸다고 들어서 샀다."
당당하게 암표구매를 선언합니다.



키도 리히토: "잠깐 기다려, 왜 당당하게 암표구매 선언하고 있어"
"그것보다 그걸 푼 간 큰 작자는 또 누구야?"
어렵פות한 지식으로 그게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다는 건 직감한 리히토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마침 전함소녀중 한종인 의장이 생물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의장."
"짐은 옛날부터 그것의 좋은 사진을 원했다."



키도 리히토: "신고하면 됩니까?"
급정색합니다.
소녀가 아니라 의장 쪽이 중요하다는 건 이 인간 특성상 대충 눈치갔지만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걱정말아라. 짐이 이번에도 돈을 붙여준다. 그리고 이번은 안전하다."



키도 리히토: "네 플래그 수고"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어때 엄청 호조건이지



키도 리히토: "그리고 그 생명수당 후불이잖아 임마"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하고 교섭하는 태도를 합니다

"좋다. 이번은 생명수당이 필요없지만 생명수당을 준다."



키도 리히토: "그걸 바란 게 아니야!"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중요한 건 그쪽의 풍평피해와 이번 안건이 맞물리면 내가 죽는다고요?!"

기자 했고 알고 있겠지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짐은 양보하는거다. 절호의 찬스. 메탈블러드의 경비를 뚫고 사진을 찍을 찬스는 평생에 두번 없다."

그런거 모른다는 태도입니다



키도 리히토: "중대문제로 말하지만 결국 개인 수집욕구지?"

신랄하게 갑니다.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짐은 회사를 생각한다."



키도 리히토: 옆에서 보면 거하게 씹어가고 있습니다.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국어책을 읽는 어투입니다



키도 리히토: "팍 씨"

"....하아"

"좋아, 심한 전개밖에 안 보이지만 만약 내가 거절할 경우는?"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음, 어쩔수없다. 짐이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타미스케 진: (다메장



키도 리히토: "어이 바보 그만뒤"

급정색

이 자식 진짜로 저지를 기세야...!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괴수랑 괴인도 없다. 그리고 짐의 격이 있으니 무리는 없다."



키도 리히토: "아니 물리적으로 사출당한다고"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당연한듯한 태도입니다



키도 리히토: "요전번에 유리창에 달라붙었다 히어로한테 발로 까인 건 잊은겁니까?! 네!?"

@1세션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옹? 짐은 그런 기억이 없는데 더위라도 먹은거냐 리히토?"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타미스케 진: (ww



키도 리히토: "아오 ㅅ...."

슬프게도 리히토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런 안건을 들고 온 이상 여기서 거절하면 거하게 민폐를 저지른다고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여튼 거절하면 짐도 어쩔수없지. 스스로 가도 좋다. 짐의 직찰숨씨를 보여주지."



키도 리히토: "앗아요 제발"

머리를 싸매며 한숨을 내쉽니다.

".....하아"

"일자 언젠니까, 그거?"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오오, 믿었다. 리히토."



키도 리히토: 받을테니 앓아 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승낙표시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그럼 이겨낸 자의 목소리로 설명을 해줍니다.



키도 리히토: "이러니까 구인이 신문에서 사라지질 않았지 망할!"

두통과 함께 설명이나 듣습니다

암쏘카나시



타미스케 진: (돈 많이 주니 관두지도 못하는 신파치
(아니 고글



키도 리히토: (어째서 고친다



변신 (GM): 그럼 신파치, 아니 고글, 아니 리히토는
오늘도 많은 이들이 커다란 불행에 빠질뻔한걸
온몸으로 혼자 감내하며
새롭고 괴로운 일을 받게 됩니다...
(그럼 끊어요



키도 리히토: (웃우



쿠사카 마리: (핫핫

---- 전일담: 리히토 보기 좋은날~하타왕자 네버다이~ 끝 ----



변신 (GM): 전일담 수고!



타미스케 진: 언제나의 고글이었다



변신 (GM): 리히토는 언제나의 리히토



키도 리히토: 슬픈 일이다



쿠사카 마리: 그럼 나다



키도 리히토: 왜 이렇게 되었다(곤혹



변신 (GM): 하타왕자가 의뢰한다고 생각했을때



쿠사카 마리: 쿠로토씨 찾아간다



변신 (GM): 이런 흐름이 되지 못한게 나쁘다
아니 될거라 생각치 못한게 나쁨



키도 리히토: 후, 참을 수 없군
변큐리를 가이벤트해주자



타미스케 진: w



쿠사카 마리: 스틸벤트로 카드압수



키도 리히토: 끼에엑



변신 (GM): 휘헤헹



니트지망: 리히토다인



타미스케 진: 고글벤또



변신 (GM): 그럼 마리는 바로



타케루 타츠야: 마리추



변신 (GM): 쿠로토를 보러가는건데
뭔가 원하는 장면이라도?



쿠사카 마리: 맡겨두지
수제 푸딩 들고 찾아가는 고예요



변신 (GM): 그럼



쿠사카 마리: 그리고 저번에 두고간걸로 빼진 디스도 데려간다



변신 (GM): 마리의 카페에서 만나는 것으로



쿠사카 마리: 의외로군
외출해도 되는겨?



변신 (GM): 이전에도 말했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
사쵸갯이다
그리고 뭇보다 제일 이리보여도 신경받고있어서



쿠사카 마리: 가장 사고를 자주치는건?



변신 (GM): 뭣짓 하려하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탓바
@시키지 않은 일을 더해서 사고침



타미스케 진: ㅎ



변신 (GM): 그럼 스타트?
마리?



쿠사카 마리: 아아

--- 전일담: 쿠사카전선~신의 카페강림~ ---



변신 (GM): 그럼 언제나의 카페

화창한 햇살
좋은 커피콩 볶은 향기
평온하고 좋은 분위기...



쿠사카 마리: 간식으로 어제 남은 커피를 이용해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후, 오랜만의 외출은 좋군."

창가의 햇살이 비춰지는 자리에서
마치 모델처럼 완벽히 우아한 포즈로



쿠사카 마리: 푸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가만히만 있으면 잘생긴 얼굴을 빚내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음....그나저나."

"몸상태에 이상은 *아직* 없는건가?"

쿠로토는 자애로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쿠사카 마리: "....음"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그는 마리의 현 몸상태를 유지해주는 **에볼토 바이러스 중화제**의 개발자.

대뜸 찾아온것도 놀랍지만



쿠사카 마리: "실은 이전에 마력의 색이 *원래의* 색을 띠적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심란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했지만 그는

그말에 빵긋, 잇몸미소를 보이며 말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거짓말은 들리기 마련이거든."



쿠사카 마리: "???"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말했을텐데 마리, 나는 **사기꾼 바이러스**라고 이 중화제를 칭했다고."

그는 손에 마리가 쓰는 중화제를 들어서 보이면서 말합니다.

"몸도 일종의 거대한 전산장치다. 원한다면 나처럼 한치의 차이없는 완전 전뇌체화가 가능할 정도지."

"허나아아! 다른 점이 있다면 몸은 노화, 패턴이 **익숙해지면 우회법**을 찾는다는 거다."

"정(正)의 존재가 아니라 동(動)의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네가 최초로 냉동인간으로 이곳에 조치되어 온건 그놈들에게 최소한의 올바른 판단력이 있었다고 칭찬해주지."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그는 한차례 화려한 말을 쏟아내다가

다시 자리에 착석합니다.

"그래서- 어땠지? **나은게 아니란걸 재차 체감한 소감은?**"



쿠사카 마리: "알고있었지만 조금 우울하네요"

예상하던거라서 완성한 커피푸딩을 쿠로토 앞에 척 내려놓습니다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뭐, 그래도 너는 운이 좋은거다. **다름 아닌 이몸의, 신의 지혜를 혜택을 받고있으니.**"

"아직 사기꾼 바이러스의 패턴은 몇십개 더 존재한다. 아직은 여유가 있겠지."

"그래, 길어야 수년, 짧으면 2~30개월정도."



쿠사카 마리: "예상보다 기네요....?"

"패턴이 점점 복잡해진다면 무리는 아니려나..."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당연히 이몸이 있으니까...그리고 그 버서커가 한동안 밤낮으로 덤벼오니."
후, 끔찍했지.

하고 쿠로토는 푸딩을 수퇘지로 떠먹습니다.



타미스케 진: (분홍 버서커의 힘!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아니, 패턴이 복잡해지는건 그만한 복잡한걸 몸이 처리할 부담을 준다는 거다."
"말했을텐데 몸은 전산장치라고. 무리한 프로그램을 쏘서넣으면 버그로 모든 프로그램이 망가진다."



쿠사카 마리: 푸딩을 떠먹으면

에스프레소의 강렬한 향이 느껴질겁니다

(깔깔



키도 리히토: (히익 버서크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그리고 몇회정도 더 먹은 그는 푸딩그릇을 비우고 일어납니다.



쿠사카 마리: ".....아직 쓰는데 문제는 없고 괜찮으려나"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요컨데 네 목숨은 그 외계인을 찾지 못하면 작은 소동물보다 생명이 짧다는 소리다."

"일단 바이러스의 원종, 혹은 지식이 필요하겠지. 난 네 목적을 응원하고있어."



쿠사카 마리: "1년씩이나 있으니 나올거예요"*

"그 녀석이 심심해질테니까"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빨리 그 더러운 버그 사용자를 잡아서 그 놈이 갖고있는걸 내 앞에서 토해내도록 가능하게 되길."

"그러니 마리, 내가 전력으로 살려줄테니 꼭 목적을 이루길 바라지. 굿럭."

그렇게 말하고 그는 여유롭게 잔돈은 팁이라며 아직 돈이 지불안된 중화제와 커피값을 놓고갑니다.



쿠사카 마리: "그럼 쿠로토씨도 잘가세요~"

인사하면서 휴대용 게임기를 꺼내듭니다

플레이하는 게임은 THE 지구방위군 느낌의

외계인에게서 지구를 지키는 게임



[프로그램] 단 쿠로토 GOD: 그렇게 그럼 잠시 화려한 태풍이 지나간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부아아앙! 끼익!

착, 뽁뽁.

하고 이른 아침

점심이 되기엔 좀 시간이 남았을텐데

당신의 누이인 쿠사카 레이나가 카페에 도착합니다

델타씨도 없이 말이죠



쿠사카 마리: "어라? 언니?"

게임하면서 시선을 살짝 위로 올려서 눈을 마주치죠

익숙한 스테이지고 댄데보면서도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니까요!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마리! 큰일이야 긴급 가족회의!!

"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매우 진중한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쿠사카 마리: "긴급 가족회의라니, 무슨일이야?"

마지막 긴급 회의는 언제였는지를 떠올립니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리고 눈빛과 손짓만으로

알바생을 내쫓습니다

(딱씨

그리고 긴급가족회의는



쿠사카 마리: 퇴근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주죠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마리가 큰일났었을때 중화제가 생기기전

에볼토 바이러스 심화후에

어떻게 가족으로서 대하는가

의 이야기를 그녀와 나눴던 수개월전의 이야기뿐이군요

한마디로

가족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의 이야기입니다.



쿠사카 마리: "....."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런데 눈앞의 언니는 멀쩡



쿠사카 마리: 마리도 이렇게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자신도 큰문제가 있긴하지만...뭐, 한동안은 문제없죠



쿠사카 마리: 게임이나 하고 있고

멀쩡하다 할 수 있죠

"디스는...."

카페 구석에 있을 디스를 바라봅니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디스는 가게바닥을 또각또각 뛰다가

가웃하고 몸체를 기웁니다



쿠사카 마리: "가족은 전원 무사한데"

게임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마리

이지로 난이도 12 판정해보세요



쿠사카 마리: 으아니

이지라니

왜 항상 이지 판정을 던지는거야



타미스케 진: (이지가 머리통 관련이기 때문이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러함
(그리고 지각이 주다!
(탐색할때는!



쿠사카 마리: rolling 2d6+3

(4 + 6)+3

= 13

성공이지만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뭐...라고..?



타미스케 진: (해냈다동



키도 리히토: (풀콤보다동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실패할꺼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군
그럼 순간 마리는
언니가 사고라도 쳤나 싶었지만
델타씨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뭐라도 있으면 미리 보고를 했겠쥌
그런고로 남은건 다른 가족....**부모님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이 도달합니다.



쿠사카 마리: "....."
"부모님 이야기는 아닐테고"
그래도, 두분다 돌아가셨으니 아니겠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유감스럽지만 그 이야기야. 확신은 힘들지만."
그녀는 그럼 들어올때 같이 들고온듯보이는
하드케이스 가방을 열어서 사진과 패드를 꺼냅니다
그리고 보인건
당신들의 어머니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들이 보이네요
참고로 장소는 이쪽 도시의 아는 배경이 곳곳에 있습니다



쿠사카 마리: 그걸보고



타미스케 진: (도촬입니다 빠빅



쿠사카 마리: 게임기를 놓칩니다
게임오버- 하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지만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군요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일단 이게 **어머니 본인은 아니라는 모양이야**."



쿠사카 마리: "어디, 한번 보여줘!"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럼 마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듯
레이나는 조금 씩씩한 표정으로 다독입니다

"정확히는 **노페이스**라는 흉내쟁이 빌런."

"사칭과 사기가 주특기라는 모양이야."

그녀는 패드를 움직이며

노페이스라는 빌런의 정보를 띄웁니다.



쿠사카 마리: 정보를 숙지해두죠

".....그런데 그런 빌런이 왜 엄마 모습으로?"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모르겠어. 하지만 노페이스의 사칭에는 공통점이 있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거야. 접촉은 어떻게하는지 모르지만."

언니인 레이나도 여러모로 조금 희망이나 기대가 있는듯

마리에게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가상인물이나 죽은 사람은 안 된다인가



쿠사카 마리: ".....변장에 바탕이 되는 인물이 있는거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일단....음, 좋지 않아도 *엄마와 똑같은 사람*이라도 있는 것 같아. 혹시 아니라면..."

조금의 희망을 갖는 표정입니다.

"마리와의 평생 못만날줄 알았지만 만났고."



쿠사카 마리: ".....응"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제로는...아니겠지. 혹시 몰라, 시공간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레이나도 복잡한지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말합니다



쿠사카 마리: "엄마였으면 좋겠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렇지..."

"여튼 단서를 잡으려면 그녀석을 잡아야할것 같은데."

"그녀석이 최근 이쪽에 잠입한다는 소문이 뒤에 있는것 같아."

하면서 다시 패드를 타다닥, 만지니

호화여객선 다이달로스

라고 뜨면서 여객선의 사진이 뜹니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아마 사기꾼이고, 최근에 메탈 블러드의 윗사람들이 저 배에서 파티를 한다니까 한 탕을 하려는 걸지도 모르지."



쿠사카 마리: "그런곳에 그냥 들어갈수도 없잖아?"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게...중급히어로중 아는 한분께 부탁하면...**표 한장은 얻을수 있을것 같아.**"



[스승] 베르누이: (그래, 나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런데 아무래도 파티인데...내 전투방식으로 놈을 잡기는 맞지 않지."



쿠사카 마리: ".....부탁할 사람이 있다고?"



타미스케 진: (ㅎㅎ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미사일이나 기관포, 화력제압을 하는 그녀인데..



쿠사카 마리: 놀라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타케루 타츠야: (확실히 놀랍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아, 응. 수뢰를 맨손으로 잡아서 쳐박는 사람."
"화력적으로 이야기가 잘못아서."



키도 리히토: (놀라는 포인트 인정)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거기에 강한데다 좋은 사람이야."
레이나가 인정할 정도면
마리는 성격은 물론, 저 불길 같은 태도를 받아주고
무차별의 대화력공격과도 상성이 맞아야함을 떠올립니다
뭐, 중요한건 솔직히 그게 아니죠



쿠사카 마리: 그리고
아주 잘 아는
누군가-
그래, 델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죠
"호구?"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아니, 편하긴한데 델타랑은 달라."



쿠사카 마리: (미안해요 델타)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럼 그말에 바로 델타라고 나옵니다



쿠사카 마리: (쿠사카 자매의 공통된 인식이에요)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자매가 심하군)



타미스케 진: (w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여튼 관계자라서 받았는데 양보해줄거야. 부탁하면."
"여튼 거기서 놈을 잡는데 마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쿠사카 마리: "갈께....."
"만날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지 디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 놈의 변장은 도플갱어라는 모양이니 지금 잡기는 힘들어서 부탁을 하지만..."
하고 이야기하다가 마리의 중얼임에
레이나가 시무룩해집니다.
그리고 디스는 끼릭끼릭
점핑하고
레이나가 마리에게 말합니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일단 희망사항이지만...힘내자.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보자."
하고 기합을 냅니다.



변신 (GM): (꿈?)



쿠사카 마리: (아아



변신 (GM): 그럼 그렇게 두 자매는
새로운 차원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하고
조금은 기대를 하면서
놈이 찾아올 여객선의 사진을 봅니다.

--- 전일담: 쿠사카전선~어머니...~ ---

--- 끝 ---



쿠사카 마리: 후우



타미스케 진: ㅎ



키도 리히토: 가망없음추
(자막빌런드립



타미스케 진: 델타가 불쌍하지도 않니



변신 (GM): ㅋㅋㅋㅋㅋㅋ



쿠사카 마리: 할수없군
리히토를 굴리자



키도 리히토: 으아악
@굴러감
이 시간간격과 피로각을 살피니
프롤로그만 하고 끝나자네?
아니 오—닝



타미스케 진: 아이엠 그루트



변신 (GM): 그러함
오늘은 전일담만하고 끝내죠!



타미스케 진: 오렌은 별로 상관 없다
@어디까지 하건



변신 (GM): 그럼 어디
전일담은 둘이 남았군



타미스케 진: 그러하다



변신 (GM): 말해라!



타미스케 진: 에리아에게 상담을 합니다.
주제는 강렬한 욕망은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가.



변신 (GM): 그리고 상담은 어디서?



타미스케 진: 흠
추천하는 장소 있나요



변신 (GM): 좋은대로 해라



타미스케 진: 이이다로
그럼 다이스나 굴리자



변신 (GM): 폐공장 같은 곳만 아니면 됨



타케루 타츠야: 폐공장 무엇



타미스케 진: rolling 1d3 집 카페 직장

(2)

= 2

어딘가의 카페



변신 (GM): 그럼

--- 전일담: 진따이야기~그 욕망 해방해라!~ ---



타미스케 진: (후속편!
(@아무말



변신 (GM): 그럼 진은
이전 캐롤에게 자신의 정체불명의 메달이
몸에 담겨있는 모양이고
그게 자신을 변화시킨달까, 괴물로 바꾼다는 위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신세진 사람에게 상담하기로 합니다



[차원미아] 에리아: 그래요, 동거인인 에리아에게.



타미스케 진: 여러모로 스스로 상담할 사람을 생각해보긴 했지만, 자신의 또래이기도 한 에리아에게 상담해
보기로 합니다.



[차원미아] 에리아: 그녀는 진따가 이야기를 한다니
일하는 곳 근처의 카페에서 보자고해서
마주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를 불러내다니 뭔가 문제가 생긴거야?"
그녀는 익숙한듯 진에게 말을 거네요.



타미스케 진: "하하, 별다른 일은 아니고 상담이 있어서 말이죠."



[차원미아] 에리아: "뭐야, 가게부는 내가 잡고있고 이상한 사람들을 돕는거면 차라리 히어로부서에 신고하라
니까..."
그녀는 고양이눈 좁지 말고, 같은 어투로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음, 이번엔 그런 일은 아니고 제 스스로와 관련된 일입니다."



[차원미아] 에리아: "응? 의외의 일이네."
그녀는 호록, 커피를 마시며 대답합니다

"그보다 자아성찰이라던가 너무 늦게온게 아닌가 싶지만....좋아, 내가 상담해주지. 안정적인 사회인으로서."
후후, 말해보도록 내가 더 어른이니
하는듯한 태도로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렬한 욕망을 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타케루 타츠야: (이것은 안되는 녀석(진심))



타미스케 진: 흔쾌하게 승낙해주자 감사를 표하면서, 최대한 자신이 받은 처방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질문을 건넵니다.



[차원미아] 에리아: "....."
순간 우주를 보는듯한 표정이 되다가
"무, 무슨 욕망을 바라는건지 모르겠는데."
종류가 많잖아? 그치? 하고 당혹스런 표정으로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안된당게 이거)



타미스케 진: "어떤 종류도 좋습니다! 아, 그래도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치는 종류는 좋지 않겠네요."
"가능하면 최대한 다른 분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욕망 쪽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차원미아] 에리아: "...후우, 다행이네. 조금 핀트가 이상해져서 그런 곳까지 상식이 무너진줄..."
그리고 에리아는 안도합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분께 욕망을 물어보는 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 말이죠."



[차원미아] 에리아: "응, 그건 그렇지. 그건 동의하네. 좋은 사람인걸."
그럼 에리아는 진지하게 동의합니다



타미스케 진: "네, 여러가지 조언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고덕고덕.



[차원미아] 에리아: "좀 강렬한 욕망이라니까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평범하게 보통사람이 되는 길이었네."
그녀는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보통 사람인가요?"



[차원미아] 에리아: "음, 지금 몸매는 보기 좋으니까. 뭔가 돈을 쓰거나 하는게 좋지않아?"
"뭐, 그렇지 않아? 나도 돈벌면서 일하는게 그런걸 위한거고."



타미스케 진: "뭔가에 돈을 사용한다라...."
이 때, 진따의 뇌리에 돈을 사용하는 루트가 스쳤다!
기부.



[차원미아] 에리아: 지팡이 어택
"분명 네가 생각하는 그런게 아니야."



타미스케 진: "으왁...! 으, 으음... 그렇군요."



[차원미아] 에리아: "그래, 굳이 따지면...자기의 옷을 산다던가!"
"나처럼 지팡이나 도구를 산다던가."

"여튼 자기 자신을 보충하기위한 소비!"

"....사실 보통이면 알려주는게 이상하지만 말이야."

왜 이놈은 못하는거지..하는 표정입니다



타미스케 진: "그렇군요! 자기 자신을 보충하기 위한 소비라, 우선 최근에 히어로 장비를 강화하기 위한 지출이 예정되어있습니다만."

"이걸로는 부족할까요?"



[차원미아] 에리아: "응. 그렇지. 필요경비인거지?"

"그때 봤던 레드씨라는 분께 굉장한 적과 만났다고 들었고."

회식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타미스케 진: "네, 부족함이 느껴져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원미아] 에리아: "그런 의미있는거 말고 좀 더...본능에 충실한..."



타미스케 진: "아무래도 당시에 세 대 정도를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지라...."



[차원미아] 에리아: 딱, 하고 그럼 에리아는 손가락을 튕깁니다.

"그래, 여자라도 사귀는게 어때?"

본능적으로! 라고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여자 분과 사귀는 거라...."



[차원미아] 에리아: "너는 남자면서 그런거랑 담쌓고 있으니까."

"한두번은 경험하면 뭔가 보이겠지."



타미스케 진: "음, 당연히 이런 건 다른 분들께 부탁해도 안 되겠고....."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분들에게 방법을 여쭙봐서 도전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으로 중얼거리다가, 힘내겠습니다! 하고 기합을 넣습니다.



[차원미아] 에리아: 그럼 에리아는 진을 보면서

음, 아마 무리겠지...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하는 초연한 눈빛으로 봅니다



타미스케 진: (PL: 어찌지, 실패하는 미래밖에 안 보인다



[차원미아] 에리아: "그, 일단. 그 조금 이성이라던가로 본다면 부탁할 사람이 보인다면가 안하는거야...?"

"뭔가 폐를 평소에도 끼쳤다던가 하는 사람이, 완전 상위인 매력적인 엘리트인 사람이라던가."

에리아는 무언가 답을 요구하듯 말합니다



쿠사카 마리: (에리아?



타미스케 진: "음... 하지만 평소에도 폐를 끼치는데 이런 일로 부탁하는 건 어떨까 하고...."



[차원미아] 에리아: "응, 자각은 있었구나..."

하하, 이녀석 하하.



타미스케 진: "물론입니다! 그런 걸 알지 못해서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차원미아] 에리아: "다음에는 베르누이씨에게 가보는게 어때, 솔직히 내 힘으로는 무리인것 같아."

미안, 나는 보통사람이라.

"적어도 너랑 비슷한 부류인 베르누이씨라면 뭔가 해주시겠지."



타미스케 진: "스승님이군요, 확실히 스승님이라면 답을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차원미아] 에리아: 그럼 진은 어찌나요?



타미스케 진: "그러면 바깥에 나온 김에 음식점에서 뭐라도 먹고 돌아가는 걸로 하죠!"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일단 돈 쓰기를 실천합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차원미아] 에리아: "아니, 난 괜찮으니까. 히어로부서라도 가봐."
후, 뭔가 기운이 빠진다...
하고 그녀는 진을 내버려두고 일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타미스케 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아의 말에 어리둥절 했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가는 걸 배웅하고선
히어로 부서로 가볍게 조깅하는 느낌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차원미아] 에리아: 그럼 히어로부서에 좀 시간이 걸려서 도착합니다



변신 (GM): 언제나처럼 무언가로 변형할것 같은 거대한 건물입니다.



타미스케 진: (6세선에 잘못하면 변형해서 빔쏘는 건물!
"옛날 전대물에서는 자주 이런 건물이 변형했는데 말이죠."



변신 (GM): 크기로는 거대한 빌딩도 비교가 불가한 거대한 건축물이라
변형하면 굉장하겠다는 생각이 들며
안쪽에 들어가면 히어로용 게이트가



타미스케 진: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 전이더라, 오래됐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건물 내부로 들어갑니다.



변신 (GM): 그럼 안쪽에는



[카이지] 쿠사카 레이나: 우오오웃!하고 달려가는 여성과



[스승] 베르누이: 바이바이하고 보내주는 스승입니다.



타미스케 진: 힘차게 달려가는 여성을 보고, 상당히 기운 넘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이바이 보내주는 스승님께 다가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승님!"
"방금 달려가신 분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스승] 베르누이: "아, 진인가."
그럼 군복같은 복장의 스승, 베르누이는 진에게 눈인사를 합니다
"아니, 가족에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친구에게 받아서 곤란했던 초대장을 넘겨줬어."



타미스케 진: "그렇군요, 곤란하신 분을 도우시다니 역시나 스승님이시네요."



[스승] 베르누이: "아니, 보통의 일이지 않을까. 돕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스승인 베르누이는 진의 스승답다면 다운 사람이죠.



타미스케 진: "하하, 그렇네요. 하지만 그 보통을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도 여러모로 폐를 끼치고 다녀서, 사람을 돕는다는 일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기도 하고....."



[스승] 베르누이: "뭐, 살아있는데 세상을 마음대로하는건 보통은 불가능하지."
"평범한거다. 그러니 걱정말도록."
그럼 스승은 독려해줍니다



타미스케 진: "네, 걱정보다는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스승] 베르누이: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라는건 잘알겠지."
끄덕이며 그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보통은 이후 널 노리는 다른 바보들탓에 안오면서."
베르누이는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물어봅니다.



타미스케 진: "아, 그렇네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 스승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리아 씨에게도 상담은 해봤는데, 스승님께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스승] 베르누이: "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군. 말해봐라."



타미스케 진: "그러면 강렬한 욕망을 품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에리아 씨는 돈을 자기자신을 보충하기 위해서 쓰거나, 여성 분과 사귀거나 하는 방법을 추천해주셨습니다만...."



[스승] 베르누이: "음....."
그녀는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욕망을 느끼는게 필요한가?"
그녀는 진중히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네, 앞으로 계속 히어로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가 걸린 과제라서 말이죠."



[스승] 베르누이: "음, 그럼....."
"진, 너는 보통으로 욕심이 희박하고 탐내하는 것도 없었지?"
자신이 아는게 맞냐는듯 물어봅니다.



타미스케 진: "으음, 잘은 모르겠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끄덕끄덕.



[스승] 베르누이: "그럼 남자로서 가장 쉬운 욕욕부터 시작하는게 좋겠군. 좋은 여자를 연결시켜주지."
"좋아하는 이성상은 어떻게되지?"



타미스케 진: "음....."



[스승] 베르누이: 그녀는 진지합니다



타미스케 진: (난제군
좋아하는 이성상에 관한 질문이 오자,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합니다.
"..... 으음."



[스승] 베르누이: "음, 생각해보니 네게 물어보는게 잘못된군."
그녀는 당연하다는듯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초특급 난제



[스승] 베르누이: "그럼 일단 멋모르고 붙여줬다간 상대방에 폐가 될테니..."

"좋아, 임시로 *내가 도와준다*."

그녀는 사명감 가득한 눈으로 말합니다.

"제자의 히어로일에 지장이 가는 일. 너에 대해서도 잘 아는 내가 알아내고 중점을 찾아봐야겠지."

"에초에...나이차로 내가 범죄자인 기분이니까."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스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로서는 든든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스승] 베르누이: "아아, 걱정말아라. 음, 그보다 자극에 대해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야하나...."

"아, 그전에....혹시 일이 없다면 이것을 해보는건 어떨겠나?"

그럼 그녀는 장도의 칼집으로 한쪽에 걸린 의뢰문구를 가르킵니다.



타미스케 진: "무슨 일인가요?"

그러면 고개를 갸웃하면서 걸려있는 의뢰문구를 바라봅니다.



[스승] 베르누이: 그럼 문구는

여객선 다이달로스 내부 경호

"...아까 말했던 여자애가 부탁해 가져간 파티의 경호일이다."

이이상은 말을 하지 않아도 좋겠지?

하는 눈빛입니다



타미스케 진: "경호일이군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 베르누이: "괴한, 그리고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수있다면 도와주는게 좋다."

(괴한은 퇴치,로 수정



타미스케 진: (아아!

"물론입니다! 곤란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부탁해서라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스승] 베르누이: "음."

끄덕이고 만족해합니다.

그리고...진



타미스케 진: 아아



[스승] 베르누이: 지각판정 난이도 15



타미스케 진: 좋아쓰 지각판정인가

특기 색다름을 사용해서 판정에 +1

기프트: 아이볼로 판정에 +1

합니다!



[스승] 베르누이: ㄱㄱ!



타미스케 진: rolling 2d6+6

(2 + 3)+6

= 11

무리땃타



[스승] 베르누이: (그럼 마무리한다



타미스케 진: 아아



[스승] 베르누이: 그럼 은발의 아리따운 스승의 격려와 말
그리고 어떻게든 캐롤의 말도 해결될듯 보이는군요
허나....진따는 몰랐습니다.

여기는 히어로부서, 그리고 다른 대기중이던 히어로들이 이 장면을 소문을 퍼뜨릴것을....



타미스케 진: (www

--- 전일담: 진따이야기~그 스승의 그 제자~ 곳 ----



키도 리히토: (wwwwwwwww



타미스케 진: 심한 일이 됐다
굳세어라 진따
라기보단 이 녀석은 그냥 굳세지



변신 (GM): 굳세어라 진따



타미스케 진: @깨달음



변신 (GM): 살아남아라 진따
저런 호인이자 좋은 스승의 팬에게서
살아남아라



타케루 타츠야: 나는
생각했다



타미스케 진: 올ㅋ



변신 (GM): 타츠야는 어쩔것인가
전일담



타케루 타츠야: —히어로의 본분을 다해, 민중을 지키는 히어로 활동을 한다면, 그것으로 좋겠지. 라고...!



변신 (GM): 그런 의미에서
히어로로서 이상적인 베르누이 스승



타케루 타츠야: 전일담. 히어로 활동 합니다.



변신 (GM): 이이Yo



타케루 타츠야: 전일담이 커뮤션만이라고 누가 정했지!?(미침)



변신 (GM): 만나는 NPC는 없죠?



타케루 타츠야: 소다요



변신 (GM): 그럼



타미스케 진: ㅎㅎ

--- 전일담: 다커댄 스마페~히어로는 쉬지 않는다~ ---



변신 (GM): 그럼 스마페
1d100을 굴려주세요



타케루 타츠야: rolling 1d100

(37)

= 37

낮군



타미스케 진: 낮네



변신 (GM): 그럼 스마페는
오늘은 딱히 큰일은 없었지만
자발적인 자경단시절부터하던
순찰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rolling 1d100

(48)

= 48



타미스케 진: (보-통



Mr. 스마일 페이스: (다이스가 무난



변신 (GM): 그리고 적이 나타났네요.



Mr. 스마일 페이스: 적=상의 엠부쉬!



[엑스트라 남성]: "하핫! 은행돈은 우리거다!"
"단순 무장이 아니라고! 저리 비켜!"
하고 뭔가 빔총 같은걸 든 복면남자들이
퍼펑! 하고 은행에 연기를 내며
돈다발을 들고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페가 근처군요



Mr. 스마일 페이스: 길거리를 지나치다가, 아마 반대편 은행에서 핫하! 하고 나오던 복면들과
딱 시선이 마주칩니다
"....."



[엑스트라 남성]: 그럼 중압에 걸립니다.



타미스케 진: (이츠모노



[엑스트라 남성]: "느오오웃?! 과인이...!!?"

"바보 같은! 크로스게이트가 있었으면 경보가 났을텐데..!"



Mr. 스마일 페이스: 살짝 두세걸음 물러났다가—
돌진, 도약.
이후 착지



[익스트라 남성]: "괜찮아, 이 총만있으면..!!"



Mr. 스마일 페이스: "—실례합니다"
뺑긋



[익스트라 남성]: 하고 탕탕하고 스마페에게 둘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한 명중률 3정도입니다



타미스케 진: (뭐야 자코인가



Mr. 스마일 페이스: 후. 너무 감사다.
넘모 강하다



[익스트라 남성]: (빌런도 아닌 단순한 무장가도
(강도
(전투원도 강하단걸
(잊지말아야한다



타미스케 진: (올ㅋ



Mr. 스마일 페이스: 이빌잔바(개)로 빔을 베어냅니다.
"ㄴ
"순순히 항복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익스트라 남성]: "히에에엑...!?"



Mr. 스마일 페이스: 후, 항복하겠느냐!?



[익스트라 남성]: "비, 빔을 베었어..! 히어로는 뭐라는거야..! 죽는다고...!"



타미스케 진: (wwwww



[익스트라 남성]: 그럼 둘은 패닉으로 계속 탕탕



Mr. 스마일 페이스: "..."
@급적급적
이거 피하면 도시미화에 방해되겠지.
그니까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수해서 광명찾읍시다"



Mr. 스마일 페이스: @HAHAHA



[익스트라 남성]: 그럼 잠시후
두 범죄자는 압박을 못이기고 기절하고
스마페는 무사히 제압?에 성공합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으음"

그 둘을 꾹꾹 포박하고, 그 빔 무기도 확보한뒤



[엑스트라 남성]: 그럼 여기서 스마페

이지 판정 난이도 10입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흐무

rolling 2d6+4

(1 + 6)+4

= 11

후하하!

위험했다.



타미스케 진: (YABAI



[엑스트라 남성]: 그럼 스마페는 조금 고민뒤에

총의 스펙을 봅니다.

지금은 좀 총을 알아봐두는 지식을 줄였지만

아직 어느정도가 유통되는지는 친구덕에 잘알죠

이게 보통으로 유통되는 스펙의 호신용 총이 아닌걸 압니다.

이렇게 악용될수도 있는 출력이 강한, 적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쓸 물건이죠



[엑스트라 남성]: 그리고 잠시후

신고받은 히어로부서의 회수반이 몇은 굳더니

일부는 멀쩡히 스마페에게 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Mr. 스마일 페이스: "매번 수고하십니다."



[엑스트라 남성]: "알아주는 분들도 적은데 고생하십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일이고, 알아주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엑스트라 남성]: 하고 두세명이 익숙한듯 범죄자를 뒤의 회수반들에게 넘깁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아, 이쪽은 저 분들이 쓰던 무기입니다"



[엑스트라 남성]: 그럼 그걸 받은 회수반은 말합니다.

"흐음...이건,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Mr. 스마일 페이스: "뒷 루트를 써도 쉽게 구하기 힘들 정도의 스펙이더군요"



[엑스트라 남성]: "상표는 ...없나. 바로 추적은 힘들겠네요."

노련한듯한 회수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Mr. 스마일 페이스: "뭐, 상표를 대놓고 붙이지는 않았을테니까요"

턱을 짚고 잠깐 고민합니다. 근래 이런 사건은 많았습니까?

구



[엑스트라 남성] : 그럼



Mr. 스마일 페이스: 구체적으론, 무기가 통상의 것 이상인 강도사건
이라던가



[엑스트라 남성] : 스마페 1d100 굴려주세요



Mr. 스마일 페이스: rolling 1d100

(38)

= 38

호우



타미스케 진: (낮다



Mr. 스마일 페이스: 아까 본것같은
다이스다



[엑스트라 남성] : 그리고 이쪽은....



타미스케 진: (아까는 1 더 적었어



[엑스트라 남성] : rolling 1d100

(70)

= 70



Mr. 스마일 페이스: 엑스트라 초 우수



[엑스트라 남성] : 음, 잘모르겠습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이거 대결판정이었나...!?(떨림))



[엑스트라 남성] : 정확히는 이게 정확히 이것과 관련된건가를 확신할수 없군요.



Mr. 스마일 페이스: "흠..? 뭔가 짐작가시는 일이 있습니까?"



[엑스트라 남성] : 그럼 회수반씨들은 보정을 붙여서...

rolling 2d100+20

(27 + 18)+20

= 65



타미스케 진: (디져있다



[엑스트라 남성] : 둘다 엑스트라였다



Mr. 스마일 페이스: 심각히 디져있다



[엑스트라 남성] : 그럼 둘다 고개를 절레절레
"아뇨,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Mr. 스마일 페이스: @금적



[익스트라 남성]: "단지 하나 알겠는건... *이상하게 괴인이나 괴수가 아닌 범죄도 늘고있단겁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일반 강도범죄의 부류... 군요"



[익스트라 남성]: "누가 이상하게 바람을 불어넣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괴인의 짓인건지."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범죄자들을 운송하고 돌아갑니다.



변신 (GM): 그럼 스마페
이제 하루이틀이면 파티일것 같은데
슬슬 이런 순찰보다 친구의 면목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조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고해도 좋다
(아니면 뭔가 하고싶은게 있다면 말을



Mr. 스마일 페이스: "으음... 가능하면 더 정돈을 해두고 싶지만..."
"친구가 초대한 자리,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도 면목이 서지 않나"
따라서, 선물을 살까!



변신 (GM): 그럼 선물을 어떤걸 준비하나요?



Mr. 스마일 페이스: 흠—, 아무래도 친구의 취향도 있고, 범용적으로도 좋은 물건.
그래, 요컨대—
고급술이다.



변신 (GM): 아니면 다이스 굴릴래요?
100에 가까울수록 완벽



타미스케 진: (술로 귀결되는 이



Mr. 스마일 페이스: 예로부터 귀한 술은 좋은 선물이었다..!



변신 (GM): 1에 가까울수록 oh....



Mr. 스마일 페이스: 낮은 다이스는 대참사이지 않은가 쿠도!



변신 (GM): 당근뺏다쥬!
그럼 그냥 술선물하나요?



타미스케 진: (이럴 땐 머리통에 맡기렴
(@이지판정을 내민다



Mr. 스마일 페이스: 흠.
머리통인가



변신 (GM): 그럼 선물고를때 행운판정
난이도는 8



Mr. 스마일 페이스: 후
진심을 보여봐라
내 다이스놈

rolling 2d6+3

(2 + 2)+3

= 7



타미스케 진: (조짐



Mr. 스마일 페이스: 야바캬타



변신 (GM): 1

모자람



Mr. 스마일 페이스: 아니

모자라네

Fuuuuuu

재산포인트 원찬스 있는지!?



변신 (GM): 후응

특pecially 재미있을것 같으니 허가

1점 소모하면 성공으로 해드리죠



Mr. 스마일 페이스: 후우

소모한다!



변신 (GM): 그럼



타미스케 진: (여유네 여유



변신 (GM): 스마일페이스는 다행히 친구의 취향은 겁나 잘알고있고

문제는 구하는것뿐



Mr. 스마일 페이스: 소중한 재산포인트가 희생된 것은 슬프다...



변신 (GM): 여차했으면 못구할뻔했으나

돈을 얹어줘서 친구가 마시고싶다고했던 고급술을 손에 넣습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생각 이상으로 매진이었지. 뭐 때문일까"



변신 (GM): 격이 모자라진 않겠조



Mr. 스마일 페이스: 철학적.



변신 (GM): 그럼 그러던중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뭔가 텀블러 같은걸 마시며 지나가는

튀제의 동족, 그녀가 말하기는 가족이 비슷한 브랜드의 술집에서 나오는게 보입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아는척 하나요?



Mr. 스마일 페이스: 으응—, 일단은 히어로 활동 복장이고

굳이 아는척 하지는 않겠네요.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뭔가 알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후! 일 끝난 이후 물건을 산다는건 힘들군

ㅈ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그녀는 툭툭거리는듯한 표정으로 사라집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제대로 술영수증 같은것도 받아두자
품질보증은 실제중요



변신 (GM): 그럼 장면을 점프하죠



Mr. 스마일 페이스: So



타케루 타츠야: (페이스 체인징!)



변신 (GM): 그럼 타츠야는
복층의 화려한 바와 무대가 있는
화려한 여객선 다이달로스의 내부 파티장에 도달합니다.
선물을 사고 2일정도 뒤의 일입니다.
친구의 회사가 굉장하다고는 들지만
이런 곳을 회사를 위해서 대절을 가볍게 할정도였나



변신 (GM): 하고 생각이 들겁니다



타케루 타츠야: "...영 화려한데"
그 풍경을 보곤, 자신의 뒷목을 가볍게 주무르면서 중얼거립니다.
아무래도 태생이 털털한 성격인 탓일까, 이런 곳은 익숙하지 않아!
라는 느낌입니다



변신 (GM): 그리고 그런곳에는
휘저의 동족인 기계적인 거대한 손이나 뿔등을 갖고있는
마치 악마를 연상시키는 함선소녀분들이 파티를 즐기고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름다운 여성...이기엔 애매한 여자애들이 술을 즐기는게 보입니다.
어느쪽에 가보시겠습니까?



타케루 타츠야: 흠테레스팅....
양쪽 중, 아는 사람이 있는 쪽은 있습니까?



변신 (GM): 어느쪽도
안면자체는 조금은 있습니다



타미스케 진: (이럴 땐 다이스지 다이스



타케루 타츠야: 살려줘 진따야
훤히히히히

rolling 1d2

(1)

= 1

무서운 누나들한테 가래요.



변신 (GM):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이 파티장의 여성분들중



타미스케 진: (뭐야 순서적으로 함선소녀인줄 알았네



변신 (GM): 그럼 먼저 뤼제의 지인들,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순서대로로 간다



타케루 타츠야: (둘 다 가야하는가...)



타미스케 진: (악마를 연상시켜서 무서운 누나들이구나@깨달음



변신 (GM): (정하지 않았다면 순서대로다



타케루 타츠야: (죽을 수 밖에 없군, 폴나레프!)



타미스케 진: (함선소녀 쪽으로 간대!



변신 (GM): 그럼 다가서면



타케루 타츠야: (오렌의 해석이 맞따)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다른 함선소녀들중에서도
등뒤로 무형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여성이 먼저 환영해주네요.
"뤼제가 신세졌고, 우리 동포의 입지를 다져준 혈우를 지켜준 남자군."
"파티는 즐겁나? 나는 즐기려고 하고있네."
그녀는 붉은 장갑이 둘러진 손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있군요
(천장갑이 아닌 철장갑



타케루 타츠야: "좋은 파티이니만큼, 즐기고 있습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나저나 하나...내가 그대를 보면 하고싶은 말이 있었네."
그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하고싶은 말, 입니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순간 옆에 사람 하나는 씹어먹을 듯한 거대한 철의 괴수가 들
어납니다. 입안에는 포구에서 스파크를 튀내요.
그리고 순간 사라집니다.



타케루 타츠야: 몬가... 몬가 일어나고있음



타미스케 진: (ww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나는 동포를 건드린다면 맹세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정도
조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난 그대도 동포로서 파티가 즐겁기를 바라고있네. 마음 깊이."
그녀는 또각또각
붉은 구두로 발소리를 내면서 사라집니다



타케루 타츠야: 답변을 기대한 말이 아니었던지, 담담히 돌아가는 그 모습에
잠시 멈춰서 생각합니다.

...뭐지? 단순한 오해인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그럼 다음은

붉은 철의 거수를 갖고있는 은발의 본디지풍 옷을 입은 소녀가 다가오네요

그녀의 손은 잠시뒤 흐려지더니 인간과 비슷한 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츠야에게 반가운듯 말합니다.

"타츠야씨, *이전에는 고마웠어요.*"



타케루 타츠야: "이전, 입니까...?"

라기보다 누구냐 너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지상에서 곤란했는데...손문제도 해상에 동포들과 있다보니 깜빡했어
요."



타케루 타츠야: 혹시 자신이 이전에 도운적이 있나? 라고 고민해보자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이번에는 제대로 했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소녀인데

스마페, 모르는 아이입니다.

도운 일이라면 보통

당신은 히어로일테죠

아니여도, 오히려 히어로가 아니라면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잊어버릴리가 없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히어로 활동으로 도운게 아니라면, 되려 기억에 선명할... 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그럼 그녀는 손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그때는 금방 헤어졌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죠. 제 손을 꺼리지 않는 사람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녀가 희색을 보일때



타케루 타츠야: "이후, 시간이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녀의 뒤로



타케루 타츠야: 문가 오해하고 있는것같으니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타케루 타츠야: 나중에 풀자(떨림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살의를 비쳐보입니다

손짓으로 수화를 합니다.

너, 건들면, 죽인다. 내 동생.



타케루 타츠야: 담담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어느쪽에게 하는 답변의 끄덕임인가

그것은 알 수 없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등뒤로 강철의 턱을 딱딱거리는

붉은 철의 괴물이 보이는듯하군요



변신 (GM): 그럼 타츠야는 소녀와 대화를 하나요?



타케루 타츠야: "그럼, 저는 아직 다른 분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 해둔지라...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눈 상태이니
이후를 기약해둡니다
살려주세요!



타미스케 진: (스마네



타케루 타츠야: (진따야! 고글야! 마리아! 내쫓 살리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아, 그럼 저는 슈피로 불러주세요. 다음에 뵈요."
그럼 그녀는 즐거운듯, 아쉬워하며 떨어집니다.



타미스케 진: (살려주고 싶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그럼 그런 타츠야가 식겁하던중



키도 리히토: (살려주고 싶은데
(우리 지금 없ㄸ낱아wwwww



타미스케 진: (www



타케루 타츠야: 제 길wwwww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새로운 엔트리가 있습니다



타미스케 진: (게다가 니 맨얼굴을 모ww름ww



타케루 타츠야: 끝나지... 끝나지 않는다...



키도 리히토: (목소리로 판별해야함wwwww



타케루 타츠야: 오...노레...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아, 타츠야씨. 오셨군요."



타케루 타츠야: 노페이스...



키도 리히토: (또 모르는 친구인가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게도



타미스케 진: (wwwwwww



타케루 타츠야: "아무래도, 친우의 초대이니까요."
이야기 들어본적은 있어!?
누구나 넌!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후후, 그때 술집에서 즐겁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 이야기하죠."



타케루 타츠야: 술...집....?
점점 더 의아함이 커진다.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 만큼이나 고혹적인 미소로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뭐지? 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거지?



키도 리히토: (리히토였다면 태클걸었을텐데 없어www)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저도 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음주를 즐기니까 다음에는 추천 술을 부탁드립니다."



키도 리히토: (PC들이 다 없어wwwwwww)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잠깐 맨얼굴은 그렇다 쳐도 음주까지 파악했냐wwwwwww)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그녀는 미소로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 네, 술의 추천이라면야, 얼마든지"



타미스케 진: (타츠야의 맨얼굴이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너, 그때 그녀석이지?"



키도 리히토: (또 뭔가 나왔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새로운 사람이 엔트리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나 너는 알아!! 아까 혼자 텀블러에서 마시던 녀석이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이번에는 술집에서 본 함선소녀분입니다.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www



타미스케 진: (아 설마)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술집이래 고급술 판매소)



키도 리히토: (이거 말 거는 게 낫지 않았을까www)



타미스케 진: (www)



타케루 타츠야: "그때 그 녀석...이라 하셔도, 제대로 모릅니다만..."

제대로 설명해줘...

클레맨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너, 그때 술마시던 내 동생을 꼬시던 주제에...기억이 안난다고?"
"취한티라도 났다면 속았겠지만 말이야."



타미스케 진: (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녀의 눈썹이 꿈틀겁니다



키도 리히토: (그 친구 같은 시각 무장강도 잡고 있었는데요)



타케루 타츠야: 진짜로... 진짜로 모른다오, 너는...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녀의 뒤로도 두개의 철로 이뤄진 괴수가 보이는듯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 때가 언제였는지, 일자를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 생각해볼게.

잘 생각하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타미스케 진: (www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잘들어! 뽀제와 친하다고 들었고 동포들에게 신세를 지게 만든모양이지만 자 제하라고! 다른 애들이나 저쪽에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키도 리히토: (Q. 그거 가능은 합니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알아먹었어? 하고 그녀는 말하고



타케루 타츠야: 여기선 과연 나의 포커페이스도 조금 깨진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검은 드레스의 소녀를 끌고갑니다.



키도 리히토: (설명을 해달라고wwww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가자 오이겐"



타미스케 진: (wwwwww



타케루 타츠야: 야... 답변은 해주고 가...
"....."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아, 실례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그럼 손흔들거리며 둘도 사라집니다.



타케루 타츠야: "...이건—"
"뭔가 있군"



[메탈 블러드] 뽀제: 그리고 최후



타케루 타츠야: 헹허니 떠나는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타미스케 진: (뽀제의 등판



[메탈 블러드] 뽀제: 죽은 눈의 뽀제가 등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살려줘 뽀제야
"...아, 뽀제인가"
안도의 한숨.



[메탈 블러드] 뽀제: "...타츠야. 오늘 파티에서 동포들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오가고있어."



타케루 타츠야: "...안그래도, 나도 당황하던 참이었다"



[메탈 블러드] 뽀제: "...타츠야. 너는 단순한 이성인식이 둔한게 아니었나."



타케루 타츠야: 조금 눈을 누그러뜨리며, 한숨을 내쉬다가
그 말에 고개를 갸웃입니다
"?"



[메탈 블러드] 뽀제: "그들에게 들었던 특징, 주량, 외형...."



타케루 타츠야: 뽀소리냐, 너는...!
주량도 카피되는지...!?



[메탈 블러드] 뫼제: "아무리 들어도 너도, 외장에 녹화기능이 있던 녀석들에게 봤지만."
"너인걸 부정하는게 힘들다."



타케루 타츠야: "...조금,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가 오갔던거지?"
알아듣게 린트의 언어로 말해라!!!!



[메탈 블러드] 뫼제: ".....좋다. 나는 그래도 조금의 신뢰를 잡고 남아있으니 말하지."
뫼제는 떨리는 손으로 장도를 실체화한 의장의 입에 물리고 말합니다.
"네가 우리회사 파티참가자 대다수에게 음수를 펼쳤다."



타케루 타츠야: "하?"
".....조금,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미안하군. 다시 말해줄 수 있을까?"



[메탈 블러드] 뫼제: "M16과 나는 부정했지만."
"다른 이들에게 현재로서는 부정할 증거가 거의 없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우리중에서도 들 정도의 무언가다..."



타케루 타츠야: 미안 조금 모르겠어. 다시 이야기해줘 클레멘스....



[메탈 블러드] 뫼제: 그녀도 혼란스런 표정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뫼제의 말에, 잠시 병 찹니다.
간만에 깨졌군. 나의 이 일상생활 포커페이스의 일부가...!



[메탈 블러드] 뫼제: "타츠야, 네가 지금 이 파티장의 카사노바가 되었다. 그것도 불이 붙는다면 대난투의."
수라장이란 레벨이 아닌거다



타케루 타츠야: ".....맙소사"



[메탈 블러드] 뫼제: 하고 그녀는 확인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진□
"잠깐"
".....엠 쪽에서도... 라고?"
천천히, 시선을 반대편 무리로 돌립니다.
여기만이 아니...야?



[메탈 블러드] 뫼제: 그럼



[메탈 블러드] M16: 바에서 연구꾸어
양주를 마시면서 복잡한 심정을 안정시키는
모습이 보이는 M16이 보입니다
깡 술인걸 보아하니
심각한게 틀림없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대체—, 무슨 일이 있던거지, 이건"



변신 (GM): 그리고 이지판정이 없이도 알겠쥬
만일 조금이라도 이 오해들에
사소하고 지독한

불뚱이 발화한다면



타미스케 진: (유 다이



변신 (GM): 전함들과, 전차도 단독으로 박살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키도 리히토: (유다히 "안녕!"



타케루 타츠야: (사짱... 사짱이야...!?)
(나를 구해줘...!)



변신 (GM): 잘못하면 수라장의 원흉으로 폭사할수가 있겠구나하고...



타미스케 진: (일단
(진따를 찾아오렴
(도와줄께



변신 (GM): 타츠야에겐 명예도, 신뢰도 모두 처참해진
최악의 최후일겁니다
윗보다 신뢰와 우정으로 묶인 둘도
반 그로기가 되었다니



타케루 타츠야: ".....안목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비슷한 다른 인물인지는 확인해봤나?"



[메탈 블러드] 뽀제: "....증거는 사본을 확보해놨어. 아마 불이 잘못붙으면 사용할테니까."
그럼 전자수첩하나를 넘깁니다
"직접확인해줘...."



타케루 타츠야: "...음."
고개를 끄덕이며, 전자수첩을 조심스럽게 받아서 확인합니다



변신 (GM): 그럼
타츠야 의지 난이도 12로 판정해주세요



타케루 타츠야: 후우

rolling 2d6+5

(6 + 1)+5

= 12



타미스케 진: 턱걸이
야바이



타케루 타츠야: 위험해...



변신 (GM): 그럼 가까스로
타츠야는 MP가 날아가는 쇼크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득해지는 정신줄을 가까스로 고쳐잡습니다.



변신 (GM): 하지만



타케루 타츠야: 진정해라. 이건 명백한 이상사태다



변신 (GM): 틀림없이....자신의 얼굴과 목소리, 특징을 가진 무언가가 여성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이게 뭐지

ㅎㅎㅎ



변신 (GM): 덩치, 힘, 어투등 타케루 타츠야라는 존재가 보이네요.

본인이 보기에도 말이에요.

당신의 두 친구를 의심하기보단

두 친구가 아직도 믿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해야할겁니다.



타케루 타츠야: "...이건—"

"....."

한번 눈을 비빈다.

다시 본다

두번 눈을 비빈다.

다시 본다



변신 (GM): 그래도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꼬시고있습니다.

정작 본인의 기억에는 전혀없지만 말이죠

그것도 짝한 날짜를 보면

하필이면 자신이 저곳에 없었을 증명할 영상이나 기록이 없었을 시각들입니다.



타미스케 진: (존내 치밀하다



타케루 타츠야: "...누군가의 음모라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군"



[메탈 블러드] 뽀제: "네가 아니라고....생각은 하지만 너라는 증거가 많아."



키도 리히토: (진짜 치밀하네wwwwww



타케루 타츠야: 라기보다 어떻게 이정도로 치밀한거지wwwwww



타미스케 진: (wwwwww



[메탈 블러드] 뽀제: "적어도...적어도 이걸 저지하려면 어떻게든 그 타츠야랑 같은 사람을 잡는게 답이야..."

"하지만 어떻게하지..."

뽀제는 완전 죽은 눈입니다

멘붕이 온거겠죠



타케루 타츠야: "날짜와 시간대... 로는 내가 있던 시간과 비교해도... 증명이 불가능하군"



[메탈 블러드] 뽀제: 더욱 어두침침

한 눈빛이 됩니다



타케루 타츠야: 어찌지? 히히



[메탈 블러드] 뽀제: 그럼 그런 둘의 사이

타미스케 진: (히히



[404] UMP45: 쿠국



타미스케 진: (조졌군



타케루 타츠야: 으아악



[404] UMP45: 하고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미스케 진: (예상은 했지만 건드렸어



[404] UMP45: "저기~♪ 분명 그쪽이 안드로이드들 많이 건든 남자 많지? 초 대담인걸."



타케루 타츠야: 급격히 피로해진 눈으로 파일의 시간대와 자신의 그 때 일정들을 체크하다가



키도 리히토: (곧 마리한테 어택당할 사오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부르는 소리에 그쪽을 봅니다
안녕?



[404] UMP45: "뭐, 당신이 한게 아닌것 같지만."
으쓱이며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히히



타케루 타츠야: "...그렇게 생각해주신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반짝
나의 눈빛공격을 받아라



[404] UMP45: "그건 말이지...내가 같은 놈에게 당했거든. 사기."



타미스케 진: (www



[404] UMP45: "내 얼굴로 말이야."



타케루 타츠야: "....과연"
좋아. 노페이스는 쳐죽일까



[404] UMP45: "그렇지만 말이야~♪ 나는 제대로 복수했어♪"



타케루 타츠야: "후학을 위해, 조언을 부탁해도 좋겠습니까?"



[404] UMP45: "놈의 데이터 베이스랑 전자뱅킹이랑 전부 죽여놨거든."



타케루 타츠야: 정보공격추



타미스케 진: (화끈하군



[404] UMP45: "아마 열이 잔뜩 올랐을걸~♪ 아마 죽이려고 들지도 몰라."
"그런데 마침,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네."



타케루 타츠야: "...그건—"
너...



[404] UMP45: "잘부탁해. 흥기얼굴의 형씨♪"



타케루 타츠야: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짐작이 가자 인상을 찌뿌립니다.



[404] UMP45: 그럼 그녀는 좋은 미소로



타케루 타츠야: 너, 미끼역을 자처하는지...



[404] UMP45: "우리 일을 해보자고. 같은 얼굴인 놈은 한쪽만 산다고하니깐 말이야...♪"



타케루 타츠야: 타츠야는 묵묵히 UMP45를 보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너무 형편좋은 타이밍의 조력. 이라고 생각해, 의심가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결국 저로써 받아들일 수 밖에 없군요."



[404] UMP45: "그때는 맘껏 싸줘. 나도 널 쓸거니까-♪ 후보가 주는 일이고."

그럼 스마페

그녀는 당신에게 손가락 장갑을 낀 손을 내밉니다

"난 UMP45, 움프라고 불러도 좋고 움사오라고 애칭으로 불러도 좋아 동지-♪"



타케루 타츠야: 그 장갑낀 손을 물그러미 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그 손을 잡아 악수합니다.

"...타케루 타츠야입니다. 부르시는 것은 부디 편하신 대로(

"



변신 (GM): 그럼 타츠야는

어떻게든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위해 증명할 타인을 위해서

정체불명의 여자와 협력을 하게됩니다.

과연 스마페는 살아남을건가



타케루 타츠야: 노페이스를 죽일것이다.

같은 페이스 돌림이기에 봐줄까 싶었지만



변신 (GM): 이 둘의 살의가 그를 죽일수있기를 바라죠.



타케루 타츠야: 이 스트레이조, 용서하지 않는다.



변신 (GM): (끓겠어!



타케루 타츠야: 아아!

--- 전일담: 다커댄 스마페~도플갱어 헌팅~ ---



변신 (GM): 그리고 시간이 늦었으니

---- 세션 일시정지 ----



타케루 타츠야: 더불어서 이후 뽀제에게 M16에게도 귀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신 (GM): 수고했습니다.



타미스케 진: 후

수고



키도 리히토: 수고고



변신 (GM): 그럼 다들 톡방으로

사출이다!

타케루 타츠야: 같은 녀석한테 사기당한 녀석이 있어서, 협동전선을 잡기로 했다고



타미스케 진: 사출!



변신 (GM): 이야기는 독방에서!!
사출!!@사출버튼 연타!



키도 리히토: 뚜윽!



변신 (GM): 툇



오렌: 1시간 전이 됐으므로
1등 먹으러 왔어여



변신 (GM): 올ㅋ
정확히 30분이 되고 수초만에 왔군



오렌: 그러하다



변신 (GM): 이제 유지만 하면됨
@녹차



오렌: 아아
안녕!



타케루 타츠야: 반갑네



오렌: 안녕!



쿠사카 마리: 안녕!
졸음기로 인해 평소에 비교해 3할쯤 어리광이 늘어난 상태란걸로 RP하겠어



키도 리히토: 제작하다 손에 쥐난 내가 왔다



오렌: 그렇주물



타케루 타츠야: 이따끔 있다



오렌: 시간이 되었다



타케루 타츠야: 째깍째깍



키도 리히토: 누오윽



쿠사카 마리: 꺄꺄



변신 (GM): 후



쿠사카 마리: 타츠야가 크로노스로 변신하는건가(?)



변신 (GM): 이번 전회의 예고는
패스합니다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나는...



변신 (GM): 아침드라마 당할것 같고



타케루 타츠야: 크로노스로 변신하는가?



타미스케 진: ㅎ



키도 리히토: ㅎ



쿠사카 마리: ㅎ

템 데이터를 요구한다



타미스케 진: 크로노스가 아니라

제로노스겠지



타케루 타츠야: ㅎ



변신 (GM): 아, 데이터

@화요일 날아가서 잊은 표정



타미스케 진: 하항



변신 (GM): 누오웃! 스나이

이렇게 되면 마리는 티켓을 다시 줄까

@쓰는 의미가 사라짐

여튼 늦어도 내일바로나 오늘 풀 끝나고 바로 드릴테니

그부분은 굉장히 스마나이...



쿠사카 마리: 경험치를 달라



변신 (GM): 일단 진따가 1등이니 1점 투척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진따추



변신 (GM): 마리는 데이터 드리면서 빨리 받기 티켓인가 경험치인가 고민해보고...

결정하는걸로

그럼 풀을 재개합니다



타미스케 진: HA-HA



타케루 타츠야: 후우!

--- 세션 재개! ---



변신 (GM): 그럼 모두 있습니까?



타미스케 진: 이루요



쿠사카 마리: 있다구



타케루 타츠야: 있다구



키도 리히토: 웨 게 이





변신 (GM): 그럼


썬 1은 모두 출현입니다


메인PCsms 스마페


는
다른 PC들 등장을 안시켜도 되요!
난 PC를 존중함


 타케루 타츠야: 와주세요!(박진)


 타미스케 진: HA-HA
가준다


 변신 (GM): 타츠야, 진따를 쳐내는겁니다..


 키도 리히토: (변쿠리시저스행


 타케루 타츠야: 와라 진따!


 변신 (GM): 난 밸런스의 정령...


 타케루 타츠야: 퓨우우저어어어언


 변신 (GM): 진따를 쳐내는겁니다..

 타미스케 진: 나니꼬레
@밸런스의 정령에게 라이더킥


 변신 (GM): @폭살
그럼 전원 준비는 되었습니까?


 타미스케 진: 이이요


 변신 (GM): 마실것은 준비 오케이?
화장실도 문제없음?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아아


 키도 리히토: A ㅏ A ㅏ

 타케루 타츠야: 리히토랑 마뤄도 와라!!

 변신 (GM): 그럼 마리의 반응이 안느껴지지만
개시하겠습니다.

 키도 리히토: 가겠어 죠쵸

---- 씬#1 ----

 쿠사카 마리: (아아
물뜨려 갔었음

시간: 오후에 들어서는 시간

배경: 잔잔한 음악이 들려오는 느긋한 파티홀

등장PC: 나이스 보트 타츠야, 리히토, 마리, 진

----- 씬 개시!! -----



변신 (GM): 그럼 타츠야

당신은 조금 멘탈이 나갔뻔했으나

뜻밖의 같은 피해자라고 해야할까, 현재 동일히 위험한 상황인



[404] UMP45: 이 여성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가 말하길 이 좋게 끝나도 사회적 사망, 나쁘게라면 실제로 생명이 위험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본 범인인 빌런을 추적해 잡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현재 한적한 파티홀 구석에서 이야기중입니다.



쿠사카 마리: (타츠야의 (사회적)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지금 시작된다!)



타케루 타츠야: "요컨데, 탐정이 되서 사람들 사이 숨어있는 범인을 잡아야 한다... 라는 상황이지만..."

"...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까."



[404] UMP45: "문제는 알려면 사람들과 대화해야한단 말이지..."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난 그런 부분은 심히 전력이 안되서."



타케루 타츠야: "....."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나도, 그런 쪽으로는 꽤 어렵지...?



[404] UMP45: "그리고 당신은 지금 범인이자 만악의 근원이지?"



타케루 타츠야: "...일단, 피해자들의 눈에는 그렇겠지"



[404] UMP45: 타츠야는 본래도 어려웠지만



타케루 타츠야: 무겁게 고개를 끄덕인다



[404] UMP45: 지금은 더욱 무리라고 말할수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끌어들여야겠네."



쿠사카 마리: (하하하하



[404] UMP45: "우리외의 추가 인원을."



키도 리히토: (HAHA



쿠사카 마리: (마리가 등장하면 되나)



타케루 타츠야: "...그렇게 되겠지."



[404] UMP45: (아직이다

(다들 이야기하면 나오면 좋아요

(그전까진 대기



쿠사카 마리: (하하하하



[404] UMP45: "그럼... 일단 내가 리스트중에 도움될 인물이 이 여객선에 타고있는걸 입수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한번 손가락을 훑은 뒤에
화면을 멈춰서 보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자, 누구일까!



[404] UMP45: 그리고 보인건...

"타미스케 진, 이전 프리드리히의 아래서 일해서 상당히 호감을 산 인물이 참가했더라고."



타미스케 진: (아이엠 진따. 속된 말로는 호구입니다. YOROSHIKU!



타케루 타츠야: (YOROSHIKU!)



[404] UMP45: "본인도 상당한 호인...이랄고 해야할까 바보 같은 레벨로 순박한 모양이니 끌어들이기도 좋지."



쿠사카 마리: (인턴의 엔트리다



[404] UMP45: 리스크도 적고 바로 끌어들이자는 모습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확실히."

"게다가, 타마스케씨와는 안면역시 익히고 있으니, 나쁘지 않군."
고덕



[404] UMP45: "안면이 있다면 더욱 좋네. 첫시작이 좋아."



타미스케 진: (안면(스마페로써)



타케루 타츠야: (밝혀야지 별 수 있겠나)



키도 리히토: (안면(맨얼굴을 모른다)



타케루 타츠야: (망망망망망)



[404] UMP45: 그럼 두 흑막아우라가 넘치는 페어는



타케루 타츠야: "대개 첫 시작이 좋으면 끝 또한 좋은 법이지."



[404] UMP45: 진의 근무하는 장소로 자연스레 갑니다.



타케루 타츠야: 이쪽은 스네이크. 희생자를 록 온 했다.



[404] UMP45: 진은 나와요



타미스케 진: (아아!



[404] UMP45: 진은 이때쯤 아무것도 모르고
여객선 야외부분의 순찰을 하고있을겁니다



타미스케 진: 평화롭게 경비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에 성실하게 돌고 있습니다.



[404] UMP45: 그리고 여기
두명의 나쁜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타미스케 진: (wwwww



[404] UMP45: 움사오와 타츠야조



타케루 타츠야: (wwwwww)



타미스케 진: 그리고 성실하게 순찰을 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다가오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고개를 갸웃합니다.



키도 리히토: (wwwwww)



쿠사카 마리: (괜찮아)



타미스케 진: "거기의 두 분, 뭔가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쿠사카 마리: (마리때는 45가 당하는 역이야)



타케루 타츠야: "예, 찾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싶군요."
"조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좋을까요?"



[404] UMP45: "반가워, 초면이지만 UMP45라고 해. 앞으로 잘부탁해."



타케루 타츠야: 찾고있는것. 그래, 있고 말고(흰 눈)



타미스케 진: "네, 뭔가 곤란하신 일이라도 있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분실물 관련이라면 경비측이 아니라, 다른 층에 있는 분실물 센터로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404] UMP45: "지금 우리, 심리전을 빙자한 내부군열로 사람을 둘정도 죽이려는 빌런을 찾으려는 중이거든."
하고 그녀는 상쾌한 얼굴로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만"
"조금 괜찮을까요?"



타미스케 진: 그러면 도움을 부탁한다는 말에, 성실하게 웃으면서 답하다가 상쾌한 얼굴로 말하고 있지만 흘러나오는 내용에 이내 심각한 표정이 됩니다.



타케루 타츠야: 오해사는 말 짚어!



타미스케 진: "그런 일이라면 경비로서도 지나칠 수는 없겠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타케루 타츠야: 역시, 엄청 성실한 녀석이다...!



[404] UMP45: "너무 화려하면 곤란해. 조금 네가 일하는 것에 피해가 갈지 모르지만 잡으면 전화위복♪. 고로 좀 협력해주지 않겠어?"

한마디로

너만 근무시프트에서 빠져나와서

도와달라는 뻔뻔한 말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이 녀석, 협박으로 설득하고 있어...!



[404] UMP45: 아니면 사람이 둘죽을거라고



키도 리히토: (협박추)



타미스케 진: "즉, 비밀로 하고 움직여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다른 분들께 자리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와도 괜찮을까요?"



[404] UMP45: "물론, 상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는걸로 부탁해."



타케루 타츠야: "그 정도라면 괜찮을 듯 싶군요."



타미스케 진: "물론입니다, 그런 일을 선부르게 전했다가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역시 성실한 사람이네요."

호다닥 달려가는 진을 보며, 머리를 긁적입니다



타미스케 진: 그렇게 말하고선, 다른 인물에게 자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404] UMP45: "음, 정보대로 너무 ㅎㅎ, 착한 녀석이라 다행이네~♪"

그럼 달려가는 진따를 보며 그녀는 중얼입니다



타미스케 진: (히히힝



키도 리히토: (HOGU무엇



[404] UMP45: 그럼 진따가 잠시 자리를 비울때

"그나저나 오늘 위험한걸 처리해야하는 일도 있어. 변수가 되기전에 처리하지."

하고 진이 없는 사이에 그녀는 냉철한 눈으로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위험한 것?"

"폭탄이라도?"



[404] UMP45: "일전에 **위험한 변태가 이 파티의 티켓을 돈으로 손에 넣었다고 들었거든.** 그녀들은 지금 잘못 건들면 바로 폭발할거야."



타케루 타츠야: ".....음"



[404] UMP45: "이른바 기폭제겠네~♪"



타케루 타츠야: 종대사안이군요(흰 눈)



쿠사카 마리: (무슨 변태야



타케루 타츠야: (대체 무슨 하타 태자다...)



[404] UMP45: "고로 안보일때 몰래 보트에 버려야겠지. 본인과 모두를 위해서."



타미스케 진: (ww



쿠사카 마리: (분명 사진을 몰래 찍어서 팔아치우려는게 분명해

(수근수근



키도 리히토: (미안합니다 그 변태 그냥 수집빌런에 심지어 다른 고글한테 짬때렸어요



[404] UMP45: "외계인에 머리에 촉수가 달렸다니 특징은 특정하기 좋아. 방번호도 알고 미리 수면탄을 한방 쏘고 오지."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wwwwwwwwwww



타케루 타츠야: (wwwww)



키도 리히토: (살려주세요wwwwwwwww



[404] UMP45: 그녀는 치마에 손을 넣어서 분리된 기구를 꺼내서

조립하더니 금방 핸드건을 조립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흠... 만약을 위해 동행하죠."
"외계인의 부류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가 많고"



[404] UMP45: "응, 만일에 대비해 물리적 제재가 필요할테고."



타케루 타츠야: 외계인 굉장해!



[404] UMP45: 수면제가 안들을수있으니 가자고하고
가면
자, 이제 리히토입니다



키도 리히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이미 한 번 시도했다가 갈굼당하고 방에서 멍때린다에 카쿄인의 체리를 건다)



[404] UMP45: 그럼 리히토는....



[표류자] 벨트씨: 파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음, 그건 내가 조언을 해주지. 일전 놈과 만나서 과거도 상당히 기억났으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파바박하고



키도 리히토: "엥"
@엥



[표류자] 벨트씨: 파티매너나 기타등등, 귀족이...없는건 아니지만 귀족을 상대하는 법등을



키도 리히토: 으아악 준비러시다



[표류자] 벨트씨: 때려박히고



키도 리히토: (아조시 대체 뭘 출신임...?)



[표류자] 벨트씨: (기사



타케루 타츠야: (나이트(진)



키도 리히토: (앗 하이)
(혼종범위라 잊고 있었다



[표류자] 벨트씨: (이전에 커뮤로
(과거담에서 말했을텐데 기사였다고



타미스케 진: (ㅎㅎㅎ



키도 리히토: (내 머리가 윙크리다
(용서해주세요 불가박사님!



[표류자] 벨트씨: 여튼
리히토는 막 파티에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음, 조금 줄부의 느낌이 나지만 어쩔수없지. 이 세계는 귀족이 희소한것 같고.
대여한 정장을 입은 리히토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벨트씨의 감상이었습니다



키도 리히토: "옛날 이야기 개념이고 그거..."

"...정장 안 어울릴 건 예상했지만 그렇게 들으니 슬프네요"

죽은눈으로 거울을 보곤 옷매무새나 마저 정돈합니다.

그야...평소엔 입을 일 없었거든....

(그거다, 혈계전선 ED의 그거



변신 (GM): 그럼 그때 **똑똑**



타미스케 진: (고글이니 어쩔 수 없다



키도 리히토: (꺼흐흑)



변신 (GM): 문에서 노크 소리가 울립니다



타미스케 진: (수면탄수면탄



쿠사카 마리: (고글고글



타케루 타츠야: (노크노크-)



키도 리히토: "?"

"네, 누구세요?"

(방음이면 웃어요



변신 (GM): 딱히 대답은 없네요



키도 리히토: 노크소리에 뭐지, 누가 찾아올 것 같진 않은데 하고 의아하다가
무슨 알림인가 하고 문을 엽니다.



[404] UMP45: 짜라잔



키도 리히토: "...?"



[404] UMP45: 손에 권총을 든 소녀와
옆에 장신의 흥악남이



타케루 타츠야: 반갑네



키도 리히토: 으아악



[404] UMP45: "....음? 시리얼번호상 이 방을 배정받았을텐데."



타케루 타츠야: "....흠?"
다시 문 번호를 확인해보자



키도 리히토: @끔빱
(리히토 기준으로)처음보는 사람이 둘! 온다 유마!



타케루 타츠야: 그리고 리히토를 본다.



[404] UMP45: "이봐, 그쪽의 이름을 말해. 그 이상육구의 돼지외계인은 어디에 있지?"



타케루 타츠야: "....키도씨가 왜 여기에 있는겁니까?"
니가 왜 여기서나와?
콘

키도 리히토: ".....?"



[404] UMP45: 권총을 겨누며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리히토는 약 5초 정도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 얘기에 깨닫습니다.
상사놈 또 저질렀냐.



[404] UMP45: "그녀석이 멋대로 날뛰면 곤란해. 빨리 붙어줬으면 좋겠어."
여자쪽은 진지합니다



타미스케 진: (ㅎ



키도 리히토: ".....그 의장 말고 관심없는 상사라면 저한테 강제로 짬때렸습니다만"
"안 가면 본인이 간다고"
리히토입니다... 하타신문사의 핫산입니다...
리히토입니다....
@죽은눈



[404] UMP45: "...진짜 내부에 없나?"



타케루 타츠야: ".....과연"
"...차라리 다행이군요."
"그리고—"



키도 리히토: "아니 있으면 암전하게 대응을 못하..."



[404] UMP45: "괜히 돈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쏘겠어."
철컹



타미스케 진: (돈으로 왔습니다
(@진실



[404] UMP45: 바로 장전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돈보다는 협박이 무서워서 왔습니다(ry



키도 리히토: "있으면! 애초에! 안 오고! 그 상사 뜯어말리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울먹



[표류자] 벨트씨: 한편



키도 리히토: 목소리가 익숙한 스마일의 기운이 나지만 총구 들이대니 식겁중



[표류자] 벨트씨: 이쪽은 안광상태



타케루 타츠야: "뭐어...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하시죠."
"게다가—"



키도 리히토: "아니 잠깐만 그리고 안광 안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타케루 타츠야: "안면이 있는 분이니까요."
한숨.



[표류자] 벨트씨: -여차하면 변신에 때려눕힐수 있을거다. 내구는 이쪽이 위다.



타케루 타츠야: 너는 왜 여기있을까!



타미스케 진: (키도: 뉘심
(아아니아



키도 리히토: "그러니까 그 사고 좀 어떻게 해줄래요?!"



[표류자] 벨트씨: 좋은 녀석은 아니군



타미스케 진: (고글: 뉘심



[표류자] 벨트씨: 하고 반짝반짝



키도 리히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는 사이인 것 같지만 저 그쪽 분 누군지 기억 안 납니다!"



타케루 타츠야: "...뭐어, 키도씨도 다른 쪽으로 뵈게 뵈지만"
"접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키도 리히토: " "
벨트씨 뜯어말리다가 고글동절상태



타미스케 진: (증명네가우
(그래 웃는다던지
(중압 그거 | ㅇㅈ잖아 중압



[404] UMP45: "...당신 이상한 안면이 높네."
아니 많네



키도 리히토: (오렌찰싹



타케루 타츠야: "아무래도, 부업으로 하는 일이 조금."



타미스케 진: (끄아악



타케루 타츠야: (스마-일)



[표류자] 벨트씨: 그리고



키도 리히토: 이상한 안면이라는 얘기에 새삼 슬퍼졌는지 다시 죽은 눈이 됩니다.



[표류자] 벨트씨: -확실히 옆은 그녀석이다. 봉대괴인.



키도 리히토: "이런 확인사살로 괜찮은 건가..."
@퀘엥



[표류자] 벨트씨: 하고 이쪽이 증명해줍니다



타케루 타츠야: "괜찮으시다면,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위험한 사건에 휘말린지라."



키도 리히토: "위험?"



[404] UMP45: ".....음, 일단 무마도 필요하고 이야기를 부탁하는걸로."
그럼 그녀도 이제 믿게 된건지 권총을 치웁니다.



타케루 타츠야: "누가 제 얼굴을 도용해, 사건을 일으키는지라."

-  키도 리히토: 뇌내수습하고 나니 뭔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허?"
-  타케루 타츠야: "그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  키도 리히토: @허?
-  [404] UMP45: "정확히는 수라장-♪"
-  타케루 타츠야: "타마스케씨도 이 배에 계시니, 함께 설명드리죠. 따라와주시겠습니까?"
-  키도 리히토: "아니 그거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닌 이상 아무리 그래도 위화감 정도는....."
"....OH"
-  [404] UMP45: 하고 휴우-하고 휘파람풍으로 말합니다
-  키도 리히토: 수라장 얘기에 어, 음, 일났네 이거 하고 심한 눈이 됩니다만
그냥 볼 수도 없으니 일단 수긍합니다
"아, 네..."
하지만 수라장은 도대체 뭐야...
-  [404] UMP45: "유감스럽게도 상대는 겉모습 조건만론 구별이 불가능한 녀석이거든."
-  키도 리히토: " "
-  타케루 타츠야: "타인이 복사할 수 없는 키도씨는, 어떤 의미로는 최적의 동료.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군요."
-  [404] UMP45: "음? 그런 특이사항을 가진 사람인가?"
-  키도 리히토: @굵적
-  [404] UMP45: 호? 하고 감탄하는 표정입니다
-  키도 리히토: (노페이스는 특기까진 복사 불가능하됐나
-  타케루 타츠야: "겉모습을 카피하는 것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야, 벨트씨라는 별개의 자아가 있고
-  키도 리히토: 저걸 카피 가능하면 망겜이지 그냥
-  [표류자] 벨트씨: -나를 말하는 거겠군.
그럼 벨트씨가 웅웅거리며
말합니다
-  키도 리히토: @아, 응, 그런가 하고 이제 반쯤 흘러가는 표정
-  타케루 타츠야: "...그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니 본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것에 양해를"
자, 와주겠지, 키도씨!?
와주세요!
-  키도 리히토: @버영
"에...그럼"
"얼마나 도움될진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솔직히 불운에 휩쓸릴 것 같아요!
휩쓸릴 것 같아요!!



[404] UMP45: "참고로 실패하면 인간사이즈의 전함, 혹은 그보다 강한거랑 싸워야하니까~♪"



키도 리히토: "기다려, 그거 보통 수라장이 아니잖아"
뭐한거야 그 변장괴인...?



[404] UMP45: 그럼 이야기가 끝날무렵
마리
당신도 객실에서 막 나왔을때
리히토의 설득도 끝나고
움사오와 타츠야도 나올때
우연한 타이밍에 마주치게 될겁니다.



쿠사카 마리: 그러면
어젯밤에 델타씨(+언니)로 고른 드레스를 입고
철덩이와 함께 멍한 눈으로 선실바깥으로 나오던 중이었습시다



타케루 타츠야: "꽤나 우연의 일치가 있지만 이걸로 어느정도는—"
그렇게 이야기 하다가
마리를 보고 멈칫한다.
누나는 여기서 왜 있어?



쿠사카 마리: 마주쳤다고 했었지?



[404] UMP45: "음, 이제 진과 합류해서 천천히 추적해보면 될거야."



쿠사카 마리: 그럼 그쪽으로 무언으로 이동



키도 리히토: (리히토도 같이 있는건가 없는건가)
(설명이 헛갈린다)



[404] UMP45: 그렇게 움사오는 타츠야에게 마리를 본체만체
이야기만 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같이 있겠지)



[404] UMP45: (리히토도 같이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그런가)



[404] UMP45: (막나온거고



쿠사카 마리: -해서 그대로 45를 덩싹하고 안습시다



키도 리히토: "어라, 무슨"
" "



[404] UMP45: ".....?!"



타케루 타츠야: ".....!?"



키도 리히토: @.....?????????



쿠사카 마리: "에헤헤.... 엄마다아..."



[404] UMP45: 그럼 그녀는 어느세 빠르게 권총을 꺼내드는데..



키도 리히토: 모임? 대체 머임???



쿠사카 마리: 졸린눈



키도 리히토: "....."
".....??????"



[404] UMP45: ".....?"
그녀로서도 무슨 말인가하는 표정입니다



키도 리히토: 뭇이당가 이게, 하는 눈으로 움사오를 봅니다.
".....진짜 모녀? 님은 사람?"



[404] UMP45: "...아냐! 나는 독신이라고! 유감스럽게도!!"



타미스케 진: (w



키도 리히토: 잘 보니 잠꼬대의 기운이 나는군
(wwwww



[404] UMP45: 하고 진심이 담긴 사우팅을
합니다



키도 리히토: 슬퍼졌다



쿠사카 마리: "으음....?"



타케루 타츠야: 뭐임!? 대체 뭐임!?



쿠사카 마리: 안고 있는 상태로 동물마냥 쿵쿵하고 냄새맡기



타케루 타츠야: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 둘을 봅니다



[404] UMP45: "그...지금보니 비슷한것 같지만 처음 보는 애야..."
조금 머리색등을 보면서 말하지만 그녀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쿠사카 마리: "으음...."
"익숙한 화약냄새..."



타케루 타츠야: "...라고 합니다만"



쿠사카 마리: 졸린 머릿속은 엄마판정을 내리고 그대로 지속



키도 리히토: "아니 모친의 익숙한 화약냄새라는 발언도 어떨까 합니다만"



[404] UMP45: "...어떤 부모인지 모르겠지만 화약냄새가 익숙하다니 끝내주네."



키도 리히토: "일단 깨우는 게...?"



[404] UMP45: 그녀는 실소를 흘립니다



타미스케 진: (사실 도플갱어가 만든 자식이야
(@아무말



쿠사카 마리: (틀린 소리는 아니네



키도 리히토: 살려주게 철당군!



[404] UMP45: 철당군은
움사오의 근처에서
깡충거리며 댄스



타케루 타츠야: "...애완동물도, 뭐랄까"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만"
...애완동물 맞나?
가웃



[404] UMP45: 애완좌뱃



타케루 타츠야: 철당점프! 철당점프!
그는 철당이야!



쿠사카 마리: "디스의 프로그래밍 엄마가 했으니까아..."



[404] UMP45: ".....???"



키도 리히토: ".....?????????"



[404] UMP45: "뭐지, 이것도 그 노페이스놈의 짓인건가...?"



키도 리히토: @시바 이거 어쩌면 좋지 하는 표정



타케루 타츠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



[404] UMP45: 움사오는 혼란에 빠졌다



키도 리히토: "죄송합니다 그건 또 별개라 생각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타케루 타츠야: "...흠, 아니, 과연. 음?"
그러고보면
타츠야는 마리쪽 데이터 파일
오퍼D한테 받아본 적 있지?



[404] UMP45: 봤습니다
다른 차원출신인것 까지



타케루 타츠야: "...아, 혹시 그것인가."
그런 쪽이었나...



[404] UMP45: 단지 상세한 가정사는 모르는 정도



타케루 타츠야: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떨어지지만...?"
"....."
흠.



쿠사카 마리: "그러고보니 엄마하고 닮은 사람이 수상.... 으음..."



타케루 타츠야: 일단 데리고 갑시다. 라고 혼짓한다.



쿠사카 마리: "평소하는 일도 수상했어"

에헛



키도 리히토: " "



타케루 타츠야: 손짓손짓

데리고가자, 이거.



[404] UMP45: "일단 떨어뜨려줘. 이애랑 저 로봇이 굉장히 걸려..."



타케루 타츠야: "....자, 일단 이쪽으로"

마리아이이이!



키도 리히토: "앗 하이"



[404] UMP45: 한손에 권총을 든 상태로는 내치는것 외엔



키도 리히토: 철땡이 진정시키기 시도



[404] UMP45: 선택지가 없으니 둘에게 말합니다

리히토가 다가오려하니

등짝이 올라갑니다

철컹철컹

그리고 주피터 포가 전개됩니다



타미스케 진: (ww



[404] UMP45: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철컹



키도 리히토: " "



[404] UMP45: 철땡이의 안광-



키도 리히토: 물러나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물리적으로 사망할 것 같다



타케루 타츠야: " "



키도 리히토: "....아니, 그 일단 떼지 않으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

백킹 안광



[404] UMP45: 그럼 빼격이다가



타케루 타츠야: ".....방금 그건 대체 뭘니까?"

왓 더 주피터...



[404] UMP45: 철땡이는 순식간에 철컹 슈르륵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쿠사카 마리: "언니가 어태치먼트를 레일건으로 변경했어"



키도 리히토: " "



타케루 타츠야: " "



키도 리히토: 이보시오 카이저양바아아아아안!!!!



쿠사카 마리: 엄마가 했을땐 박격포였는데 라고 덧붙입니다



[404] UMP45: "어그레시브한 서브워편이네...."

그녀는 어이없는 눈빛으로 보고

"뭐, 지인인듯하니 어떻게하고 진에게 합류를."



타케루 타츠야: "...일단, 장소를 이동해서 이야기하죠, 쿠사카씨."



[404] UMP45: "일이 급하니까. 여차하면 나나 당신은 죽는거라고."



타케루 타츠야: "계속 안겨계시면 이 분도 불편해 하십니다."



[404] UMP45: 타츠야에게 이런 일로 지체하며 느긋하게 하지 말자고

그녀는 옷을 펴면서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수면부족?"

안 깨는데 어찌죠!



쿠사카 마리: "어디로...?"

그보다 누구?



타케루 타츠야: "Mr. 스마일 페이스입니다."

담담하게 자기소개

"타마스케 씨와 갑판 쪽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바닷바람좀 쐬면 잠좀 깨겠지!



[404] UMP45: 그럼 모두



타미스케 진: (ㅎㅎ



[404] UMP45: 그리고 마리는 끌려나오듯 진과 갑판에서 합류합니다.

아마 지금 돌아가면 진이 기다리고 있겠죠

참고로 이야기는 잘됐습니다. 솔직히



쿠사카 마리: 중간에 45를 놓고

디스를 안고 이동했습니다



[404] UMP45: 안의 인원들이면 특수부대나 빌딩만한 괴수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거라며 허가해줬습니다.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왜 개막부터 혼란한거지 하는 기분으로 이동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입니다www



타미스케 진: 이야기를 잘 끝내고 돌아와, 모습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야 빌딩 사이즈 괴수가 와봤자

함선소녀 n명한테 전함 일점타격 당하고

침몰하겠지...



쿠사카 마리: (빌딩사이즈 괴수가 오면 뭐

(인간사이즈 전함들에게 맞아죽네요



타미스케 진: "오셨군요, 이쪽의 이야기는 잘 끝났습니다만...."
늘어난 인원을 봅니다.



타케루 타츠야: "다녀오시는 사이, 다른 분들을 섭외해 왔습니다."
"...솔직히, 우연에 가깝습니다만"



[404] UMP45: "음, 진군. 미안하지만 여러 덤이 붙어서 말이지..."



타미스케 진: "하하, 괜찮습니다. 키도 씨와 쿠사카 씨네요. 다들 아시는 분이라 든든합니다."



키도 리히토: "안녕하세요...."



쿠사카 마리: "안녕하세요-"



키도 리히토: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쿠사카 마리: 뭔가 평소와 다르게 한톤 높음



타미스케 진: "안녕하십니까, 키도 씨. 쿠사카 씨. 여기서 뵈 줄은 몰랐네요."



쿠사카 마리: 거기에 묘하게 느긋함



[404] UMP45: "여튼 찾아야지. 노페이스...거기에 진군은 협력을 부탁해."
"굉장히 든든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타미스케 진: "하하 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 있을까요?"



[404] UMP45: 하고 그녀는 살(기)가운 미소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타미스케 진: 그리고 잠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에, 자기소개를 했던가? 하고 가웃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좋습니다. 먼저, 이쪽의 자료 영상을"



타미스케 진: 일단 이름은 들었는데...



타케루 타츠야: 후우
내 짝의 여자꼬시는 데이터다(흰 눈)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정신줄 수습하고 자료영상을 본다
그리고 다시 정신줄이 날아간다
".....???????"



타케루 타츠야: "...친우에게 도움받아 얻은 자료입니다만--"



타미스케 진: 그러면 타츠야가 보여주는 자료 영상을 진지한 모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무래도, 해당 빌런. UMP45씨의 말로는, '노 페이스'라고 불리는 자는 제 얼굴을 빌려 여성을 유혹하는 행동을 한 듯 합니다."



키도 리히토: 고글동절이 끝나지 않는다!




쿠사카 마리: 그러고보니 언니도 언니의 얼굴을 빌려서 뭔가한다고 했었지





[404] UMP45: (움사오의 얼굴


쿠사카 마리: (오타야


(엄마


 타케루 타츠야: "또, 그 범행 동기의 추정입니다만..."


 [404] UMP45: "참고로 이쪽은 그전의 피해자. 사기나 거짓말에 능숙한 녀석이지."


 쿠사카 마리: "응-"


 타케루 타츠야: "해당 인물은, 여기의 UMP45씨에게 복수당한 원한을 품고 있는 듯 합니다."


 [404] UMP45: "나에대한 보복이 있을거라고 생각해 혼란을 만들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말고도 있겠지.**"


 타케루 타츠야: "혼란을 일으켜 복수를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 라고 추정되는 만큼, 현재 이 여객선에 잠입했다고 생각됩니다만..."


 [404] UMP45: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그말고도?"


 쿠사카 마리: "실존인물로 사칭하는데서 질이 나쁘다고 생각해"


 키도 리히토: 정신줄 채수습

 타미스케 진: "그래서 둘 정도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던 거군요...."


 [404] UMP45: "뭐, 자세한건 나도 일부정도만 아는 정도?"


 타케루 타츠야: "거기서 저의 얼굴을 빌린 점, 제가 공적인 정보를 남기지 않는 시간대에만 행동한 점에서" "저를 겨냥한 범죄이기도 하다. 고 추정됩니다."


 [404] UMP45: "**자세한건 이 남자의 일이 끝나면 공개할 마음은 있어. 나도 살아나니까...**"


 키도 리히토: "...."


잠깐 다시 기록을 보자


 타케루 타츠야: 요컨데, 자신의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키도 리히토: "근데 단독으로 이렇게까지 높은 재현율이 가능한가...?"
몰라 뭐야 이거 무서워, 하는 심정입니다.


 [404] UMP45: 예, 다른 셋이 보기엔
명확히 타츠야가


 타미스케 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군요, 직접적으로 노리는 인물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할리는 없을테니까 말이죠."

 타케루 타츠야: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404] UMP45: 본인이 해놓고 발뺌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레벨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따라서, 저는 별개의 스폰서, 또는 공범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하는 신뢰감은 털 난 만큼은 있으니까(떨림)

 타미스케 진: "하지만..... 정말로 똑같이 재현이 되어있네요. 모르고 봤다면 이 영상의 모습이 진짜라고 믿어버렸을 거 같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예. 다만, 사소하거나 미세한 버릇등에서는 완벽히 따라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키도 리히토: "그러게요...버릇인가"

@금적



[404] UMP45: "뭐, 간파법은 내가 말하지."



타미스케 진: "네, 부탁드립니다."



[404] UMP45: "이쪽이 말하는건 무경험자의 추론이니까♪"



쿠사카 마리: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 때려라?"



[404] UMP45: 믿으면 큰일난다구?

하고 움사오는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wwwwww)



쿠사카 마리: 의오빠 한명식의 이론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HAHAHA



키도 리히토: (무경험자?



쿠사카 마리: (주로 심화를 불태우는 느낌의



타케루 타츠야: (노페이스 체포 경력 없음)



키도 리히토: (그쪽인가www



타케루 타츠야: "태우면 큰일납니다."



쿠사카 마리: (살해경험은 있군



키도 리히토: "심화는 어째서야"



[404] UMP45: 리히토는 제 4의 벽에



타미스케 진: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내부균열을 노리는 상대의 특성상 더 도움이 되는 꼴이 될 테니까요."



[404] UMP45: 뭔가 도전하는 감각을 느낍니다



쿠사카 마리: (제4의 벽 안쪽의 이야기를 어째서 태클거는거야



[404] UMP45: (심화는 말한적 없다



타미스케 진: "확실하게 증거를 잡은 뒤에 해야합니다."



[404] UMP45: 묘한 전파 같군요



타케루 타츠야: (실로 4의 벽에 도전하는 츳코미)



키도 리히토: (아 미안

(잘못 봤다

(저건 날려라!



타미스케 진: (타츠야 또한 태우면 큰일난다는 말을 한 걸 봐선



키도 리히토: "혀씹었어"



타미스케 진: (전파를 받았다
@말한적 없음



키도 리히토: 뭔가 말하려다 얼굴감쌌



[404] UMP45: "음, 뭐...다들 일단 조용히 해줄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앓 하이



[404] UMP45: 다들 중압에 걸립니다



키도 리히토: 으아악
살인미소다



타미스케 진: "하하, 알겠습니다. 설명에 방해가 되어버렸네요."



쿠사카 마리: 마리는 안걸려도 되나?



타미스케 진: 중압을 마이너로 해제하고 가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끄덕



키도 리히토: 중압! 마이너! 해제!



[404] UMP45: 마리는 오랜만에 받아서 걸립니다



타케루 타츠야: 후, 중압이라니, 친숙하군



키도 리히토: 고글은 조용해졌다!



쿠사카 마리: "응- 오랜만-"



타케루 타츠야: 담담히 풀어내며 고개를 끄덕이자



쿠사카 마리: 풀어내면서 디스를 쓰다듬기



[404] UMP45: "그럼 조용해졌으니 말하자면-."
"외형에서 태클걸거나 습관으로 지적하는건 불가능해."
그녀는 시원하게 말합니다
"그런 습관이나 외형은 완벽하게 재현해내니까 말이야."



타미스케 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내는 게 좋을까요?"



[404] UMP45: "하지만 말이지? 머리속 소프트는 노페이스란 거니. 본래와는 다르지."
"즉 운영프로그램의 차이란거야."
"



키도 리히토: 과연과연 하는 느낌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



타케루 타츠야: "...과연"



쿠사카 마리: (모르겠다



[404] UMP45: "행동 루틴이 비슷할것 같지만, 사소하게 오차가 나."



쿠사카 마리: 그럼 손들고 질문



[404] UMP45: "판단방식의 차이인거지. 인간의 사고구현은 지금도 완전동일한것은 복제하지 못하고 있고."



타미스케 진: "확실히, 본인이 아닌 이상 사소한 것들 모든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쿠사카 마리: "선상파티라는 상황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도 변명거리가 있는데?"



[404] UMP45: "그게 아니야, 그 상황에서라도 그 녀석은 그런 행동을 했을거다. 같은 성향의 문제야."
"문제는 이걸 초면인 사람들이 알아낼수있는건 아니지."



키도 리히토: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다면 모를까...."
"인가"



타미스케 진: "네, 저희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키도 리히토: 그렇지요-



타미스케 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아채기는 힘들겠네요."



타케루 타츠야: "그렇죠"



[404] UMP45: "그래서 초대권을 제작할때 미리 친한 사람을 초대 가능으로 해놔어. 한번당하니 주의할겸-♪"



키도 리히토: 생각하는 고글
"...그러니까"



[404] UMP45: 하고 티켓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그쪽들 같은 이레굴러도 있지만."



키도 리히토: "서로 친한 사람이라면 운영프로그램 변경의 위화감을 알 수 있다...?"
"앗 하이"
@이레굴러무룩...



타케루 타츠야: "아마도."



[404] UMP45: 리히토와 마리를 봅니다



타케루 타츠야: "...확실히, 일전 인사를 나눌 때에도"



키도 리히토: 상사가 나쁘다 상사가!



타케루 타츠야: "폐어였던 분들이 많았죠"



쿠사카 마리: "?"
뭐 있어?



타미스케 진: "그렇다면 그 분들께 넌지시 여쭙보는 편이 좋겠네요."



타케루 타츠야: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당사자로 지정된 만큼 제가 잘못 움직이면 연회장의 문제가 기폭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슬프다...



타미스케 진: "으음, 하지만 많이 힘드네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걸 물어보느냐가 난관입니다만...."



[404] UMP45: "어찌되었든 한쪽이 뭔가 미묘한 감을 느끼겠지만...그것외에도 특수능력이나 일체형 무장의 재현도 불가능해."



타케루 타츠야: "...무장의 재현이 불가능하다면—"



[404] UMP45: "에초에 가능했다면 거짓말이나 사기로 먹고살지 않았겠지."
그녀석이 사기꾼인 이유야, 하고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



타케루 타츠야: "약 두 명, 무죄인 사람을 알 것 같습니다."



키도 리히토: 저기, 저 생각해보니 의장촬영 째맷았습니다만
@죽은눈



쿠사카 마리: "으음...."



타케루 타츠야: "제 앞에서 외장이나 다름없는 손을 변형시킨 분과 외장을 겨뤘던 분이 있기 때문에."



[404] UMP45: "음...중간에 교체되었을 의심은 거두지 않는게 좋아."
"힘 대신 기술과 속임수로 승부를 거는 놈이니까."
타츠야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그렇네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몇몇 분들은 저희끼리 못 알아볼 가능성은 없을 거 같습니다."



쿠사카 마리: "하지만 이 사람이 여자한테 손댔단 의혹인거지?"



타케루 타츠야: "그렇죠."
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슬프다



[404] UMP45: "그렇지."



키도 리히토: @얼굴감쌈



타미스케 진: (ㅎㅎ)



[404] UMP45: "그래서 이쪽은 제대로 나서는게 힘드니까. 대신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어."
진을 보면서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과연,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아, 저에 대해선 걱정말아주세요. 만약 벨트나 메달을 못 꺼내면 제가 아니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짤, 하고 허리에서 슈숙하고 벨트가 나타나 착용되는 광경이 보입니다.



키도 리히토: 하반신만 변신이 안 되는 건 따라하려고 해도 하중 버티는 게 무리지 그거...?
하는 눈빛입니다만 굳이 말하지는 않는다



타케루 타츠야: "저나 UMP45씨는 위장될 위험이 있고, 어느쪽이나 노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페어로 동행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니, 부디 잘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자
따흐흑



타미스케 진: "네, 물론입니다. 여기서도 각자 흩어져버리면 알아보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서로의 동행이 필수적이겠죠."



[404] UMP45: "좋아, 일이 폭주하는 방향은 안되겠군."

-  **타미스케 진:** "우선 UMP45 씨와.....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타츠야를 보자.
-  **[404] UMP45:** 그녀는 안도하고
-  **타케루 타츠야:** "뭐어,... 본명으로는 타케루 타츠야. 입니다."
-  **키도 리히토:** 어라, 이거 하타놈 방치했으면 진짜 터졌지?
하는 표정.
-  **[404] UMP45:** (그래, 불행의 별로 구함
-  **타케루 타츠야:** "여러분과는 Mr. 스마일 페이스.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고마워요 리히토에몽!)
-  **타미스케 진:** "아, 스마일 페이스 씨였군요! 어쩐지, 쿠사카 씨나 키도 씨와도 빠르게 합류할 수 있었다 싶었습니다."
-  **타케루 타츠야:** "거듭, 이번 일은 잘 부탁드립니다."
-  **타미스케 진:** "물롭니다. 아무튼, UMP45 씨와 타케루 씨는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가 잘못 쳤다
-  **키도 리히토:** 정체는 확인했고 아무튼...
-  **[404] UMP45:** "뭐, 이쪽도 만약 의심된다면 무거운걸 들게 시켜봐."
-  **키도 리히토:** (자주있다
-  **liverty:** (팅겼었어
-  **타미스케 진:** (아아
-  **[404] UMP45:** "나노머신으로 강화해서 신체능력은 평범하지 않거든."
-  **키도 리히토:** "잘부탁.....진짜가"
-  **[404] UMP45:** 후후, 하고 그녀는 나즈막히 웃으며 말합니다
-  **키도 리히토:** (나노머신도 카피는 무리인가
(생각해보니 전투시에는 카코인당하고
-  **타케루 타츠야:** "즉, 상대는 무거운 물건은 들면서 힘겨워하는, 일반인 즈음의 근력을 가지고있다."
-  **쿠사카 마리:** "....."
-  **타케루 타츠야:**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  **타미스케 진:** (w
-  **쿠사카 마리:** "나노머신-은 별개개체 취급일지도"
잠이 조금 깼습니다
-  **[404] UMP45:** "평범하 인간에서 조금 나은 정도겠지. 전투로 그 재능을 안살리는것도 막혀서 그런거고."
-  **타케루 타츠야:** (정신병자 디오(에게 당하는 카코인) 당하는 노페이스)
-  **타미스케 진:**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여차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404] UMP45: 참고로 일반인보다 조금 강해져봤자

님들 변신 방어력에
그냥 노데미지입니다



키도 리히토: "과연..."



[404] UMP45: 총싸도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즉 전투가 안 되는 만큼 현 상황 특화인가..."



타미스케 진: "그리고 키도 씨의 구별은 문제 없겠고....."
벨트 씨가 말하면 해결된다



키도 리히토: @으아악 돌아가라 고글회로야
(데스요네



타케루 타츠야: 만능벨트



키도 리히토: "그러면..."
"타미스케 씨는 메달 쪽...이 걸리고 쿠사카 씨는...."
철덩 없는 게 가짜군



[404] UMP45: "나도 나서는데 좋은 인간관계는 아닌지라...내 동생이나 팀원들이 아니면 그만두는걸로."



키도 리히토: @확신



타미스케 진: (www



타케루 타츠야: 철덩증명



[404] UMP45: 그럼 안미안미하고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제 경우는... 흠. 무기 이외의 증명수단이..."
....없네!?



키도 리히토: "....."
@티벳여우



타케루 타츠야: "...다목적 봉대와 무기. 정도군요."



쿠사카 마리: (하하



타케루 타츠야: "아아, 아니면"
손에서 오리를 피워보자
"오려도 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고마워요 오라아츠..!



타미스케 진: (ww



쿠사카 마리: "디스가 있으니까 괜찮아"



[404] UMP45: (이것이 넌....@아무말



타케루 타츠야: (이것이 넌...)



쿠사카 마리: 품에 안고 있는 철덩이를 보여주죠



타케루 타츠야: (처음에는 주먹—)



키도 리히토: 긴가민가하면 술먹이자
오래 버티는 붕대가 진짜다



타케루 타츠야: "아무래도, 주량의 쪽도 따라할 수 있는 듯 하기에"
웬지 잘 마시더라고.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



쿠사카 마리: "그냥 평소부터 잘마셨던게?"



키도 리히토: 108맥주를 따라잡는다니 뭐하는 놈임?



타케루 타츠야: "아니면 그냥 태생이 주량에 우수한걸지도 모르죠."
@금적
자, 그러면



타미스케 진: "하하, 타케루 씨도 무거운 물건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타케루 타츠야: 노페이스 !더스트 크루세이더즈
"물론입니다"



타미스케 진: "그렇다면 UMP45 씨와 같은 방식으로 구별하도록 하죠."



타케루 타츠야: "일단, 저는 슈트 없이 활동하니까요."
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404] UMP45: "뭐, 그정도 근력은 재현불가할지도 몰라."



키도 리히토: 그런가 그런가...하는 표정
(이 대화 도청하고 있거나 하진 않겠지



[404] UMP45: "단지... 주량이 굉장했던건 걸리네."



타미스케 진: (www



타케루 타츠야: "...확실히"
"신체능력을 따라할 수 없다면, 주량에서도 보통 문제가 생깁니다...만"



타미스케 진: "으음, 그건 지금으로선 알 방법이 없겠네요."



타케루 타츠야: 그 주량을 따라간다고? 하하, 웃기는군(흰 눈)



[404] UMP45: "뭐, 여튼 일체무장을 갖고있는 사람들부터 흑백을 가리거나.."



쿠사카 마리: "주량이 강하면 용의선상에 올려도 되는걸지도"



[404] UMP45: "내 팀원이면 내가 알아서 알아볼수있어."
"거기에...."
그녀는 눈빛에 사악한 빛을 띄며 말합니다.

"머리를 굴릴줄 아는 그놈이라면 지금 여자들 사이를 맴돌아서 이야기하며 악화를 시키는걸 노릴테니까."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메타적으로 우리형과 뽀지는 범위 제외던가 하지만)
" "



[404] UMP45: "그녀석이 건드린 여성진을 특히 알아보는게 좋겠지."



타미스케 진: "확실히, 내부균열을 일으키려면 피해자와 관련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네요."



키도 리히토: "....아, 응, 모르는 사람이었고, 걸린 사람 기준으로 이미 그쪽이 진짜 취급이니까..."
(잠시 후 모바일



타케루 타츠야: "....아무래도 급한 안건이군요."



[404] UMP45: "그럼 파티홀로가서 행동해보도록하지."
"빨리 안하면 이 배가 정말 거대한 관이 되버릴꺼야~?"
콧노래를 흥얼거리듯



키도 리히토: " "



[404] UMP45: 그녀는 말하며



타미스케 진: "하하, 그렇게 안 되도록 힘을 써야겠쥬. 타케루 씨와 UMP45 씨를 대신해서, 대화는 제가 하겠습니다. 한 때 메탈 블러드에서 일을 했던지라 몇몇 분들과는 안면이 있습니다."



[404] UMP45: 파티장을 가르킵니다



타미스케 진: (진진자라 진진따
(나에게 힘을 줘요 지미



타케루 타츠야: "사자 뱃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지만..."
"어쩔 수 없겠쥬."



키도 리히토: 너무 성실해서 미스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현실



타케루 타츠야: 자아, 그러면 갈까..!



키도 리히토: 하지만 리히토는 그냥 고글이야
가자고



타미스케 진: 아아



[404] UMP45: 그럼 여러분들은



쿠사카 마리: (하하



[404] UMP45: 지금까지와 다른 전장에



쿠사카 마리: (묘하게 튕기는 느낌인데



변신 (GM): 새로운 위기를 막기위해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여객선 다이달로스는

과연 스마페의 관이 되지 않을수 있는 것일까...!
(씬 종료해요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아아!

----- 씬#1 종료 -----



변신 (GM): 그럼
잠시
5분간 쉬고 가죠



타미스케 진: 아아



키도 리히토: 오우



타미스케 진: 힘낸다 진DDA
난 도움이 되는가?



변신 (GM): 이제부터는
의심전이 시작됩니다



타미스케 진: 히히



키도 리히토: 으 ㅏ 아 ㅏ 아



타케루 타츠야: 후우
도움이 된다!



쿠사카 마리: 마리는
나노머신의 시점서 정신이 들었다



키도 리히토: 고글야캐요



변신 (GM): ㅎㅎ
그리고보니 여러분들의 아군인
움사오는 어떤가요?



타미스케 진: 아아



쿠사카 마리: 좋다



타미스케 진: 험박을 시도하는 모습에



타케루 타츠야: 좋은 동료다



타미스케 진: PL: 이걸 거절해 말아



키도 리히토: 아 너무 무섭다



타미스케 진: PC: 당빠 받죠



쿠사카 마리: 대충 나노머신의 시점에서 엄마가 아니란건 깨달았지만



타미스케 진: 사고방식.



쿠사카 마리: 앞으로도 엄마라고 부릅니다
(재미있으니까)



키도 리히토: PL " "
PC " "



타미스케 진: 무서운 모습에도 미소와 함께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친근하게 말하는 PC에
오렌이 웃었다



변신 (GM): ㅎㅎㅎ



타미스케 진: 의심 좀 해라 빠-



변신 (GM): ㅋㅋㅋㅋㅋㅋ



타케루 타츠야: ㅎㅎㅎㅎ



변신 (GM): 하지만 진따니까
신뢰했다



타미스케 진: ㅎㅎㅎㅎ



키도 리히토: 오늘의 리히토
몰라 뭐야 이 사람 무서워
@개막부터 총맛을 위기부터 시작해서



변신 (GM): 일단 이번 씬 1에
모든 준비를 마춰줬다



타미스케 진: 아아



변신 (GM): 이제 잘 풀어나가면 된다.



타미스케 진: ㅎㅎㅎ



변신 (GM): 후, 너무 난이도가 떨어져서 슬프군



키도 리히토: ㅎㅎㅎㅎ



타미스케 진: 괜찮아요
분명 PL은 난이도가 떨어져도



키도 리히토: 내 리얼두뇌는 팔소만도 못하다



타미스케 진: 힘들어 할 거야
오렌의 마스터링 경험담ㅇ비니다.
그림자의 마을



변신 (GM): ㅎㅎㅎㅎ



타미스케 진: 너는 나의 빛이다
@아닙니다



변신 (GM): 꿈속도 빛아님?

@그저 빛빛



타미스케 진: ㅎㅎㅎㅎ

힌트를 퍼줘도 모르는 PL들

오렌: 어찌란겨



키도 리히토: 너무 빙빙 도는 데 익숙해져서 그렇다

용서해라 사스케



변신 (GM): 그럼

시간은 한참 넘었고



타미스케 진: 아아



쿠사카 마리: 아핫



변신 (GM): 모두 있습니까?



키도 리히토: 최악: 빛속

웃우



타케루 타츠야: 있다구



타미스케 진: 있다구



변신 (GM): 그럼 이 씬을 이끌고싶다던가

먼저 나서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미스케 진: 성격상으로 진따가 먼저 나설 거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나설지 내가 몰라.



변신 (GM): 그래, 그럼 이번 씬주는 너야



키도 리히토: 일단 리히토를 밀어넣어라



변신 (GM): @픽



타미스케 진: 올ㅋ



키도 리히토: (돌아버림



타미스케 진: 키도도 와라



키도 리히토: 으아악!



변신 (GM): 그럼 리히토는 다음이다



키도 리히토: 살려주세요



변신 (GM): @썬3 메인확정



키도 리히토: 전 그냥 사진찍는 고글입니다



변신 (GM): 이제부턴 씬주가 별로 상관없다

빨리 찾을수있나가 문제기에



타미스케 진: EE다로



키도 리히토: EE와요
오래 끌수록 ㅈ되는가



타미스케 진: 그런것



타케루 타츠야: 오래끌수록
수라장화 당한다



변신 (GM): 좋아, 굴러볼까



키도 리히토: (한 명 사라졌다 나타나거나 할 때가 기준점이군
(썸 교체나
무엇



변신 (GM): 타임리밋은 대략 썸 4개 안이네요.
일단 굴러왔 공개로



타미스케 진: 올ㅋ



변신 (GM): rolling 1d8

(3)

= 3



키도 리히토: 으아아앗



변신 (GM): 과연과연
그럼 썸 2를 시작하죠
진따와 용감한 동료들은



타미스케 진: 과연 진따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변신 (GM): 노페이스를 찾을수있을것인가



타미스케 진: 헤헤 힘내요



타케루 타츠야: 간바리마썬



변신 (GM): 그전에 진따는 처낼사람 없음?



타미스케 진: 흠..
@고민



변신 (GM): 자, 파티퇴장시켜라 파티장



타미스케 진: 일단 타츠야는 처냅니다.



변신 (GM): 히히힝



타미스케 진: 넌 안 돼



변신 (GM): 타츠야는 수라장의 악화를 막기위해 퇴출당했다.
다음은 사오?



타미스케 진: 45는... 나을 상대가 어떤 상대일지 몰라서
고민이 된다



쿠사카 마리: 이 무슨



타미스케 진: 그래도 넌 타츠야랑 같이 다니라고 했었지
쳐낸다



쿠사카 마리: 그럼 마리는 45를 따라가요
(쫄래쫄래



변신 (GM): 올ㅋ



타미스케 진: @말한 건 따라야한다
키도와 함께 갑니다



변신 (GM): 아예 씬에서



타케루 타츠야: 흑흑



변신 (GM): 빼란 소리가 아니었지만
판정횟수를 줄인다면
이몸 대환영이야



타미스케 진: 과연과연
그럼 빼내진 않겠어



변신 (GM): 어째서야
@난데야



타미스케 진: 오렌은 GM의 조언을 잘 따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가자! 파티들아!



쿠사카 마리: 아아



키도 리히토: 으아악
재굴림 들고 갈 수밖에 없디

--- 씬#2 ---

시간: 여전한 밝은 오후

배경: 화려한 파티홀의 안쪽

등장PC: 나이스보트 방지 위원회.



타미스케 진: (위-원-회-

---- 씬 개시!! ----



타케루 타츠야: (업무후, 뒷골목 동맹!)



키도 리히토: (암온어보트



변신 (GM): 그럼 여러분들은 움사오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본래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가려고했던 파티홀에 도착했습니다
파티에서는 많은 사람(엑스트라)들이 보이고
그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네요
그중 함선소녀쪽은 다들 굉장히 독특한 복장과 매력을 풍기는 미소녀들끼리라 더욱



변신 (GM): 눈에 띄니다.



키도 리히토: 함선소녀 쪽을 보고 좀 많이 죽은눈이 되어가는 리히토



변신 (GM): 그외엔 일반인 같지만 노련한 강자라는 아우라의
여성분들도 있네요



키도 리히토: "그렇다고 안 하면 사장이 이번에야말로라며 날뿔 게..."
@얼굴감쌈



타미스케 진: "그리고보니 키도 씨는 무슨 일로 여기에 오신 건가요?"



변신 (GM): 역시 굴지의 여성직장인의 전투력이 굉장한 기업 1위에 빛나는



키도 리히토: "의장 사진이요
"



변신 (GM): 메탈블러드 답습니다



키도 리히토: "소녀 말고 의장만..."
"사장이 안 하면 자기가 간다고..."
죽어있는 고글



타미스케 진: "음....."



변신 (GM): 참고로 보통으로 캠페인 같은 것으로



타케루 타츠야: (힘내라 힘-)



변신 (GM): 함선소녀들을 마구 찍거나 그런건



타미스케 진: "사장 분께서는 보통 다른 분들께 평이 어떻게 되십니까?"



변신 (GM): 실레라는건 퍼져있습니다



쿠사카 마리: "변태?"
카페 왔을때의 뒷담화를 기억합니다



키도 리히토: "크로스게이트로 날아가도 곧 돌아오는 괴생물"



타케루 타츠야: (연구대상(진))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이 그나마 암전한 평가입니다만"
@죽은눈



타미스케 진: "하하,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였네요."
"하지만 변태라...."



키도 리히토: "기다려, 그 포인트는 뭔가 달라"
칭찬이나 욕이나



[404] UMP45: "음, 뭔가 굉장한 변태네. 의장만이라니..."



키도 리히토: "사람으로 치면 맨팔만 찍어달라는 거고"



[404] UMP45: "먼 구역에는 드래곤카-빠-로 흥분하는 변태들이 산다고 들었는데 비슷할까."



키도 리히토: "?????????"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시바 뭐임?????



쿠사카 마리: "나쁜말, 안돼"



타미스케 진: "음, 좋습니다. 이걸 키도 씨의 상황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쿠사카 마리: 움사오의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404] UMP45: "뭐, 사람으로 치면 잘차려입은 옷을 건어서 맨살을 보여서 찍혀달란거지."



타미스케 진: (ㅎㅎㅎ



타케루 타츠야: (www



[404] UMP45: "의장을 감추는건 꾸민거니까."



키도 리히토: "상황이 상황이라 뭐든 이용해야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벌써부터 심한 예감밖에 들지 않는데요!?"



타케루 타츠야: (나, 일단 등장중인건가..!?)



타미스케 진: (응



타케루 타츠야: (@혼란



[404] UMP45: "이빨을 감춘거고."



키도 리히토: (그렇대



타케루 타츠야: "마니악하네요."



쿠사카 마리: (드XXXX스는 안되지)



[404] UMP45: (그러함



타미스케 진: "하하, 굉장히 실례되는 일이겠군요. 죄송합니다, 키도 씨. 하지만 부탁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404] UMP45: "알아보기 쉬운 것이니까."



키도 리히토: 여길 보세요 고글입니다
숨쉬지 않죠

[404] UMP45: 그럼 리히토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눈으로 봅니다



키도 리히토: 하지만 안 하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살려주게 사오군!!



타미스케 진: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의장을 한 번만 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404] UMP45: 언제든지 물린다면 꼬리를 자를 차가운 눈이에요



키도 리히토: "아니 신분 밝히면 밝히는대로 다른 의미로 짜게 식을 것 같은데요!"



타미스케 진: "그게 중요합니다. 찍을 수 없게 되면, 그 변태라는 분이 다시금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허락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도 리히토: "그거 돌려 말해서 협박이지?"



[404] UMP45: "....그건 신박하네."



키도 리히토: 후 젠장



타미스케 진: "보통 그렇게 널리 변태라는 이야기가 퍼져있는 분을 보고 싶지는 않을 테니...."



키도 리히토: 하지만 갈 수밖에 없다
@죽은눈



타케루 타츠야: "...게다가, 외장을 꺼내지 못하는 분을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404] UMP45: "역시 프리드리히, 그 괴물함의 마음에 들만한 녀석이군."



타케루 타츠야: 나쁘지 않은 발상이다...!



타미스케 진: (wwwwww



[404] UMP45: 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것은 맹점이었다는 듯, 진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게다가 찍지 못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타케루 타츠야: UMP45씨, 이 남자는 훌륭해요...!



쿠사카 마리: "응, 협박이지만 좋은 소리네"



키도 리히토: 살려주세요



타미스케 진: "모두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도 리히토: 아무튼...응...그렇게 됐다...



쿠사카 마리: "으음...."



타미스케 진: (사실 말하고도 진짜 그렇게 생각된다



쿠사카 마리: "다른 방법도 있는것 같긴한데"



키도 리히토: "수수하게 가장 지독하지 않습니까?"



타미스케 진: (못 찍으면 다음에 직접 올 거잖아 애들



쿠사카 마리: (하하



키도 리히토: 진을 보고 말합니다만
그 밖에 다른 방안도 생각나지 않는군



[404] UMP45: "그럼 일단 알아보기전에 그룹을 나눠보지



쿠사카 마리: (마리가 외형을 이용해서 의장을 보고 싶다고 조른다던가



[404] UMP45: "



타미스케 진: "하하, 지금 방안이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말이죠."



타케루 타츠야: "단순히 협박이라기에는 사실이기도 하죠."



키도 리히토: 젠장 저기 없으면 다른데 있겠지!



[404] UMP45: "적어도 지금 있는 큰집단은 3곳이야."

하고 파티홀을 가르킵니다.

그리고 손끝이 움직입니다.

"메탈블러드 소속 함선소녀들이 있는 곳."

"보다 상위의 힘을 가진 함선소녀, 대외 협력자들이 있는 곳."

"나의 팀과 M16등이 있는 나노머신 강화한 동료들이 있는 곳이네."



[404] UMP45: "진군의 장점을 생각할때는...상위 힘을 가진 함선소녀쪽일까? 프리드리히는 그쪽 계열이고."
그녀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타마스케씨의 상황에서 오는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그쪽 그룹이겠죠."



타미스케 진: "네, 확실히 프리드리히 씨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니까 말이죠."



[404] UMP45: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저 세곳중에서 투표하면됩니다



키도 리히토: 여긴 없지만!!
(포효



쿠사카 마리: (타케루=스마페인걸 마리는 아직 모르는거던가?)
(모르는걸로 가자)



키도 리히토: (말은 했던 것 같은데



타미스케 진: "음, 하지만 프리드리히 씨에게 키도 씨의 방안을 사용해도 괜찮을런지....."



[404] UMP45: (말은 했다. 몽롱할때



쿠사카 마리: (말은 했는데 기억을 못함



키도 리히토: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잘못하면 의장전개 맞고 날아간다는 예감이 굉장해"



[404] UMP45: "뭐...그녀라도 변태는 싫을거라고 생각해."



쿠사카 마리: (이번 시나리오서 마리는 개그캐릭터로 간다 (적당)



[404] UMP45: "벌레를 죽이는 힘은 있어도 피하는것 같은?"



타미스케 진: (ㅎㅎ



[404] UMP45: 그녀는 애매히 말하네요



키도 리히토: " "



타미스케 진: "음, 그렇군요."



쿠사카 마리: "으응-"

"일단 사진을 그렇게 찍는다고해도...."



타미스케 진: 그래

난 여기서



쿠사카 마리: "가짜라 해도 찍는 이유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는게 도움이 되겠죠?"



타케루 타츠야: "...확실히, 그렇겠죠"



타미스케 진: 이지판정으로 어디가 좋을지 힌트를 얻어보자.



키도 리히토: (즉 무슨 소리야



[404] UMP45: 그럼 판정없이 그냥 상위함으로 가는게 좋다는게 당연하지만
그래요, 머리를 굴려보세요



키도 리히토: (공개처형 한 명 더?



타미스케 진: 아아!



[404] UMP45: 난이도는 13입니다.



타미스케 진: 좋아, 이지 난이도 13
색다름 특기를 사용! 달성치에 +1 추가!
간다!

rolling 2d6+5

(5 + 6)+5

= 16

앗따요



[404] UMP45: (쓰레기가
(@진심



키도 리히토: 무엇



타케루 타츠야: 사스가



[404] UMP45: 그럼 진은 떠올립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타미스케 진: 그 때, 진따의 뇌리에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변신 (GM): 그러고보니...파티고
조금 그렇지만...진, 자신은 프리드리히에게 친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호감정도로



타미스케 진: 턱을 매만지면서, 자신의 뇌리에 번뜩이는 생각들 검토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변신 (GM): 스마페, 타츠야의 일도 아주 못말할 정도는 아니지요
아주 못믿어줄건 아닐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좋은게 있습니다.
그녀의 성향을 진은 알고있습니다.
***굉장히 일의 깔끔한 조율이나 진로를 확정시키는걸 좋아합니다.**



타미스케 진: (흠뜨레스땡



변신 (GM): 즉, 이번 일도 불확실하고 그녀에게 판단의 협조를 구하면....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실패하면 그대로 타츠야가 찢겨나가겠지만요



타미스케 진: (ㅎㅎㅎㅎ



키도 리히토: (ㅎㅎㅎㅎㅎㅎㅎㅎ



타케루 타츠야: (ㅎㅎㅎㅎㅎㅎㅎㅎ)



변신 (GM): 그녀의 무력이 대단한건 잘 알고있습니다. 초인한두면은 가볍게 고깃덩이로 만들겠쥬.



키도 리히토: (저기다 걸고 협조하거나 타츠야가 암온어보트당하거나 어긋나면 의심각인가)



변신 (GM): 한두명은
뭐, 범인을 찾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겁니다



타미스케 진: 과연!



변신 (GM): 단지 못찾을 경우는 도망칠수없는 위험이 등뒤에 있는거겠지만



타미스케 진: "정했습니다, 이번엔 키도 씨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드리히 씨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죠."



쿠사카 마리: (하하하



키도 리히토: "...?"



타미스케 진: 하지만, 못 찾을 경우에는 도망칠 수 없는 건 매한가지.



키도 리히토: "사유는?"



타케루 타츠야: "...흠?"



타미스케 진: 약 두 명의 목숨이 걸린 이상, 더 심화되면 약 한 명은 반드시 디지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키도 리히토: 갑자기 유턴기미가 보이자 고글동절합니다.



타미스케 진: "프리드리히 씨는 일을 깔끔하게 조율하거나, 진로를 확정시키는 걸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타케루 씨가 겪는 일은 아무래도 불확실한 점이 많죠."
"분명 영상으로 보면 본인 그 자체인데, 타케루 씨의 친분은 여전히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말이죠."
"그렇다면 프리드리히 씨의 입장에서, 그대로 넘기기엔 찝찝한 일일 겁니다."
사유를 묻자, 차분하게 자신이 아는 바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번 일의 진위나 범위를 찾기 위해서라면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타미스케 진: "문제는 실패할 경우, 타케루 씨는 확정적으로 도망칠 수 없게 되겠죠."



변신 (GM): 그럼 동시에 타츠야는 압니다

실패하면 죽 는 다

그 미래가 확정되는 것을, 함선소녀의 화력은 구축함인 뽀제로 이해고 있습니다.



타미스케 진: (ㅎㅎㅎㅎ)



키도 리히토: " "



쿠사카 마리: "그거 괜찮겠네요"



변신 (GM): 허나 프리드리히는 전함입니다.



키도 리히토: "잠깐 타임"

@흰눈



타미스케 진: "하하, 저희로서는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타케루 씨는 사정이 다르니까 말이죠."



쿠사카 마리: "어라? 문제라도 있나요?"



타미스케 진: "본인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변신 (GM): 죽히 수십배의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까딱 잘못하면 한 명 진짜 죽어요?!"



쿠사카 마리: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올라가겠죠?"



타케루 타츠야: "실패했을 때 사회적으로 죽느냐, 물리적으로 죽느냐의 차이네요."

@굵적



타미스케 진: "물론입니다, 프리드리히 씨의 협조를 얻게 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쿠사카 마리: "어짜피 실패하면 **결과적으로** 치정문제로 살해될것같은데요"



키도 리히토: "하이리스크 랜덤리턴밖에 없잖아 이거"



변신 (GM): 그리고 타츠야는 알겁니다.



키도 리히토: @얼굴감삼



변신 (GM): 메탈블러드에서 일하는 함선소녀들은



타미스케 진: "하하, 당본인의 생사가 걸려있는만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죠."



타케루 타츠야: ㅎㅎㅎㅎ



타미스케 진: "따라서 이 건은 타케루 씨가 승낙할지 말지를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변신 (GM): 그녀의 힘과 카리스마로 대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뽀제와는 다른위치, 실질적인 대장이죠



타케루 타츠야: 위험부담이 큰 일, 하지만 반대로 메리트도 큰 일.



타미스케 진: "으음.... 만일을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프리드리히 씨는 웬만한 초인 분들도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인물이신지라...."

"부디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알고있습니다. 메탈블러드에는 지인이 있으니까요"
한숨



키도 리히토: 저기 이거 아무리 봐도 늦게 죽냐 빨리 죽냐 차이 아냐?
@진심



타미스케 진: 그러면 고개를 고덕이면서, 진지하게 타츠야를 바라봅니다.



쿠사카 마리: "어짜피 실패하면 죽는게 하루 이틀정도의 차이밖에 없는게....?"



키도 리히토: 진지하게 현 상황이 강제 칼타기니 별 수 없긴 하지만



쿠사카 마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그와 별개로 위가 꺾여나가는 모습



타케루 타츠야: "...저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타미스케씨의 도움과 증언을 해주실 UMP45씨가 있으니"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키도 리히토: "교관 해주셨고 그 뒤에도 몇 번 만난 분을 보트 태우는 것도"



[404] UMP45: "아, 나는 안믿는게 좋아."



키도 리히토: "솔직히 어떨까 싶은데요"



[404] UMP45: 미소로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뭣?"



타케루 타츠야: 제길!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Wwwwwwww



타케루 타츠야: "흠.. 뭔가 다른 문제라도?"



[404] UMP45: "말했잖아? 난 딱히 신뢰보단 약간 거리감을 받는 타입이라."



키도 리히토: 마리라면 알 법한 발언을 했지만 받을지는 모른다
@굵적



[404] UMP45: "어째설까~ 난 좀 더 성공률 높도록 조금 정보일부를 유실해 준것뿐인데."



쿠사카 마리: ".....?"



타미스케 진: "확실히, UMP45 씨는 다른 분들과 대화가 힘들다고 하셨죠."



키도 리히토: "/"



쿠사카 마리: "교관은 스마일페이스씨죠?"



타케루 타츠야: 너 뭐 했니?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저 사람이 스마일페이스씨인데요"



[404] UMP45: 후후, 움사오는 그저 웃습니다.



키도 리히토: "그렇달까 아까 말한 게?"



쿠사카 마리: "붕대가 없잖아요"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맨얼굴이니까 없지...?"



쿠사카 마리: "으음, 일단..."



키도 리히토: 움사오의 무서운 발언은
일단 넘기자
넘기자(흰눈



타미스케 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UMP45 씨의 말을 의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쿠사카 마리: "원래 세계에서 엄마가 뭐했는지라도 말해드릴까요"
"비슷한 냄새고 아마 같을것같은데"



타미스케 진: "하지만 다른 분들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나서는 건 저만으로 끝내는 게 좋겠군요...."



[404] UMP45: 이 애는 태연하게 합류하더니 무슨 소릴하는거지...같은 표정으로 마리를 봅니다



타케루 타츠야: "...으음"
긴 한숨



타미스케 진: (괜찮아, 타츠야!
(진따 목숨도 거는 거야.



[404] UMP45: "여튼, 신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게 좋을거야."



쿠사카 마리: (마리의 성장환경 부모 있어도 굉장히 맛이 가지 않았어?)



[404] UMP45: "적어도 문답무용으로 포구가 겨눠지진 않겠지."



타미스케 진: "네, 그러는 편이 좋겠네요."



타케루 타츠야: ".....뭐, 그렇게 되겠죠."



[404] UMP45: 타츠야를 힐끔



쿠사카 마리: "으음..."
"다른 지인은 없나요?"



타케루 타츠야: "인사할 때, 머리 옆에서 스파크 튀기는 포구를 보기도 했고"
담담



키도 리히토: "변태취급 받는 게 차라리 나은 레벨의 위통이야..."



쿠사카 마리: 일단 피해자인 타츠야에게



키도 리히토: @으아아아ㅏ아ㅏㅇ



타미스케 진: "으음. 다른 분들과의 안면도 있기는 하지만, 프리드리히 씨와 같이 호감을 얻은 건 아니라서 말이죠....."

주로 함선소녀 쪽과의 안면이 대부분이다.



타케루 타츠야: "함선소녀 쪽에서는 뭐제, 나노머신 투여자들 중에서는 엠과 친분이 깊습니다."



쿠사카 마리: 마리로 둘에 대해선 알고 있죠?



[404] UMP45: (대략 타카아이로 정찰밀 항로확인을 했던 진따



타케루 타츠야: (우리형과 뭐제와의 깊은 안면이 있다!(흰 눈))



타미스케 진: (이것이 타카아이의 힘!



타케루 타츠야: (타카아이 찢어!)



키도 리히토: (리히토는 메탈블러드와 안면이 없다
(슬픔



쿠사카 마리: "그러면 그 둘의 힘을 빌리는건 무리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상사가 지인을 감싸는걸로 보일지도 몰라요, 불만을 그대로 묻어버린달까...."



[404] UMP45: (그리고 마리는 엄마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단건
(알아요



쿠사카 마리: "폭발 시한을 늦추는걸로?"
(아니, 뭐제하고 M16)



[404] UMP45: (두사람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준것에
(하얏게 불탔어요



타미스케 진: "하하, 그런 셈이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타케루 씨와 친분이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04] UMP45: (@터질걸 안정시킨게 이것



키도 리히토: (꺼흐흐



타케루 타츠야: "적어도, 그 둘은 지금 별개로 상황을 안전시키느라 바쁘니까요."
"...."
미안하드아...!



키도 리히토: "늦춘 게 현 상황...일 가능성"
자료가 충격과 공포여씨



타미스케 진: "게다가 그 두 분이라면 메탈 블러드의 사장이나 마찬가지로인 입장일테니, 힘을 써줘서 지금의 상황이 겨우 완성된 거겠죠."



타케루 타츠야: 후. 어쩔 수 없나.



타미스케 진: "아마 프리드리히 씨의 성격을 보면, 그런 일을 저지른 타케루 씨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테니...."
곧장 달려가서 포를 쏘갈겨 존재를 죽였을 테지.



[404] UMP45: (실제 그러려고함



키도 리히토: 그 이상은 말하지 마라(떨리는 목소리)



타케루 타츠야: "UMP45씨. 별개로 노페이스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굳이 노 페이스라는 명칭을 이야기했던것도 그렇고, 계좌정지 시켰다는 말도 했으니
 그 정보나 데이터는 가지고있겠지!



쿠사카 마리: 언니가 준 정보는 더 없나



[404] UMP45: "미안하지만 천변만화의 외형의 보유자, *다른 모습이 아니면 아무런 얼굴도 아닌 녀석이란 정도*야."



키도 리히토: (즉 코난 범인이라고?)



[404] UMP45: "그런 의미에서 노페이스, *내가 붙인거거든*."



타미스케 진: (ww



키도 리히토: " "



타미스케 진: "자료 없이 설명만으로 프리드리히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게 되겠군요."



키도 리히토: (하드하다wwwww



타케루 타츠야: "...흠, 그렇게 되겠군요."



[404] UMP45: 언니가 준 자료는
 그냥 어디어디에서 엄마얼굴이 나타났어!



타케루 타츠야: ".....꽤 어렵군"



[404] UMP45: 같은 정도의 자료입니다



쿠사카 마리: 도움이 안되는군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리히토도 뭔가 할 거 있으면 하고 싶지만
 (기껏해야 하타가 짬때린게 전부다
 (쥬기게써...



[404] UMP45: (리히토는 울어도 좋다



타미스케 진: "어찌시겠습니까? 타케루 씨 본인의 목숨이 걸린만큼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404] UMP45: (@진심



쿠사카 마리: "뭔가 조건이 더 있으면... 좋을텐데..."



타케루 타츠야: ".....음, 좀 더 정보리소스나 믿을 수 있게 할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키도 리히토: "조건...."
 @끄응...



[404] UMP45: (헤이
 (헤이 마리
 (츄라이 츄라이
 (왕관 츄라이

키도 리히토: (지식의 왕관 벌써부터 사용 무엇



[404] UMP45: (@치트 소비해라 코라



타미스케 진: (wwwww



[404] UMP45: (모르겠으면
(치트를 쓰는거겠지
(하지만



키도 리히토: (사용구간이 안그래도 애매한데)



[404] UMP45: (나는 귀족이 아니니



타미스케 진: (뭐, 이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해.



[404] UMP45: 그럼 이런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타미스케 진: (어차피 선내에서 노페이스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있을 방안이 있을리가 없고....



[404] UMP45: 시나리오 탬을 증정합니다



타미스케 진: 오우



타케루 타츠야: 라기보다 겔 얼굴이라던가 없는데 어떻게 계좌 만들고 운영해온거야, 노페이스 녀석wwwww
오우



[404] UMP45: 검은 지혜
1인당 1개씩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이것은 검군.



타미스케 진: 과연



키도 리히토: 기어웁니까?
(진지



타케루 타츠야: Crawling



[404] UMP45: 대략 묘사는 움사오가 생각하는걸 보조해준다는
느낌입니다
효과는 지식의 왕관과 동일



키도 리히토: (1인당 1개라는.겔 보니



[404] UMP45: 이른바 힌트권입니다.



키도 리히토: (막히는 구간이 4개 넘는다는 애기가



타케루 타츠야: 과연




[404] UMP45: (퀴즈물에 흔히 있는 그것
(아니, 최소한도로 힌트를 준거예요





타케루 타츠야: 추리로직!





키도 리히토: (으아악

 타미스케 진: "자료나 근거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나 근거, 판단할 자료를 찾을 수 없으니 지금의 상황이 된 거일테니까요."


 [404] UMP45: (원래는 2~3개씩 주려했는데
(난이도가 줄어서..


 키도 리히토: (우리 리미트 되기 전에 끝낼 수 있나여(힌눈


 타미스케 진: "그래서 UMP45 씨도 노 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과연"


 [404] UMP45: (쉬움


 타케루 타츠야: ".....그렇다면, 믿는 수 밖에 없겠죠."
한숨.


 키도 리히토: "어떤 얼굴도 아닌 건가..."


 [404] UMP45: (운만 좋으면 이번썬에도 찾아요


 타케루 타츠야: 도와줘요 히이—로

 타미스케 진: (ww


 키도 리히토: 빅백킹페이스
(분노


 타미스케 진: "좋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드리히 씨에게 가도록 하죠."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404] UMP45: (왕관과 합쳐서 5개면 많이준거겠지


 키도 리히토: (운만 좋으면 이번썬인가)


 [404] UMP45: (@상냥


 타미스케 진: (ww


 타케루 타츠야: "...애시당초, 제가 타인들에게 손을 댔다면 이곳에 왔을 리 없었다는 것도... 뭐, 증거는 되겠죠"
제정신이면 지가 꼬신여자가 열댓명인곳에 오겠어?ㅎ


 타미스케 진: "하하, 그렇네요."
자... 그럼 갈까! 프리드리히에게!


 키도 리히토: 오자마자 17분할이라는 파워워드

 쿠사카 마리: "믿어줄지는 별개의 이야기... 지만요"

 [404] UMP45: 그럼 모두는 프리드리히를 보러가나요?

 타미스케 진: 아아

 쿠사카 마리: 따로 남아서 아는 사람도 없고...

 타케루 타츠야: 후우! 무면가루성기사단
출발이다!



키도 리히토: 갈 수밖에 없다
PC들 말고 아는 범위가 없거든
(하타한테 래리어트 갈겨도 무죄아닐까)



[404] UMP45: (덤스톤 드라이버 가능)



타미스케 진: (올ㅋ)



타케루 타츠야: (근육버스트... 아니, 하세가와 버스터 씹가능)



변신 (GM): 그럼 여러분들은 고위 함선소녀분들이 이야기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면
홀에 마주해서
테이블 한곳에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여러분들이 찾는 이분과



[중영] 다이호: 이분과



[이글유니온] 워싱턴: 이분이
셋이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쿠사카 마리: (와! 스마페!)



타미스케 진: (많군, 많아.



쿠사카 마리: (죽겠군!



타케루 타츠야: (옆집에서 본 누나랑 모르는 누나랑 무서운 누나다!)



키도 리히토: 현재 리히토
벌써부터 위통을 느낀다



[이글유니온] 워싱턴: 참고로 위압은 압도적으로 프리드리히씨쪽이
강합니다.



키도 리히토: 진을 내세우지 않으면 이야기가 아예 시작 안 한다에 카쿄인의 앞머리를 건가
다



타미스케 진: 셋이서 담소를 나누는 광경을 보고, 잠시 기다릴까 말까로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다
가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드리히 씨."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바로 알아채고
다른 둘에게 목례해 인사를 나눈다음
반가운 표정으로 옵니다.
"이거, 저의 제의를 흘려넘기고 결국 나간 타미스케 진이 아닌가요."
짓궂은듯하지만 반가운 태도군요



키도 리히토: (용서해줘 그는 인턴맨이야)



타미스케 진: "하하, 그 때는 죄송합니다. 한 곳에 너무 머무르다보면 히어로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될 수도 있
어서 말이죠."



타케루 타츠야: (너 정직원제의 거절했니?)



타미스케 진: 그러면 그 짓곳은 태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가볍게 받아넘깁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초청자 명단에는 못봤는데 또 일인가보군요. 정착을 한다면 우리 메탈블러드 해양부서에선 환영합니다."

"성실함은 미덕, 일을 가리지 않는 것도 신뢰를 주긴 충분하죠."

그의 호구스러움이

매우 큰 호감을 산 경우로군요



타미스케 진: "하하, 정착은 아니고 이번에 경비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잠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파티장을 돌아다니고 있지만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일? 무슨...."

그러며 그녀는 뒤를 보고

움사오와 타츠야를 보고 미소에서 한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타미스케 진: "으음, 그게 여기서는 이야기 하기가 힘든 일이라서.... 즐거운 이야기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잠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수 있을까요?"



타케루 타츠야: 추45야, 너는 뭘 짓을 했길래...



타미스케 진: 한기가 새어나오는 미소에도 주눅들지 않고,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키도 리히토: 위통에 시달리는 리히토의 모습이다



쿠사카 마리: 무슨일이라도 있나

뭐, 어쩔수없지



키도 리히토: (정보 유출이라는 파워워드)



쿠사카 마리: 그럼 프리드리히와 둘 사이에 살짝 끼어들어서



타케루 타츠야: (끄흠흠)



쿠사카 마리: 시선을 막네요



타케루 타츠야: (고마워요 마리에몽!)



[404] UMP45: (난 잘못하지 않았다. 단지 조금 안전하지만 조금 민감한 구역에 조금 살아있는게 있었다.



쿠사카 마리: (후우



타미스케 진: (wwwwww



[404] UMP45: (포격에 망설임이 있으면 안되겠지.@당당



타케루 타츠야: (무엇)



타미스케 진: "뒤에 계신 분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건 알고 있지만, 한 번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안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키도 리히토: 시산포격 받는 범위들 앞에 있습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음....뭐...."



키도 리히토: (시선
어쩌다보니 이 위치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그녀는 붉은 철갑이 둘러진 손으로
자신의 뺨을 한번 만지다가
"좋아요. 당신은 신뢰를 받을 행동을 보였으니까. 기회는 드리죠."
하고 진을 보면서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감사합니다!"



쿠사카 마리: (폭탄이 떨어지고 싶다



키도 리히토: (그만뒤라)



타케루 타츠야: (그만뒤라)



타미스케 진: 그러면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쿠사카 마리: (아무것도 모르는척 엄마, 무슨짓했어? 하고 싶다)



키도 리히토: (세세한 행동원리 캐치는 진이 가능할 법하지만 말이지이



타미스케 진: (www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리히토는 잠시 그녀의 뒤로 파티장을 단숨에 뒤엎을 만한 괴
물의 환영을 본것 같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개숙여 인사하자. 고맙네...! 고마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주로 두마리의 철갑으로 된 용



키도 리히토: "...?"

@눈 부비적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지인이 아니라
(차이점을 알수없는 진의 슬픔



키도 리히토: (젠장 당했다)



타미스케 진: "그러면 잠깐 자리를 옮겨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의 귀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라서 말
이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좋아요. 그럼 잠시 이야기를 하고 오죠."



타케루 타츠야: (대신 리히토가 패기를 봤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그녀는 다른 둘에게 다시 갑니다.



타케루 타츠야: (진과 확실히 인사했으니 아마 틀림없을꺼심)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여러분들 행운판정 해주세요
강제입니다



타미스케 진: 그러면 다른 둘에게 가는 걸 보내주면서, 암전히 자리에 서서 기다립니다.
난... 이도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난이도는 전원 10



타미스케 진: 후

색다름 특기를 사용해서 판정에 +1!



쿠사카 마리: rolling 2d6+4

(4 + 1)+4

= 9



타미스케 진: rolling 2d6+5

(6 + 5)+5

= 16



쿠사카 마리: 후!



타미스케 진: ?

진따 무엇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진따 왜 다이스에 치트섬



키도 리히토: 저널리스트...행운 +1....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조작하지 마라!



타미스케 진: wwwwww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격노



키도 리히토: rolling 2d6+5

(1 + 2)+5

= 8

펄이군요



타미스케 진: 님들 왜 행운 조짐ww



키도 리히토: 라고 생각했나

상식의 역전 킁!



타케루 타츠야: rolling 2d6+3

(5 + 4)+3

= 12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리히토 펄



타케루 타츠야: 끼요웃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타츠야랑 진은 성공



타미스케 진: 과연
상식의 역전으로
크리티컬로 변경하는



키도 리히토: 특기 사용할게여



타미스케 진: 기자였다



키도 리히토: 그렇다



타케루 타츠야: 사스가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과연



키도 리히토: MP(였던 것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크리티컬인가...



타미스케 진: (펄블치가 3이라서 어울리는 특기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좋습니다. 리히토의 처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실패와 성공처리를 합니다



타미스케 진: 아아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실패한 마리는
순간 프리드리히씨의 모습을 놓칩니다
여러사람들(엑스트라)이 순간 마리의 시야를 가렸기때문이죠.
그리고 진과 타츠야는
딱히 그런일 없이 이야기를 마치고 오는 프리드리히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펄블을 크리티컬로 바꾼 리히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리히토는 순간



변신 (GM): 사람들이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이쿠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밀쳐져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바닥에 흘러졌던 주스를 밟고 미끌어져추가로 추진력을 받아 하늘을 납니다.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
난데없이 하늘을 날게 된 고글



변신 (GM): 몇걸음정도 날아갔지만
리히토는 최근 열심히 훈련을 하고 단련도 되어있죠



쿠사카 마리: (무슨, 이 세계의 인간은 날 수 있었는가



키도 리히토: (그럴리가)



변신 (GM): 어떻게든 떨어지면서 자세를 잡으려다가



타미스케 진: (이것이 상식의 역전



타케루 타츠야: (나... 날았다—!!!)



키도 리히토: 왜 갑자기 날아가아아아생각하다가 착지자세를 잡으려는 자의 상황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철컹!



쿠사카 마리: (호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녀의 옆에 나타난 철괴수의 입에



타미스케 진: (www



쿠사카 마리: (럭키 스케베인가 했더니 아니었나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물려서 공중에서 안전하게 멈춥니다



키도 리히토: " "
@데롱데롱



쿠사카 마리: 그러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리히토는 내가 회수하겠다



타케루 타츠야: (아아!)



타미스케 진: (과연, 크리티컬이라 '노페이스가 아닌 인물'을 밝혀냈다.



키도 리히토: (난데여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뭐야, 정말. 파티라고 아무나 들여보내다니...너는 파티에 마구 들뜬 어린애냐?"



타케루 타츠야: (과연)



키도 리히토: "실례했습니다..."
물려있더



쿠사카 마리: "일행이 죄송합니다, 언니"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녀는 리히토에게 그렇게 말하며 내립니다.



쿠사카 마리: "신나서 뛰어다니다보니까 그만..."



키도 리히토: 내린다...어흥흑...



쿠사카 마리: (내승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참고로 소녀의 키는 마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작습니다



쿠사카 마리: (부리도록하자)
(그러나 언니라 불러준다



타케루 타츠야: (과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다음에는 조심하라고. 네 실수로 다른 사람이 귀찮은 일에 휩싸이고."



쿠사카 마리: "네에.... 죄송합니다..."



키도 리히토: "진짜로 죄송합니다"

@죽은눈



쿠사카 마리: 혼나서 침울한척 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참나, 그로세씨가 부르는데 갑자기 막혔네..."

그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갑니다.



키도 리히토: 진짜로 침울

"...."

"철괴수 수수하게 아파..."



쿠사카 마리: 싱긔



키도 리히토: 히엑



쿠사카 마리: "뭐, 잘됐네요. 하나 확인했고"



키도 리히토: (펄럭이었으면 뭐였어(.

(...)



타미스케 진: (럭키 스케베?



쿠사카 마리: (파이터치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펄럭이었으면



타케루 타츠야: 럭키스레베

(엎던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저쪽 상위진에게 럭키스케배



타미스케 진: (wwwwww



키도 리히토: (살려주세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덤으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이 흠어진다

@당연하게



타미스케 진: (히힝



타케루 타츠야: (ㅎ ㅎ)



키도 리히토: (뭔가 썰해서 취득한게 벌써부터 쓰임 무엇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진과 타츠야가 보는 선에

그녀는 복귀합니다.

"좋아요, 이야기를 들어보죠."



쿠사카 마리: 그럼 리히토를 데리고 복귀



타미스케 진: "네, 그러면 사람이 적은 곳으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키도 리히토: 물린 자국놈은 없었다



쿠사카 마리: "또 날아가면 디스 위에 얹어둘거예요"



키도 리히토: 이이네?



타케루 타츠야: 철댕혹사!



키도 리히토: "레일건 위 탑승 그만둬"



쿠사카 마리: 혹사는 아니겠지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참고로 리히토의 옷의 물린자국은 없습니다
조절한듯 하군요



타미스케 진: 그럼 고개를 끄덕이고선, 사람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사스가



키도 리히토: (사스가



타케루 타츠야: "보통, 사람이 두 번 썩이나 날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마리의 말에 좇코미는 해두자



타미스케 진: (ㅎㅎ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굳이 원한다면 이동하죠. 아, 만일을 대비해 인적이 드물다면 좋겠군요. 중영에서는 일소라고도 말하던가요."



쿠사카 마리: "한번 일어난건 두번도 일어나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는 좋은 미소로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저 미소 무서운데요(흰눈)



타미스케 진: "하하, 네. 그러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죠."



타케루 타츠야: 히...히히힝...



타미스케 진: 인적이 드문 곳이-
야외 구역 정도려나!



키도 리히토: 런하기 좋은 장소군(대충감)



타미스케 진: 여차하면 일소시킬 수 있다구! 해냈어, 프리드리히 씨!



타케루 타츠야: 런이 아니라 일소당하기 좋은 곳이겠지!
타노시!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가기전에
리히토와 마리
지각판정
난이도는 12로 하죠



타미스케 진: (리히토는 배터리 갈러 갔어YO 아마도.



쿠사카 마리: 홋

rolling 2d6+5

(3 + 4)+5

= 12

저스트!



타케루 타츠야: 야타쵸



타미스케 진: 텍걸이!



쿠사카 마리: 345!



타케루 타츠야: 잭팟이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스트레이트겠지



키도 리히토: 불안하니 불행 특기 쓴다
시나리오 1회 지각 +2턴가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올ㅋ



키도 리히토: rolling 2d6+6

(6 + 5)+6

= 17

1만 높았어도



타미스케 진: (올ㅋ



타케루 타츠야: 올ㅋ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음

그럼

둘은 진과 프리드리히를 따라가며 깨닫습니다.

그리고보니 그 함선소녀씨가 말했던 그로세씨,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던가?



쿠사카 마리: ".....!"



타미스케 진: (과연



쿠사카 마리: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타미스케 진: "네?"



키도 리히토: "....?!"



쿠사카 마리: "방금전,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데...."



타케루 타츠야: "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무슨 일이지? 이야기를 들어주는것도 개인적 친분탓이다."



키도 리히토: 문득 한 가지 깨닫고 흠칫 멈춥니다.



쿠사카 마리: "그 상대방이.... 그로세 씨가 호출했다고 하셨습니다만..."



키도 리히토: "...그 금발 분께서"



타케루 타츠야: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



타미스케 진: (.....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그녀는 의아한 표정입니다



키도 리히토: (허퍼 금발 맞지?



타케루 타츠야: (아—



타미스케 진: "....."



타케루 타츠야: (짹이 불렀네)



타미스케 진: "호출한 건 노페이스군요."



쿠사카 마리: (ㅇㅇ, 마리하고 비슷한 키
".....설명을 빨리하는게 좋겠어요"



키도 리히토: "....혹시"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방금까지 외부협력 함선소녀들과 이야기하다가 너희와 이야기한게 다다만?"



타케루 타츠야: "...이 분이 다녀오실 때 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노페이스 쪽이 확실하겠죠."



키도 리히토: "....."



타미스케 진: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곳까지 갈 여유는 사라진 거 같군요."



키도 리히토: (즉)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크리



키도 리히토: (지금 안 가면 허퍼로 변경될 가능성 미레존?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라고



타미스케 진: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죠."



키도 리히토: (젠장 당했다 찢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흐음...좋아."

그럼 그녀는 팔짱을 낀다음 말합니다

"일단 행동해라 전 동포. 행동으로 신뢰를 사라."



키도 리히토: (좋아
(이동 허락 떨어졌나?!



타케루 타츠야: (짐작했나)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내가 그대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듣지."



타미스케 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곧장 방금 본 분께 안내내 부탁드립니다, 키도 씨! 쿠사카 씨!"
(내를 두 번 쳤다)



키도 리히토: 둘 다 어디로 갔는지는 방향 봤지?
(확인차)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리히토와 회수하러간 마리는 봤습니다.



키도 리히토: OK
철덩들고 가자
"갑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는 카리스마있게
모두에게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가자! 친구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일단 급한 일을 할수있겠군요



키도 리히토: 부트캠프 굴러먹다 온 신파치를 알아보지 마라!



쿠사카 마리: "알겠습니다, 바로 가죠!"



타케루 타츠야: 그로세의 말에, 잠깐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좋아, 가자!



쿠사카 마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 기분이 살짝 나쁜 마리야)



키도 리히토: 모두! 통나무는 준비됐겠지!
가자고!



타미스케 진: (w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타츠야의 옆에 걷습니다.



쿠사카 마리: (화풀이 너클을 먹여줘야)



타케루 타츠야: 히익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따라간다고 말했을텐데."



타미스케 진: "물론입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타케루 타츠야: ...말 안했는데!?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동포에게 허튼짓을 했다간 즉결처형이다."



타미스케 진: (행동을 보고
(결정



타케루 타츠야: "...그도 그렇군요."



타미스케 진: (→ 즉 따라감



타케루 타츠야: (과연!)

(그럼 실례하겠습니다를 감사합니다. 로 정정하)
(지!)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다들 금발 함선소녀가 간방향으로 가나요?



키도 리히토: 웃우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아아!



쿠사카 마리: 물론이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여러분들은 금발소녀가 갔을곳에 달려가고
마침내 발견한 곳에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프리드리히씨가 야외갑판에서 히퍼랑 이야기하고 있는게 보이네요.
물론, 옆에도 있습니다.



타미스케 진: 노페이스다! 잡아라!



타케루 타츠야: 잡아라!



타미스케 진: "..... 노페이스, 바로 포박하도록 하죠."



타케루 타츠야: "—찾았다."



키도 리히토: (이 와중 패기판독기로 메타정보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이건...대체..."



타케루 타츠야: 아 월 파인드 유...



키도 리히토: "...일단 말하자면"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이쪽은 상당히 곤혹스런 표정이지만 동시에



쿠사카 마리: "대화로 풀면 좋을것 같네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분노가 느껴집니다.



키도 리히토: "특수능력은 카피 불가능...이고"



쿠사카 마리: : "가능하다면 말이죠"



타미스케 진: "노페이스입니다. 외형을 누구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 "



쿠사카 마리: "네, 가능하다면"
주머니에서 스윙하고



키도 리히토: "가능해?"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누가 나를 허상삼아 동포를 속이다니 최악이군."



쿠사카 마리: 흥흥한 ㄴ... 크흠



키도 리히토: @흰눈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여러분의 뒤로



쿠사카 마리: "육체언어는 대화예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사람 하나는 가볍게 크기를 넘은



타케루 타츠야: 담담히, 타츠야는 손에 봉대를 감습니다.



키도 리히토: "기다려, 그 논리는 뭔가 이상해"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거대한 철의 용이 드르륵
철소리를 내면서



타케루 타츠야: "친구에게 받은 칼을 쓰기에는, 내 미안함이 용납되지 않는군"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실체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반대편 프리드리히도 이쪽을 눈치칩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타케루 씨도 피해자입니다. 여러 여성 분들께 실례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됐죠."



타케루 타츠야: 손에 봉대를 부드럽게 감으며 그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타미스케 진: "그러면.... 잡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리고



타미스케 진: 잡으러 간다!



타케루 타츠야: —그 순간, 타츠야는 뛰었다.
잡았다 이 십쇄이킷!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솔직히 말이야



키도 리히토: "그래서 협력을 위해 타미스케 씨가 그로세 씨한테, 아무튼!"
잡으러 간다!



쿠사카 마리: "응, 엄마의 모습으로 뭔가 하고 있었던것 같고"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정말 찾고 바로 첫썬에 바로



타미스케 진: wwwwww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쓰게될줄은 몰랐다



키도 리히토: 깔깔깔
깔



타미스케 진: 저도 몰랐음ww



타케루 타츠야: wwwwww



키도 리히토: WWWW



쿠사카 마리: "약간의 화풀이는 괜찮겠지..."



키도 리히토: 심지어 지혜 안 쓰임wwwww

뒤임 대체wwwwww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럼



타미스케 진: wwwwww



키도 리히토: "까놓고 스스로는 관계없지만"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특기-썬이탈을 씁니다.



타미스케 진: (wwwwww



타케루 타츠야: 뭐...라고....?



키도 리히토: 뭐..
라고...?!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시나리오 1회지만
썬에서 이탈합니다



타미스케 진: (1회 목숨 부지용이구나!



타케루 타츠야: "찾았다, 노 페이스!!!!!"
(긴급탈출이라니)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럼 바로 프리드리히에서



타케루 타츠야: (비겁하다 키라 요시카게!!!!)
(Cv. 코이치)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야말로 무형에 눈코입만 있는 부정의 존재가



키도 리히토: ".....허?!"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무언가 손에서 기이한 도구를 꺼내더니



키도 리히토: 갑자기 뭔지 모를 형상이 되자 당황합니다.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파아아아앗!*
하고 섬광탄을 터뜨립니다



타미스케 진: "우왓..!?"



키도 리히토: "우왁?!"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눈뿔잼



키도 리히토: (내눈!!)



쿠사카 마리: 눈뿔이라니



타케루 타츠야: "—큅!?"



타미스케 진: 터지는 섬광탄에 변신 안 한 모습이라, 그대로 눈뿔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큅, 타카 아이만 있었어도!



타케루 타츠야: 큉, 만능봉대만 두르고 있었어도!



키도 리히토: 변신 타이밍 놓침점



쿠사카 마리: "섬광탄이라니 생각했네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쥐새끼가 어딜...!!"



키도 리히토: "생각했어?!"



타케루 타츠야: (적이 머리 잘 굴렀다는 의미의



쿠사카 마리: 애초에 남자들에 비해 다리가 짧아서 따라잡지 못했어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바로 *크아아앙!!!*하고 굉음의 엔진음이



타케루 타츠야: (생각했네요! 구나)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올리고



키도 리히토: (그쪽인가



타미스케 진: (그렇다



쿠사카 마리: (아아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나아가 무언가 부수는 소리가 들립니다



키도 리히토: (머리 꼬였다 용서해라



타케루 타츠야: 문가... 문가가 박살났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시야가 돌아올때쯤에는



키도 리히토: 시바 뭔가 거하게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는데



타미스케 진: "뭐, 뭔가 부수는 소리가 들렸는데.... 다들 괜찮으십니까?"



타케루 타츠야: "이쪽은 무사합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여객선 난간이 거대한 짐승에게 물어뜯긴듯박살나있네요



키도 리히토: "괜찮습니다....만"



타케루 타츠야: "...하지만 노 페이스는!?"

그 녀석 잡은사람!?



키도 리히토: "난간이...?!"

노페이스 도코자?!



[404] UMP45: "....시야보호가 느렸군. 그리고..."



타미스케 진: "하하... 아무래도 놓쳐버린 거 같네요."



[404] UMP45: 그녀도 눈을 비비다가

뒤를 봅니다

그럼 이 소란에

여러사람들이 갑판으로 온게 보이겠네요



타미스케 진: 박살난 난간을 보면서 그리 중얼거리며, 하하 웃습니다.



쿠사카 마리: "이 상황, 설명해야할것 같은데..."
".....곤란하네요"



키도 리히토: "A ㅏ"



[404] UMP45: 지금 상황에선
저중에 숨었다면



쿠사카 마리: "변장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많은 사람이 알게되면..."



타케루 타츠야: "...이래서는, 당장은 찾아내기 어렵군"



키도 리히토: 눈아픈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얼굴을 감춥니다.



쿠사카 마리: ".....의심이 퍼져나갈지도"



[404] UMP45: 여러분들은 찾기 힘들겠네요



키도 리히토: "그렇지요..."



쿠사카 마리: 다시 꼬리를 드러낼테고 말이지
걱정없어! 자원도 온존했고



타미스케 진: "하하,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마침 제가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으니, 이야기를 해두도록 하죠."



타케루 타츠야: "...적어도 현장의 두 사람의 신뢰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미스케 진: @현장에 있던 고용된 사람



[404] UMP45: 그럼 진짜 이야기를 잘해보죠



타케루 타츠야: 아마도!



[404] UMP45: 지금 상황은
거대한 괴수를 꺼낸 프리드리히씨가



타케루 타츠야: (바퀴벌레를 봐서 무심코... 라고 허설?ㅎㅎㅎ)



[404] UMP45: 난간을 박살낸 모습입니다



타미스케 진: 아아



[404] UMP45: 잘RP하면 보너스도 드리죠



타케루 타츠야: (큰 바퀴벌레 보너스(아무말))



타미스케 진: "그러면... 큼큼."



키도 리히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좋은가 하는 표정



쿠사카 마리: ".....하아"



타미스케 진: (후,



쿠사카 마리: 그럼



타미스케 진: (괴인이 나타났었다고 둘러대는 편이 가장 좋겠지.



쿠사카 마리: 리히토에게 귓속말을

(리히토의 일을 이용하자
(악랄한 미소



키도 리히토: (잠WWWWWWW



타케루 타츠야: (무엇)



키도 리히토: " "



타미스케 진: (그리고 난간을 타고 올라오려는 괴인을, 프리드리히가 내쫓았다.
(그렇게 할까.



키도 리히토: 후 좋아
날.팔아라!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미침)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일단 지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타미스케 진: (리히토를 팔www



타케루 타츠야: (수상괴인씨가 다이빙해서 핫하!하다가 므냥당했다는걸로 좋은게?)



쿠사카 마리: "말, 맞춰주세요.... 알겠죠?"



키도 리히토: " "



쿠사카 마리: "....외상은 없는걸로 해드릴테니까"



키도 리히토: @ "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스스로하면 마스터가 뭔가 보너스를 확실히 줄지도



타케루 타츠야: (wwwww)



키도 리히토: 후 어쩔 수 없다



쿠사카 마리: (미안해요 리히토)



키도 리히토: 일단 도게자하자



타미스케 진: (www



쿠사카 마리: (하지만 동의 안하면 안할거임



타케루 타츠야: 리...리히토오오!!!
(wwwww)



쿠사카 마리: "하아...."



타미스케 진: (그럼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



쿠사카 마리: "역시 먼저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키도 리히토: 이름 연호당하는 후나보리와 같은 표정으로 도게자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쿠사카 마리: "그... 촬영의 건..."
(미안해!)



키도 리히토: "....솔직히 여러가지로 너무 건너뛰었습니다..반성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



키도 리히토: 온갖 오만 감상이 섞인 우는소리
어이! 맞춰라!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는 감판을 우구르뜨며 분노하고 있다가
리히토의 모습에 무슨...같은 표정



키도 리히토: 적어도 코난의 범인보단 변태박멸이 낫겠지!



타케루 타츠야: (45! 너도 이야기해라! 외감촬영의 건을!)



쿠사카 마리: 그럼 프리드리히에게



타미스케 진: "하하, 네. 키도 씨가 프리드리히 씨에게 의장의 촬영을 요청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거 같아서...."



쿠사카 마리: 말로는 안하지만 필사적으로 말을 맞춰달라는



타케루 타츠야: (요청(笑))



타미스케 진: 그러면 물려온 사람들에게 도게자 하고 있는



쿠사카 마리: (미안해!)



타미스케 진: 키도를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404] UMP45: "이야, 역시 무리하게 의장부분만 찍는다던가. 본인은 안찍어도 된다던가 말했으니까..."
그녀는 비교적 진짜인것처럼 매도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노 코멘트"



키도 리히토: @부들부들
당신들 사실 즐기고 있지?!
(속으로만



타케루 타츠야: 무언은 이따끔 더 큰 데미지를 준다.



타미스케 진: (www



[404] UMP45: "다들 돌아가주세요. 프리드리히씨는 자제를 아시는 분이니까 잘 이야기하고 끝낼테고..."
"파티를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키도 리히토: 예술적인 도게자의 자세



타미스케 진: "저도 죄송합니다, 경비로서 사전에 주의를 해야했었는데...."



키도 리히토: 사장이 잘못했네



[404] UMP45: "원래 함선소녀 사진을 찍는건 흔히 있잖아요-?"



키도 리히토: "죄송합니다...."

@멘탈 사망중



[404] UMP45: 대략 이지 20쯤 될것 같은 화술로 사람들을 홀립니다



타미스케 진: 고개를 숙이면서 물려온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죄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즉 45의 이지는 20이라고)



키도 리히토: 여길 보세요 리히토입니다
바닥에 머리 박다 못해 얼얼하죠



타미스케 진: (미안 키도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그녀도 상황이 이제 들어왔는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사장한테는 언젠가 둠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처먹인다
그렇게 결심했다



타미스케 진: (www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실례를, 파티를 즐기는 모두의 앞인데 자제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쿠사카 마리: (정말로 미안하다)



타미스케 진: (스마나이 스마나이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조금 특이한 권유였기에....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건전하다면 건전한 일인것일테고."
기술적인 측면으로서



키도 리히토: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하고 그녀도 대략 이지 20을 넘는 듯한 카리스마로



키도 리히토: (속으로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타미스케 진: (www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조용해진 갑판



타케루 타츠야: 하세가와 버스터—!)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사람들은 그럴수도 있지, 뭐 덤비는 바보가 희귀하고
하는 느낌으로 돌아갔습니다



타미스케 진: ".... 휴, 죄송합니다 키도 씨."



키도 리히토: "....."
"아니 어중간한 건 믿을지 불안했고"



타미스케 진: "그런 쪽으로 말이 맞춰지는 거 같아서, 저도 동참해버렸네요...."



쿠사카 마리: ".....그"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프리드리히씨는 리히토에게 손을 내밉니다.



쿠사카 마리: "미안해요, 정말로"



키도 리히토: "하지만 사장은 파일 드라이버 먹일거야 진짜로"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음, 좋은 희생정신이였다."



쿠사카 마리: 그렇게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리히토의 외상장부를 꺼내 바다에 흘려보냅니다



키도 리히토: 멘탈이 탈곡기에 터져나간 얼굴로 일어나다가 내밀어진 손에 얼떨떨한 얼굴이 됩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키도 씨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분들을 생각하시는 좋은 분이시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 놈을 잡기위해서 치욕을 감내하고 아군에게 도움을 주려했군."



타미스케 진: 프리드리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 정신은 아무나 발휘할수없는 거지."



키도 리히토: 네녀석 자연스럽게 고글이라 부르는 건 그만둬라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감사합니다, 키도씨"



키도 리히토: 일단 손은 내밀어졌으니 잡고 일어납니다만



타케루 타츠야: 경의를 표한다



키도 리히토: 저어기....
하타한테 짬맞은게 까발려졌는데
많은 사람한테
저어기...



타미스케 진: (wwwwww



키도 리히토: @죽은눈



타케루 타츠야: (wwwwwww)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음, 그러고보니 그런 아이디어는 나도 놀랐군. 마치 정말 사진을 찍으려한것 같은 태도를."



쿠사카 마리: ".....순간적으로 이런것밖에 안떠올라서"



키도 리히토: ".....그게, 저"
"분노 안건일 수도 있는 이야기긴 한데"
죽은 눈으로 사정을 설명합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그게, 정말로 키도 씨는 사진을 찍으러 온 거라서..."



쿠사카 마리: ".....진짜였어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사정설명을 듣고



키도 리히토: 요약하자면, 변태가 미친짓 할 것같기에 어쩔 수 업ㅎ이 짬맞음.

점점 더 숨쉬지 않는 리히토입니다
리히토입니다...



타미스케 진: (근데 이것도 희생정신이네



타케루 타츠야: "...떠맡은 일이라고는 들었습니다만"



타미스케 진: (최고다 고글장!



키도 리히토: "아니 그게"



타케루 타츠야: 희생정신은 맞따
최고다 고글장!



키도 리히토: "그 사장 직접 가면 무슨 짓할지 모르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아니, 그걸로 좋지. 그 보라색 표적은 각 함선소녀 집단들에게도 포격해도 좋다는 만장일치를 받고있고."



키도 리히토: " "
@" "



타케루 타츠야: "...이미 유명한건가"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것이 왔다면 무심코 의장을 전개했을지도 모르지."



타케루 타츠야: 표적... 이군요...



타미스케 진: "하하, 그 정도였다니.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나설 수 있는 분은 흔하지 않은데,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키도 리히토: "화약고에 화염방사기 던져질 뻔한 건가..."



타미스케 진: "키도 씨는 이번 건과 합쳐서 생각해보면,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신 겁니다."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잊었나?



키도 리히토: @죽은눈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나 기회가 이번정도라고 말했어
(@시도 해봄



타미스케 진: "정말로 대단하네요!"
(올ㅋ



키도 리히토: (올ㅋ



타미스케 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진따.



키도 리히토: 하지만 저건 개그캐군
아무튼 리히토의 정신은 죽었습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맞고 금방 펀치파마로 일어납니다



타미스케 진: (www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저 왕자는



키도 리히토: JOY를 표해주세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웃만 날아감



키도 리히토: (으아아
즉 요컨대 그거다
어쩌지 이제.



타미스케 진: (왜 그래 고글! 칭찬을 받으니까 좀 더 기뻐하라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여튼...그대의 도움은 나중에 되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그 의지는 보답받아 마땅하다. 희생에는 답례가 있어야지."



타케루 타츠야: ...그리고보니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하고 리히토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이제 설명해라 진."
"그리고 타츠야, UMP45."



타케루 타츠야:히퍼는 어케됨?



키도 리히토: 혼이 나간 얼굴로 끄덕이곤 설명 용이하게 옆으로 비킵니다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너희는 뭐로 움직이는거지?"



키도 리히토: 하퍼 어디



타케루 타츠야: 애 현장에도 있었는데



타미스케 진: "네, 그러면....."



키도 리히토: 히퍼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후우



타미스케 진: (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이쪽은 방금 점프해서 바다에서 돌아왔다.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Wwwwwwww



타케루 타츠야: (너 휘말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젠장, 방금 가짜놈은 어디야...!"
(눈뿔당하고 바로 해상으로 달려감



타미스케 진: (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떠있으면 죽이려고



타케루 타츠야: "...현장에 있던 다른 분도 왔으니, 설명하죠."



키도 리히토: (Wwwwwwww



타미스케 진: "아, 그게 도망쳤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Wwwwwww)



타미스케 진: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감히 동포, 그것도 그로세씨를 사칭하다니 백번찢어죽여 마땅해."
"뿔보다 날 낫으려한게 가장!"



타미스케 진: (잘가라 노페이스
(난 널 구할 수 없다



쿠사카 마리: 그러면
옆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타케루 타츠야: 괴인은 폭사하는 것이 법칙이다.



쿠사카 마리: 난간의 잔해를 발로 툭툭건들이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녀는 눈에 불이 타오르는듯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키도 리히토: 옆에서 죽은눈으로 스탠바이 중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괴인 맞겠지? 맞겠지 뭐



쿠사카 마리: (하하, 나도 거짓말했는데



키도 리히토: (ㅎ



타미스케 진: (ㅎ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뭐, 우리 메탈블러드의 율법으로 처분하는건 포획하고 나서입니다.
히퍼."

"일단 상세한 이야기부터 들어야 죄목을 따질수있겠죠."

그렇게 그녀는 진정시키듯

작고 뜨거운 분노를 보입니다



타미스케 진: "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섬광탄을 터트리고 도망친 인물은 통칭, 노페이스
라고 합니다. 외형과 특징, 행동거지를 거의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고선, 천천히 자신이 들은 바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변신 (GM): (설명썬은 스킵하려했지만



타케루 타츠야: (제길, 이야기 적고 있었는데!)



타미스케 진: (좋아, 이렇게 스킵하자.



변신 (GM): (하고싶다면 해도 좋다



타미스케 진: (@이렇게 스킵



타케루 타츠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변신 (GM): 그럼 대충 이렇게저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보충해줍니다





변신 (GM): 그걸 들은


두사람의 반응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정말 네가 한게 아니면...여동생이 겨우 너하나 죽이려고 농락당했다고...?"
의장까지 전개되었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나는 '겨우'인가...(슬픔))


 **타미스케 진:** (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캉캉! 두개의 머리를 가진 철괴수가 눈에 스파크를 뿜조
(인간정도는 겨우겠지
(@전함포를 정면에서 맞아보실?


 **타미스케 진:** (w


 **타케루 타츠야:** "혹은, 메탈 블러드의 내분까지 노린 계획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타미스케 진:** "UMP45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타케루 씨의 목숨, UMP45 씨의 목숨, 그리고 메탈 블러드 자체의 붕괴를 노린 계획이었겠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동포의 감정을 갖고 논것, 현재도 공작중이라...넘길수없는 사항이군요."
"하지만 모두에게 말해서 의심암귀를 발발시켰다간...나가겠다는 일반인에 섞여서 도망치겠죠."
그녀는 천천히 말합니다


 **쿠사카 마리:** "확실히 지인으로 변신했다는건 불쾌한 이야기지만요"


 **타미스케 진:**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원에게 했다가는 계획이 힘들어져서 곧장 탈출하겠죠."


 **타케루 타츠야:** "그건 그런 성질의 것이니까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런의미로 재차 그에게는 감사를 표하죠. 그 희생은 우릴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고 재차 리히토에게 감사합니다


 **키도 리히토:** @죽은눈


 **타케루 타츠야:** (리히토 ㄱ)


 **타미스케 진:** 끄덕끄덕.

 **키도 리히토:** 감사는 얼떨떨하게 받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소중한 뭔가가 사망한 기분이야
@수습중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재차, 확인하면 우리들의 붕괴를 노리는 공작원을 잡아서 죽이면 되는거군요."
그녀는 싱긋웃으면서 말합니다.
진은 진심인걸 알겠군요

 **타미스케 진:** "으음, 죽이는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타케루 타츠야:** 괴인이니 어쩔수 없NE!
"적어도, 잡아서 배후를 알아내긴 해야할겁니다."

 **타미스케 진:** "이유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  키도 리히토: 미안해요 카메라맨 당한 외부인입니다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아닙니다 진. 그런 귀찮은 특기나 남을 속이는 악성은 바로 뿌리뽑는 게 모두를 위한거니까요."
-  키도 리히토: 외부인입니다...
-  타케루 타츠야: (귀찮은 특기(笑))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는 상냥하고 살벌히 말합니다
-  타미스케 진: "으음....."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의 추격을?"
-  타미스케 진: "하지만 적어도 타케루 씨의 말대로, 그 배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계속하실거라면 음...."
-  타미스케 진: 프리드리히의 확고한 의지에 곤란한 듯이 있다가도, 화제가 변경되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히퍼를 데려가보세요."
-  키도 리히토: "...?"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프리드리히는 옆의 금발 소녀를 권유합니다
-  타케루 타츠야: 후, 동료가 늘었다!
-  키도 리히토: 화제변경에 긴장을 털끝만큼 풀다가 권유에 의아해합니다.
-  타미스케 진: "알겠습니다, 프리드리히 씨의 추천이라면 분명 확실하겠죠."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는 두루 교우관계가 넓어서."
"더불어...지금상태로 갔다간 **흑철의 비를 놈에게 쏟아부엇줄것 같고.**"
-  타케루 타츠야: "함선소녀분들과 안면이 깊은 분이라면—, 확실히 탐색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과연"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조금 식힐 필요는 있어요."
-  타케루 타츠야: 끄—덕
-  키도 리히토: " "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는 잔잔히 미소지으며 말합니다
-  타케루 타츠야: 그 심정을 이해하는만큼
고개를 끄덕입니다.
-  쿠사카 마리: "응응..."
-  키도 리히토: 일단...받습니더...
@끄덕덕
-  타미스케 진: "맞는 말입니다. 냉정해지지 못한다면 다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  쿠사카 마리: "함선소녀 분들 말고...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하는것도 좋겠네요..."

	키도 리히토: "꼭 함선소녀분들 한정이란 법도 없으니" "...으음..." @굵적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것 말고도 그로세씨의 힘은 직접 방금 느꼈으니 가까이오면 무조건 피하겠지."
	키도 리히토: @간신히 제정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녀는 프리드리히에게 간식 경례를 하고 모두에게 다가섭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아. 그리고... 일전 인사때는 그 것과 관련된 문제로 제대로 인사드리지도 못했군요." "재차 인사드리겠습니다. 타케루 타츠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한다, PT에 낀걸!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됐어! 귀찮은 인사는 생략해. 이쪽은 어드미랄 히퍼."
	타미스케 진: (w
	타케루 타츠야: —그리고 나 니들 이름 몰라.
	타미스케 진: "타미스케 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키도 리히토: (결국 노페이스는 히퍼 불러서 뭘 말하려 한 걸까)
	타케루 타츠야: (선동질)
	타미스케 진: (선동질.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선동질
	타케루 타츠야: (아마 여동생관련 선동
	키도 리히토: "키도 리히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타케루 타츠야: (마리 더 월드이터라고 합니다!)
	키도 리히토: 제정신 귀환해서 텐션이 암전해졌달까 살짝 내려갔자
	쿠사카 마리: (아हत "쿠사카 마리입니다, 잘부탁해요"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조금 멍해보이는 놈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아. 나도 전력으로 도울테니까." 마리오 리히토를 보면서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마리오 무엇
	타미스케 진: (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마리와
	키도 리히토: 멍해보인다는 말에 움찔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한글자 차이무엇ㅋㅋ
	키도 리히토: 확실히 물렸고...



쿠사카 마리: (밟혀서 작아진 리히토)



타미스케 진: 고글을 토닥여주자.



키도 리히토: 물렸고.....
꺼흐흑



타미스케 진: "하하, 힘내도록 하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진, 네녀석은 관측소처럼 빠릿하게 쳐다보면 내가 잡아서 깨부셔줄테니까."
조금은 기억한다는듯 그녀도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너 뭐했니



타미스케 진: (글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해양부서 알바



타케루 타츠야: 난또



키도 리히토: (앗 하이



타미스케 진: (관측일을 했었다!



타케루 타츠야: 밟고 점프하듯 날아서
마리오 리히토라는줄



키도 리히토: 무엇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마리와 리히토가
(마리오 리히토가 되었다



타미스케 진: "알겠습니다, 당시의 일처럼 최대한 힘을 써서 그 인물을 찾도록 하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슬슬 씬을



타미스케 진: "으음, 변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종료하겠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아!



타미스케 진: (아아!



키도 리히토: 웃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변신은 힘들거야. 가장파티가 아니니까."



쿠사카 마리: "변신은 너무 눈에 띄니까요"
"....."
".....전 평상복하고 닮았으니 해도..."



키도 리히토: "그렇네요"



타미스케 진: "그렇죠. 타카 헤드에 있었으면 일이 조금은 수월해졌을 텐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뭐, 함선소녀들은 대체로 알고있어."



타미스케 진: 아쉽.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부분은 맡겨둬."



키도 리히토: 리히토? 완전히 아웃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이렇게

새로운 도우미가 합류하고

바로 해결할뻔한 사건은

다시 시작해야할것 같습니다. 천운이 돕는다면

또 금방 찾을수도 있겠죠



키도 리히토: (끄아앙



타케루 타츠야: SYSTEM] 노페이스 더스트 크루세이더즈에 어드미랄 히퍼가 참가했다!



타미스케 진: (아아



쿠사카 마리: (아아...

----- 씬#2 종료 -----

----- 세션 일시 중지 -----



변신 (GM): 오늘도 다들 수고오오!



타미스케 진: 수고!



변신 (GM): 밀도 높은 씬 2개였다



타미스케 진: 이야, 진따는 양념만 쳤네요.



타케루 타츠야: 아아

정말로...



쿠사카 마리: 미안해요 리히토!



타케루 타츠야: 높은 밀도였어



쿠사카 마리: 마리는 양념만 쳤어!

(까득



타케루 타츠야: 미안해요, 리히토맨(베어그릴스 표정



변신 (GM): 한번 도주할걸 준비했는데

설마 첫시도로 바로 나을줄은



타미스케 진: 그러게요

@나도 몰랐음



변신 (GM): 다이스값은 날 싫어하는게



타케루 타츠야: 그러게오



변신 (GM): 틀림없음



타케루 타츠야: 왜 일케됐찌



변신 (GM): 일단 로그가 길어지니
다들 톡으로 사출@버튼 난타



타케루 타츠야: 누오웃



타미스케 진: 아아
사출!



키도 리히토: 마앙



변신 (GM): 인양!



타케루 타츠야: 후



오렌: 출책.



타케루 타츠야: 음속의 토끼라고
불러라



키도 리히토: 딜레이 유루산



오렌: AHAHAHAHAHA
거의 전부 동시에 들어온 거 같은데
채팅은 내가 빨랐군



타케루 타츠야: 내쪽에선
내가 먼저 댔는데w



오렌: 머꼬
내쪽에선 내가 먼저 땀



타케루 타츠야: 일단 내 눈에서는



오렌: 동시에 쳤나



타케루 타츠야: 나-닝겐-오렌의
속공랜딩이었음



오렌: 오렌은 오렌-토끼-닝겐 느낌이다.



키도 리히토: 닝쿠리 기준으로
우사삭-닝쿠리-오렌 순이었데이
즉 변쿠리판정에 맡기자



타케루 타츠야: 즉 변신의 턴이군요



변신 (GM): 날부름?



오렌: 그렇다



타케루 타츠야: 아아!



키도 리히토: 셋이 거의 동시에 와서 판정이 불가능하다 모쿠바!



타케루 타츠야: 더불어서 각각의 증언은
토끼 : 나 - 닝겐 - 오렌순의 랜딩이었다.
오렌 : 오렌 - 토끼 - 닝겐순의 랜딩이었다.



오렌: ROLL20 딜레이 때문에 제대로 된 판정이 안 되는 현실



변신 (GM): 즉 우열을 가려달라....좋다, 판결을 내려주지



타케루 타츠야: 닝겐 : 토끼 - 닝겐 - 오렌순의 랜딩이었다



변신 (GM): 전부 1점씩 받아라.
@솔로몬



오렌: 이이다로!



타케루 타츠야: 웃시



키도 리히토: 나니코레



타케루 타츠야: 받았다



키도 리히토: @줍줍



오렌: @줍줍



타케루 타츠야: 줍줍



변신 (GM): 이제 싸움은 필요없겠지!



오렌: 아아!



변신 (GM): 이것이 명판관
@아무말



키도 리히토: 우선 진정하고
변쿠리를 노페이스한테 주자



타케루 타츠야: 즉
노페이스는 죽는다



오렌: 그의 이름 스페이스
그의 이름 노페이스
과연 스페이스와 노페이스 중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개봉박두



키도 리히토: 우주추



타케루 타츠야: 오마에오 코로스(Cv.너를 죽이겠다.)



변신 (GM): 음? 변쿠리의 가호를 노페이스에게 준다고?
@닝겐님 말을 본다



오렌: 변쿠리의 가호...
즉

중요한 상황에선



변신 (GM): 이이다로 난이도 상승은 환영이야



오렌: 반드시 펄스를 띄워서
적이 아군이 되는 가호?



키도 리히토: 즉
변쿠리다이스군
고글킵!



변신 (GM): 오렌은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총을 겨눴다가 킵에 사망



타케루 타츠야: 벼...변신다이이잉!!!



변신 (GM): 나제다...나는 분명...모두에게 에가오를...
@스마일월드를 놓고 사망



오렌: @스마일 월드를 찢는다

- 전회의 변신날!



오렌: @급하게 스토리용 브금으로 체인지

시작되는 파티, 그리고 타츠야는 같은 입장의 움사오와 같이 동료를 모은다!

그와중에 우연처럼 진, 리히토, 마리가 어째선가 엮여졌다. 아는 사람들이기에 다행히 알아볼수있었고 그 인연으로 그로세에게 돌진

어떻게든 이야기가 되는듯 했으나 이미 행동중이던 노페이스와 대면! 분노하는 그로세! 부셔지는 배! 혼란에 빠지기 직전의 상황

자칫하면 노페이스가 도망갈 위기를 리히토는 자신의 존엄을 희생해서 상황을 안정시켰다. 이제 다시 숨어든 놈을 쫓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타츠야의 목숨이 위험해져온다!! 힘내라 히어로! 그의 안전은 히어로들에게 달려있다!!

-- 전회의 예고 끝 -



오렌: ㅎ



키도 리히토: ㅎ



타케루 타츠야: ㅎ



타미스케 진: 힘내라 히어로들!



변신 (GM): 그래, 힘내라



쿠사카 마리: (모두 모였군



타케루 타츠야: 반갑네



변신 (GM): 전회예고는 끝냈다
시간이 되면 시작할뿐
오늘이야 말로 페이스 최후의 때....
어느 페이스가 최후일지는 모른다



타미스케 진: 스페이스와 노페이스의 치열한 생존경쟁
실수하는 순간 그들 중 한 명의 생존이 사라진다..



타케루 타츠야: 같은 타입의...
네임보유자...!



변신 (GM): 그렇다!@사실 의도한건 아니지만 의도한것처럼 하자.



쿠사카 마리: 한마디 많아(폭폭



변신 (GM): 치밀한 설정일뿐...!@
@사망
그럼
모두 있는가?



타미스케 진: 이루요



변신 (GM): 오렌 밖에 반응이 없군



쿠사카 마리: 그러함



타케루 타츠야: 있다구



변신 (GM): 리히토는 도코다



타미스케 진: 화장실 갔어요



변신 (GM): 와캣타

--- 세션 재개 ---



변신 (GM): 그럼 오면 씬을 열도록한다
일단 알려줄건
이제 노페이스는 경계합니다



타미스케 진: 다로네



변신 (GM): 하지만 동시에
다른 얼굴인데도 여러분을 피할거란
확정적인 증거가 생긴거기도하죠



타미스케 진: 쏘다나!



변신 (GM): 그리고



타케루 타츠야: 아아!



키도 리히토: 요시 므냥시즌!
(기어나옴



쿠사카 마리: 요오시



변신 (GM): 요시 그럼 어디

rolling 1d10

(2)

= 2

흐므흐므



타케루 타츠야: 알 수 없는
다이스다



변신 (GM): 알면 안되겠지
@시나리오 기막이고



타미스케 진: ㅎ



타케루 타츠야: 다요나



변신 (GM): 여튼 준비는 끝났고
이번 씬주는...
리히토는 희생당한 거시다



키도 리히토: ?!



타케루 타츠야: ?!



변신 (GM): 아니면



타미스케 진: ㅎ



변신 (GM): 불쌍한 영혼대신
나서겠다는 자가 있는가
진따 빼고



쿠사카 마리: 하핫



타미스케 진: 진따 빼고라는 워드



쿠사카 마리: 저번 일도 있으니
내가 할께



타케루 타츠야: 진따는 이미 물었으니
마리!직접 나서는가!



타미스케 진: 후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
힘내라 애들아



타케루 타츠야: 원소리야
나랑같이
정신병자 디오 시전해야지



변신 (GM): 그럼 마리가 메인PC
빠지고 싶거나 마리가 제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버려도 좋다.



타미스케 진: 정신병자 디오 무엇



타케루 타츠야: @쵸쵸서기



변신 (GM): 자, 저기 송악한 리히토를 참가PC에서 제외해라
더불어 보정있는 진따도
@악의



타미스케 진: 폭



변신 (GM): @쓰러짐



쿠사카 마리: 제외할 사람은 없는것이다



변신 (GM): 분명 모두에게 고생을 넘기고
편히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것이다
자, 편히 말해라



타케루 타츠야: 이쿠쵸!



변신 (GM): @자애로운 미소



타미스케 진: 설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내다 버리는 인물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키도 리히토: 하와와



변신 (GM): 리히토는 빠지는건가
후, 알았다.



타미스케 진: 폭



변신 (GM): @쓰러짐



키도 리히토: 뽁
참가한다



변신 (GM): 그럼
썬#3 연다
당근뽁따로 연회장 안이 될겁니다.

--- 썬#3 ---

장면: 한차례 혼란이 있다가 가라앉은 연회장

시간: 명백한 오후, 출출하기에 요기를 할 시간

등장PC: 마리, 진, 타츠야, 불쌍한 리히토

---- 썬 개시!! ----



변신 (GM): 그럼 여러분들은 한차례 커다란 희생()이 있는 뒤에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쉬는게 좋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누구로도 변하는 노페이스가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로 혼란을 조장하는 것을 목격했죠
시간을 늦추고 여유를 가질수록



쿠사카 마리: 슬픈일이군요



변신 (GM): 주로 타츠야의 배가 점프로는 보호할수 없을정도로
너덜해질지 모릅니다



키도 리히토: 슬픈 일이야



타미스케 진: ㅎㅎ



쿠사카 마리: 이미 너덜너덜하지 않을까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며 타츠야를 슬쩍 바라보죠



변신 (GM): 지금은 다들 식사중이네요
어딘가에 합석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담담히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있다.



키도 리히토: 멘탈 데미지에선 회복했지만 이제 어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404] UMP45: "자, 이번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합석이 좋을텐데 어디가 좋을까나?"



쿠사카 마리: "합석하는게 좋겠네요, 좋은 자리는 있나요?"
그럼 빈 자리는 보이나요



[404] UMP45: 선택지는 아까와 같습니다.
움사오가 가르키는 자리들을 보이면



쿠사카 마리: 아까(저번주)잖아



[404] UMP45: 아까의 그룹과 같습니다.
좀 상위 함선소녀들,
메탈블러드의 함선소녀분들
그리고 움사오나 M16와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있는곳



타미스케 진: (흠떠레스땡



쿠사카 마리: 이야기 했던건 상위 함선소녀와 메탈블러드 쪽이라 할수 있겠지?



타케루 타츠야: 흠
자, 어디를 찍어야 좋을까



[404] UMP45: 이전에 이야기했던건 상급 함선소녀들쪽이었고
운 좋게도 관련인과 함께 있었죠



키도 리히토: 같은 사람으로는 어지간하면 다시 변장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고
흐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음, 이쪽은 도움이 되려면 우리 소속함선소녀들쪽이어야 할거야."



쿠사카 마리: 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상위 해외함은 그로세씨가 아닌한 교류가 깊지도 않고."



쿠사카 마리: 메탈블러드나 나노머신쪽인가 저쪽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메탈블러드랑 유사 휴머노이드 조는 따로 있습니다



쿠사카 마리: 조금 장난칠때는 아닌것 같고 어디보자....
(알고있다



타미스케 진: (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리고 히퍼는 메탈블러드 소속만 알아볼만하다고 하고



쿠사카 마리: (수작부리다 걸렸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상위 함소녀쪽은 판별하긴 힘들다



쿠사카 마리: (바로 시도할까 싶지는 않은데



타미스케 진: "제가 노페이스라면 함선소녀 분들보다는, 역시 다른 분들 쪽에 수작을 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리고 404는 움사오에게 맡기라 한것



타케루 타츠야: "아무래도, 당장 손을 쓰다 걸렸으니까요"



타미스케 진: "프리드리히 씨가 협력하고 있는 걸 확실하게 봤을 뿐더러, 어드미랄 씨도 저희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쿠사카 마리: (그럼 404쪽인가)



타케루 타츠야: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을만한 위인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404] UMP45: 음.....



키도 리히토: (흠



[404] UMP45: 고민되면 검은 지혜 스톡하나 쓸래Yo?



타미스케 진: 이지판정으로 힌트를 얻을래요



키도 리히토: 우선 이지를 굴리자
(미침



쿠사카 마리: 아니
와라, 지식의 왕관!



타케루 타츠야: 뭐... 뭐라고웃—!



[404] UMP45: 이지는 난이도 16



타미스케 진: 판정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사용한 뒤에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시나리오제를 허무하게 하나 잃고 싶지는 않다.



쿠사카 마리: 그럼
진이 굴린 뒤에 보자



[404] UMP45: 롤나우



타미스케 진: 라기보단 전원 굴려도 되는 것이www



타케루 타츠야: 이지판정...



키도 리히토: 이지...



타미스케 진: 색다름으로 보정 +1을 얻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나도 도전해볼까



[404] UMP45: 굴리면 검은지혜 사용찬스는
굴린사람은 불가



타미스케 진: 이이요



쿠사카 마리: 난
16이면



키도 리히토: 굴린뒤에 봅시다



[404] UMP45: 마찬가지로 지혜의 왕관도



쿠사카 마리: 실패 확정이고
왕관 대기할께



[404] UMP45: 지식이군, 여튼



타미스케 진: OK
그럼 굴립니다



타케루 타츠야: 흠



[404] UMP45: 아아



타케루 타츠야: 16인가
6+6... 별거아니군



타미스케 진: rolling 2d6+5

(3 + 4)+5

= 12



키도 리히토: 크리티컬이 아니면 무리군



타미스케 진: 음 무리였다



타케루 타츠야: rolling 2d6+4

(2 + 6)+4

= 12

별거아닐뻔 했다
쳇



키도 리히토: rolling 2d6+4

(1 + 4)+4

= 9

백킹!



타케루 타츠야: 한 놈 부족했군...!



변신 (GM): 그럼 셋은 생각합니다

역시 굳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함선소녀쪽에 갈리가 없습니다.

윗보다 프리드리히가 눈에 불을 키고 분노중이고

우리쪽에 어드미럴 히퍼란 함선소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될터니까

평범하게 생각하면 다른쪽이 맞습니다.



변신 (GM): 딱히 별다른걸 못느끼네요



키도 리히토: "으응...."

@골치



쿠사카 마리: 그러면-

대답해라! 지식의 왕관!



변신 (GM): 지식의 왕관쪽인가

이이대로



쿠사카 마리: 검은 지혜는 남겨둔다



변신 (GM): 그럼 스톱을 지우게



쿠사카 마리: 아아...



변신 (GM): 그럼...마리, 마리 떠올리는겁니다...

당신의 언니나 동료였던 오빠들이 놈을 상대로 언제나 말한것을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는 놈들은 담력이 없으면 무리고, 보통의 사고를 오히려 간파하고 안될쪽으로 움직일거
라고.



쿠사카 마리: 아아!



변신 (GM): *그편이 오히려 안전하니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방패가 되어서



쿠사카 마리: "확실히 보통은 수작을 부린 상대방으로 바로 가지는 않겠네요"



변신 (GM): 영악한 놈을 지킬수 있다는 사실ைய요

키도 리히토: "....보통은?"



보통은 안 가려나...생각하다가 마리의 말에 돌아봅니다.



쿠사카 마리: "상대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변신 (GM): (지식의 왕관은 쿨하게 돌아가지.@소멸



타케루 타츠야: "...흠, 확실히"



쿠사카 마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하고 헛점을 찌를거라 생각해요"



키도 리히토: "...그러네"



타케루 타츠야: "평범한 사기꾼이라면, 동결된 계좌의 복수라는 이유만으로 자칫 자신도 죽을지 모를 복수를 하러 올 리 없죠"



키도 리히토: "프리드리히 씨로 변장하는 수를 뒀고"
@깨달음



변신 (GM): 예, 그럼 공유하니 알게됩니다.



타미스케 진: (ㅎㅎㅎ
으음... 확실히."



변신 (GM): 그 노페이스의 탐력은 여러분의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개인으론 못해먹을 짓이니 정상이 아니겠지(편견)



변신 (GM): 그렇기에 그의 사기가 통하고, 속는 사람들이 많은거겠조



쿠사카 마리: "갈라지는것도 우책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타미스케 진: (으음 잠시 빠르게 화장실



변신 (GM): 뭐, 갈라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우연한 기회를 포착할 찬스를 확실히 안잡으면
놈이 있다고해도 틈을 찌르는게 좀 힘들겠조



타미스케 진: (소다나



키도 리히토: (다네-



타케루 타츠야: 데스요오네



[404] UMP45: "나눠가면 만날확률은 높겠지만 소수로 틈을 찾아야할거고."
"다수로 가면 한마디로 큰 도박이네-J"




타케루 타츠야: "뭐, 그렇게 되겠군요."





[404] UMP45: "단지 놈이 평범한 행동을 할것 같지는 않고, 안전책을 택하는게 오히려 의심가는 상황이야."
"에초에 네게 벌인 작업만해도 조금만 잘못 타이밍을 잡았어도 스스로 망했겠지. 멍청이는 아니야."
타츠야에게
움사오는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뭐, 그렇지요"
흠.


 타미스케 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쿠사카 씨의 말대로 함선소녀 분들이 계시는 쪽으로 함께 가는 게 좋겠군요."


 타케루 타츠야: 그런 각오의 녀석의 도박. 쉽게 잡을 수 있을리는 없지.
"...함선소녀 분들의 쪽을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군요."


 키도 리히토: @끄덕


 [404] UMP45: "하지만 안전편은 있는게 좋을텐데...여차하면 나만 우리팀쪽에 가볼까?"
하고 움사오는 제의하네요


 키도 리히토: "....혼자서요?"


 [404] UMP45: "솔직히 함선소녀들쪽과는 불편하거든. 아까 말했지만 난 체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막 대놓고 움직이기엔 안정감을 찾고싶을 타이밍이지."
그녀는 사악한 미소를 짓습니다


 쿠사카 마리: "혼자 가는게 불안하면 제가 같이 가도 되는데요"


 [404] UMP45: 대략 기본치 20정일것 같은 계락을 가진 미소로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흠."


 키도 리히토: ".....별 말 하지 않을거죠?"
아까 엄마발언에 불안해진 표정


 타미스케 진: "UMP45 씨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끼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단은 이미 숙지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타케루 타츠야: "쿠사카씨,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동행해줘라!


 타미스케 진: (썬주가 동행하는
(즉 우리는 사라지는

 타케루 타츠야: 앓

 타미스케 진: (멀리멀리


 타케루 타츠야: 그렇게되나


 [404] UMP45: "아니, 혼자라도 괜찮은데...솔직히 이 여자애는 뭔가 묘한 거리감탓에."


 쿠사카 마리: (하하


 [404] UMP45: (아니, 따로따로 나오는거겠지만

 쿠사카 마리: "응, 이제 장난은 안쳐"

 [404] UMP45: 마리를 살짝보고 조금은 곤란한 표정입니다

 쿠사카 마리: "잠도 깬고"

 타케루 타츠야: 뭔가 굉장히... 붙어있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굉장한 프레셔군

우린 저쪽으로 밀려간다



[404] UMP45: "개인적으로도 거리감을 잡기 어려워. 묘한 감을 느끼게 만드니까..."



타미스케 진: (w



[404] UMP45: 데려가라 난봉꾼, 변태하는 눈빛으로 타츠야와 리히토를 봅니다
중압에 걸릴것 같습니다



쿠사카 마리: "....."



키도 리히토: "....."



[404] UMP45: (실제론 무시해도 좋다



키도 리히토: @얼굴감삼



[404] UMP45: (@메메타



쿠사카 마리: 그럼 장착한 신 병기를 슬쩍



타미스케 진: (www



쿠사카 마리: 중압에 걸릴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타케루 타츠야: 후, 용서해라



타미스케 진: "하하, 쿠사카 씨가 그렇게 바라신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요."



타케루 타츠야: "좋지 않을까요?"



키도 리히토: "솔직히 반대로 이쪽이 가면 그건 그것대로 애매할 거란 생각이...."
평판적으로 말이지!



[404] UMP45: "...쫓, 뭐 좋아. 그럼 그쪽은 잘부탁하지. 이쪽도 보험검 악화된게 얼마나인지 확인하러 가는거니까."



타미스케 진: "네, 부탁드립니다."



타케루 타츠야: "...악화?"



[404] UMP45: 그럼 이내 그녀는 포기한듯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조금, 무서운 단어가 들렸는데요 45씨!



타미스케 진: "타케루 씨의 평판의 이야기겠죠."



[404] UMP45: "응? 당연히 공작당했다면 얼마나 당했는지."



키도 리히토: "악화가 당연히 나와서 웃을 수 없는데"



쿠사카 마리: "확실히 피해의 확인은 중요"



[404] UMP45: "그것의 척도겠지. 현 난봉꾼 확정범."



키도 리히토: "...미적대면 거기서 더 심해지"
" "



[404] UMP45: 하고 타츠야를 악의 가득한 미소로
말해줍니다



타케루 타츠야: 한숨



타미스케 진: (w



쿠사카 마리: "상황 종료도 안됐는데 악화면 몰라도"
고개를 절레절레



타케루 타츠야: "...뭐,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혹시 모르니
배에 붕대를 둘러두자



타미스케 진: "물론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이쪽은 내가 잘 알아볼테니. 그쪽은 알아서 잘하라고 속검은 여자."
그럼 히퍼는 움사오에게 좀 날서게 말하며 다른 셋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음식이라도 담고 합석을 요구해. 저쪽도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거부 못할테니까."



키도 리히토: "...힘내겠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럼, 가볼까요"
후우



키도 리히토: 사람이 보트에 실려가는 건 좀...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알아들었다는 표시로 끄덕.



타케루 타츠야: 복장단정히, 붕대도 슬쩍...
요요시.



타미스케 진: "그러도록 하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움사오, 마리팀
히퍼와 유쾌한 기행남들
팀으로 나눠서 행동을 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유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장면은 나눠서 진행할텐데 먼저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쿠사카 마리: (모녀한조로군



타미스케 진: 모녀조부터 도조



타케루 타츠야: 모녀조가
더 빨라보이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일단 보험조부터 군요



타케루 타츠야: 그게 좋겠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카메라 시점을 둘에게 집중합니다

- 움사오와 마리, 복흑조의 경우. -



변신 (GM): 그럼 마리는 움사오와 함께
적당히 접시에 적당한 음식을 담고 이동하겠네요
움사오는 이동하며 말합니다.



쿠사카 마리: 적당히 마음에 드는걸 집었어요
(까득



[404] UMP45: "조금 개성이 넘치는 애들이니까. 무턱대고 건들지마. 특히 잘못 터지면 골치아픈 하늘색머리
카락의 녀석은 특히."



쿠사카 마리: ".....어떻길래?"



[404] UMP45: "피해자 범위에 더불어서...성격이 더러우니까."



쿠사카 마리: ".....스트레스의 원인을 물어본건데?"



[404] UMP45: 사태파악이 확실히 되면 가장 발광할 여자라며 사오는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쿠사카 마리: 그리고 그 말에
대충은 이해해서 한숨



[404] UMP45: 그럼 그렇게 움직여 해당 테이블로 가면
마리는 눈이 자동으로 커질겁니다
그도 그럴것이 옆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익숙한 사람들이 한가득이니까요



쿠사카 마리: 눈이 대충 3배 정도 동그아졌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별 차이는 없겠군요



[404] UMP9: "여! 언니! 저 꼬마애는 누구? 언니의 상대는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하고 움사오에게 바로 달려드는 비글미 뽐어내는 여성이랑



[404]G11: "....."
책상에 머리를 박고있는 회색장발의 무언가



쿠사카 마리: 놀랍게도 놀랍지 않군



[404] HK416: "하아, 왜 이딴놈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뭐야? 누군데 합석이지? 혹시 테러하려다가 막힌 사
람?"
사납게 찌려보는 아까 말한 하늘색머리의 사람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흥국추)



쿠사카 마리: (그건 마리가 아닙니다
(마리 아빠입니다(적당)
(말해버릴까



[404] UMP45: "뭐뭐, 여차저차 어울리게된 여자애야. 이렇게보여도 친해져서 나쁠건 없어보인달까."
하고 움사오는 건성으로 말하며 옆의 달라붙어오는 갈색머리 여성을 누릅니다



쿠사카 마리: 그럼 접시에서 본래의 이모가 좋아했던걸 골라서
그녀에게 주죠
".....먹을래?"



[404] UMP45: "참고로 이쪽은 UMP9, 움큐라고 애칭으로 불러주거나 나처럼 움프 동생쪽이라고 생각해."



[404] UMP9: "웃! 언니가 오늘따라 철벽방어...! 아, 방가방가. 나중에 나눠먹자."
그럼 움큐라고 불린 여성은 손흔들고 그대로 움사오와 힘겨루기중입니다



쿠사카 마리: "응, 이모"
자연스럽게 이모라고 부릅니다



[404] HK416: ".....?"
그럼 이쪽은 플래시탄을 맞은듯한 표정이 됩니다.



쿠사카 마리: ".....엄마가 가정교육으로 웬만하면 이모라고 부르라고 했어"
(아줌마가 아니라



[404]G11: ".....꿈인가."
이쪽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꼬꾸라집니다



쿠사카 마리: (난 친족의 의미로 그리 부르게 아니야!)



[404] UMP9: "이모? 엄마...? 혹시 언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단란한 가정느낌으로! 잘보니 언니랑 닮은것 같은데!!"
하고 우와아앙! 하고 움큐가 기쁨가득한 표정으로 달려듭니다



쿠사카 마리: 익숙한 경험이다
들고 있던 접시는 철탱이에게 주자



[404] UMP45: 그리고 깔끔한 팔돌려 꺾기로 제압합니다.
"음, 아무래도 이쪽에는 놈은 없는것 같네."
"이런 정신나간 반응은 쉽게 그놈도 못따라하지."



타케루 타츠야: (노페이스도 거르는 '그 팀')



[404] UMP45: 철탱이는 뒷다리로만 서서 접시를 받아들입니다



쿠사카 마리: "뭔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반응이었어"



[404] UMP45: 등이 열리고 나와라 가제트 핸드



타케루 타츠야: (이녀석은 대체....)



[404] UMP45: 빈자리에 철탱이는 접시를 놓습니다



쿠사카 마리: (일단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게 좋을까)



[404] UMP45: (어떤 관계를?)



쿠사카 마리: (가족관계를
(7할 진지



[404] UMP45: 설명하면 카오스가 펼쳐지지만 좋다면 괜찮아요
아마도 이번씬에서 이곳에서 못벗어나게됨



쿠사카 마리: 그럼 현재 마리는 달려든 움큐에게 어떻게 된 상태지?



[404] UMP45: 마리가 아니라 움사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쿠사카 마리: 그렇군

"안심해, 으음.... 딸... 이지만"
"평행세계의 동일인물의 딸... 인것 같으니까"



[404] UMP9: "....굉장한 설정을 가진 애네 언니."
그럼 무심코 그말에는 움큐도 진지



[404] UMP45: "뭐, 음...나도 모르겠고. 일단 밥이나 먹을까. 지금 귀찮은 일을 하는 중이니까."



쿠사카 마리: "그쪽하고 별 차이는 없는것 같은데...."



[404] UMP45: 생각을 방폐한 표정입니다



[404] HK416: 이쪽은 뭘 X소리야...하는 얼굴로 욕설이 보이는듯한 답답한 표정입니다



쿠사카 마리: "디스, 사진 데이터 있어?"
철덩이를 번쩍 들어서 쓰다듬기



[404] HK416: "일단 리더인 움사오씨는 매번 저질러준 덕분에 여기저기서 찢러죽이려 할테니 그렇다치는데
이상한 여자애도 데리고 다니네."
그럼 흥국이 핀자능 할때 철덩이
홀짝으로 인쇄기능이 있음 없음
굴려봐요 마리



쿠사카 마리: 이 무슨
d2?



[404] HK416: 소다요



쿠사카 마리: rolling d2

(1)

= 1



[404] HK416: 있네요.



쿠사카 마리: 있는것이다



타케루 타츠야: 있구만



[404] HK416: 철컹 하고 철덩이의 아랫턱이 벌어지더니
위이이잉



쿠사카 마리: 철덩이가 없는 기능을 찾는게 먼저 아닐까



[404] HK416: 하고 출력하는 소리가 들리고 찰칵



쿠사카 마리: ".....인쇄기능 있었던가?"



[404] HK416: 하고 어린 마리랑 레이나, 평행세계의 가족과 이웃들이 찍힌 사진을 뽐냅니다. 텃



타케루 타츠야: (철덩이가 쿠사카 파파가 만들던 최종병기 로봇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어)



쿠사카 마리: 거기서 마리는 HK416한테 안겨있는걸로 해줘!



[404] HK416: (본명은 디스트로이어다

(@철댕이 본명
그럼 전원 사진을 보게되고
흥국부터 시작해서



[404] UMP9: 호오웅이이
하는 표정으로 텐션이 오르는 표정



[404] UMP45: "아니, 둘다 침착해. 진짜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치밀한 조작사진-."
그리고 마리는 움사오와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흥국과 알고있는거 다 말해봐! 설정! 하고
덤비는 움큐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쿠사카 마리: "길어지니까 생략, 크로스게이트에 휘말렸어"



[404] UMP45: 과연 그걸로 넘어갈수있을까
마리 행운판정을 하죠
난이도는 20입니다



쿠사카 마리: "그런데 언니가, 엄마 모습을 한 누군가가 있다고 하길래 조사하러 왔어"
사진에서 레이나라를 가리키면서 말하죠



[404] UMP45: 그럼 RP를 봐서 깎아서
19입니다



쿠사카 마리: 쿛
실패인가



[404] UMP45: 실패하면 그대로 제대로 해명할때까지, 혹은 상대가 질릴때까지



쿠사카 마리: 크리가 뜰수도 있지



[404] UMP45: 붙잡히게 됩니다



쿠사카 마리: rolling 2d6+4

(6 + 3)+4

= 13



[404] UMP45: 3이 아까웠다.



쿠사카 마리: 실패군



[404] UMP45: 그럼 마리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눌러서
뜻밖의 상황에 놓입니다



쿠사카 마리: 괜찮아
전달해야할 정보의 일부는 전달했어



번신 (GM): 그럼 이제
카메라를 돌려보죠

- 히퍼와 유쾌한 기행남들의 경우 -

변신 (GM): 시간을 좀 돌려서



타미스케 진: (후!



변신 (GM): 마리와 헤어진 직후 히퍼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식사할 준비를 갖추고



쿠사카 마리: (후
(마리는 놀고 있겠다고



변신 (GM): 메탈블러드에 소속한 함선소녀들이 식사하는 테이블에
모두는 가게됩니다.
타츠야로선



타케루 타츠야: 맨정신으로 못버틸테니 술을 마실까. 라기엔 너무 많은 술이 필요했다.



변신 (GM): 사지로 걸어들어가는 기분이겠지만



타미스케 진: (ㅎ



변신 (GM): 식사중에 수라장(함포전)이 벌어지지 않는걸요.



키도 리히토: ㅎㅎㅎ
같이 위통나우



쿠사카 마리: (어뢰라면 가능성이 있군!)



타케루 타츠야: ㅎㅎㅎㅎㅎ



타미스케 진: ㅎㅎ



변신 (GM): 그정도 예의는 그들에게 있을겁니다.



타케루 타츠야: 하지만, 그대로 멈춰서 있기만 해서는 악화일로



변신 (GM): 있...겠쥬.
고로 타츠야 행운을 굴러보세요



타케루 타츠야: ...하지만, 정말 괜찮은걸까



타미스케 진: 무엇



타케루 타츠야: 무엇



변신 (GM): 난이도는 10입니다
행운의 여신님은
웃어주실건가



타케루 타츠야: rolling 2d6+3

(6 + 2)+3

= 11

했다구



타미스케 진: 살ㅇ므



키도 리히토: 허에엑



변신 (GM): 그럼 운 좋게도



쿠사카 마리: (마리는 붙잡혀서 고향세계의 404의 설정을 말하고 있다구!(적당)



변신 (GM): 아직 모두는 평화롭게 식사중입니다
단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반짝



키도 리히토: (호엑!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키릿
하고 두 소녀들과 다시 마주쳤겠네요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덧붙여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들고있는
흑발의 여자애도 보일겁니다.



타케루 타츠야: 파더... 마이 파더...



타미스케 진: 아는 얼굴 있으려나-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진은 어디...



키도 리히토: 살려주세요
전 그냥 다이스닥이입니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행운이 11이상이면 한명은 안다고 해드리죠
운 좋게



타미스케 진: 과연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아는 사람이 한명 더 있었다
라고 하는 용이니까



타미스케 진: 특기 색다름 사용
판정에 +1!
근데 이거 일일이 선언하기 귀찮네
왜 소모도 없으면서 패시브가 아닌거지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안 선언하고
강굴림해도 좋다
@상냥



타미스케 진: 하지만 선언한다
ㅎㅎㅎㅎ
간다

rolling 2d6+5

(2 + 1)+5

= 8

위험해



키도 리히토: ㅎㅎㅎㅎㅎㅎ

타케루 타츠야: 색다른
다이스인걸?[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예, 진짜의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레이트 서섹스 쓰쉴?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프리드리히와 아는 사이



키도 리히토: 무엇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거기까지 였던겁니다
우연히 아는 사이가 많았다는

타미스케 진: 후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런 편의적인 행운은 더 없었습니다

타미스케 진: 이런 서술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나
그레이트 석세스를 써주지[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허나 거절한다
@이미 판정끝남
(뒷보다 묘사가 종료했다

타미스케 진: 슬픈 일이다



타케루 타츠야: 슬픈 일이군.



타미스케 진: 진짜는 쓸모가 없다



쿠사카 마리: (비열한 변명입니다 콘)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럼 이쪽은 타츠야와 눈이 마주치고



타케루 타츠야: ...반갑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음? 무슨 일로 온거지? 여기는 메탈블러드의 함선소녀 그룹이 식사하는 곳이다
만?"

키도 리히토: 아직 히퍼가 있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하고 미소를 보이며 말합니다
자고로 미소란(ry키도 리히토: 알고있나? 미소란(생략
구벽 인사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너... 수화가 아니라, 말 도 할수 있었나.



키도 리히토: 옆에서.
볼지는 모른다만



타미스케 진: (ㅎ



타케루 타츠야: 마찬가지로, 살짝 고개숙여 인사하자.



타미스케 진: "안녕하십니까, 타미스케 진이라고 합니다."
꾸벅꾸벅.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넌 가시가 잔뜩돋쳤네. 도이칠란트. 동행이다. 그로세씨의 부하였던 사람과 친구들이야."

진을 가르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손에 나타난 침탐을 축소한듯한 지팡이로
의자들을 쳐서 빼냅니다
그리고 눈짓으로 앉아
하고 무언의 압박을 보냅니다



키도 리히토: 압박에는 이길 수 없었어요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뭐, 우리는 합석으로 별이건은 없고. 타츠야씨는 이쪽에 앉을래요?"
그럼 은발의 여성이 권유합니다 타츠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이쪽도 괜찮아. 지금 장갑 집어넣어서 걸리지 않을테니까."



타미스케 진: "하하, 허락에 감사드립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매끈한 손으로 타츠야를 향해서
자신옆의 의자를 두들깁니다



타미스케 진: 무언의 압박을 보내자, 빼내진 의자 중 하나를 잡아서 정중한 모습으로 앉습니다.
(뭘 선택할래, 스페이스



타케루 타츠야: 와아—
(흰 눈



쿠사카 마리: (꼬신건 프린장이었지?)
(까륵



키도 리히토: 꾸벅 인사하곤 빼진 의자 하나를 앉습니다
하나에



타미스케 진: "자, 타케루 씨도 앉으세요."
그러면 자신의 옆의 의자를 빼내면서, 타케루에게 권유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 그럴까요."
진따실드!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



타케루 타츠야: 잠시 두 사람의 제안에 고민하다가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진짜로 지금 그럴꺼냐?하는 눈빛



타케루 타츠야: 일단 이유는 진 따라온.ㅇ.ㅇ.

...으음

아니 잠깐



키도 리히토: "혼자 멀뚱히 서게 하기에 그릴죠?"



타케루 타츠야: 흐으음



키도 리히토: 보충은 한다면 그 뒤는 몰라



타케루 타츠야: 제안자가 셋이라니... 이 무슨 두려움!



타미스케 진: (하하! 다른 둘의 제안이 무서우면 여기에 앉아라!



타케루 타츠야: 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오이겐의 옆에는 내가 앉지."

그럼 빠르게

한사람이 자리를 스틸합니다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언니...언니도 참."



타케루 타츠야: "...아, 그러면 모처럼 제안받은것이니 저도"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조금 심통스런 표정입니다만

타츠야



타케루 타츠야: 그럼 어쩔수없네. 라는 느낌으로 슈퍼쪽으로 가는 수밖에
어쩔수없네—



타미스케 진: (지각과 이지 판정으로 살아남거라. 타츠야.



타케루 타츠야: 후우...!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말하기전에 반사



타케루 타츠야: 나를, 불렀는가...!



키도 리히토: (살아라 그대는 아름답다



타케루 타츠야: 오우?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11로 판정해보세요



타케루 타츠야: 반사인가



키도 리히토: 오우?

스페이스만인가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예스



타케루 타츠야: rolling 2d6+4

(6 + 5)+4

= 15

키요윳



타미스케 진: (스페이스만이겠지



타케루 타츠야: 성공



키도 리히토: 끼요윳



타케루 타츠야: 타카이쥬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그럼 타츠야는 말하려고하다가
깨닫습니다
슈피가 권유한 자리는 사실
슈피와 오이겐의 사이에 끼게되는 자리라고.



타케루 타츠야: 핫, 하고 멍치한다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자리의 상태를 확인안했다가



타케루 타츠야: 뭐...뭐라고웃-!!



쿠사카 마리: (휘익



타미스케 진: (얇전히 이리로 오렴.



키도 리히토: (와라이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겨우 높은 반사신경으로 판단할 순간을 만들어 찬스를 가질수 있어지네요
이제 여기뿐이겠지하는
슈피의 눈빛이 타츠야에게 반짝



타케루 타츠야: 흠.



키도 리히토: (그럼 여기다 초치면 됨?



타미스케 진: (일로 와 치정싸움으로 죽고 싶지 않으면



타케루 타츠야: 자아, 생각하자...! 어디가 좋지!?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키도 리히토: "어라, 여기 비네"
"타케루 씨, 이쪽 앉을래요?"



타케루 타츠야: (리...리히토오오오오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검은 지혜는 유감스럽게
움사오가 없어서
사용불가



쿠사카 마리: (멘고



타케루 타츠야: 라기보다 사오는 여기서 검은지혜 쓰면



키도 리히토: 젠장 당했다



타케루 타츠야: 내가 앉는다ㅎ



키도 리히토: ㅎ



타케루 타츠야: 뿐이잖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리히토의 옆은 참고로



타케루 타츠야: 흠... 어찌지...!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짤



타미스케 진: 저기가 낮네
저기로 가라



타케루 타츠야: 더불어서 진따 옆은?



키도 리히토: 으아악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리히토와 이사람 사이입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진따옆은 이사람 옆



타케루 타츠야: 후...
여기서는.... 진따 옆...일까, 입장상.



타미스케 진: (@망설여지면 이지를 내민다



타케루 타츠야: 그런가...
좋겠지...
번뜩여라, 나의 지성!
우오오!



키도 리히토: (화장실ㄹ



변신 (GM): 그럼 딱히 판정없이
살려면 진따 옆에 앉아야겠지 상식적으로.



타미스케 진: (오렌적으로도 진따옆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타케루 타츠야: 다나



변신 (GM): @판정할 필요가 있음?



타미스케 진: (쏘다네
일루와 친구



변신 (GM): 하지만 굳이 판정하고 싶다면
난이도 12



타케루 타츠야: 후, 진 옆이겠지
이지판정했을 때
좋은게 있으려나-?



타미스케 진: 실패하면 타츠야의 선택이 어긋나게 된다



변신 (GM): 뭔가 PC가 뭔가 번뜩일수도
있고

실패하면 그대로



타미스케 진: (@조짐루트



키도 리히토: (어디보자
(그레이트 석세스가



타케루 타츠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번엔 진 씨와 나누던 이야기가 있어서..."
후
정중히 슈피에게 이야기하고
진따쪽에 앉자



타미스케 진: (현명한 선택이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조금 너무 친근하게 했으려나. 미안해."
그럼 그녀는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쿠사카 마리: (선생님! 타츠야군이 여자아이를 울렸습니다!)



타미스케 진: (w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리고 이쪽의 노기가 당연스레 올라간듯 보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다만, 제안해주신 것은 감사했습니다. 부디, 다음에 또"



키도 리히토: (...음?



타케루 타츠야: 에프터케어! 에프터케어!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메타해설을 하면, 건드리는 것도 나쁘지만 울리는것도 나쁘다.



키도 리히토: (슈피, 존댓말 아니었어?



타케루 타츠야: (나중에 진실을 이야기하면 된다)



타미스케 진: "아... 하하,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키도 리히토: (@로그 주행



타미스케 진: (ㅎ
(까다로운 놈들



타케루 타츠야: (너무했으려나- 는 자기 자신에게의 혼잣말 아냐?)



키도 리히토: (으...음)
(일단 좀 볼까



타미스케 진: 그럼 다른 사람들의 헤이트가 올라가는 느낌이 되자, 멋쩍게 웃으면서 사죄를 표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러한 것으로, 정중히 이야기하고 진따의 곁에 앉는 일이 되었다.



타미스케 진: (내 탓이야, 내 탓. 미안해 애들아!



타케루 타츠야: 미안하다...! 노 페이스의 목을 따 사과하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뭐, 그럼 적당히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쿠사카 마리: (책임져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리고 이쪽은 그런것 상관없단 태도입니다



키도 리히토: 끼어들기 애매해...!

@동공지진



쿠사카 마리: (타츠야군이 책임지고 결혼하는걸로 하자!
(아무말아무말



타케루 타츠야: (토끼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리고보니 그쪽, 그로세씨의 부하로 열심히 일했는데 권유를 거절했다며?"
하고 진에게 말을 겁니다



타케루 타츠야: "확실히,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타미스케 진: "맞습니다. 권유 자체는 제 주제에 맞지 않는,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었지만."
"개인적으로 히어로 일도 겸임하고 있기에, 인턴 이상의 일은 받지 않고 있어서요."
"하하, 정말로 제안해주신 프리드리히 씨에겐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네요."



키도 리히토: 과연과연하고 끄덕끄덕



타케루 타츠야: "과연, 히어로의 일 이외에는 인턴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보내고 있으신거군요."
흡사 인터뷰의 느낌이 되는건
직업병입니다



타미스케 진: 이런 자신을 신경써서 권유해줬는데, 거절해서 굉장히 미안하다며 웃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적당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로세씨가 인정한 성실함과 유용성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지."



타케루 타츠야: "그러면, 현재는 어떤 일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여차하면 히어로부서에 해양쪽 일을 부탁할게 있으면 그쪽은 권유해주지."



타미스케 진: "물론입니다! 부탁하실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력으로 돕겠습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하고 분위기를 돌립니다



키도 리히토: "아니 그래도 너무 많이 일하다가 쓰러지면 위험하니까"
"가리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은눈



타미스케 진: "지금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네요. 인턴일 뿐이지만, 스턴트 아르바이트, 신문배달, 주차 관련, 상담...."



타케루 타츠야: "...굉장히... 많군요"



타미스케 진: 줄줄이 자신이 일하던 항목을 말하면서 미소로 화답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생각보다 많잖아, 이 녀석!!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리고보니 탐지조에 이상한 헬멧이 있다고 옛날에 들은것 같기도하고."



타케루 타츠야: 그 헬멧이 아마 저 녀석입니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이쪽도 휘말렸는지
말에 참견하네요



타미스케 진: "네, 그건 제가 맞습니다."
"당시엔 변신이 머리밖에 되지 않아서...."



키도 리히토: @절레절레



타미스케 진: "여러모로 신경을 쓰게 해버렸네요."



키도 리히토: 브리핑은 이쪽도 됐으려나



타미스케 진: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대로 상반신도 변신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죠!"



키도 리히토: 뭔가...뭔가 식사를 마음편하게 할수 없음...



쿠사카 마리: (하반인은?)
(하반신



타미스케 진: 도이칠란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해맑은 미소로 답합니다.
(하반신은 무리였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때는 슈피는 인간직원이란 교류가 힘들었으니까. 몇명정도 초과상을 입었고."
그녀는 자연스레 슈피쪽에 말을 넘깁니다



타케루 타츠야: 이...녀석...!



타미스케 진: "초과상이라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겁니까?"



키도 리히토: ",,,>"
?
@가웃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응, 분명히 그로세씨의 주변에 많아서...조금은 친해지고 싶었는데 악수를 하다가 힘조절이 실패했습니다."
가냘픈 손을 움켜쥐는 듯한 제스처를 몇번 취합니다.



타미스케 진: "아... 그건 슬픈 일이군요. 함선소녀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가벼운 악수조차 힘들다니...."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슈피는 특히 손부분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잘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팔이 종잇장처럼 되었을때는 큰 일이었지."
후후, 하고 오이겐이 웃으며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과연과연



타케루 타츠야: "확실히, 그런 면에서 곤란해 하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꽤 잦았지요."



키도 리히토: 경청중



타미스케 진: "그렇군요, 지금은 해결이 되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만뒤... 나는 그런거 해결해준 적 없어 클레맨스...



타미스케 진: (wwwww



쿠사카 마리: (수근수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짓궂기는, 우리들은 낼수있는 파워가 다르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숨인형을 가 위손으로 잡는거지."



키도 리히토: 그-런가-



타미스케 진: (악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타케루 타츠야: (과연 진이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지."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뭐야, 어드미럴. 슈피가 모자라다는 이야기야?"

그럼 금발 소녀와 흑발소녀는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면서



타케루 타츠야: (시스콘이 어쩐지 불붙었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식사를 합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그건 아닐 겁니다. 슈피 씨가 모자르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겠죠."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다른 둘도 익숙한듯 식사하는게

평소에 이런 분위기인거겠죠



키도 리히토: 때때로 고덕이거나 맞장구치거나 합니다.

지금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 고글은 희생당한 고글이라

뭐라 말하기 곤란한 것



타미스케 진: 티격태격 말다툼이 시작되자, 하하 웃으며, 역시 사이가 좋다는 감상을 품으면서 남남 먹습니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슈피, 너도 너무 가만히 있지말고. 조금은 말해. 저 가슴에 장갑판을 두른 녀석이 멋대로 말하잖아."



타케루 타츠야: HAHAA



타미스케 진: (w



쿠사카 마리: (HAHA



키도 리히토: 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앙? 말해줬네. 너는 그 되지도 않는 드레스나 S취향인 변태가."



타케루 타츠야: 뭔가... 점점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초면인 사람들을 끼우고 격하게 둘은 말다툼을 하네요



키도 리히토: " "



타미스케 진: "하하, 너무 상대를 까내리는 말은 자제합시다."



키도 리히토: 저어기...?



타미스케 진: "자자, 식사 자리에서 너무 험악한 말만 하면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맞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럼 슈피도 양손을 들며 말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뭐, 이번은 넘어가주지. 동생이 아니었으면 철갑탄으로 마사지를 해주려했는데."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아....뭐, 그랬단걸로 치지. 화력도 모자라면서."



타미스케 진: "하지만 부럽네요, 이렇게 다룰 정도라면 서로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니까 말이죠."



타케루 타츠야: ((흰 눈))



타미스케 진: 소설에서 자주 봤어.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럼 둘은 뭔가 묘한 표정이 됩니다.



타미스케 진: 미소와 함께 해맑게 웃으면서 부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키도 리히토: ""

그게 아냐! 그건 아냐!!



타미스케 진: "저는 그런 형제가 없었으니까, 이런 게 조금 부럽기도 하네요."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앙? 너 그로세씨의 아는 사람이라고 막말하는거야?"

그럼 진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타케루 타츠야: 와—아...



타미스케 진: "으음,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사이가 좋아보이셔서....."



키도 리히토: "애초에 누구 좋으라고 싸우는 거야...."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저런 철갑탄보단 우월한 매력이 있는 이쪽이 위인게 당연하잖아."



키도 리히토: "그거 아냐..."

@창백

(모바일



타미스케 진: "만약 불쾌한 발언이었다면, 사죄드리겠습니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하고 그녀는 흥부격차를 보입니다.



타미스케 진: (wwwww



타케루 타츠야: (wwwww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하고 그녀도 딱히 죽고 살리기로 말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본래 이런 분위기란거겠쥬.



타케루 타츠야: 그 부분의 이야기냐! 라는 느낌으로, 조금 창백해졌던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저로서는 어느쪽이 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매력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이 녀석들 사이 나쁜데 사이 좋아....!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럼 여러분들이 수련수련 이야기를 할때쯤



타미스케 진: "제 스승님도 함선소녀이신데, 개인의 매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요."

두런두런중얼중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어드미랄이 타츠야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을 안보고는 배길 수 없는 둔탁함이군요

붕대가 아니었으면 뼈가 시렸을겁니다



타케루 타츠야: 크억!

그 통증에, 옆을 봐줍니다.

아프다...! 무슨 짓이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어드미랄이 말합니다.

"슈피가 이상해. 조금이지만."



타미스케 진: (감지되었습니다 뽀빅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슈피치곤 묘하게 담력이 있어... 그냥 네가 있어서 잘보이고 싶은걸지도 모르지만 보통 말을 안하거든."



키도 리히토: 뽀빅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모르지만



타케루 타츠야: 그 말에, 담담히 듣고 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흐음, 과연



타미스케 진: 어드미랄과 타케루가 몰래 속삭이는 중에도, 열심히 웃는 얼굴로 떠돌고 있습니다.

(자암시 화장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아, 그 사람인가. 이쪽에 아는 사람이 많은 녀석이었군. 덕분인가 즐거운 식사야. 슈피도 웬지 활기차고."

"너희는 특이한 놈들이지만 특별히 내 밑에서 일하고 싶다면 들어주도록하지."

하고 그녀는 타츠야를 제외하고 파우치에서 메탈블러드 해양부서쪽에 명함을 줍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인턴 일이 급하게 되면, 실례해도 괜찮을까요?"



키도 리히토: 뭐지 시바, 나도 받는건가



타케루 타츠야: 이 명백한 차별에도, 항의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슬픈 점이지.

너도 받는듯하다 리히토!



키도 리히토: 으아악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리히토도 받습니다



타미스케 진: 건네준느 명함을 예의바르게 받아들면서, 그 말에 감사를 표하면서 능숙하게 답합니다.



키도 리히토: 얼떨떨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직장 있습니다만..."



타미스케 진: "일이 없어서 못할 경우엔 히어로 일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지라....."

꽤 진심.



키도 리히토: "그쪽이 아니더라도 잘 부탁합니...다...?"

일단 하타신문사 탈출가능한지가 문제다



타케루 타츠야: "음...? 히어로 일은 꽤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하아? 내가 권유하면 그만둘 각오로 내게 오면 되는거야. 난 당근과 채찍을 잘쓰는 훌륭한 상사거든."



타케루 타츠야: 이거 진짜가 이야기하지 않았나?

아니 이야기 안했던것같은데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녀는 진짜와 리히토 둘에게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가웃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리히토는 호흥은 계속하고있었다



타미스케 진: "하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히어로 수익은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기계적 모션



타미스케 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보수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하다가 우연히 마음에 들었다@불행의 별



타미스케 진: "전부 기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 "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하? 너 바보야?"

그럼 이쪽은 매우 정색한 표정이 됩니다



타미스케 진: "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럼 이때쯤

전원 행운판정



키도 리히토: "아니 보통은 전부 기부를 안 하니까..."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혹은 지각으로 해도 좋습니다



타미스케 진: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진짜는 의문으로 가득찬 얼굴로 가웃합니다.

행운인가!

난이도는!



키도 리히토: 그래 달성치 몇이니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난이도는 15입니다.



타미스케 진: 흠...



키도 리히토: 후, 죽겠군



타미스케 진: 그러면 지각으로 굴리도록 하죠.

기프트: 아이볼로 +1. 특기 색다름을 사용해서 판정에 +1합니다.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여기서 저지..!

(기프트가 변신안해도 사용가능이라면

(가능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아니라면 안됩니다



타미스케 진: 가능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후



타미스케 진: 장비 아이템 취급이어서요.



타케루 타츠야: 지각...인가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흠흠@액재료 게이지 업



타미스케 진: @해맑



키도 리히토: 저널리스트 때문에 행운이 유리한 친구
유루산조



타미스케 진: 간다!
나의 굴림을!!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럼 다들 적용할걸 말하고
롤링나우



타미스케 진: rolling 2d6+6

(5 + 1)+6

= 12



타케루 타츠야: 지각 야로우제



타미스케 진: 흠... 낮은데
@고민



키도 리히토: 저널리스트로 행운 상시 +1 행운나우

rolling 2d6+5

(2 + 6)+5

= 13



타미스케 진: 일단 다들 굴리는 걸 보고
HF를 고민한다



키도 리히토: 그럼 여기서
개운의 부적을 꼬라박는다는 폭거



타케루 타츠야: rolling 2d6+4

(5 + 2)+4

= 11

그앗!



타미스케 진: 개운의 부적이란!?



변신 (GM): 호오



타케루 타츠야: 개운의 부적이란!?



키도 리히토: 판정 +1에 더해



변신 (GM): (판정치 업업



키도 리히토: 행운이면 추가로 업



타미스케 진: 과연과연

아 GM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행운과 지각은 따로따로 주는 게 다른니까?



변신 (GM): 묘사가 다르고 주는게 다른 느낌



타케루 타츠야: 과연.



타미스케 진: 주는 것도 다르군요.



타케루 타츠야: ...진, 지각이었지?



타미스케 진: 좋습니다.



변신 (GM): 그리고 검은 지혜



타케루 타츠야: 다녀와라. 그레이트 서섹스를...!



타미스케 진: 그레이트 석세스 발-



변신 (GM): 스톡을 보상없이 지운다면

아, 발동합니까?



타미스케 진: 발동

아이엠 그루트



타케루 타츠야: 위 아 그루트



타미스케 진: 꽤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변신 (GM): 그럼 발동?



타미스케 진: 생각했기 때문에

발동

크리티컬로 바꾼다!!



키도 리히토: 위아루트



타미스케 진: 어차피 진은 판정 조작기가

하나 더 있어서



타케루 타츠야: 사스가 진 상야

타미스케 진의 HF: 그레이트 석세스 발동



변신 (GM): 그럼 판정이 크리티컬화합니다



타미스케 진: 그러면 순간적으로 진의 눈에서 빨간빛이 살짝 번뜩이더니, 주변의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읽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변신 (GM): 일단 진은 묘사를...이번에는 대신하죠



타미스케 진: (울ㄴ



키도 리히토: (무엇



변신 (GM): 일단 실패한 타츠야
타츠야는 분위기는 조금 험악하지만



타케루 타츠야: 오우



변신 (GM): 그만큼 즐거운 메탈블러드 함선소녀들의 대화는
자경단 시절의 텅텅한 동료들과 대화하던 추억이 떠올라서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리히토는
명함을 받고 왜 저런 위험한 함선소녀씨에게 주목받은걸까나~
하고 접시의 포도알을 하나 포크로 찍어서 먹으려다가 굴러갑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아~, 좋은 때구나-. 라는 느낌으로 미묘한 향수를 느낀다구.



키도 리히토: "앗"



변신 (GM): 튕겨간 포도알은 도이칠란트를 빗겨가 옆으로 가는데



키도 리히토: 포도알 굴러가서 식겁합니다.



변신 (GM): 웬지 이미 자리가 비어있군요.



키도 리히토: "....?"
(원래 누구 자리지)



변신 (GM): 그리고 크리티컬의 진



타미스케 진: (아아!



변신 (GM): 그럼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키도 리히토: (현재 확인하기 힘들다 용서해라)



변신 (GM): 본능이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체내에 내제되어 있다던 메달이 순간적으로
변신을 안했는데도 진의 감각을 인지를 초월한 상태로 일순 만듭니다.
그리고 도이칠란트 옆에 있던 슈피라고 불렀던 함선소녀의 이동을 눈치채고



타미스케 진: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각이 강화되며, 인지가 초월하여 다른 세계에 접어든 느낌이 들자 눈을 움직여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키도 리히토: "
(아차 미스



변신 (GM): 동시에 눈빛에 보라빛이 일순 맴돌더니 마치 열감지 카메라처럼 그자리에 있던 열과 흔적을 확인하고 이어지는 길을 발견합니다.
눈의 묘한 힘의 도움은 금방 사라지지만 흔적은 아직 보입니다



타미스케 진: "애드미럴 씨, 타케루 씨, 키도 씨."



키도 리히토: "아, 포도알..."
"?"



타케루 타츠야: "예?"



타미스케 진: "화장실...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키도 리히토: 힐끔 돌아봅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헛! 제길, 어느새 사라진거야?!"



타미스케 진: (젠장! 자연스럽게 뜨려고 했는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그말에 이쪽도 슈피의 부재를 눈치챱니다



타케루 타츠야: "예, 뭐. 그거라면....음?"



키도 리히토: "....."



타미스케 진: "앗차... 자연스럽게 뜨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먼저 자리 뜨겠습니다!"



키도 리히토: 저기 그 반응 위험하지 않아?



타미스케 진: "흔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쫓도록 하죠!"



쿠사카 마리: (악수 했어야했다www



키도 리히토: 하는 표정으로 보다가 식겁해서 진을 따라갑니다.



타미스케 진: 어드미랄의 말에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너희, 슈피가 돌아오면 방금의 하이텐션일시 꼭잡아. 오이겐, 너도 혼자다니지 말고!"



키도 리히토: "실례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뿔사...!"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히퍼의 말에 두사람은 어떨만한 표정입니다



키도 리히토: 진을 바로 뒤따라간다



타케루 타츠야: 사라졌다, 란걸 눈치채자 급히 일어나
실례한다는 말과 함께 달린다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아...응. 뭐, 힘내야하는 일이 생긴것 같으니 다들 힘내봐요."



타미스케 진: "하하, 응원 감사드립니다!"



[메탈 블러드] 프란츠 오이겐: 그럼 손인사로 모두를 보냅니다

-  타미스케 진: "나중에 제대로 사죄로 보답하겠습니다!"
-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뭔지 모르지만 슈피가 없어진거랑 관련있다면. 적어도 나중에 제대로 설명해."
-  키도 리히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심)
-  [메탈 블러드] 도이칠란트: 그녀는 히퍼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일단 제길, 뒤를 잡아야하는데..."
"어이, 넌 본거야?!"
-  타케루 타츠야: "진씨, 찾으신 방향은 어느쪽입니까!?"
-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일어난 히퍼는 진에게 물어볼겁니다.
-  타미스케 진: "하하, 자리를 뜨는 건 못 봤지만 흔적이 보입니다!"
"안내할테니 따라와주세요!"
-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뭐야, 그런거 안보이는데?"
-  타미스케 진: "히어로로서의 힘일까요?"
-  키도 리히토: 어차피 액발동은 못봤겠지
-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뭐가 보인다는거야...?
-  키도 리히토: "하반신 변신 안 되고도 버티는 사람이니 뭔가 있겠지요 그야!?"
-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뭐, 히어로놈들은 우리보다 괴상한 놈들이 많으니 그런 능력인거겠지."
이쪽은 나름 납득합니다
-  타미스케 진: "하하, 네. 사실 저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서.... 쫓도록 하죠!"
가자!
-  키도 리히토: 고글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 쳐라
-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진은 흔적을 따라가나요?
-  타미스케 진: YES
-  타케루 타츠야: "지금에 있어, 고마운 상황이란건 바뀌지 않습니다."
-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여러분들
-  변신 (GM): 이전의 긴장감 없는 뒤밟기가 아니라
추격전입니다
-  타미스케 진: 아아
-  키도 리히토: 젠장www
-  변신 (GM): 판정은 총 3회
-  타케루 타츠야: 와캣타
-  변신 (GM): 1인당 2회 실패하면
추적하다가 낙오하게 된게 됩니다



타미스케 진: 과연



변신 (GM): 판정 기능은 총 3개
지각, 체력, 행운입니다.
진의 경우는 지각으로 찾을시 난이도를 낮춰드리죠



타미스케 진: ok



변신 (GM):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타미스케 진: 그렇다면 진은 지각으로 가는 게 좋겠군.



변신 (GM): 인파속에 숨은 슈피, 아니 노페이스일게 확실한 자를 찾으려면
놈이 또 다른 모습이나, 페이크를 걸기전에 발견해야할겁니다



키도 리히토: 행운이 제일 유리합니다 살려주세요



변신 (GM): 조금의 실수로도 지체될테니 주의해야겠조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흠



변신 (GM): 참고로 마리는 이때쯤



타케루 타츠야: 가장높은게... 지각이군



변신 (GM): 흥국이와 움큐에게 붙잡혀
과거사 이야기중입니다



타미스케 진: WWWW



변신 (GM): 나올수없어요



키도 리히토: wwwwww



타미스케 진: 이래서 물어봤구나!



변신 (GM): 변쿠리는 경고했다



쿠사카 마리: 아하하



변신 (GM): GM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키도 리히토: 젠장 당했다



타미스케 진: 어쩔 수 없지



타케루 타츠야: Wwwwwww



타미스케 진: 우리 셋만으로 어떻게든 해야한다



키도 리히토: 판정주작기가 작동하길 비네요



타미스케 진: 가자



쿠사카 마리: 마리는 도움 안된다구



변신 (GM): 그럼 일단 1회째
일단 지금 바로는 흔적이 보이긴 할겁니다.
진의 인도도 있으니 따라갈만 하겠죠



타미스케 진: 아아



변신 (GM): 난이도는 8입니다.
진의 경우는 지각으로 할시 난이도 6입니다



타미스케 진: 좋습니다, 지각으로 판정을 하도록 하죠.



타케루 타츠야: 오우
여기선... 흠, 지각일까



타미스케 진: 사실 지각이면 판정이 낮아지니, 지각담당이라는 걸로 좋겠지!



키도 리히토: 높은게 행운입니다



변신 (GM): 참고로 진이 탈락하면



키도 리히토: 행운이나 다했게오



변신 (GM): 팍 난이도가 오릅니다



타미스케 진: www



키도 리히토: 저널리스트 빔!



타미스케 진: 난 죽으면 안 된다



키도 리히토: Wwww



변신 (GM): 그야, 흔적
지금 진만 보이죠?



타미스케 진: 다네!!



키도 리히토: 응..



타미스케 진: 특기 색다름을 사용해서 판정에 +1, 기프트: 아이볼의 효과로 지각에 +1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일단 판정보정으로 이쪽이 보조로 여러분을 쫓아갑니다.
상황보조 특기로
철혈의 지령



타케루 타츠야: 아 땡큐 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한차례의 다이스 판정중 하나에 다이스숫자를 2까지 올릴수있다.



키도 리히토: 아 땡큐썰!



타미스케 진: 올ㅋ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즉



키도 리히토: 올ㅋ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두명 죽으면 한명은 죽는다



키도 리히토: 풀



타미스케 진: ww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커버할수있는건 한사람뿐입니다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콘



타미스케 진: 즉 긴급 구제용 혹은
펌블 방지용과
크리 노리기용이 되겠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러합니다



키도 리히토: 그렇넹



타케루 타츠야: 호우



타미스케 진: 다행이야



키도 리히토: 판정을구에엑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참고로 펌블이 나오면



타미스케 진: @있어줘서 다행이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모두가 엮어집니다



타미스케 진: ww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전원실패



키도 리히토: 으아악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반대로 크리면 모두가 성공합니다.
@전원 생존



타케루 타츠야: wwwww



키도 리히토: Wwww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한사람만 되면 되는거죠



타케루 타츠야: 후우
자



타미스케 진: 이이다로
그러면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크리하나 펌블하나면



타케루 타츠야: 그럼 가볼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남은 한사람이
잘하면 됩니다



타미스케 진: www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실패하면 펌블, 성공하면 성공



타케루 타츠야: 상쇄추



키도 리히토: Wwwwwww



타미스케 진: 좋아
가자구 친구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타케루 타츠야: 아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첫 판정 ㄱㄱ!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지각으로 하지



키도 리히토: 저널리스트 보정으로 행운킵



타케루 타츠야: rolling 2d6+4

(3 + 4)+4

= 11

얏타제



타미스케 진: 그러면 진은 지각판정으로, 기프트: 아이볼의 효과로 보정 +1, 색다름 특기를 사용해서 판정에 +1합니다.



키도 리히토: rolling 2d6+5

(6 + 2)+5

= 13



타미스케 진: rolling 2d6+6

(1 + 2)+6

= 9

슈발

존나위험하네



키도 리히토: 님 뭐해여



타미스케 진: 내 다이스 왜 이래



쿠사카 마리: (뽀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후, 위험했네



타케루 타츠야: 야바캬타쵸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러고보니 히퍼의 구조책은
2회만 주기로 하자



타미스케 진: 과연



키도 리히토: 히에엑



타케루 타츠야: 과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어차피 전원 통과했으니
앞으로 두번다 한사람은 구제 가능하다



타미스케 진: 아아
가자!



키도 리히토: 아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진은 흔적을 따라가다가
지나가던 다른 사람을 들이받을뻔했지만
가까스로 방향을 틀어 지나갔습니다.
그외는 그가 말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달립니다.



타미스케 진: "우와아앗...!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러면 들이받을 뻔 해서 당황한 사람에게 급하게 사죄의 말을 건네면서, 흔적을 쫓아서 내달립니다.



키도 리히토: 지금은 행운도 불운도 작동하지 않는군
헤이요 추적락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다음 판정입니다.
마치 노린듯 인파가 있는 곳이 있는 구간이네요
흔적을 찾기도 어려워질것 같고
지나가다가 방향이 틀어져버릴것 같습니다



타미스케 진: "우와아... 역시 상대는 이런 일에 뛰어나네요."



키도 리히토: "너무 노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으아아악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마치 추적할걸 상정하고
움직인것 같습니다



타미스케 진: 인파가 있는 곳을 마주하게 되자, 이런 일을 숨쉬듯이 해내는 노페이스에게 감탄하는 말을 내뱉
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야, 상정한 도주경로이겠쵸"
"....하지만, 쫓으려면 별 수 없습니다."



키도 리히토: 데스요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이번판정의 난이도는
11입니다.



키도 리히토: 으으음



타미스케 진: "물론입니다! 여기서 추적을 실패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진따는 지각으로 하면 9입니다



키도 리히토: 불안한 난이도로다



타미스케 진: 지각 나우!



키도 리히토: 행운편치! 행운편치!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철혈의 지령을 잊지마시고
2차이까진
구제가 가능합니다



타미스케 진: 지각 판정으로 실시합니다, 특기 색다름으로 판정에 +1, 기프트: 아이볼의 효과로 +1 보정을 얻 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후우

지각 이쿠쵸

rolling 2d6+4

(3 + 4)+4

= 11



타미스케 진: 간드아아아



키도 리히토: 저널리스트 이하생략 행운



타케루 타츠야: 오이오이



타미스케 진: rolling 2d6+6

(5 + 2)+6

= 13



타케루 타츠야: 믿고있었다구!



타미스케 진: 성공



키도 리히토: rolling 2d6+5

(6 + 6)+5

= 17

?



타미스케 진: 와!

리히토!

크리!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와, 크리



타케루 타츠야: 와!



쿠사카 마리: 와! 크리!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하지만 다 성공이니 해줄게 없는데 어쩔까...



타미스케 진: 으음
추적 끝난 뒤



키도 리히토: 어차피 다 성공했고(분노



타미스케 진: 보너스로 돌리는 것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좋아, 킵하고



타케루 타츠야: 적당히 리히토는 이후 좋은 일이 있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나중에 보너스를 주지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적당)



키도 리히토: 난테코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싫으면 날려요



키도 리히토: 받을세여



타미스케 진: 싫을리가 없죠!



키도 리히토: 게
(변쿠리굴리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한번 가속이 붙으니
여러분들의 추적도 자연스러워졌네요
인파가 방해했지만 어떻게든 돌파가 가능했습니다
덩치큰 타츠야가 특히 고역이었지만
어떻게든 아슬아슬하게 뒤편치지 않았네요



타케루 타츠야: 후, 야바이 야바이!



타미스케 진: 혼란스러운 인파를 효율적으로 안내해야하던 안내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살려서, 익숙한 모습으로 내달립니다.



키도 리히토: 야베에...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한사람도 탈락하지 않은것이 슬프니
제의를 하도록하죠



타케루 타츠야: 간신히 진이 열어준 활로를 따라 열심히 달린다.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제의인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실?



키도 리히토: 인파에 왜 안 휩쓸리는지 궁금한 레벨로 이리저리 훑훑 인파를 피하고 있습니다.



타미스케 진: 흠



키도 리히토: 무슨 일이야



타케루 타츠야: 그 말은!?



키도 리히토: 실패하면 단박에 죽는지



타미스케 진: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실패하면 단박에 이탈입니다. 물론, 마지막이니 난이도가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해서 추적에 성공한다면
도달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성공의 보상을 주도록하죠



타미스케 진: 흠
좋아
받아들이겠다



키도 리히토: 호오
콜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굿@다비퐁
그럼 최종라운드입니다.
타츠야도 콜?
안정적이게 추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더 큰 이득을 주진 않을뿐이고



타케루 타츠야: 후
이이다로
재미있어졌군
(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후, 그럼 라스트 판정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타미스케 진: 앙항항하하하
가자



키도 리히토: (안정적인 우리들이군
(안심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난이도는 14! 진짜 지각으로 해도 13!
인파를 헤치고 나와서



타미스케 진: 이이다로, 지각으로 간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보이는건 복도지만 온도도 식어서 흔적도 흐리고
별다른 남긴 흔적또한 없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후우

지각으로 가자고



타미스케 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점차 흔적이 흐려지는군요, 여기서 실수하면 힘들어질 겁니다."

지각나우

색다름을 사용해서 판정에 +1, 기프트: 아이볼의 효과로 +1.



타케루 타츠야: "최대한 노력해보는 수 밖에 없겠죠"



타미스케 진: 간드아아아아아



키도 리히토: "...그냥 보면 더더욱 뭐가 뭔지"

행운 불가피

으에에에엿

황망하게 보이는 복도에서 고민.

저널생략.



타미스케 진: 잠시만 GM이 사라졌어

기다리자



타케루 타츠야: "계속해서 추적해갑시다"

지각나우



키도 리히토: 아니 저널(ry 적용하고

행운그에엑



타케루 타츠야: rolling 2d6+4

(3 + 4)+4

= 11

여기서

써주마

그레이트 서섹스으으



키도 리히토: rolling 2d6+5

(3 + 3)+5

= 11



변신 (GM): (레박이



타케루 타츠야: 뭐...라고...?



키도 리히토: 그럼 여기에



변신 (GM): (날 죽이려들었다.



타미스케 진: (wwwww



키도 리히토: 운을 잡아라를 써서



타미스케 진: 그럼 나도 간다!



키도 리히토: 재굴림



타미스케 진: $\text{rolling } 2d6+6$

(3 + 4)+6

= 13



키도 리히토: $\text{rolling } 2d6+5$

(5 + 6)+5

= 16



타미스케 진: 좋아!

진따의 보너스로 성공!!!



타케루 타츠야: 나는 그레이트 서섹스를 쓰겠다 죠쵸찬!



키도 리히토: 앗타제.



변신 (GM): 후, 어쩔수없지
리히토는



타미스케 진: 아

잠깐

기다려봐

리히토의 다이스는 5 6

철혈의 지령을 사용해서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철혈의 지령 먹어라



타미스케 진: 크리로 만듭니다
이걸로



타케루 타츠야: 크리가 둘



타미스케 진: 그레이트 석세스 필요없이



타케루 타츠야: 온다 유우마.



키도 리히토: 끼에엑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너 다이스 6 6



타미스케 진: 타츠야도 함께 갈 수 있다



키도 리히토: @끼에엑



타케루 타츠야: 뭐...뭐라고웃-!
진짜인가 GM!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아아, 사실이다

내가 말했을텐데
크리면 전원성공이라고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했다구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타미스케 진: (wwwwww



키도 리히토: (Wwwwwww



타케루 타츠야: (Wwww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뇌내브금이 울리는걸



키도 리히토: 브금킵!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라젠카 브금은 명곡이야
(@미침



타미스케 진: (wwwwww



타케루 타츠야: (자주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어이, 거기 비실이!"



키도 리히토: "뭐시여 그 CV. 세키토모같은 호칭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지금 그게 제대로 달리는거야? 다리, 그리고 속도를 잘못취! 몸은 잘되어 있지
만 움직임이 난잡하잖아!"
하고 지팡이로 툭툭
리히토를 건드리며 교정하자



키도 리히토: "아얏"
끼에엑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리히토, 당신의 선상위의 움직임이란 위화감에서 몸의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대지에 서있듯 안정적으로 움직일수 있어졌네요



키도 리히토: "어라"
"...꽤 안정적이 됐네"
어..감사합니다?
달리면서 감사인사는 잔해두자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리고 리히토는 막



타미스케 진: "하하, 역시 해상에서 근무하시는만큼 이에 관해서 빠삭하시네요!"



키도 리히토: 오타는 죽일것이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후 달린덕에

타츠야가 다른골목으로



타미스케 진: "저도 근무 경험을 살려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달리는 게 고작입니다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런할뻔한걸 사전에 막을수 있어졌습니다



타미스케 진: (아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평소라면 피지컬차로 무리였겠지만 선상위로선
지금만은 리히토가 더 나은것 같군요



타케루 타츠야: 끼요윗!



키도 리히토: "가속도가! 가속도가아아아앗?!"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바보 멀대가! 혼자서 어디로 가는거야!?"
타츠야도 그렇게 회수되고



키도 리히토: 신장르: 무심코 타츠야 선회



타미스케 진: "이쪽입니다, 타케루 씨!"



타케루 타츠야: "...아차!?"
"죄송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한명의 이탈도 없이
흔적을 무사히 따라갑니다



쿠사카 마리: (빨간 스크린동안
(뭐가 일어난것이지



타미스케 진: (마지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제안
(그리고 타츠야가 실패해서 죽을 뻔 했지만



키도 리히토: (매드맥스: 분노의 다이스)



타미스케 진: (리히토의 재굴림이 56
(철혈의 지령으로 2 업
(크리! 모두가 살아남았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리고 진의 눈에는 다시 확실하게 진해진 흔적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 흔적은 뱃아랫 갑판쪽으로 이어집니다.



타미스케 진: "그리고 이제 흔적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갑판쪽으로 이어지는군요."
"거의 다 온 거 같습니다, 서둘러 이동하죠!"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만일 중간에 놓쳤다면



키도 리히토: "이거 아무리 봐도 바다로 도주할 것 같은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놈이 아직 홀안에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해맬뻔 했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말 달린다야!!





키도 리히토: 식겁하면서도 다시 진을 따라 달린다고


 **타미스케 진:** 그러면 진해진 흔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내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며 손짓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지하 관리실쪽
히퍼도 따라간 곳에는
관계자와 출입금지의 철문이 막고있습니다.


 **타미스케 진:** 관계자: 어드미랄
그리고 진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흔적도 이 아래서 이어지고


 **키도 리히토:** 네녀석 무슨 지거리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안에 있을것 같군요


 **타미스케 진:** "경비인 게 여기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입하죠."
그러면 관계자기 때문에 당당히 철문을 열어재끼고 들어갑니다.


 **키도 리히토:** "...관계자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잠겼습니다


 **키도 리히토:** 그러고보니 하는 표정으로

 **타미스케 진:** 잠겼네?


 **키도 리히토:** 뭐 판정?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래서 등뒤에 뭔가 나타난
히퍼씨가 나섭니다


 **키도 리히토:** 요오시
비키자고


 **타미스케 진:** 좋아! 가라! 히퍼장!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비껴 꼬마!"


 **타미스케 진:** 그러면 재빠르게 비킵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붉은 철 이빨로


 **타케루 타츠야:** "이쪽입니다, 진씨!"


 **키도 리히토:** 우린 변신상태가 아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과격하시네요!"


 **타케루 타츠야:** 자자 피해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대로 두개의 머리가 문을 우그러뜨리며 씹어뜯어냅니다.


 **키도 리히토:** "하하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지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캉캉
하고 철덩어리가


뒷편을 구를겁니다


 **타미스케 진:** 문이 그대로 씹어져서 단순한 철덩이가 되자, 망설임 없이 그대로 흔적을 쫓아 안으로 진입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돌진! 놈을 빨리 몰아!"


 **타미스케 진:** "물론입니다, 가죠!"


 **타케루 타츠야:** 옷샤—
돌입할까!


 **키도 리히토:** 요오시
이쿠제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놈은 보통 도달할 생각을 못할 곳에
보통은 절대 알수없고
머리를 굴렀다해도 감지할수없을 곳을 선택해 들어갔으나


 **타미스케 진:** 진따의 사기적인 탐지능력


 **키도 리히토:** 진따가 잘못했네


 **타케루 타츠야:** 그냥 걍 힘과
진따's 아이에는
이길수 없었어요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직접 몸으로 뛰어서 따라갔기에 놈을 몰아넣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하이리턴 요기


 **타미스케 진:** (아아!


 **키도 리히토:** (아아!


 **타케루 타츠야:** 아아!


 **키도 리히토:** "....."


 **타미스케 진:** "하지만 다행입니다, 되려 도망칠 장소가 없는 곳을 선택했지만."
"놓치지 않고 이렇게 쫓아왔으니 말이죠."


 **키도 리히토:** "솔직히 이 발상은 굉장한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으로 들어가....이제야

 **키도 리히토:** "하고 싶지 않지만"
@흰눈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보통으로 이렇게 쉽게 잡을수 있을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겨우 도달해 한 남자의 목숨이,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인 원인에게 접근합니다.
(이제 클라이막스한다

 **타미스케 진:** "노페이스!! 경비의 권한으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즉...끊겠어



키도 리히토: (누오앗)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누오웃)



쿠사카 마리: (소다나

--- 씬#3 종료 ---



변신 (GM):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타미스케 진: 아아
진짜 오늘 내로 끝낼 수 있을 줄은
이 오렌의 눈으로도



키도 리히토: 마리는 워편당가



타케루 타츠야: 노페이스를 정신병자 디오할 수 있겠군



타미스케 진: 참아참아



타케루 타츠야: 뭐, 우리 쫓으면서 소란좀 있었으니



타미스케 진: 정신병자 디오보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키도 리히토: 진정해라



타케루 타츠야: 찾아오지 않을까



키도 리히토: 정보는 털어야 한다



변신 (GM): 씬이 넘어갔으니



타미스케 진: 증거물로 제출해야해!



변신 (GM): 마리가 합류할수
있어진다



타케루 타츠야: 즉—



타미스케 진: 컴온마리스케



변신 (GM): 단지, 연락할시



타케루 타츠야: 공개처형이군



타미스케 진: 아 잠시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변신 (GM): ○ ○
잠시 5분간
휴식겸 화장실 갔다오세요



키도 리히토: 뭐디



변신 (GM):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키도 리히토: 뭐가 일어나는 거지
합류까지 시간이 걸리나



변신 (GM): 금방 합류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쿠사카 마리: 후



키도 리히토: 사오야 진정해라(아무말



쿠사카 마리: 마리는 원래 세계의 엄마와 이모들에 대해 적당히 말해준거예요



타미스케 진: 후



변신 (GM): 그럼
모두 있습니까
즐겁고 즐거운 클라이막스 타임이
왔습니다



타미스케 진: 아아
이제



변신 (GM): 아마 1시간이나



타미스케 진: 노페이스를
정신병자 디오로 만들면



변신 (GM): 그 이내에 끝날겁니다.



타미스케 진: 되는 거죠?



쿠사카 마리: 그렇게 유명한 빌런이



변신 (GM): 왜냐면



쿠사카 마리: 죽을리가 없어!



변신 (GM): 이녀석, 지금 뭐랄까



키도 리히토: 무슨 기믹이 나올 것 같은데



변신 (GM): 진엔딩 당했다는 느낌이라서



타미스케 진: wwwwww



변신 (GM): @현상황을 보고



타케루 타츠야: wwwwww



키도 리히토: TAS 쳐맞고 끝난다니 슬프잖아
누구 잘못이나
일단 전 아닙니다



변신 (GM): 리히토오오! 모두 네탓이다! 이 불행의 별노오옴!!
@폭언



키도 리히토: 난데야!



타미스케 진: 리히토 탓이군요

ㅎㅎㅎ



키도 리히토: 오렌찰싹



타미스케 진: 진짜 탓 없음

고약



변신 (GM): 크리르

몇번이나 배뺑으로 날리는거야



타미스케 진: 와까란



변신 (GM): 이전까지 한적없으면서



타미스케 진: 이야 진은 굉장히 수수했네요



쿠사카 마리: 아하하



타미스케 진: 고작 RP로 힘내는 정도였을 뿐이다



키도 리히토: (아무튼 내 탓은 아닌 듯함 콘)



쿠사카 마리: 마리는 자기 서브 스토리 진행만 했네요

그렇다



키도 리히토: RP붕신이야 닝큐리는

하와와



쿠사카 마리: 내가 리히토를 팔아넘긴 탓이다

(게스가요



타미스케 진: 자자 그럼



키도 리히토: 따흐흑



타미스케 진: 클라이막스로군요 이제



변신 (GM): 그럼 타츠야도 있나?

가장 정신병자 시키고싶을

타츠야



타미스케 진: 아아



쿠사카 마리: 사진은

어떻게하지?



타케루 타츠야: 후우

있다고



변신 (GM): 그럼 드디어



타케루 타츠야: 잠시 고민했다



변신 (GM): 대면시간입니다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네녀석은 <책형>이다!!!



쿠사카 마리: 나는



타케루 타츠야: (Cv



키도 리히토: 의장사진이 문제가 아닐 정신병자 디오 현장



타케루 타츠야: 푸치)



타미스케 진: 자자 십자가에 매달아서 공개처형 하자고



쿠사카 마리: 불꽃킵을 날리겠어



변신 (GM): 그럼



키도 리히토: 묶어놓고 흑막을 털자

--- 클라이막스 씬 !!! ---



키도 리히토: 그리고 공개빔

장면: 조금 어두운 여객선의 관리실

시간: 점심이 끝나고 배위는 티타임, 피자 와 M16을 제외하곤 하하호호즐거운 시간을 보낼때.

등장PC: 전원



쿠사카 마리: (하하호호(물리)



타미스케 진: (하하호호

--- 클라이막스 씬 개시!! ---



변신 (GM): 그럼 셋과 히퍼

당신들은 와일드하게

철문을 박살내고

안으로 돌입했죠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와일드-!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리고보니 아까 여자애는 없어도 좋은거야? 복흑녀는 없어도 좋지만!"



타케루 타츠야: "부르쥬(메일넣겠어.



타미스케 진: "아, 저는 연락처가 없어서요. 다른 분들이 대신 연락 부탁드립니다!"



타케루 타츠야: 코이요!

전화가 좋겠군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훌륭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변시널의 핸드폰은
행성간 통신이 아닌한
웬만하면 연결되니



타케루 타츠야: 내용은... '몰아넣었습니다. 장소는 ~.'
정도의 간략한 문자겠군



키도 리히토: "연락처 교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퀘एं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마리가 잠시후에 올겁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일이 끝나면 교환하도록 하죠!"



타케루 타츠야: "그게 좋겠군요."



쿠사카 마리: 그럼-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일단 문은 내가 막을테니까."



쿠사카 마리: (이전의 그거
(따라해도 되나?)



키도 리히토: (뭣?)



쿠사카 마리: (불꽃 대쉬
(진지



키도 리히토: (무엇www



타미스케 진: (무엇



타케루 타츠야: (wwwwwwwww)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너희는 안에 들어가서 놈을 몰아. 만약 문앞에 오면 내가 아까 뭇을 쳐줘서 죽
일테니까."
그녀의 의장이자 생체무장이 딱딱, 이빨을 부딪치며



타미스케 진: "알겠습니다!"



키도 리히토: " "



쿠사카 마리: (불꽃으로 펑! 하고 대쉬하는거



키도 리히토: 앓예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뇌광이 튜는 눈빛을 빛냅니다



쿠사카 마리: (해도 됩니까, GM!)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마리는 해도 좋다



타케루 타츠야: (X버너-!)



쿠사카 마리: (묘사적으로



타미스케 진: "하하, 그래도 생명이 지장이 가는 일은 삼가주세요."



쿠사카 마리: *핑!*
소리와 함께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판티지풍 아이언맨 부츠지만



쿠사카 마리: 어째선지 다리에 불꽃을 뿜고있는
마리가 날아옵니다



키도 리히토: "앵"
뭐시여 저게.



타미스케 진: "아, 마침 쿠사카 씨도 오셨네요."



타케루 타츠야: " "



타미스케 진: 그러면 마리가 날아오자, 잘 됐다는 듯이 말하면서 반깁니다.



키도 리히토: "어...."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마리는 그대로 고도가 낮아집니다
비행은 무리라서



타케루 타츠야: "...특이한 장비... 로군요?"



쿠사카 마리: 아아



타미스케 진: "어서오세요. 노페이스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쿠사카 마리: 그대로 리히토와 충돌하지
(아무말



키도 리히토: "뭔가 다리가 예의 그 친구 비슷..."
"우와악?!"
안으로 날아가여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리히토가 그대로 온몸을 쿠션으로 마리를 지켰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리히토오오오오오오오!!!!



쿠사카 마리: 헤드벗



키도 리히토: 끼에에에엑!
@와장창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본인은 처참하게 날아가는 중이지만



쿠사카 마리: "신장비 시험.... 이였는데"



타케루 타츠야: ".....크흠"



타미스케 진: "리히토 씨!?"



쿠사카 마리: "조금 예상밖이었어"



타미스케 진: "아니, 배 안에서 신장비를 시험하진 말아주세요."



쿠사카 마리: 묘하게 해맑은 미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뭐, 여튼 부탁한다. 여차하면 그냥 도망치게되도 좋아."



타미스케 진: "보통 잡혀가니까요."



키도 리히토: @꿈틀꿈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문앞에서



쿠사카 마리: "보통은 시험하지 않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히퍼씨가
의장을 전개하고 버터섭니다



키도 리히토: "표정이 좀 많이 상쾌한데요"
"...일단 갈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포구도 움직이는데 보통은 지나갈수 없겠군요



타케루 타츠야: "일단—"



키도 리히토: 부들부들 기상
보통은 말이지!



타미스케 진: "하하, 이 건은 일단 넘기고 어드미랄 씨, 입구는 잘 부탁드립니다!"



타케루 타츠야: "갈까"



타미스케 진: 부들부들 기상하는 리히토를 부축해주면서
가자



변신 (GM): 그럼 여러분들
안쪽으로 가나요?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천천히 봉대를
고쳐매며



타미스케 진: 널 죽이러 왔다 노페이스



타케루 타츠야: 자아



키도 리히토: 변신 불가피인가 아닌가
나는 모른다



Mr. 스마일 페이스: 너의 죄를 세어라
안심해라. 힘조절은 해주마



타미스케 진: 그럼 스마일 페이스가 봉대를 두르는 걸 보자, 자신도 벨트를 꺼내서 스캐너를 잡더니 변신합니
다.
[타카! 토라! 뺏———치지직아아아아아]



변신 (GM): 그럼 전원 변신해서 가나요?

키도 리히토: @깜놀



부축에서 벗어나더니 뭔가 붉은 게 전신을 훑고 지나갑니다.
이하생략



『오즈』 타토 콤보: 그리고 땡땡땡 하는 메달의 소리와 함께, 메달의 형상이 나타나 진을 감싸지만.



변신 (GM): 그럼 리히토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변신합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무엇



『오즈』 타토 콤보: 초록색의 메달의 형상은 그대로 깨져나가고, 두 개의 커다란 원만이 남아 얼굴과 상반신에 스며듭니다.



변신 (GM): 점점 숙련되는 감각.....필요없군요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필요없음 무엇



『오즈』 타토 콤보: 오즈는 변신이 느리다
용서해라



쿠사카 마리: 이미 변신한 상태로 날아왔습니다
(후우!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요컨대 말하자면 슬퍼졌다
변신한 상태로 충돌했다만 무슨 일이야



『파이즈』 마리: 즉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뭔가 붉은 기가 좀 선명해진 것 같지만 기분 탓인가



Mr. 스마일 페이스: WWWWWWWW



『파이즈』 마리: 마리는 무사하다는거야



『오즈』 타토 콤보: (리히토의 뼈가
(부러졌다는 건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블레이드당함추



Mr. 스마일 페이스: 리히토oooooooo



『오즈』 타토 콤보: (@변신출력을 맨몸으로 받아냄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게게게-!!



Mr. 스마일 페이스: 저벅저벅, 스마일 페이스는 담담히 걸어갑니다. 너의, 죄를, 세어보자.
자아, 어디 숨었나



변신 (GM): 리히토의 몸은 벨트씨가 지켜준걸로



『파이즈』 마리: (이제와서 셀수있을까!)



『오즈』 타토 콤보: 올ㅋ
그럼 갑시다



변신 (GM): (대충감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너무 많음 추



변신 (GM): 그럼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둥둥둥 소리를 내는
엔진으로 이어지는듯한 여러 파이프나
여러 계기판들이 보이겠네요
보통이라면 관리하는 직원이
거주하면서 배상태를 체크할 공간입니다. 신경쓰지 않을 은밀한 공간이죠



『오즈』 타토 콤보: (과연.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될지"



『오즈』 타토 콤보: (자칫하면 이 파이프들과 계기판이 터져나가서 배를 조질 수 있겠는걸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젠장 당했다 짤)



변신 (GM): 그리고 그 안쪽으로 좀더 나아가면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우리 변신상태라 가감 잘못하면 위험하자네?



변신 (GM): 여러분들은



『오즈』 타토 콤보: (가감이야 잘 할 수 있지.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그라페 슈피: 숨을 고르는 소녀에서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검은 연기가 퍼지더니
성인크기로 변하는걸 봅니다



『오즈』 타토 콤보: "노페이스! 당신을 경비의 권한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그도 그렇지)
(뭐 잘못하면의 경우긴 한데-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뭘? 어떻게 너희가 여기에?!"



Mr. 스마일 페이스: 그저 묵묵히, 걸어서 다가가주자. 나는 그대의 절망이요,
나의 미소는 너의 공포라



『오즈』 타토 콤보: 다른 모습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노페이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달려가 노페이스를 제압을 시도합니다.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럼 노페이스는 뒷걸음을 몇걸음 칩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그런데 그 목소리는



Mr. 스마일 페이스: "뛰어서— 쫓아왔습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어떻게 되먹은거야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목소리는
뭔가 울리는듯하지만
성인인지 아이인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발로 뛰었는데요."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성별도 애매한 목소리입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사실



『오즈』 타토 콤보: "단지 쫓아왔을 뿐입니다! 궁금증은 체포되고 해소하도록 하죠!"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음성변조 넣었니*
?



『오즈』 타토 콤보: 제압하자



『파이즈』 마리: "자기 얼굴로 말하는게 어때요"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제길! 그런걸 힘이나 이능으로 돌파하다니 역시 히어로는 치사하네."



『파이즈』 마리: "모습을 바꾸는 상대는...."
"싫은 기억이 흘러넘쳐서"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리고 이게 내 얼굴이다! 꼬맹이. 이게 나 자체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힘...이나 이능...?)



『오즈』 타토 콤보: (엄
(음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힘...?@먼눈



『파이즈』 마리: (에볼토 피해자
(까륵



『오즈』 타토 콤보: (어 음
(뭐 꼬우면 너도 괴인 되던가!
(@미침



『파이즈』 마리: "그리고 힘이나 이능을 쓴적은 없어요"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대충 심한 욕



『파이즈』 마리: "당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고 추리했을뿐"



『오즈』 타토 콤보: "히어로의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보였을 뿐이라...."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내가 얼마나 준비했고...도구랑 정보도 얻었는데..."



『파이즈』 마리: "어라, 자기만 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한건가요?"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악운이 따라왔습니다"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게 그냥 돌파당할리 없지. 그 빌어먹을 마녀를 제외하고."



『파이즈』 마리: "그런거, 다들한다구요"
(도발도발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아마 사오를 말하는것 같군요



『오즈』 타토 콤보: (ㅎ



『파이즈』 마리: "그리고...."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어...."

"결정적인 도움 받았.....던가...?"



Mr. 스마일 페이스: "물론, 도움을 조금 받았죠."



『파이즈』마리: "그 덕분에 여기 올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오즈』타토 콤보: "하하, 슬프게도 약간의 도움을 받았지만 전부 운이 따라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이즈』마리: 두둑두둑



『드래곤나이트』키도 리히토: (일단 진따가 잘못된 걸로 하자



『파이즈』마리: (남의 부모 얼굴로 변해놓고 잘도 지껄이는구나의 표정)



『오즈』타토 콤보: "그러면 노페이스, 당신을 체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당신덕분에, 재미있지 않은 소동에 휘말린지라"



『드래곤나이트』키도 리히토: 페이스가 둘이잖아 어이!



『오즈』타토 콤보: (wwwww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운도 히어로편이란건가...나 같은건 제대로 얼굴도, 몸도 고정미 없으니. 돈도 없으면 그런 놈들 아래서 이라흔게 다지만..."



『드래곤나이트』키도 리히토: "개인이 할 건 아닐테고"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럼 노페이스의 품에서



『오즈』타토 콤보: "그런 놈들 아래.... 역시 배후가 있었군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Mr. 스마일 페이스: "...흠. 역시 그들인가. 뭐어—"



『드래곤나이트』키도 리히토: "왜 하필 스마일 페이스씨를...?"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날카로운 토끼모양 그림이 새겨진 주사기를 꺼냅니다.



『오즈』타토 콤보: (무엇



『드래곤나이트』키도 리히토: "엣?"

@앵?



Mr. 스마일 페이스: 엘리스 컴퍼니가 시키드냐?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리고 스스로의 팔에 꽂습니다.



『드래곤나이트』키도 리히토: 으아악 회색토끼다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리고 꺾, 주사



『드래곤나이트』키도 리히토: (아무말)

"에, 잠-"



『파이즈』마리: (타바네를 족쳐야




Mr. 스마일 페이스: "...도핑약입니까?"





『파이즈』마리: "저 그림 뭔가 본적 있는데요"





Mr. 스마일 페이스: 담담히, 악을 참하는 검을 뽑아들며 물어보자.


 『오즈』 타토 콤보: 그러면 다가가서 노페이스를 체포하려다가,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걸 보고 멈춰서 살짝 경계심을 높이네요.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후, 그 놈들은 나같은 히어로로도 애매하고, 흉내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능력도..."
그순간 노페이스의 형태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재구축하죠


 『파이즈』 마리: (좋아
(전투 끝나고 주사기 챙겨야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탓바주게?


 『파이즈』 마리: (그저 좋은 친구로서 이야기할뿐이야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으아악


 『오즈』 타토 콤보: (탓바가 아니라 히어로 부서에 제출해야지www

 『파이즈』 마리: (엄마에게 이어받은 수상함)


 『오즈』 타토 콤보: (심볼 같은 걸로 토끼모양이 달려있는 특이한 주사기고
(어디선가 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가 필요한 안건임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정신병자 디오가 간단히 이루어질 것 같진 않군


 『파이즈』 마리: (뭐
(보고부터 하네요
(챙기지만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싫다 이 아이 너무 진심이야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이렇게


 『오즈』 타토 콤보: (ㅎ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형태가 바뀝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ㅎ
(능력카피가 올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봉신일까)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하하하! 이것도 어중간한 모습이지만 너를 흉내낼때도."
"이정도는 가능했지."
그렇게 프리드리히하면 없을
안지을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아- 응- 과연."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구겨진 미소를 보이자
등뒤로

 『오즈』 타토 콤보: "으음- 그렇군요, 어중간하다면 딱히 후퇴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노이즈를 끼는 위협적인 생체병기가 모습을 들어냅니다



『오즈』 타토 콤보: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으면 어쩔까 걱정했습니다만, 다행입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그래서 저건
리히토가 (배경으로) 봤던 그거급인가



『오즈』 타토 콤보: 그러면 그대로 노란빛이 상반신에서 흘러나와, 건틀릿 부근까지 흘러들어가더니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크기는 동일합니다



『오즈』 타토 콤보: 토라 클로가 챙! 하고 세워집니다.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단지
뚜렷하고 위압적인 괴물이란 인상의 그것보단
비실체 같은 느낌이지요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나보지만..."
그럼 드르륵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두개의 괴물들이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파이프들의 뭉쳐진 구역과
배아랫쪽을 겨눕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그럴거라 생각했다



『오즈』 타토 콤보: 야레야레다제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내가 아무리 배껴봤자. 동시전투를 하는 바보일거라고 생각했어?"



Mr. 스마일 페이스: 자폭할 생각인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솔직히 너무 예상대론데"



『오즈』 타토 콤보: "하하, 예상대로네요."



『파이즈』 마리: (흠
(장비 변경 어떻게 하더라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내가 할말도 예상되겠네."



『오즈』 타토 콤보: (마이너 액션 사용.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마이너다요-



『파이즈』 마리: "삼류 악역스러움이 초진화하고 있으니까 그만두는게 어떨까요"



Mr. 스마일 페이스: (장비변경은 마이너 액션 사용이지)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꺼져, 안그러면 이 바다위의 배를 가라앉혀서 길동무할테니까."
"그냥 돌려보낸다면 물론, 나도 이이상은 안해. 정확히는 못하는거지만."



『파이즈』 마리: "음...."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프리드리히의 얼굴로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파이즈』 마리: "저기, 여기서 물러난다고 당신이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있죠?"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너 피해자한테 그게 통할거라 생각했는지



『파이즈』 마리: "몰려있어서 그런걸 생각할 지능까지 떨어졌나보네요"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바보도 아니고 이이상하면 바로 히어로부서에서 추격당하겠지."



『파이즈』 마리: (마리의 혀에 독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오즈』 타토 콤보: "물론입니다!"

(어라

(보내줘도 상관없는데

(위에서 대기타고 있고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배를 가라앉히는건 나도 바라는 바가 아니야...에초에 이렇게 몰리는게 이상하다고..!"

"예상외의 사태가 너무 일어났어!"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진따가 잘못했네 진따가)



『오즈』 타토 콤보: "하하,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보내드릴게요."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에초에 이렇게 말이 안될정도야. 이건 우연이란 악의란 레벨이 아니라고."



Mr. 스마일 페이스: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를 보자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 그녀는 이빨을 갈면서
말합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리히토는 한 게 없습니다
진짱니다



『오즈』 타토 콤보: (www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저지른 건 다이스입니다



『파이즈』 마리: 마리도 한게 없습니다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적어도 그 마녀는 작전으로 몰았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계획한 게 무너지다니 너희랑 정면승부는 안해! 그러니 이배를 인질로라도 벗어날거다."



『파이즈』 마리: 리히토를 등떠밀었을뿐입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이곳을 나간다면,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



『오즈』 타토 콤보: (www



Mr. 스마일 페이스: 차분히 물어보자



『오즈』 타토 콤보: (보내줘도 문제 없는데....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하, 말하면 그쪽은 당한게 있으니 날 쫓으려들텐데 말하고싶겠냐! 도핑으로
도 괴물 상대는 되도록하고 싶지않아."



『오즈』 타토 콤보: (@먼산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는 질린다는듯 말합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아니 저거...



Mr. 스마일 페이스: 어디보자



『오즈』 타토 콤보: "합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 제안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보내줘도 위쪽에서 조지거나 처리당하지...?



Mr. 스마일 페이스: ...출구는 우리가 들어온 한곳 뿐?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예, 그렇습니다



『오즈』 타토 콤보: "당신의 배후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저희도 순순히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Mr. 스마일 페이스: 흠.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우리 중 하나로 변신해서 페이크를 치려 해도 무리)



Mr. 스마일 페이스: ...흐으음.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어쩔까아...



Mr. 스마일 페이스: 상대의 안색을



『오즈』 타토 콤보: "아무래도 타케루 씨도 이런 일을 겪은 장본인으로서, 당신을 서포트 하던 곳에 대해선 알아두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테니까 말이죠."



Mr. 스마일 페이스: 살펴보자



『파이즈』 마리: (철덩이로 변신(?))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상대의 안색은



Mr. 스마일 페이스: 일단, 저녀석. 외장을 전개했지만 말이지...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차갑고 고고한 여왕의 모습보다는

몰릴대로 몰린 모습입니다

당연하게도 여유도 없어 보이네요



Mr. 스마일 페이스: ...정말로 저게 발동은 되는 걸까?



『오즈』 타토 콤보: 그러면 진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물을 떠올리면서, 차분한 어투로 이야기를 시도합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왜 이렇게 됐다...?(곤혹



『오즈』 타토 콤보: (아니 어차피 보내도 문제 없는데www



Mr. 스마일 페이스: 라는 생각도 들고...



『오즈』 타토 콤보: (위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잘 구슬려서 정보나 캐낸 뒤에
(잡히게 만들면 되고
(문제는 저게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파이즈』 마리: (흐음



『오즈』 타토 콤보: (대기하는 괴물 둘이 문제니까



『파이즈』 마리: (저게 발동이 되는거라면
(어드미럴이 위험하지?



Mr. 스마일 페이스: ...음, 그건 아닐걸?



『오즈』 타토 콤보: 어드미럴이... 위험...?
우리조차 상대 못 하는
저게...?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
"꺼내긴 했지만 저거 묘하게 비실체같기도 하고"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후우, 빨리 정하라고...그리고 좀 화력 자체는 원본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뭐지 시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포구하나가 움직여



Mr. 스마일 페이스: ".....그렇다고 저것이 마냥 위협용이라고 확신할 물건도 없죠"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빛이 모입니다.



『오즈』 타토 콤보: 흠
좋아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쓸려면 쓸수있어...조작하려면 더럽게 어렵지만!"



『오즈』 타토 콤보: 이지판정을 해보자.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너희정도는 가뿐하게 날리겠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저기



『오즈』 타토 콤보: 다들 너무 망설이는 거 같으니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저 제로데미지 있는데요
이지나 갈거라 모쿠바!



『오즈』 타토 콤보: 아니 지금 재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괴물이 문제라니깐.



Mr. 스마일 페이스: 다요나.
흠...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다요네.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괴물놈 난데콧타...



『오즈』 타토 콤보: 재 본체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무래도 좋아.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아까 리히토의 크리



Mr. 스마일 페이스: 여기서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지금 해줄까요?



Mr. 스마일 페이스: 오는가...!



『오즈』 타토 콤보: 네
지금 해주세요
ㅎ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요시 이쿠조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리히토는 순간 번뜩입니다.
이거, 보내줘도 좋지 않을까. 그보다 이 상황, 한사람에게 말하면 더 확실하게 해결이 안될까?
그리고
오즈, 진도 떠올리겠죠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해결이 안될까는 무슨 의미지)



Mr. 스마일 페이스: (한사람이 말하는편이 교통정리가 잘 된다는것이지!)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이해했다
(그렇군)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지금 눈앞에 배긴 인물은 악에 받쳐서 눈앞의 존재를 잡으려하고 그녀는 보
다 훌륭한 조율로 일을 해내려합니다.



『오즈』 타토 콤보: (빅- 그러함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지금 이렇게 있는 순간



『파이즈』 마리: (호호호호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본래의 그녀는 무엇을 하는중일까요...



Mr. 스마일 페이스: (와—아—)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적어도 가만히 있진 않고있겠죠



『오즈』 타토 콤보: 프리드리히에게 연락하면 되는 거군.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



『오즈』 타토 콤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진을 힐끔.
교통정리 콜.



『오즈』 타토 콤보: 콜



Mr. 스마일 페이스: 그 악물은
받아둬라
정확한 들어있던 주사위



『오즈』 타토 콤보: "자자, 다들 물러나주세요! 배가 침몰해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말이죠!"
(어차피 잡히면



Mr. 스마일 페이스: 아니 주사기



『오즈』 타토 콤보: (회수되는 물건이겠지)



Mr. 스마일 페이스: ".....하아"



『오즈』 타토 콤보: (아니 진짜 집착하네 인간들아)



Mr. 스마일 페이스: 잠시 멈칫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자



『오즈』 타토 콤보: (목숨은 소중히하는 타입인 거 같고)



Mr. 스마일 페이스: (내가 조지고싶었어....!)



『오즈』 타토 콤보: (잡히면 술까 다 불을걸)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뭔가 깨달았는지 한 번 진한테 힐끔 시선을 주더니 옆으로 비킵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검을 바닥에 꽂자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교착상태 지속하다 배 터지면 싹 다 위험하고..."



『오즈』 타토 콤보: 그러면 진은 순순히 길을 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길을 내줄 걸 요청합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도움받은 처지에, 뭐라 더 말할 수도 없나"



『오즈』 타토 콤보: 그리고 세워져있던 토라클로도, 암전히 접혀 건틀릿으로 돌아가네요.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



『파이즈』 마리: 그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오즈』 타토 콤보: "무엇보다 저는 경비이고, 히어로입니다."



『파이즈』 마리: 한발 뒤로 물러서죠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모두 비켜주나요?



『오즈』 타토 콤보: "누군가가 위험한 일은 해내기 힘들죠."



Mr. 스마일 페이스: 어쩔 수 없지.



『오즈』 타토 콤보: (일은 감당하기 힘들죠
(라고 고친다



『파이즈』 마리: (진따가 했으니 한다



Mr. 스마일 페이스: 비켜주마.



『오즈』 타토 콤보: 비켜줍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안면 가득히 웃는 봉대맨은 비켜줍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웃음이란 본디 이하락
(배터리 같고 올게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스마페
그는 위조한 모습으로 생체병장으로 배를 인질로 여전히 삼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스마페 행운판정

난이도는 7입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오우... 행운인가

rolling 2d6+3

(2 + 6)+3

= 11

아까부터 2/6 자주나오네

성공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또각또각 지나갈때

툑

하고 바닥에 무언가 떨어집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그 떨어진 것을



『오즈』 타토 콤보: (아아 아크 에너지 쪽 관련인가



Mr. 스마일 페이스: 흘끔 눈으로 살핍니다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정신없이 그저 벗어나게된

그는 신경을 쓰지 않는것 같지만

눈으로 살펴보자면

*아까의 날카로운 토끼마크가 새겨진 작은 주사병이네요



타미스케 진: (갯또다제!

노페이스가 확실하게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고선, 벨트를 움직여 변신을 풀고선, 정신없는 노페이스 몰래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프리드리히의 연락처로 현 상황에 대한 걸 알리기 시작합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그 사이, 천천히 주사위병을 확보해둡니다



[위조]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노페이스는 지나가려하고

문앞에서 말다툼이 있었지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이쪽이 안쪽을 보다가



타미스케 진: (프리드리히 씨에게 연락을 보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이내 조금 시간을 끌었다가 비켜줍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지독한 일이라는 데 1페리카



타미스케 진: 그리고 연락을 보낸 뒤, 그저 미소 짓는 얼굴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금 집어넣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연락 자연스러울 것 같은 친구한테 넘겼지만 이 애더 무서워...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노페이스는 벗어나입니다



『드래곤나이트』 키도 리히토: 하는 생각과 함께 변신을 풉니다.



Mr. 스마일 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진



타미스케 진: 아아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당신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타미스케 진: 전화기가 울리자, 그대로 받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봉대를 회수해 봉봉 말면서



쿠사카 마리: (그러고보니 리히토



타케루 타츠야: 숨을 천천히 고르자



쿠사카 마리: (사진 못찍었네!
"하아...."



타케루 타츠야: (이후에 찍었겠지)



타미스케 진: (이후에 찍겠지



쿠사카 마리: "뭐, 직접싸울 필요는 없지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 동지, 연락은 끝났다. 파티를 높일 불꽃놀이가 시작될테니 친구들과 같이 나오는게 좋을거다.



타미스케 진: "하하, 알겠습니다! 아, 노페이스는 산 채로 생포해주세요."



키도 리히토: "...목숨만 붙이는 거 아니지?"



타미스케 진: "아무래도 타케루 씨나, 쿠사카 씨가 불만이 많으셔서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부드러운 그녀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해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더러운 불꽃놀이로군(Cv. 야채왕자))



키도 리히토: 사진 찍으러 (강제로)왔다가 왜 이렇게 됐지 싶은 표정



쿠사카 마리: "불꽃놀이 구경이라도 하러 가면 될까..."



타미스케 진: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고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자는 제스처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서 해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 썩어도 날 배겼다면 장갑과 화력은 보통 전함급은 되겠지. 뭐니뭐니 해도 난 메탈블러드의 최대급 함선이니.



키도 리히토: " "



타미스케 진: "하하, 그건 여러모로 다행인 점이네요.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프리드리히 씨."



키도 리히토: 전화 너머에서 뭔가 얼핏 들렸지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그렇게 평온한 통화가 오가는데



키도 리히토: 못 들은 걸로 하자
@공포



타미스케 진: 자 애들아 나가자



키도 리히토: 사진은 이후 적절한 상황에서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호에엑.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자, 모두 나가자고. 사람을 갖고는 여우사냥의 시간이다."



타케루 타츠야: 그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곤
조금은 당당히 걷습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여러분들은 외부 갑판쪽으로 갑니까?



타케루 타츠야: 아아!



타미스케 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드리히 씨, 밖에서 뵙도록 하죠."



키도 리히토: 아아!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야외 갑판으로 올라가면



타미스케 진: 그러면 어드미랄의 말에 힘차게 답하고선, 전화가 계속되는 프리드리히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끊고, 향합니다.



[메탈 블러드] 어드미랄 히퍼: 그럼 멀리 하늘에서



변신 (GM): 우우우웅-
하고 드론보다 조금 클 검은 전투기들이
하늘에 편대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쿠사카 마리: 멋지군



키도 리히토: 한순간 진지하게 노페이스가 걱정되기 시작한 리히토씨
뭘 해도 처음부터 망한 듯하고 그만둡니다



타미스케 진: 올라오면서 어느 틈엔가 파티장에서 가져온 음료수를 하나 마시면서, 영화 관람하듯 구경하고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영 좋지 못한 표정
을 수습중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예, 그럼 바로 폭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프 체펠린."
그럼 갑판에서
짧게 통화한듯한 그녀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쿠사카 마리: 탄산음료와 팝콘은 있습니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지금 다른 동포들도 포획에 나섰으니. 대파하더라도 억지로 끌어올리죠. 공작함분들도 지원부탁했으니."



키도 리히토: 너무 진심 아닌가 싶지만



타케루 타츠야: "...화려한 불꽃놀이군요."



키도 리히토: 피해가 피해라 뭐라 할 말도 없다
(부당하다곤 안 한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가 차갑고도 열의가 느껴지는 미소로



타미스케 진: "하하,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이네요."



쿠사카 마리: 아래서 닥터 페퍼와 콘소메맛 팝콘을 찾아왔습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말한뒤 손가락을 튕기자



쿠사카 마리: "먹을래요?"

리히토에게 스윙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다른 부하인듯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팝콘과 음료를 가져옵니다



타케루 타츠야: 음료정도만 받아드립니다



타미스케 진: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팝콘과 음료를 받아들고선, 와작와작 먹기 시작합니다.



키도 리히토: "어...감사합니다"



쿠사카 마리: (음료와 팝콘 맛 선정은
(내 취향이야



키도 리히토: 호의에 응해 받아들지만 차마 섭취는 못한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곧 폭격이니. 관측하죠 저희 메탈블러드의 심판의 철퇴는 이런
거라고 보일겁."



키도 리히토: (우연이군 나도 닥페파다



쿠사카 마리: 어디서 3D안경까지 꺼내 남남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배의 앞쪽바다에서



키도 리히토: 이 사람들은 건들면 위험하다는 건 다시 한 번 이해했다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세개의 거대한 생체짐승의 목에 올라탄 여성이



키도 리히토: @첫번째는 팔아넘겨진 당시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손짓하자



쿠사카 마리: (가족은 역린이예요
(하하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마치 까마귀 무리처럼 검은 전투기가
괴물의 머리쪽에서 무수히 쏘아집니다
그리고 잠시후



타미스케 진: 음료 쭈쭈



타케루 타츠야: 어쩌면, 누구보다 우수한 경찰이 났을지도 모르는 이여.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파아아앙!! 팡!!!



타케루 타츠야: 너는 그 길을 잘못갔다. 잘못 가고 만 것이다.



[메탈 블러드] 그라프 체펠린: 멀리서 쏘아오르는
거대한 물기둥이



타미스케 진: 프리드리히가 괜찮다고 말한만큼, 딱히 걱정 없이 팝콘을 씹고 음료를 마시면서



[메탈 블러드] 그라프 체펠린: 이 배위에서도 보이네요



타케루 타츠야: 그렇게, 담담히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며 봅니다.



쿠사카 마리: "팝콘 맛있네요"



타미스케 진: 화려한 물놀이와 불꽃놀이를



타케루 타츠야: ...조금 꼬습다



타미스케 진: 구경하고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시작부터 길 잘못 든 거 아닐까"



쿠사카 마리: "뭐, 살아는 있겠죠"



키도 리히토: "하는 생각이...."



쿠사카 마리: 탄산음료를 한모금



타미스케 진: "하하, 괜찮습니다! 프리드리히 씨가 괜찮다고 말하신만큼, 분명 괜찮을 겁니다.""
"제가 보증하도록 하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동정과 공감은 처벌을 마치고 저희 동포들을 모독한 것의 계산이 끝난뒤."



쿠사카 마리: "그럼 병원정도는 보내주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때까지는 죽이지 않아요."



키도 리히토: "앗 하이"



쿠사카 마리: "그게 더 괴로울지도 모르지만"
(하하하)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미소로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무서운 능력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지만 았았으면, 위인이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길을 잘못갔고, 죄를 지었다."



타미스케 진: (ㅎㅎㅎㅎ)



타케루 타츠야: "그뿐입니다."
끄—덕



쿠사카 마리: (ㅎㅎ)



키도 리히토: 모가지만 붙은 건 보통 괜찮다고 하지 않아라고 말하려다
매우 아름다운 미소에 그만둡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이후 잘 복구해서 그대쪽에도 신병을 넘기죠."
타츠야에게



키도 리히토: 복구는 뭐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로세는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좋은 일이야 타츠야



키도 리히토: 뭐여

@흰눈



타케루 타츠야: "예,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끄—덕



타미스케 진: 팝콘 씹

와작와작



타케루 타츠야: 처음으로 웃어주자

살짝, 아주 살며시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더불어...나중에 제대로 사과를 받아주길."



쿠사카 마리: (하하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타츠야에게 목례를 합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이렇게 잘 풀리게 되서 정말로 다행이네요."



타케루 타츠야: "이해합니다. 저도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들었다면, 다른 대응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에"



타미스케 진: 그 광경을 보면서 팝콘을 넘기고, 잘 됐다며 밝은 표정으로 웃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Q. 친구들을 그런 녀석이 건드렸다면?

A.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콰앙! 콰아앙!!



타미스케 진: (w



키도 리히토: 이 친구가 무서운 거 아닐까 리히토는 생각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멀리서



키도 리히토: 그만두자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타미스케 진: 팝콘 와작와작. 존맛



키도 리히토: 물기둥에 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화려한 야외에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키도 리히토: 아니 뭐... 무섭다고 해도...



타미스케 진: "아, 카레도 있는데 드실 분 계십니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다른 함선소녀들이 이벤트라고

키도 리히토: 개그보정 발동한 하타보다는 낫겠지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말하자 다들 즐기네요



타미스케 진: 다들 즐기는 모습에 자신도 구경만 하다가, 문득 팝콘 씹다가 떠올랐는지 가져온 카레를 떠올리며 묻습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여러분들의 활약덕에 사건은 어떻게 잘 끝난듯합니다.



키도 리히토: 사진각은 판정해도 될까여
(아무말)



타케루 타츠야: ...너 또 카레싸움?



키도 리히토: 카레추



타미스케 진: 상비화템이야
ㅎㅎ



쿠사카 마리: "....카레, 좋아하시나요"



타케루 타츠야: "카레, 군요"



쿠사카 마리: (후일담은



타미스케 진: "가장 간편하게 영양을 챙기기 좋은 식사라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쿠사카 마리: (언니하고 404로 할까)



타미스케 진: "맛도 뛰어나고 말이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카레...뭐, 일흥이겠지만 나중으로."



타케루 타츠야: (....카레에 반응했다!?)



키도 리히토: 물기둥 사진을 찍을지 고민하지만 그만두자



타미스케 진: "하하, 알겠습니다!"



키도 리히토: 하타놈은 저래도 안듣는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저 멀리서 솟아오르는 물보라와



타미스케 진: 프리드리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이 끝날 때까지 펼쳐지는 풍경을 구경하며 팝콘을 씹습니다.
존맛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검은 전투기 편대의 비행



타케루 타츠야: "...그렇지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야말로 파티에 어울리는 화려한 이벤트



타케루 타츠야: "장관이군요."
아아—, 저걸봐, March



쿠사카 마리: "장관이네요"



타케루 타츠야: 굉장한 폭격이야



쿠사카 마리: "자세한 속사정은 숨겨두고 이벤트라고 해둘수있는것도 포함해서"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 안에 한사람의 응징이 있음은



쿠사카 마리: "장관이에요"



키도 리히토: 실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즐길 수 있겠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여러분과 함선소녀분들정도나 압니다.



키도 리히토: 사진으로 남겨둘까



타미스케 진: "그렇네요, 이렇게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풍경입니다."



쿠사카 마리: (움45 정도도 알겠지)



키도 리히토: 검사겸사 할일도 시도합니다
살려주세요



타케루 타츠야: "정말로, 말이죠"



변신 (GM): (그럼 슬슬 끝?



타미스케 진: (아아



키도 리히토: (ㅇ
(리히토는 의장 말고도 사진 찍는중



변신 (GM): 그럼



키도 리히토: (뭐 부탁했겠지..



변신 (GM): 여러분들은 화려한 파티의 행사
그 뒤에 감춰져서 끝장날뻔한 한사람의 구원
그리고 한 무력회사의 우정을 완벽하게 지켜냈네요



타케루 타츠야: "...아, 그러고보면—"



쿠사카 마리: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있군



타케루 타츠야: ".....축하인사와 선물은, 미처 전하지 못했군"



쿠사카 마리: "아, 언니한테 보여줘야지"



키도 리히토: 리히토는 사진 협상중



타케루 타츠야: 멍하니, 불꽃놀이를 보다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짓는다



쿠사카 마리: 사진을 중간에 한장 찰칵




변신 (GM): 이것은 분명 가슴피고 좋아해도 될 일일겁니다.
특히 타츠야는요





키도 리히토: (점프에 구멍 뚫리지 않아서 다행이네)



변신 (GM): (넌 살았다 스마페야


 타미스케 진: (ㅎㅎㅎ)


 타케루 타츠야: 아아...!


 키도 리히토: (ㅎㅎㅎ)

 타케루 타츠야: 살았어... 살았다고...!


--- 클라이막스 씬 종료 ~ 해피엔딩~ ---


 변신 (GM): 그럼 모두 수고했습니다


 키도 리히토: 이벤트 버프로 의장사진 확보(미침)


 변신 (GM): 세션 4 다이달로스 랑데뷰


 키도 리히토: 수고수고


 타케루 타츠야: 했다구


 타미스케 진: 오츠크레


 변신 (GM): 시나리오 클리어입니다

 타미스케 진: 아이엠그루트


 타케루 타츠야: 되자빌런을 쳐죽이기까지 앞으로 2세션인가...
※토끼는 의지로 가득 찼다


 타미스케 진: 이야 고글이 모두의 먹살을 잡고
 끌고 가서
 하드캐리하는
 시나리오였네요


 키도 리히토: 무슨 소리야


 타케루 타츠야: 고글과 진에게
 압도적인 감사...!

 변신 (GM): 타츠야가


 키도 리히토: 진따가 인력거 끌고 저질렀지

 변신 (GM): 모두와 더 친밀해졌음한
 시나리오기도 했습니다

 타미스케 진: 아아

 변신 (GM): 원래라면 더 돕고

 쿠사카 마리: 후우

 변신 (GM): 막막한 일을 의논하면서

 쿠사카 마리: 괜찮아



변신 (GM): 우린 진실을 도와줄게요



쿠사카 마리: 노페이스가 폭죽놀이가 됐으니까



변신 (GM): 하고 했어야했는데...원래라면 그랬는데...



타미스케 진: 진실을 도와줄게요

@빠른 해결



타케루 타츠야: 괜찮아

너희는 최고의 도우미였어!



변신 (GM): 다갓 오노레에에!!



타미스케 진: 아이엠그루트



키도 리히토: 배에 점프 두르기 전에 해결했으니 세이프

(미침)



타케루 타츠야: 감옥에 와서 노페이스를 때려도 좋아.



타미스케 진: 좋아

다 같이 스마페 후일담으로

노페이스 때리러 가자



키도 리히토: 무엇



타미스케 진: 아 대신 진은 때릴 성격이 아니니



타케루 타츠야: 무엇



타미스케 진: 프트티라가 대신 때려줄 거야



타케루 타츠야: 무엇

자



키도 리히토: 앉아라 폭주



타케루 타츠야: 즐거운

정산을 하자



키도 리히토: 리히토는 솔직히 못 때린다

정산이나 하자



변신 (GM): 그럼 이제

다 떠든것 같고

정산을 합시다



타미스케 진: 아아



쿠사카 마리: 난 잘 놀았어!

(하하)



변신 (GM): 일단 시나리오 클리어 경험점 6점



타케루 타츠야: 앗호



타미스케 진: 줍줍



키도 리히토: 슬픈 이야기
줍줍



쿠사카 마리: 6!



타케루 타츠야: 6!



변신 (GM): RTS해서 솔직히 주고싶지 않지만



키도 리히토: 6!



변신 (GM): 완벽한 해결이니
추가로 4점 드려요



타미스케 진: 아아



키도 리히토: 어째서야



타케루 타츠야: 10!



키도 리히토: 10!



타케루 타츠야: TAS추



쿠사카 마리: 10!



변신 (GM): 그리고 이후에는...
일단 가장 먼저온 사람...
바로 나군
이 아니라



타미스케 진: ㅎ



타케루 타츠야: 뭐...라고...



변신 (GM): 시나리오 진행을 도운 사람은...
그것도 나군



타미스케 진: ㅎ



타케루 타츠야: ㅎ



키도 리히토: ㅎ



변신 (GM): 농담이고 이건 리히토와 진중
투표로 받으라



키도 리히토: 진따넘기네요



타케루 타츠야: 흠...
(조금 고민



타미스케 진: 아이엠그루프



타케루 타츠야: 진일까. RP적으로



쿠사카 마리: 진



타케루 타츠야: 고생했고



타미스케 진: 그렇다고 합니다



변신 (GM): 판정적으론 리히토고
RP적으론 진이네



키도 리히토: 진이 RP 고생했고wwwww



타케루 타츠야: RP과로사로는 진이었고, 베스트 다이스는
리히토였지



키도 리히토: 즉 닝큐리는 허접합니다
진따는 신이야!



타미스케 진: 무슨 소리야
다이스가 모든 걸 선택하니
고글이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키도 리히토: 고글킥



타미스케 진: 진따킥



타케루 타츠야: 즉



키도 리히토: 사망



타미스케 진: 사망



쿠사카 마리: 다수결로



변신 (GM): 그럼 일단 진에게 줘요.



타케루 타츠야: 이분법의 신앙으로



쿠사카 마리: 진따네요



타미스케 진: 아아



타케루 타츠야: 둘다 신으로 보면 되겠군



키도 리히토: 우사킥



변신 (GM): 그럼 다음은 풀할때 준비를 잘한 사람...



타케루 타츠야: 변신이려나?



쿠사카 마리: 나 (?)



변신 (GM): 이건 내가 맞으니 내가 챙긴다.



타미스케 진: ㅎ



키도 리히토: ㅎ



타케루 타츠야: ㅎ



변신 (GM): 히힃 기념품 4점째다



쿠사카 마리: 장비는 (?)



타케루 타츠야: 기념품 한가득



변신 (GM): 그럼 다음은...뭐가 더 있더라



타미스케 진: RP쪽이요



키도 리히토: 진따빔
RP머경!



변신 (GM): RP잘했다는



타케루 타츠야: 최고의 Rp 상



쿠사카 마리: 난 아직 6레벨이니



타케루 타츠야: 이 있었지



쿠사카 마리: 티켓을 원하오
(데굴



변신 (GM): 진빠고로
하자



타미스케 진: ㅎ



키도 리히토: ㅎ



타케루 타츠야: 진 이외인가



변신 (GM): 진은 이미 받았고



타케루 타츠야: 흠



타미스케 진: 뭐



키도 리히토: 슬픈 일이다



타미스케 진: 가장 RP질 했으니



쿠사카 마리: 미안해요 카메라맨



키도 리히토: 마더임팩트 마리로 하자



타미스케 진: RP로 선점이 안 되면 솔직히 슬프기도 하고.
이게 낫따



타케루 타츠야: 마마, 아이 킬 어 맨



타미스케 진: 그럼 전 구글에게
넣어요



타케루 타츠야: 고글추



키도 리히토: 난테쿠타



타케루 타츠야: 너의 희생
잊지 않았어



키도 리히토: 고작해야 외상이 걸린 것 말곤 RP 공기였는데여



타케루 타츠야: 기억할게!!(손을 x자로 모으며)



변신 (GM): 그럼 리히토의 자존감 릴리즈
명장면이니



쿠사카 마리: 리히토의 자존감을 릴리즈해 경험점 1점이군 (?)



변신 (GM): 마라도 마마 임팩트도 좋았는데



타미스케 진: 히히히



변신 (GM): 저건 이기기 힘들다



키도 리히토: 난테쿠타



쿠사카 마리: 난 리히토야



타미스케 진: 고글 명장면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쿠사카 마리: 그것도 내가 해버린것 같긴한데



변신 (GM): 고로 존엄을 희생한 리히토



쿠사카 마리: 신경쓰지 않음



변신 (GM): 1점 받아요



키도 리히토: 저지른 건 마리가 아닌가(광
11점이군
위아쓰카나시



타케루 타츠야: 빌어먹게... 감사했습니다...! 콘



변신 (GM): 그리고 뭐가 더 있던가?



타미스케 진: 잠시만요
를 보고 올게



변신 (GM): 올ㅋ



타케루 타츠야: 그그



변신 (GM): @본격 PL이 알려주는 룰



타미스케 진: 일단
끝까지 참여했다도
있던가



타케루 타츠야: 세션에 마지막까지 참가했다.



타미스케 진: ▼세션에 마지막까지 참가했다

이 장소에 있는 전원이 체크한다.

▼세션의 진행을 도왔다

시나리오가 엔딩을 맞이했다면 모든 플레이어에게 줄 것. 전원의 협력이 없었다면 세션은 종료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소 준비, 제공, 연락이나 참가자의 스케줄 조정 등을 했다

이 항목은 GM이 결정한다. 집합시간에 지각하지 않았다면 줘도 좋다.



타미스케 진: 대충 이 3개 정도네요.



변신 (GM): 마지막까지 참여는
전원이니 다 1점씩 준다



타미스케 진: 아아

@줍줍



키도 리히토: (12

마 그게 허에에에한기라



변신 (GM): 그리고 시나리오 클리어 재료템



타케루 타츠야: 11점



변신 (GM): 하나씩 배포해요



타케루 타츠야: 아아!



타미스케 진: EEYO

재료템 줍줍



키도 리히토: 줍줍



변신 (GM): 유사의장 장갑판조각



쿠사카 마리: 11점

그리고 유사의장 장갑판



변신 (GM): 공작함이 회수했다는 재료로 함선소녀의 생체무장, 그중 초대형 전함의 생체무장을 배낀것



타케루 타츠야: 노페이스... 죽었나.



타미스케 진: 그는 좋은 노페이스였습니다.



키도 리히토: 일동 경례



타미스케 진: 왜냐면 좋은 노페이스는 죽은 노페이스기 때문이지.



타케루 타츠야: 아아!



변신 (GM): 성질은 유사하나 그녀의 것보단 약하다. 허나 변질성이 좋아 가공하기 좋을것 같다.
같은 내용의 재료



타미스케 진: 꽤 좋은 걸 주는군

그만큼 쳐맞고 안 디질 정도면 상당한 상위재료겠지.



키도 리히토: 그러게
근데 본체는 살아있니?



변신 (GM): 상위재료인데



타미스케 진: 하하하 무슨 소리아



변신 (GM): 위조품이라
낮아요



타미스케 진: 살아서 스마페에게
운송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살아있겠지



키도 리히토: (절레절레



변신 (GM): 여튼 이걸로 정산곳



타케루 타츠야: 아아!



타미스케 진: YEAH



변신 (GM): 그리고 노페이스는 살라이써요



타미스케 진: 12점 받았다



타케루 타츠야: 마치 중세 크리스마스로군



쿠사카 마리: 11점
티켓은
받는거겠지!



변신 (GM): 티켓은 받고싶나



타미스케 진: 받고 싶어요
@급한놈



쿠사카 마리: 그래, 나하고 진만 쓸수있지!



타케루 타츠야: 8레벨 되려면 11점 더 있어야 하네...



변신 (GM): 다들 레벨을 말해보시오



타케루 타츠야: 나 8



쿠사카 마리: 6렐



타미스케 진: 6레벨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니 7



키도 리히토: 7이오



타케루 타츠야: 8은 소망이었다wwwq



키도 리히토: 8렐되려면 21점 더 필요해오

변신 (GM): 다들 경험점은 같게 짓는데?



타미스케 진: 뭐



쿠사카 마리: 난



타케루 타츠야: 버티는



쿠사카 마리: 경험치 랩업 안함



타케루 타츠야: 전부 티켓으로 올렸고



타미스케 진: 마리는 경험점으로 레벨업이 아니라서
존버맨.



키도 리히토: 버티는 전부 티켓으로 뚫고



타미스케 진: 진따는 늦은 시작.



키도 리히토: 나와 우사기는 한 번 경험점 써서



타케루 타츠야: 나랑 닝닝은 경험점좀 썼다가 이후 티켓펌핑



변신 (GM): 흠

그럼 전원에게 티켓을 주는데
리히토랑 타츠야는
사용한 경험점을 돌려받습니다로
레벨제한은 같다



타미스케 진: 10점 돌려받능가



키도 리히토: 호몽
10점 받나



쿠사카 마리: 10점 돌려받아서
랩업은 못하는거시아



타미스케 진: 좋아



타케루 타츠야: 과연



타미스케 진: 드디어 타토바 콤보를
쓸 수 있게 됐다



쿠사카 마리: 난



키도 리히토: 그렇다요



쿠사카 마리: 경험점 특기하고 상비화에 쓴거



타케루 타츠야:1모자라!!!!



쿠사카 마리: 없음 랩업됐네w



변신 (GM): ㅎ



타미스케 진: 다음 레벨엔 품 체인지 타토바 콤보를 배워야지
7랩! ㅎ



키도 리히토: 난 경험점 특기도 취득해서 시나리오 하나 클리어해야겠다
@10점을 돌려받으며



타미스케 진: 음..
그래 타토바 콤보도 완성 못 했는데
어떻게 품체인지 타토바 콤보를 익히겠어
그러니까 지금 타토바 콤보가 된다
하반신만 변신 못함맨은
오늘부로 하반신도 변신됨맨이



타미스케 진: 된다!!



타케루 타츠야: 경험 59—
퍼킹
1모자라
wwwww



타미스케 진: 후



변신 (GM): 어쩔수없다



타미스케 진: 따라잡으려면 1등 경험점을 23번 정도인가
멀고 먼 길이군



변신 (GM): 출석을 해야했다



키도 리히토: wwwww



변신 (GM): 1등을



키도 리히토: 콤마배틀 힘들킴wwww



변신 (GM): ㅋㅋㅋㅋㅋㅋ
그럼이제



타미스케 진: 초단위의 싸움!



변신 (GM): 후일담만 남았나



타미스케 진: 아아



키도 리히토: 아아



쿠사카 마리: ㅋㅋㅋㅋ
후일담이라면
하고 싶은게 있어!
언니 + 404로 한다



변신 (GM): 무엇인가요?
올ㅋ



키도 리히토: 올ㅋ



쿠사카 마리: 배경은 카페고



키도 리히토: 여긴 조금 고민되니 미루자



쿠사카 마리: 언니에게 우선 일의 보고하는걸로 시작하는걸로!



키도 리히토: (후일담활동안 생각각



변신 (GM): 그럼 마리부터?



쿠사카 마리: 다른 사람이
생각 없다면!



타미스케 진: 아아
마리부터
진따도 좀 고민중



타케루 타츠야: 흠



타미스케 진: 아 그러고보니 이번에 재산점



타케루 타츠야: 다음타자는



타미스케 진: 보상은 저번과 같나요



타케루 타츠야: 내가 야로우



변신 (GM): 아아



키도 리히토: 맞다 재산점이 남았군



변신 (GM): 받은 재산점
x2인데
리히토는 x3



키도 리히토: 경험점이자네?
무엇



타미스케 진: 24점인가



쿠사카 마리: 일한 보상이군



키도 리히토: 36점주



변신 (GM): 리히토는 하타왕자



타미스케 진: 하-타



변신 (GM): 가 지급한 목숨값



쿠사카 마리: 후



키도 리히토: 목숨주



변신 (GM): @님 뒤질줄 알았는데...



타미스케 진: 진은 경비일로 받는 보상인 느낌이군.



키도 리히토: 팍씨



쿠사카 마리: 장비 값 만큼은
벌었다구!



키도 리히토: 고글이 소송걸어도 승소각



쿠사카 마리: ㅋㅋ



변신 (GM): 그럼
마리 후일담부터 개시해요?
다른 사람들 괜찮죠?



타미스케 진: 아아
다이쵸부다
몬다이나이



쿠사카 마리: 아아...



키도 리히토: 아아



타케루 타츠야: 아아
다음타자는 나다



키도 리히토: 후,
3번째하자
(미침)



타미스케 진: 그럼 자동적으로 4번째로군

-- 후일담: 쿠사카 전선~ 과거의 잔상과 조우~ ---



변신 (GM): 그럼 여객선의 화려한 이벤트
이후 빌런의 회수
회복을 완전히 하기전에
마리는 자신의 카페에서
언니와 같이 있습니다.



쿠사카 마리: 빌런에 대한 이야기와-
그 최후인 불꽃놀이의 사진을
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응, 역시 아니었어"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역시 아니었나."



쿠사카 마리: "이모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었고..."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럼 언니는 낙담합니다.
"하긴, 제대로 장례도 치뤄드린 분들이 살아있다면 기적이었겠지만."
"우리처럼 죽지않고 날려진게 아니니까."
하아, 조금 안타까움의 한숨을 쉬자

디스, 철덩이가 레이나를 위로하듯 옆에 있습니다



쿠사카 마리: 마시멜로를 듬뿍 띄운 코코아를 레이나에게 밀어줍니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래도 이야기는 해봤을텐데 얼마나 달라?"



쿠사카 마리: "으음...."

"어...."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아빠를 닮은 사람은 없었어?"



쿠사카 마리: "뭔가 취미라던가 기호는 비슷한데"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호록, 그녀는 코코아를 먹으며 말합니다



쿠사카 마리: "으음.... 뭔가... 어, 뭔가 달라"

"416 이모는 결혼 안한거같고"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뭣?! 가장 먼저 결혼한걸로 아는데?!"

"에초에 이모, 초 미인에 성격도 좋아서 안하는게 이상하지 않아..?"



쿠사카 마리: "조금 신경질적이었어"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런게 다른건가...?"



쿠사카 마리: "그리고 움큐 이모는....."

"....."

뭔가 포장할 방법을 찾다가

".....언니하고 비슷했어"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움큐이모...음, 뭔가 믿음직한 어른이었지."

"응? 나랑? 으음.... 별로 다르지 않다는 소리? 아니면 조금은 덜 믿음직이라던가?"

행복회로가 돌아가는 판단입니다



쿠사카 마리: "어.... 엄마한테 달라붙어있었어"

(잔넌, 시스템 콤플렉스였습니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뭐, 사이좋았으니까? 별로 안다른게?"

"아, 그럼 남은 11씨는?"



쿠사카 마리: "자고있어서 몰라"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럼 같나보네."

그럼 단순히 끄덕입니다



쿠사카 마리: "공포영화를 좋아할지도 몰라"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뭐야, 그게...."

생각할수 없는 표정입니다



쿠사카 마리: "하지만 이정도로 반대고..."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으음...여튼 그 사람들 나도 만나고 싶네..."

그렇게 언니가 중얼일때 었습니다.



[404] UMP45: 딸랑♪

하고 카페문을 열고 몇일전에 봤던
지금봐도 놀랍도록 엄마와 닮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쿠사카 마리: "어서오세요~"



[404] UMP45: "여, 파티때의 꼬마애. 오랜만이네~♪"

그녀는 가벼운 걸음으로 등장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404] HK416: 그리고 이어서

인상쓴 그녀가

한손에 움푹, 한손에 안대쓴 회색장발의 소녀를 등장합니다.

"일전에 평행세계인가 뭔가하던 꼬마애. 너 이야기가 관심있으니까. 제대로! 들으러왔어."

"굳이 이야기하자면 나의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



쿠사카 마리: "...."

순간적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404] HK416: 빨리 이딴거 그만두고싶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리고 이쪽은

멍하니 보다가



쿠사카 마리: "언니가 말하면 이뤄지나보네"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엄마! 아줌마! 이모들!"

하고 말하다가



쿠사카 마리: 커피 머신으로 도주



[404] HK416: "누가 아줌마야!"

하고 레이나가 백드롭당합니다



쿠사카 마리: 4명분의 커피를 내린다

"응, 그럴거라 생각했어"



[404] HK416: "머리에 피도 안마른 꼬마애가."



쿠사카 마리: "언니하고 내가 기억하는 이모는 으음..."



[404] HK416: 손을 탈탈털며 쓰러진 이하 세명을 카페 의자에 던져놓습니다



쿠사카 마리: "성격이 좋았는데"

네명 앞에 커피를 척척



[404] HK416: "하? 나정도면 보살이지. 저것들이랑 저 속을 안말하는 복흑녀랑 거의 반편생을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타케루 타츠야: (영혼의 외침과 함께 박살난 레이나)



쿠사카 마리: "원래 세계쪽 취향대로 탄 커피라 입맛에 맞을지는 몰라"



[404] HK416: 일단 커피를 마십니다.

쿠사카 마리: "제일 먼저 결혼했던 이야기만 들었는데"

-  **[404] HK416:** "음... 역시 탈주를 했어야했나."
-  **타케루 타츠야:** (wwwwwwwwww)
-  **[404] HK416:** 그럼 그말에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  **[404] UMP45:** "뭐야~, 흥국짱이 우리를 버릴리 없다는건 잘알고있으니 무리겠지. 에초에 나도 결혼했다는데 말이야."
그럼 맞은 편의 움사오가 웃으며 말하고
-  **쿠사카 마리:** "....."
-  **[404] HK416:** 뺨침이 가득한 표정의 맨손 각설탕을 집어서
-  **쿠사카 마리:** 결혼한 경위를 말해줘야하는 고민을 하다
-  **[404] HK416:** 손가락으로 튕겨 탄환처럼 움사오에게 쏩니다
-  **쿠사카 마리:** 일단 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  **[404] UMP45:** 캐치하고
바로 커피에 추가
-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럼 언니는 일어나서
-  **쿠사카 마리:** "아빠는.... 음.."
-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잠시 현타가 온 표정으로 있다가
-  **쿠사카 마리:** 언니에게 지원사격을 요청하는 시선을 보내죠
-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음... 역시 416 아...이모가 이렇게 난폭할리가 없어. 움큐언니도 짐짝처럼 들려오지 않고..."
레이나는 중얼중얼하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리의 말에
-  **쿠사카 마리:** "G11 이모는 늘 자고 있지만"
-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아, 아빠는...큰 회사에 테러하는 장비구하는 중에 눈이 맞았다고 들었던가."
-  **쿠사카 마리:** ".....하는쪽이었어?"
-  **타케루 타츠야:** (wwwwwwwwwwww)
(충격적인 반전wwwwwwww)
-  **키도 리히토:** (wwwwwwwwwwwwww)
-  **[404] HK416:** "와, 끼리끼리 만나네. 진짜."
진짜 찼다. 너 같은 표정으로 움사오를 봅니다
-  **[404] UMP45:** "...퍼, 평행차원의 일이니까."
-  **쿠사카 마리:** "일단 회사 사장님이고"
-  **[404] UMP45:** 손이 격진합니다
-  **쿠사카 마리:** "여기 디스도 아빠 회사에서 만든거고..."



[404] UMP45: 잠시 쉬호흡하고 커피를 마십니다



쿠사카 마리: 충전중인 철덩이 쓰다듬어주기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뭐, 416아, 이모도 베테랑 군사령관이랑 눈맞았다고."
"결혼하고 나서 은퇴했다고 들었지만 원맨아미였다고 들었지."



타케루 타츠야: (베테랑 커맨더 아미...)



쿠사카 마리: "응응..."
"웁큐 이모는.... 요리 배웠어"
"언니는 항상 도망쳤지만"



[404] UMP45: "너야말로 무슨 근육마초랑 사귀거야? 안심하고 등말기는 사람이 좋다곤 했지만."
이쪽도 커피마시며 독설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좋은 사람 찾을 수 있겠지, 힘내라 힘—)



[404] HK416: "하, 테러로 시작하는 결혼보다는 낫겠지. 그보다 여기는 군대란거 구시대 유물인데..."
제길, 되는 일이 없어
그녀는 낮게 분노합니다



키도 리히토: (너희들 사이 좋네www



[404] UMP45: "하하, 나는 평소 행실이 좋아서 가능하면 만나겠네-♪"
하하항, 하고 승리자의 미소



[404] UMP9: 그리고 어느세 일어나서
"뭐, 언니는 굳이 그런거 없으면 내가 데리고 살테니 걱정없지만."
웁사오에게 붙습니다



쿠사카 마리: "응...."
"이런 부분이 닮았어"



[404] UMP9: "방가방가! 이전의 미래의 언니의 아이의 예상도 같은 꼬마!"
"그리고...좀 큰버전일까. 너도 언니를 닮아서 귀엽네."



쿠사카 마리: "쌍둥이"



[404] UMP9: 하이텐션으로 말하다가 그말에
둘을 번갈아봅니다
"음...확실히."



쿠사카 마리: "쌍둥이"



[404] UMP9: 가슴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쿠사카 마리: 언니와
엄마(평행세계)와 아이 콘택트



[404] UMP45: "넌 어딜보는거야."
하고 팔꿈치가 웁큐의 머리에 작렬합니다



쿠사카 마리: (응징하자고

(후우



[404] UMP9: "쿠헛!?"

하고 침몰합니다



[404] UMP45: "누군 이렇게 되고싶어서 그랬나...분명 나노머신탕에 신체고정이 일어나서 이런걸텐데."

후, 하고 움사오는 말합니다

덧붙여 그런거 없던 어머니

똑같이 생겼습니다.



쿠사카 마리: "....."

그건 말하지 말자고 생각하면서



[404] HK416: "뭐, 여튼 이번일은 최악이었네. 그 빌어먹을 자식. 얼굴흉내로 괜히..."



쿠사카 마리: 자기몫의 커피를 라떼로 만듭니다



타케루 타츠야: (@데헛페룡)



[404] HK416: "타츠야씨가 베테랑에 숨씨좋은 좋은 몸에 남자라서 희망을 가졌는데...."



쿠사카 마리: ".....그 이상으로 둔감할것같아"



[404] HK416: "빌어먹을 M16사장. 이후에 접촉도 월권으로 막아대다니...."



타케루 타츠야: (엠 너 뭐했어...)



[404] HK416: 이후 추가 어택을 하려다가 막힌것을 한탄합니다



키도 리히토: (형 뭐해...)



쿠사카 마리: (하하



타미스케 진: (www



쿠사카 마리: (빨리 타츠야가 책임지고 결혼하는 수밖에 없군)
(m16과 뽀제하고 말이지)



[404] UMP45: "나는 스마트한 척하는 뇌근은 별로라서 안좋던데."

"차라리 좀 비실해모여도 스마트한게 좋아."

호록하고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스마트한 척 하는 뇌근이란)



[404] UMP45: 겉모습을 보면 평범한 젊은 여자애들의



쿠사카 마리: G11을 슬쩍보면서



[404] UMP45: 겉즈토크로 보이겠군요



쿠사카 마리: 처음부터 안뜨거운걸 내오길 잘했단 생각을 하며 탄창피웁니다



[404] UMP45: 실내용은 혼기를 놓친 여자들의 한탄록이지만요



쿠사카 마리: 분명 가까운 시일에 만날 가능성은 낮겠지



[404] UMP45: 평행세계로 그나마 위안을 갖자는 발버둥일겁니다



[404]G11: 그러던중

돌연

안대를 올리고

G11이 눈앞의 커피를 마십니다.

"아, 괜찮네."



쿠사카 마리: "....저기"

"공포영화, 좋아해?"



[404]G11: "뭔가 다른곳 같지만....뭐, 불법은 아니겠지."

하고 마시다가

그녀는 말합니다.

"아, 응. 취미야."



타미스케 진: (ㅎㅎ



쿠사카 마리: "그럴리 없어!"

혼란상태



타미스케 진: (비실하지만 스마트 계열... PC 중에선 없군요



[404]G11: 뭐지 이 꼬마는 의아해하면서 말하다가



키도 리히토: (진따에게 넘기자

(@명안



[404]G11: G11은 다시 커피에 집중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리히토.)



타미스케 진: (리히토는 스마트 계열은 아니라서..



키도 리히토: (스마트라기보다 신파치고



쿠사카 마리: 그래



[404]G11: "그리고보니 새로 스피래터 영화나왔는데 흥국같이 보자~."



쿠사카 마리: (고글 계열이지



타케루 타츠야: (흥국추)



쿠사카 마리: "....."



키도 리히토: (@언리미티드 찰싹



[404] HK416: 그럼 흥국이라불린 HK는



쿠사카 마리: ".....평행세계라는게 실감이 되기 시작했어"



[404] HK416: 웃는 얼굴로 중지를 G11에게 맥입니다

"난 님친구가 아니에요."

꺾어하고 쳐냅니다.



쿠사카 마리: "....."



[404]G11: "아, 흥국~. 공포영화는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같이 봐야 재미있어~."



쿠사카 마리: "새로 나온 스피래터 영화면..."



[404] HK416: "잠탱아, 꿈속에서 혼자 쳐봐!"
그리고 물리적으로 재웁니다.



쿠사카 마리: "이거?"



[404] HK416: 말업이 핸드건을 꺼냅니다.



쿠사카 마리: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죠



[404] HK416: 표정으로 언어가 전해지는군요
치우지 않는다면 쏘겠어. 꼬마



쿠사카 마리: 접어서 언니에게 토스
"언니하고 같이보면 재미있어"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
그럼 바로 멍하니 흥국의 지독한 폭력성에
현실 부정이 오다가 포스터를 바로 반사적으로 날립니다
그리고 디스가 점프해 가제트 핸드로 캐치
쿨하게 디스는 포스터를 가져다놓으러 이동합니다
"...여튼 평행세계인건가."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옆에서 404사람들이 떠들고



쿠사카 마리: "응, G11 이모는 매번 무서워서 보다가 잤는데"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욕설과 폭력이 오가는걸 보면서 레이나는 말합니다.



쿠사카 마리: 저쪽에서 갈구는 사람이 이불을 덮어주러왔었죠
"...싸울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하자"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그래도, 저분들을 다시봐서 좋다."
뺨고 다른 사람이지만
사이자체는 마리와 레이나가 같은 나이로 살았던
그 세계의 멀지 않았던것처럼 모두 가깝습니다
단순한 손님치곤 지나친 사람들이지만
레이나와 마리에겐 시간이 된다면



[카이저] 쿠사카 레이나: 또 보고싶을, 그리운 과거의 그림자를 볼수있는
인연일겁니다.
(슬슬 끊어요)



쿠사카 마리: (아아
"그럼 저녁, 먹고 갈래?"

--- 후일담: 쿠사카전선~페러렐 스토리~ 끝---



변신 (GM): 짤

마리 수고했습니다



쿠사카 마리: 짠
그럼



타케루 타츠야: 호우



키도 리히토: 포우!



쿠사카 마리: 바람둥이의 결말을 보자



타미스케 진: ㅎㅎ



변신 (GM): 그럼 다음은 도코다



타케루 타츠야: 와시자



키도 리히토: 저쪽의 스페이스께서 대기타고 계십니다



타케루 타츠야: 하지만 바람둥이는 아니다.



쿠사카 마리: 그렇군
양다리(공인?)



타케루 타츠야: 토끼빔



변신 (GM): 그럼 어떤 후일담을
원하는가!



타케루 타츠야: 뽀제와 우리형을 만나다
선물 못줬고.



변신 (GM): 그럼
시작합니다

--- 후일담: 다커 댄 스마페~랑데뷰 그후~---



변신 (GM): 그럼 타츠야는 이번에
상당히 커다란 일에 휘말렸습니다
여차하면 수라장으로 나름 튼튼한 몸이
산산조각 날뻔했죠



타케루 타츠야: 뭐어, 자칫하면 노페이스가 당할뻔 한 일을 직접 겪을 뻔 했으니 말이지!



변신 (GM): 현재 당신은 그날 주지 못한 선물을 줄겸
더불어 당신의 두 친구가
메탈 블러드에서 계산이 끝나 반환했다며
노페이스를 넘겼기에 히어로부서로 운송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일단, 이야기는 했지만, 저 자가 정말로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살아있...었구나?
아니, 살아있는 건...가?



변신 (GM): 뭐, 뭐제의 말로는
프리드리히는 마법이라도 부리듯 계획하고 바라는 일에
실수나 실패는 없다며
제대로 결과가 온다고는 들었지만
이게 정말로 이뤄질줄은 몰랐습니다.
사고사하지 않은게 이상하고...



변신 (GM): 쓸만한 가공소재라면서
다수의 사과문과 몇고급진 맥주와 안주류등의
선물, 더불어 묘한 철조각도 받았죠
여러모로 해양부서는 적대하고 싶지않은 세력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하지만... 사죄전물이 통일한듯 안주와 술 종류라는 것은 조금 신기한걸"
지츠니 흥미부카이!



변신 (GM): 대략 대부분 메탈블러드 전함급이나 중순양급 이상은
다 음주력 90대
(독일! 음주!



타케루 타츠야: 뭔가 두사람이 한가득 받아온 사과선물 같은걸 받으며 작은 감상을 남깁니다.
괴물들 뿐이군...!



변신 (GM): 어쩌면 이 회사는
다들 음주가무에 미쳐있는 이종족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게 아닐까
순간적으로 실없는 생각이 선물 받을시는



타케루 타츠야: 이게 그 환상향(SF)인가 뭔가하는 그거냐?



변신 (GM): 들었을겁니다
여튼 메탈블러드 본사에 당신은 초대되었고
엘레베이터를 타고 관계자의 출입금지동에 가면



[메탈 블러드] M16: "왔나, 해매지는 않은 모양이네. 이제야 그 일이 마무리야."
언제나처럼 코트를 입은 당신의
친우가 당신을 반갑니다



타케루 타츠야: "히어로 부서 건물도 꽤 복잡하니까, 건물에서 해매는 일은 적지"
해매지 않는다고는 안했다.
농담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곤,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메탈 블러드] M16: "뭐, 거긴 전선기지랄까. 건축물과 같은 첨단 기계덩어리니까."
"도대체 무슨 기술로 만든걸까...."



타케루 타츠야: "그건 부장급이나 건축사 정도나 아는 기밀이 아니려나"



[메탈 블러드] M16: 농담이었지만 M16에겐 굉장히 신경쓰이는 일이었나봅니다.



타케루 타츠야: "어쩐지 변신로봇이라는 설도 있고"

유명하지, 그 이야기— 라는 느낌



[메탈 블러드] M16: (메메타: 우주비행이 가능한 전함검 초대형 로봇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지자스



[메탈 블러드] M16: "아, 소문은 들었지만...아무리 초차원전쟁후로 이차원기술 도입으로 여러가지 일어났지만 말이 안되지. 만화도 아니고."



타케루 타츠야: "뭐, 그도 그런가"

@플래그

"그런데, 뭐제는?"

분명 둘이 같이 일하지 않던가?



[메탈 블러드] M16: "아, 감시. 한눈팔았다간 다른 사람을 속일것 같아서."



타케루 타츠야: 라는 느낌이고, 물어봐두지



[메탈 블러드] M16: 가둔놈이 놈이다보니

하고 M16은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아... 그 자의 감시인가..."

"확실히,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메탈 블러드] M16: "구속은 했지만 헛소리로 흘리지 않게주의하고. 운송은 미리 히어로부서에 넣은데로 네가 데려가줘."

"물론, 그전에 너에게도 들려줄게 있어서 부른거지만."



타케루 타츠야: "들려줄 것, 이라면?"



[메탈 블러드] M16: "일단 가서 이야기하자."

그럼 M16은 이동해서

민벽인것 같은 곳에 손짓하니 문이 튀어나와 열리고

안에는



[메탈 블러드] M16: "아, 타츠야. 엠. 왔구나."

군장도로 납도하는 M16이 보일겁니다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 앞에는 도롱뱅이처럼 머리를 제외하고 천으로 구속된 노페이스가 있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음. 별 문제는 없...던 것 같네"

고덕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럼 노페이스는

타츠야를 보고 눈과 입의 윤곽정도만 있는체로 말합니다

"제길, 함선소녀들이 굉장한 화력과물인건 알았지만 그정도로 굉장할 줄은 몰랐네."

"이제 나는 끝장이고. 하아...겨우 신분증명이 힘든 내가 겨우 모은 재산의 보복을 가능했을텐데."

하고 실소하며 타츠야를 보고있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 정도의 노력이었다면, 다른 일로도 대성했을 수 있었겠지만—"

"확실히, 그렇게 되겠군요."

지금의 그의 모습에, 끝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에 긍정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단독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 집념으로 이루어질뿐 한 범죄는
보통의 것이 아니었으니, 그 집념만큼은 인정합니다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뭐, 애초에 반쯤인거야. 히어로로는 힘과 목숨을 거는 정의감 부족, 큰일을 하기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모자랐다."

"단지...내가 잘못 벌집을 건드린것으로 바닥일때 **그쪽이랑 악연인 쪽이 도와준다고 말해서 이번일은 한거지.**"



타케루 타츠야: "이쪽과 악연인 곳... 이라"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메탈 블러드] M16: "뭐, 우리랑 인연인데 큰손이 될건. 아무래도 뿌리가 남아있었나보네."



타케루 타츠야: 밑바닥에 떨어져 내린, 범죄자를 체스의 말로 이용하는 방식.
단독의 손으로 불가능할 넓은 정보망.
자신들과 큰 원한이 있을 무리



[메탈 블러드] M16: 진짜로 부활하는건 바라지 않았을텐데...하고 한숨을 쉽니다



타케루 타츠야: "티파티... 인가"



[메탈 블러드] 뫼제: "그놈들이 새로운 머리를 얻고 움직는 것 같다."

"우리쪽 구역에서 정산을 할때는 말이 없었지만 갑자기 이쪽에 오고 말하기 시작했어."
뫼제는 차갑고 깊은 눈으로 말합니다.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애초에 누구에게나 떠벌리라고 들은게 아니니까."

"내가 실패해서 잡히면 꼭말해주라더군. 잡범에서 그 이상이 될수있게 해준 곳이니 마무리를 할뿐이야."



타케루 타츠야: "...요컨데, 선전포고의 역할까지 말았다는 거로군"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거기서 주저 ~~않았다면~~ 가치가 없고, 살아남았다면 휴식시간이 끝난 종의 역할이라고 나에겐 말하더군. 품잡는걸 좋아하는 놈들이야."

"덧붙여 히어로부서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네놈들이 직접말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김에 말해주지."



타케루 타츠야: "...흠. 과연"



[메탈 블러드] 뫼제: "....귀찮아."

눈앞에 있는 존재가 틀림없는
꼬리, 단말조차 안되는 존재이지만
확실히 티파티는 조직으로서 인사를 해온겁니다.
자경단이 베어넘긴 몸을 다시 이어붙여 다시 일어났다면서 말이죠.



타케루 타츠야: "...싫은 놈들이 돌아왔군"

무거운 침묵은 천천히 입을 열어, 그들이 돌아왔음을 인정하는 말을 꺼냅니다.



[메탈 블러드] M16: "짜증나지만 대비가 안되고 뒤통수 맞는것보단 좋네."

시원시원하게 M16도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수년도 지난 긴 시간을 넘어, 끔찍한 적이 돌아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들도, 우리도 이전이랑은 다르니까."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 *이능을 증폭시키는 약병*, 내게 없었으니까 너희가 회수했겠지. 그걸 단순히 알림 용에게 주는 조직이다."

"그리고 발전한 기술력만큼 놈들도 뭔가 손에 넣었어. 그놈들 대단했다고. 악행으로 밥벌어 먹는 놈들에겐 동경할 조직이었다."



타케루 타츠야: 그 이야기에 묵묵히 입을 다물며 서 있다가

잠깐 한숨을 내쉽니다.

—상념도, 고민도 내보내듯이. 그리고, 언제나의 눈으로 고개를 들죠.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놈들의 적인 네놈들이니 응원은 해주지. 난 구경도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야 역시 난 사기꾼이 한계였어."

"적어도 그 *사람*만큼 묘한 매력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타케루 타츠야: "그들이 돌아왔어도, 해야할 것은 변하지 않지"

"...일단은 이야기해두지. 노 페이스. 전령의 역할, 수고했다."

"두 사람도, 즐거웠어야 할 축제날부터 지금까지 고생하게 했군"



[메탈 블러드] M16: "...아니, 잠만 타츠야."

그럼 M16은 조금 나노머신을 전투용으로 전화했는지 머리카락을 하얗게 물들이며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 모습에 M16을 보자... 살려주세요!



[메탈 블러드] M16: "노페이스, 마지막에 봤다던 매력어쩌구. 얼굴..흉내낼수있겠지?"



타케루 타츠야: "...흠?"

—아, 확실히.



[메탈 블러드] M16: "어물쩍 넘어가지말고. 최후의 전령까지 남은 정보도 다 뽑아내달라고."



타케루 타츠야: 어시스트 고마워요, 우리형!



[메탈 블러드] M16: 그럼 터프한 우리형의 말에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노페이스는 말합니다.

"좋아, 최후의 서비스다."

"이 얼굴이었어."

그럼 검은 연기의 얼굴이 변하고



[티파티] 매드헤터 3세 : 이내 하얀 실크햇 모자를 쓴

금발의 남성의 모습이 됩니다.

"그 남자는 자길 3세라고 불러달라고 했지."



쿠사카 마리: (누가 상처입은 빨강을 데려와)



키도 리히토: (그만둬, 그 호칭은 사망플래그다



쿠사카 마리: (재가 그랬어요!)



키도 리히토: (무엇



타케루 타츠야: 타입문의 사망플래그 면상이...

"3세, 인가"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리고 검은 연기후

다시 모습이 돌아옵니다

"그럼 얼른 보내줘. 어차피 이게 전부인 나는 유감스럽지만 그쪽도 이게 최고이자 유일한 역할이라며 보냈을 뿐이니까."



타케루 타츠야: "...그러지"

이녀석 자존감 겁나 낮네!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러니까

(담력이 강한거시다

(단지 예기치 못한 배빵연타는

(멘붕시킬만했어요



타미스케 진: (ㅎ



타케루 타츠야: 가엾은 놈...



키도 리히토: (ㅎ



타케루 타츠야: 일단 후송준비를 하자



[얼굴없는 자] 노페이스: 그럼 이렇게 노페이스는 후송됩니다.



변신 (GM): 실제 희생자는 없고, 경범죄자정도의 일만 했지만

그 능력자체의 악용도가 무섭기에 감찰하고 케어의 가능유무를 확인한다고만

히어로부서는 전달받고 말했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배를 인질로 잡고 협박했던 것도, 한 몫 했을터이지.

슬픈 일이다.



변신 (GM): 그럼 공적인 일도 끝냈고

사적인 일만이 남았습니다

(묘사를 하고 둘과 만나겠나, 아니면 묘사만하고 패스하겠나



타케루 타츠야: "그럼... 이걸로 한 건, 마무리인가"



변신 (GM): (초이스!



타케루 타츠야: 전자로하지

어차피 시간상 4명다 후일담하는건 무리니

조금 욕심부리겠어 죠쵸!



변신 (GM): (아아! 리히토와 진따는 내일하는게 좋겠군!



타미스케 진: (그럼 슬슬 누우러 갈까



변신 (GM): 이게 시작일지 모르지만

그럼 더 심해지기전에

당신은 기념일이 그놈들에게 방해받은

두 친구를 챙기러가야겠쵸



키도 리히토: (아아!



타케루 타츠야: 아아!



변신 (GM): 친구네 집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딘가 초대
?



타케루 타츠야: 흠...

(잠깐 고민)
가는 것으로 하지.
초대하기에는 내 센스가
기적적으로 모자라다 모쿠바



변신 (GM): 그렇다면 다이스에 기대서

PC의 센스가 있었는지
확인해봅시다



타케루 타츠야: 또인가!



변신 (GM): 1d100으로 높을수록 센스있다

스스로 못한다면
다갯에게 부탁하시오



타케루 타츠야: 후... 후후(떨림)



변신 (GM): 1일수록 스마페한다

@명사



타케루 타츠야: 받아라, 스크류펀치!

rolling 1d100

(68)

= 68

무난히 세이프.



변신 (GM): 지극히 무난



타케루 타츠야: (무난히 세이프)



변신 (GM): 무난에서 털난정도

고로 적당히 개인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자신들끼리 조출한 파티라도 열면
좋지 않을까로
타츠야는 생각이 듭니다.
(무난오브 무난



쿠사카 마리: (무난왕 타츠야



타케루 타츠야: 그 때, 타츠야의 뇌에 전류가 내달렸다...!

정도의 느낌으로 홈파티를 제안합니다.



변신 (GM): 그럼 둘은

칼승낙을 하고

스마페의 집에 둘은 방문합니다



[메탈 블러드] M16: 저녁쯤 회사에서 돌아온 M16은 음식거리와

술을 한박스 들고왔습니다.

"여긴 술창고가 없으니까 적당히 가져왔어."



타케루 타츠야: 이러니저러니, 부족하다지만 나름의 자취하는 자...! 이런저런 기본준비는 해놨다...!

"뭐, 개아용의 술 창고같은걸 준비할 크기는 안되니까"

개인용(오타정정

"아무래도 혼자 사는 집이니까 말이지"



[메탈 블러드] 뽀제: 이쪽은

콧수염안경을 쓰고왔습니다.

"파티니까."



타케루 타츠야: 혼자 산다고는 해도, 방 두 개 정도는 되는 집. 타츠야의 성격탓으로 이런저런 정리정돈은 잘 되어있다!



[메탈 블러드] 뽀제: 짹막하게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파티니까... 인가"

"....냐도 준비할겄 그랬나?"



[메탈 블러드] 뽀제: "파티의 정석이란 책에서 봤어."



타케루 타츠야: 급격히 심각하게 고민한다.



[메탈 블러드] 뽀제: "그리고 케익도."

손에 케익과 두사람용 콧수염 안경도 내밉니다."



타케루 타츠야: 두 사람 몫도 가져온건가...!



[메탈 블러드] M16: 그럼 박스를 내려놓고

엠도 장비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좋은 준비성이다. 훌륭한데"



[메탈 블러드] M16: 동그랑안경에 장난감 콧수염

미형의 얼굴이라 오히려 웃깁니다



타케루 타츠야: 마찬가지로, 물건을 받아 옮긴다거나 하면서 자신도 받아서 장착한다.

이것이 궁극의 콧수염!



[메탈 블러드] M16: "푸웃, 크하하하! 이거 꼬마나 할법한건데...꼭고웃..."



타케루 타츠야: "뭐, 가끔은 좋지 않아?"



[메탈 블러드] M16: 그럼 안경을 쓴체로 타츠야나 자신을 보면서 말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분위기도 가벼워지고"

더불어서, 너희 상태는 이래.
라면서 거울을 꺼내와 보여주자.



[메탈 블러드] M16: "후후히, 뽀제가 준비했으니까 당근..크후하하."
그럼 이쪽은 뽀고



[메탈 블러드] 뽀제: "....흠, 옛헴."



타케루 타츠야: "더불어서 나는, 어디보자...."



[메탈 블러드] 뽀제: 하고 이쪽은 거드름핍니다



타케루 타츠야: "....맙소사, 끄찍하게 안어울리는군"
이정도로 안 어울릴줄이야.



[메탈 블러드] 뽀제: 타츠야는 웬지



타케루 타츠야: 라면서 되려 놀라준다



[메탈 블러드] 뽀제: 옛날옛적 흑백영화란 것에 나오는
마피아처럼 생겨졌습니다
사람을 썩죽인것 같아졌네요
"그런데 갑자기 파티라니 무슨일이야 타츠야?"
한차례웃고 떠들다가
파티 테이블 세팅을 하던 뽀제가 물어봅니다



타케루 타츠야: 한참 케이크를 준비하다가, 그 이야기에 살짝 멍칩니다.



[메탈 블러드] M16: "그리고보니 집에 초대하는 파티라고 들어서 오기는 했지만 말이야."



타케루 타츠야: "...지난번에 초대받았던 파티 때, 너희 두 사람 모두 제대로 즐기지 못 했으니까 말이지."



[메탈 블러드] M16: 그재서야 둘은
아아, 하고 떠올립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 대신. 이라는 감각으로 조출하게 생각해봤지"



[메탈 블러드] M16: "....뽀야! 눈치광 타츠야주제에 배려해주기는!"
하고 팔꿈치로 옆을 간지럽게 찌릅니다



타케루 타츠야: "그 때는, 모처럼이었는데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메탈 블러드] M16: "괜찮아, 아무튼간에 그런 고지식한건 알아줘야한다니까."



타케루 타츠야: 음, 음, 하고 찢리면서 침음성을 흘린다. 간지러워!
"타고난 성격의 문제니까, 이것만큼은 나도 어쩔 수 없어"



[메탈 블러드] 뽀제: "난 개인적으로 고마워. 결국 나의 가족, 동지들을 위해서 타츠야는 힘냈고."
"나도 챙겨준다는 소리니까."
무난하고 잔잔하게
뽀제는 테이블을 차립니다.



타케루 타츠야:콧수염 안경을 끼고 그렇게 말해도...
...응, 굳이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것은 좋을까.

"게다가—"



[메탈 블러드] M16: '...아마 이미 콧수염안경과 동화한걸거야.'



타케루 타츠야: 슬쩍, 일어나서 저벅저벅 주방쪽으로 걸어가, 일전 선물용으로 사뒀던 것을 꺼내와, 두 사람에게 건넵니다.



[메탈 블러드] M16: 하는 엠의 속삭임도 들린기분입니다



타케루 타츠야: "모처럼 축하선물로 준비했던 것을 주지 못한 채 두는것도 싫었으니까" 나로부터의 프레젠티드, 짜식들아!



[메탈 블러드] M16: "오, 고마워~! 사양않고 잘받을게."
그럼 엠은 그대로 받고



[메탈 블러드] 뽀제: 뽀제도 조금 기대하는 눈으로
콧수염 안경을 깎체로 선물을 봅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술뿐이 아니던가
(아니면 체인지했나



타케루 타츠야: 뭐, 같이 사면서 줄 타이밍 놓쳤고
이것저것 챙겨넣지 않았을까?



[메탈 블러드] 뽀제: "음, 술이랑 장신구도 조금인가."
"기념선물로는 평범하게 좋군."
뽀제는 만족합니다.



타케루 타츠야: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고로 돌면 매번 변변함은게 나오니까"
슬픈 일이다...



[메탈 블러드] M16: "내쪽은 꾸미는거랑은 벽을 쌓았으니까. 술은 바로 마실까."
엠은 장신구를 챙기긴하지만 술은 바로 대기열에 놓습니다.



타케루 타츠야: "꽤나 얻기 어려웠지만, 괜찮은 술이야"



[메탈 블러드] M16: "그럼 더욱 같이 마시고 즐기자고."
"어차피 혼자마시는 술은 맛도 없고 넘 방치하면 쓴 물이 되버리니까."



타케루 타츠야: 아마도 잭 다니엘스. 꽤 옛날의, 훌륭한 술이다
(적당
아마 크로스게이트라던가 생각하면 뭔가 이후의 잡다한 버전이 많이 생겼을테니



[메탈 블러드] M16: 그럼 최후로 언제나의 음주다이스하고 끝냅니까?



타케루 타츠야: 아아!



[메탈 블러드] M16: 물론, 술의 버전은 매번 업데이트합니다
신종 과일이 나올때마다
그럼 히트블러드의 레벨이 우리형을 이기리라 믿고 음주대결롤



타케루 타츠야: 후우!

rolling 5d100

(76 + 93 + 10 + 70 + 83)

= 332

제 길!

아깝다!



[메탈 블러드] M16: 그럼 타츠야는 또 의식이 흐려집니다

아직 엠은 멀쩡히 정신을 유지하는데 말이죠



타케루 타츠야: "이번엔 적당히...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열이올라서 조금 무리했나"

또, 버릇처럼 가득 마신것에 쓴웃음 짓습니다.



[메탈 블러드] M16: 그리고 점점 수마로 빠지는 정신속에



타케루 타츠야: ...너무 마셨군!



쿠사카 마리: (뿔쳐라

(수근수근



[메탈 블러드] M16: 무언가 들리는듯 싶더니

무언가 양뺨에



[메탈 블러드] 뽀제: 감촉이 있었는듯 없는



타케루 타츠야: 몽가... 몽가 당해섬...



[메탈 블러드] 뽀제: 그런 기분이들면서

다음날 언제나처럼

셋이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뜹니다.

여자력은 안보이는 우리형이나

거의 뭔가 혼이 빠진듯한 뽀제....



타케루 타츠야: "....너무, 마셨나"



[메탈 블러드] 뽀제: 뭐, 큰일은 없었겠지요. 다만 이번 시달린 일 탓에 꿈이 아닐까



변신 (GM): 타츠야는 생각하게됩니다...



타케루 타츠야: 멍하니, 결국 술파티가 된 어제의 파티를 떠올리며 팔로 눈을 가린채, 그렇게 중얼거리며 침 음성을 흘립니다.



변신 (GM): (끓겠어!



타케루 타츠야: 아아!

--- 후일담: 다커 댄 스마페~둔감 네버엔드~ 끝---



변신 (GM): 이제



타미스케 진: 타츠야의 인생의 무덤이 가깝군.



변신 (GM): 다들 톡방으로 사출!



타미스케 진: 수고



타케루 타츠야: 각봐서 허그라도 할까 했지만



키도 리히토: 뚜윙!



타케루 타츠야: 각이 안보였으므로
뚜윙!



쿠사카 마리: 하핫
진도가 안나가면 이모를 보내요
(아무말



타미스케 진: 항



변신 (GM): 항
그럼 후일담을 하자



타미스케 진: 아아
이제 다음 세션에서 타토바 해야하므로
बाट 메달을 GM에게 만들게 하기 위해 미리 들었던대로 캐롤에게 조정을 요청할 것이다.
검사 물건도 가지러 가는 겸
타카 메달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겸!



변신 (GM): 타카는 굳이 강화할 필요가 있나?



타미스케 진: 그저 강화하고 싶을 뿐
@솔직
전부 강화해서 기프트: 아이볼 같은 게 아니라 고유명칭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욕망



변신 (GM): 뭐. 지각이 강화되서 나쁜것은 없지만



타미스케 진: 소데스네



변신 (GM): 한번에 하나라고
그리고 검과 셀메달은 전에 말한대로



타미스케 진: 쳇, बात 메달용의 오리지널 기프트 요청과 타카 메달의 강화의 요청은 동시에 못하는 건가.
어쩔 수 없군



변신 (GM): 3점에 재산점 30이네



타미스케 진: 알겠소
@빠리릭



변신 (GM): @차킹



타미스케 진: बात 메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다음 세션에서 타토바 변신을 해야한다



변신 (GM): 데이터는 이후에 준다



타미스케 진: बात메달로 쓸 기프트가 없어서 오리지널 데이터를 호시이
요오시



변신 (GM): 그럼
후일담을 결정해 말해라



타미스케 진: 아아
캐롤에게
가서
बाट 메달을
조정요청할 것이다
데이터는 아마 다음 세션 종료 시에 나올 거 같으니



타미스케 진: 다리로 할만한 기프트: 액셀을 땀땀 기프트로 해두자



변신 (GM): 올ㅋ
그럼 캐롤과 조우로군
그럼 개시한다



타미스케 진: 아아

--- 후일담: 진따이야가~진따와 연금술사~ ---



변신 (GM): 그럼 타미스케 진, 당신은 파티의 경비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전에 부탁했던 메달을 맡긴것으로
무기가 완성되었다고해서 캐롤에게 갈때군요.



타미스케 진: 아아
무기가 완성되었다고 듣기도 했고, 타카 메달을 건넸는데 어째선지 또 생겨나있는 현상을
상담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변신 (GM): 이단문명 기술부로 진따는 방문하고
사전에 허가되어서
하위동 연구원들이 꼬마말고 새로운 상위연구동 장기방문자가 발생하는건가...하고
식겁해합니다



타미스케 진: (ww
식겁해하는 모습들에 어째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 되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동합
니다.
(진따: 머지



변신 (GM): 그리고 연금술의 상위연구동 문으로 도달하면



[오토 스코러] 파라 스후유: 녹색빛의 장발인형씨가 환영합니다.
"타미스케 진씨였죠? 캐롤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안녕하세요. 마중에 감사드립니다."





[오토 스코러] 파라 스후유: "아뇨, 혹여나 날벌래를 달고왔으면 떼어내는게 오늘 일이지요."


그녀는 치맛단을 살짝 올려 인사하고 길을 터줍니다.


 **타미스케 진:** 그러면 꾸벅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건네다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가웃했다가 아. 하고 깨닫습니다.


"그렇네요,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오토 스코러] 파라 스후유:** "조금 커다랗고 징그러운 날벌레가 있답니다."


 **타미스케 진:** (무서운 날벌레다


 **[오토 스코러] 파라 스후유:** 그렇게 그녀는 말한뒤 다시 문쪽에 섭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그렇군요.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선, 터준 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안쪽에 들어가면
여전히 큰 옥좌같은 의자에 앉아있는 캐롤이 진을 반깁니다.
"왔군. 부르면 바로 오라고했지만 여유가 넘친것 같다만."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듯한 것을 던져줍니다.


 **타미스케 진:** "안녕하십니까, 캐롤 씨. 하하, 경비일이 막 끝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자신에게 던져지는 걸 우오오웃, 하고 재빠르게 받아냅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타카메달입니다


 **타미스케 진:** "아, 그러고보니 이 메달 관련으로 상담할 것도 있어서 찾아왔습니다만."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타카 메달이라는 걸 확인하자, 잠시 흠... 하고 생각에 빠진 표정으로 있더니 캐롤에게 물어보네요.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뭐, 좋아. 물건은 이쪽에 완성되었다. 강한 감정의 결정, 에너지화의 매커니즘은 만족스러운 기술이었으니 이야기는 해주지."
하고 캐롤이 가르킨 곳에는


 **타미스케 진:** "하하, 감사드립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푸른 검에 은빛 메달과 닳은 동전이 꽂혀있는 케이스가 놓여있습니다
케이스는 벨트에 달아놓아도 좋겠네요


 **타미스케 진:** 이야기는 해준다는 캐롤의 말에 감사를 표명하고선, 가르킨 곳으로 다가가 놓여진 물건들을 살펴봅니다.
"뭔가 메달이 있네요?"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묘한 손잡이가 칼등에 달린 검
그리고 은빛 메달, 동전 같은 것입니다.

 **타미스케 진:** 자신이 가진 메달엔 없던 것이기에, 신기해하면서 말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네가 가진 메달, 임시로 지칭하지만 고밀도의 욕망을 핵으로 삼고 있으니 코어메달이라고 지칭하지."

 **타미스케 진:** 끄덕끄덕.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걸 좀 로우 코스트로, 효율성 좋게 소모용으로 만든 것이다."
"셀메달이라고 부르는게 좋을거다. 알기쉽게 말하면 1회용 배터리지."

"그 검은 그것을 소모해서 출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만을 추구해서 기본으로 평범한 검은지만."
"코어 메달을 집어넣었다간 망가질테니 주의해라."



타미스케 진: (핑핑핑)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셀메달 사양이니 망가뜨리면 안고쳐준다
하고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이해했습니다, 혹시 셀 메달로 출력을 올리면 어떤 효능이 나타나나요?"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개념적인 부분이지만, 참격의 강화, 참격의 거리상승. 이 두가지 술식정도."
"3개까지는...실험상 ~~배어낸~~디는 행위의 완벽한 체현이다."



타미스케 진: "오오, 대단하네요."
검을 들어올려서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설명을 듣고선 감탄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대신 효율은 굉장히 나쁘고 에너지가 많이들어."
"그걸 보충하는게 그거다."
셀메달을 가르킵니다.
"네 벨트에 장착하면 잉여감정이나 정신에너지를 셀메달로 자동으로 만들어줄거다."



타미스케 진: (슛고이)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대신 ~~그렇게까지 잔뜩나오지 않아~~. 그건 알아둬라."
개량의 여지가 필요하겠지
하고 그녀는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마치 태양광을 받아서 자동으로 충전하는 용량제한이 엄격한 전지 같네요!"
그대로 숙, 하고 벨트가 허리에 나타나더니, 케이스를 집어들어 캐롤의 말대로 벨트에 장착해둡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찰칵하고 벨트옆에 원래그랬던것처럼 붙습니다



타미스케 진: (이것이 기술력!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리고 벨트를 없애면 같이 사라지죠



타미스케 진: (쩨당
"역시 캐롤 씨는 대단하네요! 이런 물건을 빠르게 만들어내시다니."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쌍은 기술력이 있으니까다. 그보다 질문할게 뭐지? 오래 여기에 없는게 좋을거다."
그녀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칭찬에 말합니다



타미스케 진: "아, 별 건 아니고 단지 의문입니다만."
"분명 타카 메달을 캐롤 씨에게 건네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하나가 저한테 있었던지라."
"혹시 다시 되돌아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타카 메달을 되돌려받은 걸 보니 그건 아닌 모양이라."
"무슨 일일까요 싶어서요."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흐음...그럼. 그거 내놔봐."
"그 붉은 메달 말고 다른것들도."



타미스케 진: 그럼 캐롤의 말대로 순순히 타카 메달과 함께 밧타 메달도 건넵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메달을 전부 가져간뒤에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변신하려고 해봐라."



타미스케 진: "넵!"
그러면 캐롤의 말에 기합성이 있는 대답과 함께, 벨트를 꺼내 변신하려고 시도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놀랍게도 다시 한세트가 벨트와 함께
"새로 나온것도 내놔라."



타미스케 진: "아, 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또 내놓으라합니다.



타미스케 진: 그러면 벨트에서 메달을 꺼내서 다시 캐롤에게 건네줍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다시."
그녀는 냉정한 눈빛으로 시킵니다



타미스케 진: 그리고 다시 캐롤의 말에 벨트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변신을 시도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이번에는 타카메달만 없군요.



타미스케 진: "아, 타카 메달만 없네요."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흐음, 아무래도 한개당 3개가 한계인가."
"무한 증식이 된다면 아예내놓으라고 할 예정이었다만."



타미스케 진: (코어 메달 무한 증식이라던가 무서워)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부위까지 생각하면...색당 9개인가. *불완전수군...*"



타미스케 진: "불완전수요?"
처음 알게 된 사실에 자신도 흠흠,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가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연금술은 주로 개념과 법칙에 대해서 물질, 현상화를 하는 마법이라고 할 수 있지."
"덕분에 과학이란 것과 닮은 것도 많다."
"하지만 과학이라기엔 비과학적인 부분이 핵심. 그중에서 *이건... 일부러 불완전하게 만들어진거군.*"
"일부러 완성되지 않을 힘이란다."



타미스케 진: "그랬군요, 어째서 그렇게 만든 걸까요?"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안전장치인지, 아니면 네게 약점을 달고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녀는 돌연 피식웃으며 말합니다.
"네안에 들어있는 그 보라빛 메달들만 생각하면 둘다일수가 있지."



타미스케 진: "으음..."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칼리웃상: 소송)



타미스케 진: (www
"으음, 그래도 저는 만드신 분의 얼굴도 모르니 어느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겠네요."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리고보니 가기전에 상태확인이나 다시하지."

"네가 얼마나 지나면 터지는 폭탄인지 알아볼 필요는 있고."



타미스케 진: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번처럼 상의만 벗으면 될까요?"

상태확인을 다시 한다는 말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묻습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아니, 그냥 내가 알아서한다."

"자세하게 확인하려고하면 또 자극이 심해서 멋대로 폭주할지도 모르니까."



타미스케 진: "확실히 그렇게 되면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끄덕끄덕.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캐롤이 상의의 손을 쑥넣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툭툭



타미스케 진: 암전히 서서 캐롤이 하는 걸 멀뚱멀뚱 지켜보며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리고 잠시후 열받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너...전혀 나아지지 않았잖아!"

"네놈은 자살지원자냐! 내가 방법까지 친절히 말해줬는데 아무것도 안한거군!!"



타미스케 진: "하하,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어떻게 해야할지 다른 분들께 조언을 구하기는 해봤습니다만...."

"에리아 씨의 말은 뭔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스승님의 말씀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뭔가 아닌 거 같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참고로 진은 한때 스승님에게 정조의 위협을 느꼈다는걸로@대충



타미스케 진: (아아

"우선 이 다음에 옛날에 즐겨 보던 히어로물이라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다시한번 말하지만 기억해! 너 괴인일지, 괴수일지 모를 변이가 진행되는 중이다. 네 안에 있는 출력이 굉장한 메달이 자의적으로 너를 강하고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희생과 포기, 청렴한 감정따위 그 안에 든것의 힘의 방해는 못해. 너 괴물로 이성도, 감정도 잃은채 행동할거다."

짜증이 한가득 난다는 표정입니다



타미스케 진: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선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최대한 힘내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럼 짜증 한가득으로 말하는 캐롤의 말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답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제길, 타치바나놈과 다른 방향으로 최악인 놈이다..."



타미스케 진: (고★멘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답답함과 짜증이 극한에 이른 표정입니다



타미스케 진: "하하, 죄송합니다. 그리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흐음. 좋아. 지금 떠올랐다."

그럼 캐롤은 무언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듯

악당 같은 미소를 짓습니다.



타미스케 진: "음? 뭐가 말입니까?"
가웃.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넌 그 메달이 욕망을 먹어치워서 감정과 판단기준도 글러먹은것 같다. 부의 영역의 감정을 스스로 발휘한다는 레벨에 도달을 못하는 것 같으니."
"대화가 가능한 그 자체인 놈과 만나게 해주지. 곧 올테니 만나봐라. 이 연구동의 사람중 한명이니까."
(축하해, 답답하니 사지로 던져버린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타미스케 진: (wwwww
"아, 다른 분을 소개해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놈과 만나서 네가 답을 얻지 못하면 포기다. 히어로부서에 말해 관리대상이 되게한 뒤 괴물로 죽기전에 끝을 맞이하게 해주지. 이게 자비다."
"죽고싶지 않으면 발버둥을 잘쳐야할거다."



타미스케 진: "괜찮습니다, 원래 캐롤 씨의 배려로 이렇게 있는 거기도 하니까 말이죠."
문제 없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진은 확실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시다



변신 (GM): 눈앞의 연금술사는 분명히 거짓없는 사실을 고하고 있는거겠조



타미스케 진: (진짜의 시한부 인생이 시작된다!1
"그러면 그 분은 언제쯤 오십니까?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방문하겠습니다."



[연금술사] 캐롤 말뤼스 디엔하임: 그럼 캐롤이 말합니다.
"곧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으니."
"분명 큰 일을 벌일거다. 그 녀석은 자기흥미위주거든. 네가 싫어도 확실히 알수있을거다."
"
(그럼 끊는다!



타미스케 진: (아아!



변신 (GM): 그렇게 연금술사의 선고를 듣고 진은 구역 한구석에서
히어로부서로 다가오는 검은 장신의 여성의 존재를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현상태 해결상대임을 뇌리에 세기게 됩니다.

--- 후일담: 진짜이야기~진짜죽다~ 끝 ---



타미스케 진: 히힃
시작 2세션만에 목숨의 위기가 찾아왔다



변신 (GM): 그야
나아지는게 안보이고
악화 일직선이면
당연한것



타미스케 진: 후!



변신 (GM): 그럼 톡방으로 슷!
@사출



타미스케 진: 그러고보니
बाट 메달 조정을 부탁... 한 걸로 하자



변신 (GM): ?
아아



타미스케 진: @타이밍을 놓침
그럼 사출된다!



변신 (GM): 아임 컴인



키도 리히토: 로그키다 렉걸림추



변신 (GM): 닝닝님 후일담 야로제



키도 리히토: 요오시
(아카네장야데와 긴상의 기묘한 파르페 중에 뭘 할지 고민중
요시
아카네 급습은 5세션 후일담으로 미루자



변신 (GM): 올ㅋ



키도 리히토: 우선 하타킥을 날리려다 실패합니다
좋아 완벽해(미침)



변신 (GM): 올ㅋ
하타왕자를 조지러 갑니까?



키도 리히토: 조지려 했더니 자리비움으로 하자고
긴상과 만납니다
막상 드롭킥 날리려 하면 못할 것 같고



변신 (GM): 긴상과 만나는건가
올ㅋ



키도 리히토: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기세입니다



변신 (GM): 장소는 아무래도 좋아요?



키도 리히토: 용서해라 사스케
\ (Y) /



변신 (GM): 그럼 프리로해서

--- 리히토 보기 좋은날~그래서 신문사가 이렇게된거야~ ---

-- 후일담입니다. ----



변신 (GM): 그럼 리히토, 당신은 여객선에 사진 찍으러 보내졌다가
뜻밖의 수라장에 휩싸이고
얼굴을 마구 바꾸는 범죄자에

총구도 앞에 뒤보고
여러모로 스펙터클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무려
전부 한사람의 짓입니다.



변신 (GM): 아니, 한 외계인의 짓이군요



키도 리히토: 좋아 용서못한다 사장놈
버드미사일을 날리게 해줘
@미침
그렇게 돼서 사장실로 간 신파치



변신 (GM): 일단 돈은 받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서 사장실로 갔는데



키도 리히토: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야!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사장실에는
하타왕자의 등신대 간판이 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 "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짐은 잠시 고향밥이 그리워져서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아님.]
하고 판넬에 적혀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팍 씨"
@팍 씨
그 1:1 등신대와 글을 보고 육성으로 뵙습니다.
엑스칼리버(CV. 코야스)의 장광설을 들은듯한 얼굴이네요.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예, 어떻게 되었던
현장을 벗어난 사장을 심판할 방법은
지금 리히토에게 없겠군요.



키도 리히토: 뒷목잡고 싶을 레벨을 간신히 제지하며
좋아, 이제 어찌지 젠장
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로 고민합니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그럼 사장실 문이 팍!하고 건너차여 열립니다



키도 리히토: 허미 서벌 깜짝이 ㅏㅇ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어이 하타! 저번에 일하고 보너스로 보내준다면 미녀전화번호가 어째서 애니멀
그자체인 수인인거냐!!!"
"적어도 최근 트렌드는 귀랑 꼬리만이 아냐! 이 빌어먹을 왕자놈! 난 특수취향의 소수자가 아니다!"



키도 리히토: @절레절레
님도 당했음...? 하는 표정으로 판넬을 가리킵니다.
느그 하타 런했어!!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외쳤다가 판넬을 봅니다.
그리고 리히토를 보고

젠장, 하고
마치 지옥을 체현한 계란말이를 보고 먹어야하는 상황에 놓인것 같은
표정으로 구릅니다



키도 리히토: 아하이고 맙소사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그리고 바로 판넬을 꺼낸다음.
짓밟짓밟



키도 리히토: 타에 계란말이에 당했니?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제길 쌍방으로 폭탄돌리고 혼자 튼건가 왕자놈. 제길 다음 의뢰는 배푸쉬로 안주면 안받겠어."



키도 리히토: "아니 그 인간이라면 진짜 할걸요"
"냠시질하고 런하겠지 젠장"
그것보다 그게 지금이야 백킹!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후...당떨어진다. 제길 비장의 파르페라도 보지 않으면 애니멀과 하타왕자 통수당한 나의 분노를 식힐수 없겠군."
"고로 동지끼리 가자. 더치페이."
혼자는 외롭다 고글이여!
하고 제의합니다.



키도 리히토: "이 아저씨 은근슬쩍 날 당뇨루트로 끌어들이려 하는데"
덱 병원 신세 지지 않음? 이라는 듯한 짜게 식은 얼굴로 봅니다.
거절한다곤 안 했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후, 나는 당분에게 침략당하지 않는다. 당분을 지배하는 초 슈가인으로 각성한거다. 고글이여."
"고로 문제없어. 아마 캠페인 종료까지 내가 죽을 일은 없지."
긴상은 진지하게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뭘 대놓고 메타발언하고 있어 이 블러드엣지식 은발파마가"
@성우개그
(블블 라그나와 긴상 성대는 같은 성대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시끄럽다 레오나르도 신지. 너는 너무 믹스라서 본래맛도 모르는 주제에."
"긴씨는 말이야. 개그보정이 없으면 이런 괴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낙은 당분뿐인거야."
"아, 점프도 있다. 덤으로 룸살롱도."



키도 리히토: "하아?! 원판 남아있거든?! 적어도 코X의 범인 한자와씨 급은 아니거든?!"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키릿, 빛내며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룸살롱은 또 뭐여!?"
점프는 그렇다 쳐라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하! 여기는 물주가 있어서 여유찜거든. 여튼 잡설은 집어치우고 먹으러 가자구."
"너도 고생했을테니 당분으로 평온을 찾는거다."
마치 신실한 신자 같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저는 당분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색하지만 가긴 간다는 표시로 고덕이긴 합니다.

그 물주 혹시 긴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이시각 하타왕자

우주선이 소행성군에 맞아서 리턴중



키도 리히토: 아아 안심했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그럼 리히토는 그런걸 모른체

대낮하늘이 반짝이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긴상과 같이 파르페 가게로 향합니다



키도 리히토: "요새 피곤해서 헛것을 보나..."

뭔가 하늘이 번쩍한 걸 본 것 같지만 기분...탓...?

(그리고 불시착하겠지 압니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좋아, 오늘은 디렉스 얼티메이트 블루아이즈 파르페를 도전하러가자고."



키도 리히토: "적어도 한 명의 위장은 버스트 스트림 당할 것 같은데쇼."

"주로 내가!"

@주로 내가아아아아!!!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무려 파르페 컵 3개를 모아서 한개취급하는 궁극의 파르페."

"무려 당수치는 4500에 직격당한다는 금단의 파르페지."



키도 리히토: "이쯤되면 어이없는 걸 넘어서 존경스러운데..."

하지만 갈 수밖에 없다

휘말렸기 때문이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그래야 고글이지!"

그럼 돌격이다하고 둘은 파르페가게로 향합니다만



[안된다 이거] 마다오: 그런 둘의 앞에

털썩하고 너덜한 마다오가 쓰러집니다

"도망쳐라...도망쳐라 리히토..."



키도 리히토: " "

혈관이 파르페에 점령당했니...?



[안된다 이거] 마다오: "괴물이...괴물이 다가오고 있어. 도망쳐라..."

하고 그대로 썸글라스에 금간체로 쓰러집니다.



키도 리히토: "?????????"

음 좋아, 모르겠군

일단 병원에 연락하죠



오렌: (발로 차라

(차는 거다..

(브로리가 벌레 피콜로를 차듯...



키도 리히토: "여보세요, 병원이죠? 여기 글러먹은 아저씨가 쓰러져있는데요..."

구석에 치워놓자
질질질



[철의 간호장] 나이팅게일: 그럼 연락이 되고 얼마 안되서
"확보오오! 그럼 직행합니다!!"
그럼 마다오를 한팔에 든 간이 침대에 던져놓고
그걸 머리위로 들고 차량보다 빠르게
고속으로 날듯 뛰어갑니다



키도 리히토: " "
시바 내가 뭘 본거지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오, 질병관리국 연락은 대체로 가까운 사람에게 환자배송을 부탁하지."
"절대로 살아나겠구만 마다오."
죽어도 살아나겠네
하고 긴상은 느긋하게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좋아 잘 모르겠군
그래서 뭐한테 쫓기길래 뺏어있었나 마다오
하고 선글라스가 기어나온 쪽을 봅니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그리고보니 마다오는 뭐에 진짜 당한거지. 저놈도 개그보정으로 무적일터인데..."
어째서 분위기의 경계선이 무너진걸까
하고 보니 거기에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모두의 시선을 모으면서



키도 리히토: (으아아악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견고 있는 초미인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그 옆에도 초미인이
리히토라면 알겠군요



키도 리히토: " "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한쪽은 공중폭격으로 바다를 분수처럼 만들수있는
폭격을 쏟아내는게 가능한 사람이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이쪽은 그냥 한번 질렀더니 배가 베어나가는
폭력의 권화에 응징도 철저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둘은 사람들의 셔터들 사이에서
벗어나
명백하게
리히토에게 손을 흔듭니다



키도 리히토: " "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저녁밥이라 잠시 스탑



키도 리히토: (웃으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돌아옴!



키도 리히토: (호엑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음, 고글."

그럼 그 상황에 은발편치 파마가 말합니다.

"웬지 겁나 찌는 미녀들이 우리를 보고 흔들고 오는것 같은데 그린라이트인가?"



키도 리히토: "내 이름 어따 팔아먹었냐 편치파마"

"그린라이트라 하기에는 지금 좀 많이 불안한덱쇼"

시선이! 시선이!!!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그렇지?"

이쪽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어째서 저런 미녀들이라는 것보단

함선소녀라는 존재가 최근 불상사가 많아서

타종족과 비지니스나 친분이 아니면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다

절벽중 가장 험난한 절벽쪽에 있는 꽃이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고글이 더 눈에 땀것 같은 평범남과

은발편치파마를 향해서 다가가니 뭐지...하는 눈으로 봅니다



키도 리히토: 심지어 오고있냐www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리히토가 착란할때



키도 리히토: 안돼! 이런 미래는 감당할 수 없어!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어느세 지척에 도달합니다.

"이전 파티에서는 실례를. 안녕하십니까?"

키도 리히토씨?"



키도 리히토: 오 주여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확실히 이름까지 말하며

확인사살을 하네요



키도 리히토: 리히토는 도망칠 수 없다!

도망칠 수 없다!!!!!!!!!!

" "

"...안녕하세요...."

"그...저번엔 심한 광경을...그...."

리히토는 당황하고 있다!



키도 리히토: @식은땀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덧붙여 이쪽은 저의 동포이자 저희 메탈블러드의 해상제공권을 담당하는."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그래프 체펠린이라고 불러도 좋다. 메탈 블러드에 협력한 남자라고 들었다."

마찬가지로 장신의 미녀군요
앞에서니 둘이 풍기는 압력과 카리스마, 미력이 대단합니다.



키도 리히토: 파르페에 위장 나가기 전에 프레셔에 위장 나가게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간신히 그라프 쪽에도 인사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후, 고글 갑자기 아저씨. 급한 일이 생긴것 같아.
"미녀들과 잘있어라."



키도 리히토: "어딜도망가 이 아저씨야"
넌 못도망간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느오웃! 이럴때는 배려해서 보내줘야하는거 아니냐! 이 고글자식! 초 미녀는 좋지
만 이런풍으로 만나고싶진 않았어! 킨씨는 연약해!"
놔라! 놔라 이 고글!



키도 리히토: 이 아저씨 연약을 주장하지만 이러는 거 보면 건강해보이는데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그거야 당연합니다
아마 놓치면 순식간에 시야에서
벗어날겁니다
피지컬 굉장한 아저씨니까요



키도 리히토: 이 인간 힘은 진짜 당분에서 나오는가
블루아이즈 사양도 안 받고 어딜 런하러 그래 HAHAAHA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제길...!"
그럼 킨씨는 잡힙니다.



키도 리히토: 혼자 두면 내 위가! 내 위가아아아!!!
@메타감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음, 친한 지인과 만나는것 같은데 혹여나 방해를?"
그럼 그로세씨가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에...아뇨"
"그냥 여기서 갑자기 두 분과 만나게 되니 당황스러워서"
"저희는 여기 가게에 뭐 먹으러 방문한 거고..."
정신줄은 죽어있지만
입은 상황진행을 위해 움직인다!
움직여라 디오! 나제 우고칸!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아, 그렇죠. 저희 디렉스 얼티메이트 블루아이즈 파르페를 먹으러가는데 일반여
성분들은 힘들테니."
"나중에 리히토를 소환하는게 어떨까요."



키도 리히토: "기다려, 나는 어째서야"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킨씨는 포기하지않고 리히토를



키도 리히토: 그건 네 전문이잖아 망할 펀치파마아아아아!!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제물로 내밉니다. 어딜봐도 깔끔한 회피술이군요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파르페~. 좋죠. 저희도 내지의 디저트는 좋아합니다."



키도 리히토: 라고 긴상한테 눈빛으로 외칩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희망을 부습니다.



키도 리히토: " "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해상이 주 거주다보니 보관이 편한 디저트가 한계니까."
둘다 동행의 의지를 보입니다



키도 리히토: 어....
이거 탈출 가능하긴 합니까?
@진지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후, 포기하자구 리히토."
그럼 어깨를 두들깁니다



키도 리히토: "뭘 상쾌한 표정을 짓고 있어 이 아저씨가"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나도 같이가주지. 감사의 표시로 계산은 네가하면 된다."



키도 리히토: "어이"
@어이
아조시 계산은 아조시가 해라@붕노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어딜보나 네탓이잖냐 이거."
파워당당



키도 리히토: "그렇게 큰 일은..."
"안 했...."
"...나...?"
아니 어그로 끈 건 큰일이긴 한데 어라아-?
@동공지진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길티! 좋아, 파르페는 리히토군이 쓴다고합니다."
그럼 펀치마파가 종지부를 찍습니다



키도 리히토: "오노레 펀치파마!"
@오노레 펀치파마!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고로 여러분들은
티저트점 옥쇄! 분쇄! 대갈채! 블루아이즈 드래곤!
이란 디저트 가게에 들어서
한 좌석에 4명이 앉게됩니다.
창가가 보이는 좌석이군요
일을 종지부 찍은 은발파마는 휴대폰으로 눈과 정신을 대피시킵니다.



키도 리히토: 함선처자들 먼저 자리 양보하자

그리고 펀치파마는 나중에 머리털 밀어버린다

@진심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착석을 하고...저희는 이번에 그쪽과 청산이 안끝난 것으로 기억하기에 왔습니다."



키도 리히토: " "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웃으며 말하네요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나는 그 협력자로서 온거지."

대충 눈앞의 존재들은

구역 분할된 구역을

대체로 불바다로 만들수있는 인원들입니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긴씨는 그 말에 리히토의 어깨를 두들깁니다.

"뺨는 못주울테니 명패라도 세워주마."



키도 리히토: 앉아라 펀치파마

아무튼 대충 뭘 청산인지는 기억이 났...다....났나?

@미안해요 카메라맨 안건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리히토로는 기억이 잘안나겠군요

그럼 여기선



키도 리히토: 젠장 그렇겠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이 지나 행운판정을

해보세요

난이도 10입니다



키도 리히토: 슬프게도 행운이 보정 더 높다

저널리스트 일해라

rolling 2d6+5

(4 + 4)+5

= 13

뭐지 죽을사인가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그럼 눈앞의 과잉전력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자비없는 모습을 목격했어서 더욱이

무지로 인해서 긴장감과 공포감이 폭증하던때

한계에 도달해 한가지를 견뎌지는 떠올립니다.

그리고보니....

"진짜 그런 일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협력하도록하지."

하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이상성옥 사진사도게자때



기억에 지우고싶은 존엄을 날린 그때



키도 리히토: 여길 보세요 신파치입니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리고 그후에
당신은...



키도 리히토: 고글에 금가고 있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의장의 사진을 못찍었었죠.



키도 리히토: 결국 못 찍었냐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저희가 자체가 피사체가 되는게 아니라 의장이 피사체인터라."
"이전의 빛도 갓을겸. 의장의 사이즈로 가장 큰 저와 체펠린이 대표로 왔습니다."



키도 리히토: ""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리히토는 기억하겠죠
그로세의 쌍룡과
체펠린의 철갑의 삼두룡을
뭐, 직는다면 틈없이 찍을수 있겠네요.



키도 리히토: 여길 보세요, 리히토입니다
이벤트를 틈타서 의장사진은 결국 무리였죠
예술은 폭발이다가 중대문제였거든요
"....에...."
"...진짜로요?"
높으신 분들이 이러니 솔직히 무섭다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부담스러운것 같지만... *철혈은 은혜도, 원수도 잊지않고 돌려준다.*"
"그대가 동지들을 도왔다면 할수있는한 도움 일을 도움뿐이다."
요컨데
부담스러워도 돕고싶으니 돕는다는 말입니다.



키도 리히토: 리히토는 생각했다
이건 거절해도 밀고 들어올 것 같다 쿠소
"....그럼"
"호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고!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예, 도움이 될수있어서 다행이군요."
그럼 여러분들은
디렉스 얼티메이트 블루아이즈 파르페
그리고 긴씨는 카오스 맥시멈 블루아이즈 파르페를 따로 먹습니다.



키도 리히토: @퀘앵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후, 어떻게든 잘된것 같군. 리히토!"
(아, 긴씨가 한겁니다



키도 리히토: (왜그래여www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헛, 순간 눈앞의 미녀랑 존재가 공유된듯한 기분이..."
"킨코는 이미 한물간 소재인데..!"



키도 리히토: "당분이 신경색을 점령하기라도 했어?"
짜게 식은 눈으로 긴상을 봅니다.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뭐, 잘해결됐으니 잘된거지. 사진은 잘찍으라고."
"뭔가 수영복특집 같은거하면 우리 사무소로 붙여주고."



키도 리히토: "할까보냐"
사전교섭 없으면 실례야 그거라고 덧붙입니다.
@사전교섭(하타식이 아님, 절대 아님)



[당분탐정] 사나다 킨토키: 이시각 하타



[바지사장겸 민폐왕]하타왕자: 해상근처로 추락할뻔하다가 함선소녀분들 포격에 우주선 대폭발
하늘을 날다



키도 리히토: (예상했었다)
(술술 끊을 각이군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그럼 디저트 타임뒤
리히토는 넓은 공터지역을 빌리고
아니, 정확히는 두사람쪽이 빌린
공터지에서
주변을 가득 매우는 거대한 의장을 목격합니다.
완전 실체는 한순간만 봤겠지만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지금은 계속 꺼내놓으니 정말 거대 괴수군요



키도 리히토: 좀...많이...큵니다...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이쪽도 머리 하나의 위에 올라탔는데
사람 하나가 올라서도 문제가 없고 거대한 철갑룡의 머리 셋이 리히토를 봅니다.



키도 리히토: 어째서 본다(곤혹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물지는 았을테니 걱정말도록. 기본적으로 의장은 소유주의 말을 충성하니."
올라탄 체펠린씨가 삼두룡을 쓰다듬습니다.



키도 리히토: 삼두룡과 눈 마주쳐서 멍때리고 있다가 간신히 고덕입니다.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그럼 삼두룡은 눈에서
금빛 스파크를 연이어 튀깁니다
그르르륵하는 소리가 들린것 같아요



키도 리히토: 여길 보세요 고글입니다, 놀랐죠
조...좋아 일단 자리잡았으니 할 일 빠르게 끝내자
@오래 두면 실례같다는 생각이 든다다다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아, 그러고보니."



키도 리히토: 호엑?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하고 그로세는 웃으며 말합니다.
"포격은 유감스럽게도 여파로 혼란이 생길것 같아서 힘들것 같습니다."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그렇군. 이쪽도 발진은 민간인 생활구니 제공권 침해로 힘들것 같군."
조금 흥흥하지만 의장의 화력은 보일수없어서
미안하다는듯 말합니다



키도 리히토: 솔직히 그건 알고 있었다
"아뇨, 괜찮습니다... 주변에 피해가 생겨서야 본말전도고..."
@굵적
하타가 포격에 격추당한 건 모른다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그럼 사진을 찍습니까?



키도 리히토: 예아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그럼 행운판정 롤로로롤
총 5회
깡다이스로



키도 리히토: 살려주세요
보정없음www?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높은수가 나올수록
좋은 사진
낮으면...으응?
입니다



키도 리히토: 보정 추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4만 갖고 하면 되나 이거..
일단 빠자
rolling 2d6
(6 + 3)
= 9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그냥 다이스만 굴리면 됨요!



키도 리히토: rolling 2d6
(2 + 4)
= 6
rolling 2d6

(3 + 6)

= 9

rolling 2d6

(1 + 2)

= 3

rolling 2d6

(1 + 6)

= 7

rolling 2d6

(4 + 6)

= 10

쥬길거시다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그럼 리히토의 사진 대부분은 의장을 중점으로
2장정도는 조금 일부에
두분이 찍혔습니다



키도 리히토: "...앗"
사진 확인하다 당황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그리고 한장에는....
아예 본인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이 있네요



키도 리히토: ""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찍다보니
홀린듯
찍어버린듯합니다



키도 리히토: 이건 도게자 안건이군
"죄송합니다아아아?!?"
사진 정리하다 식겁하는 고글



[메탈 블러드] 프리드리히 데어 그로세: "으음....못찍힌것도 아니고."
"개인소장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참고로 찍힌건...
1, 그로세
2. 체펠린
3. 난돌다

rolling 1d3

(2)

= 2

올라타던 그래프씨가 로우앵글로 찍혔네요



키도 리히토: 그만두시게

로우앵글이면 위험해!

삭XAE각이쟈!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뭐...나도 좋게 찍혔고 상관은 없다."

"단지 사진을 매매하는 용도로 꺼낸다면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물어볼수는 있을것 같군."



키도 리히토: @얼굴감쌈



[메탈 블러드] 그래프 체펠린: 여튼 이렇게

리히토의 사진이 끝납니다

본래 목적도 달성이네요



키도 리히토: 후나보리당함 Take.2

협조해준 두 사람한테 꾸벅 인사합니다.

사진 미스는 솔직히 꼬에케에케



변신 (GM): 그럼 사진협조를 제대로 해준 둘에게 감사를 표하고

리히토는 돌아갑니다.



키도 리히토: 마 그게 호에에한기다



변신 (GM): 이제 정리하고 하타가 오면 응징뒤에 의장만 찍힌걸 보내면 되겠쥬.

그렇게 길을 건던중



[표류자] 벨트씨: 벨트씨가 여지껏 조용히 있다가

반짝

-리히토, 좋지 않은게 지근에 오는것 같군.



키도 리히토: "....에?"

기다려, 이번엔 또 뭐야 하는 심정이 됩니다.



변신 (GM): 그리고 뚜벅뚜벅



키도 리히토: 고글동절하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변신 (GM): 노을저가는 길목을



[유물] 오젠: 2M에 가까울듯한 거구의 여성이

어깨에 대좌하나를 짊어지고 가고있습니다.

그 중심에 뭔가 칼같은게 꽂혀있네요

그리고 그대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나아가면서 리히토의 지근에 다가온 순간



키도 리히토: ".....?????"



[유물] 오젠: 일순 리히토는 시야가 흐려지고 *순간 무저갱, 아래로 끌려내려가는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키도 리히토: 기묘한 사람이다라는 소감이 머릿속에 뻘.

은 무슨

"-----에"

DTD와도 뭔가 다르...다고...?!



[유물] 오젠: 그리고 눈앞의 여성의 얼굴이 소름돋는 형태로
변모하는-

"비슷한 체질이라니 재미있네. 너랑은 또 만나면 좋겠어."

그리고 불이켜지듯

다시 풍경은 돌아옵니다.

조금은 허스키한 여성의 목소리뒤



[유물] 오젠: 그녀는 이미 당신의 뒤를 지나가고있습니다



키도 리히토: " "

그냥 그 자리에 서있다가 뭔지 파악했을 땐 이미 뭔가 끝나있었습니다.

몬가...몬가 일어나고 있음...

"....방금 건"

@버영



[표류자] 벨트씨: -음, 괴물 같은 인간이군. 아마...그 봉대남의 압박보다 높은 무언가다.

벨트씨가 웅웅거리며



키도 리히토: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



[표류자] 벨트씨: 답해줍니다



키도 리히토: "처음에 본 스마페씨보다 더한 건가..."

뭐지 저 사람@곤혹



[표류자] 벨트씨: -여튼 돌아가자. 저것이 갑자기 었일 생각은 없어보이니.

벨트씨는 등뒤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중인

거구의 여성을 피하자고 제의합니다



키도 리히토: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곤 마저 갈 길 갑니다.

모임? 대체 모임? 하는 당황스러운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시다만

그렇다고 지금 뭔가 하기에다 충분히 너무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오늘!



[표류자] 벨트씨: (그럼 끊는다



키도 리히토: (오우

--- 리히토 보기 좋은날~그래서 리히토가 그렇게 된거야~ 끝---

---- 4세션 [다이달로스 랑데뷰] 종료 ----

변신 (GM): 끄으으웃!!

그럼 남은 이야기는 독방에서!

@사출버튼 연타